

국립국어원 2010-01-53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235-14

2010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경북 경주 지역어)

▣ 연구 책임자 : **최명옥**

▣ 연 구 원 : **박근배**

▣ 조사 지역 :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0년도 중국 흑룡강성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경상북도
경주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
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연구책임자 : **최 명 옥**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경북 경주 지역 출신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구술발화(4 시간 분량), 음운, 어휘, 문법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는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시간은 구술발화 10시간 24분, 어휘 14시간 12분, 음운 6시간 10분, 문법 2시간 40분으로 총 33시간 26분이다.

이 자료는 1900년대 초기에 한국의 경주에서 흑룡강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남방언 특히 경주 지역어에 대해 알려줄 것이며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동북방언과 서북방언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표준어의 접촉으로 인한 간섭현상 interference phenomena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 내의 현대 경주 지역어와 대비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중국 흑룡강성, 동남방언, 경주 지역어, 접촉, 간섭현상, 대비연구

<영문 Abstract>

This paper is a report on Korean language data collected in Heilong Jiang province, China, from the informant born in Gyeongju in South Korean.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July 22 to August 2 in 2010. The data reported here consists of four parts; phoneme, vocabulary, grammar and 4-hour free-speaking materials. The total time of the record data is 33 hours and 26 minutes, which includes 6 hours 10 minutes of phoneme data, 14 hours 12 minutes of vocabulary data, 2 hours 40 minutes of grammar data, and 10 hours 24 minutes of free-speaking data.

This data can give us a good understanding of South-eastern dialect, especially Gyeongju dialect, which has been used by the people moved to Heilong Jiang province in early 1900s. And the data can reflect the interference phenomena by the contact of dialects in North Korea, Chinese, and Standard (South) Korean. Moreover, the data can be used in contrastive studies between Gyeongju dialects in Korea and China.

Keywords: Heilong Jiang province, South-eastern dialect, Gyeongju dialect, contact, interference phenomena, contrastive studies

2010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경북 경주 지역어)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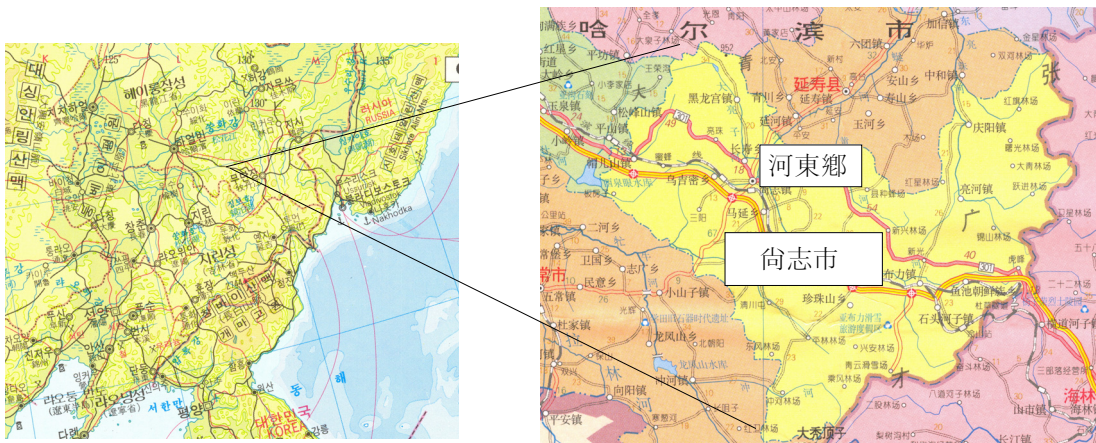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1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15
제 2 편 어 휘	142
제 3 편 음 운	187
제 4 편 문 법	227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한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음성 파일, 작업용 16,000hz 음성 파일, 전사 파일(.trs)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의 얼굴과 전신, 조사 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북부에 있는 성이다. 남쪽으로 길림성(吉林省), 서쪽으로 **내몽골 자치구**와 닿아 있으며, **러시아**와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 성에는 조선족(朝鮮族) 39만 명이 살고 있다.

흑룡강성의 성도(省都)는 하얼빈시인데, 하얼빈시에서 동쪽으로 17km 지점에 상지시(尚志市)가 있다. 상지시는 면적이 9,000km²이고 인구가 60만 명(2008)이다. 상지시는 서쪽의 하얼빈시와 동쪽의 목단강시의 중심부분에 있으며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와 구릉이며 15%가 평원과 언덕이고 5%가 하류와 저수지 등이다. 전체 시 인구 60만 명 중 도시 인구가 22만 명이고 농촌 인구가 38만 명이며 그 중에 조선족(朝鮮族), 회족(回族), 만족(滿族) 등 13개 민족이 있다. 상지시에는 조선족 소학교와 조선족 고·중학교가 있고 하동향(河東鄉)과 어지향(魚池鄉)에 약 2만 3천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조사 지점: 河東鄉>

1.2. 제보자

제보자 김 할머니는 1929년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서 3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윗대의 출생지는 양남면 이며 어머니는 그곳에서 6km 정도 떨어진 경상남도 울산시 에서 출신이다. 할머니는 한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여든 살 되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 둘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했다. 생활이 그러했으므로 아홉 살 때부터 남의 집 소도 먹이고 아기도 보아주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는 등 어린 아이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다(자세한 것은 구술발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참조할 것).

그러다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에, 중국 흑룡강성 상지로 출가해서 현재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주소지는 상지시 하동향 광성촌이지만, 시내에 있는 큰아드님 댁(아파트)에 살고 있다. 큰아들 내외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아들은 상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국으로 나와 일하고 큰아드님은 실내 설비 전문가이므로 매일 일하러 나간다. 그러므로는 거의 낮에는 할머니 혼자 집에 있으며 가끔 가까운 곳에서 떡 집을 운영하고 있는 딸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제보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이름: 김
- 성별 : 여
- 출생년도: 1929년 4월 13일 생(2010년 현재 82세)
- 출생지: 경주시 양남면
- 현주소: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 (中国 黑龙江省 尚志市 河东乡)
- 선대거주지: 경주시 양남면
- 중국 이주: 1944년(16세) 결혼으로 중국 이주
- 직업: 없음(과거: 현주소지에서 농업)
- 학력: 없음
- 제보자 소개: 박 교수와 박 선생이 2009년 선정하여 소개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82세인데도 건강이 아주 양호하며 기억력이 뛰어나. 한국은 다섯 차례 방문하였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맑고 카랑카랑함.
- 연락처:



<조사장면>



<조사자와 제보자>

1.3. 조사 및 조사 내용

1.3.1. 조사

- (1) 조사자: 최명옥(연구책임자), 박근배(연구원)
- (2) 조사 지역: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 (3) 조사 기간: 2010년 7월 22일 - 8월 2일
- (4) 조사 장소: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상지현
(中國 黑龍江省 哈爾濱市 尚志縣)

): 큰아들 집

1.3.2. 조사 내용

연번	파일 이름	녹음 시간	조사내용	내용	날짜
1	CHL_SZ_01	01:30	구술발화	녹음 상태 시험	7. 22.
2	CHL_SZ_02	123:08	구술발화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1.2.(일생의례)	
3	CHL_SZ_03	113:00	구술발화	1.3.(생업활동), 1.5.(식생활)	
4	CHL_SZ_04	125:34	구술발화	1.5.(식생활)	7. 23.
5	CHL_SZ_05	75:50	구술발화	1.7.(질병과 민간요법) 1.8.(세시 풍속과 놀이)	7. 24.
6	CHL_SZ_06	25:49	구술발화	자연발화	
7	CHL_SZ_07	18:25	구술발화	자연발화	7. 25.
8	CHL_SZ_08	22:40	구술발화	자연발화	7. 26.
9	CHL_SZ_09	06:30	구술발화	자연발화	

10	CHL_SZ_10	02:25	구술발화	자연발화	7. 27.
11	CHL_SZ_11	17:25	구술발화	자연발화(전날 제보자가 여행 다녀왔던 이야기)	7. 29.
12	CHL_SZ_12	25:28	구술발화	자연발화(제보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8. 01
13	CHL_SZ_13	70:29	구술발화	자연발화	8. 02.
14	CHL_SZ_01	106:32	어휘	20101(벼)-20533(더덕)	7. 25.
15	CHL_SZ_02	132:43	어휘	20601(쌀밥)-20941(호룽)	7. 26.
16	CHL_SZ_03	123:00	어휘	21001(지붕)-21443(다듬이질)	
17	CHL_SZ_04	143:14	어휘	21501(설날)-21937(목물)	7. 27.
18	CHL_SZ_05	127:42	어휘	22001(복사뻘)-22379(사투리)	
19	CHL_SZ_06	120:34	어휘	22401(물고기)-22921(삭정이)	7. 29.
20	CHL_SZ_07	99:38	어휘	22922(나무)-23441(서풍)	
21	CHL_SZ_01	143:16	음운	31001(테,輪)-32066(짚-,吠)	7. 30.
22	CHL_SZ_02	73:13	음운	32067(꽃-,插)-32162(싫-,厭)	7. 31.
23	CHL_SZ_03	155:02	음운	32163(끓-,卵段)-32362(밖,外)	
24	CHL_SZ_01	73:19	문법	40101(나)-40332(-지)	
25	CHL_SZ_02	88:00	문법	40333(이다)-41116(속담)	8. 01.

구술발화	10시간 24분
어휘	14시간 12분
음운	6시간 10분
문법	2시간 40분
총시간	33시간 26분

- 녹음기 : 마란츠 PMD 660
- 마이크 : SURE SM11

2. 전사 원칙

2.1. 구술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원칙적으로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의 제보자말 뒤에 ‘{@ 조사자말}’의 형식으로 끼워넣었다. 구술발화는 소리나는 대로 전사하되 어간의 기저형을 밝혀서 어미와 구별했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다음에는 (=X)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예, “거기에다 여글 하는데(=만드는데).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주제보자) “@”(조사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생략된 경우 추측이 가능한 경우 (xx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⑤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다.
- ⑥ ‘신형’과 ‘구형’이 구별될 경우에는 ‘(+신), (+구)’로, ‘많이 사용되는 것’과 ‘적게 사용되는

것'이 구별될 경우에는 '(+다), (+소)'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어형'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어형'이 구별될 경우에는 '(+한), (+중국) 또는 (+중)'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별될 경우에는 '(+큰 것), (+작은 것)'으로, 어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어형)'으로 표시하였다. 예. ㉠감: 지'시미라(+구) | 기'이미라(+신) | 기'심(+구) ㉡뽕배기: 웅차'리(+다) | 뚜꾸바'리라꼬(+소) ㉢가을갈이: 가을가'리라 | 추판디'이라(+중국) ㉣접시: 쟁밤'(+큰 것) | 접'시느(+작은 것) ㉤앗공이: 바아'꼬 | 쉼'고(+쇠)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문법 형태(예. -이니?)를 조사할 경우, 조사에 이용된 어간(예. 생일)이 표제 항목의 것(예. 집)과 다를지라도, 전사에는 표제항목의 어간으로 대치하였다. 예. 조사: 생이리나, 전사: 지비나
- ③ 표제 항목에는 없지만 표제 항목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에 대해서는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 또는 “:::”으로 표시하였다.
- ⑤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3. 전사 자료

1.1. 일생 의례

- 1.1.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 1.1.2. 결혼 과정과 중국 생활 1(신혼 초에서 노년까지)
- 1.1.3. 결혼 과정과 중국 생활 2(노년 이후 현재까지)

1.2. 생업 활동

- 1.2.1. 농사 이야기
- 1.2.2.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 1.2.3. 옷 만들기
- 1.2.4. 식생활
 - 1.2.4.1. 채소 재배와 요리
 - 1.2.4.2. 나물 채취와 요리
 - 1.2.4.3. 밀반찬의 조리

1.3. 질병과 민간요법

- 1.3.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 1.3.2. 세시 풍속과 놀이
- 1.3.3. 전통 놀이

제1편 구술 발화

1.1. 일생 의례

1.1.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육년 동안을 산 셈입니까?{육년 동안을 산 셈입니까?}

10201 @ 열여섯살까지.{열여섯살까지.} # 예, 예, 예.{예, 예, 예.}

10201 # 내가:, 우라부지 웨동에.{내가, 우리 아버지(가) 외동(아들인데).}

10201 # 웨동손에 참 딸, 우라부지가 딸로 서이 나았거든요.{외동(아들인데) 참 딸, 우리 아버지가 딸을 셋 나았거든요.}

10201 # 그라고는 마 아버지가 사망하시고.{그리고는 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10201 # 나는 우라부지로 구경도 못했어예.{나는 우리 아버지를 구경도 못 했어요.}

10201 # 내가 한 살 먹어가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까{내가 한 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까.}

10201 # 내가 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데예.{내가 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10201 # 그래 거저 내 우리 할머니카, 울엄마카 그래 서이.{그래 거저 내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그렇게 셋이.}

10201 # 딸들[딸들] 우릭, 우리 여형제가 삼형제데.{여, 딸들 우리 우리 여형제가 삼형제인데.}

10201 # 그으 서이 하고 우리 할머니꺼정, 울엄마꺼정 너, 너이 다섯이라요.{그 셋하고 우리 할머니까지, 우리 엄마까지 네, 넷 다섯이라요.}

10201 @ 예예.{예.} # 예, 다섯이지요.{예, 다섯이지요.}

10201 # 그래, 내 우리 엄마가 참 팔십 나는 시부모 모시고 고생 마니 (@ 아아) 헛심다. {그래, 내 우리 엄마가 참 팔십되는 시부모 모시고 고생 많이 (#아아) 했습니다.}

10201 @ 그으 어머니는 어디서 출생하십니까? 출생지가?{그 어머니는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출생지가?}

10201 # 울엄마는 우린, 저 경산남도.{우리 엄마는 우리, 저, 경상남도.}

10201 # 거 군바아라 하는 데요.{거기 '군바아'라고 하는 데요.}

10201 # 점 심명목 밑에가 그 굼바이라 군바라하는 그계.{저 '심명복' 밑에 그 '군방'이라 '군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10201 # 건, 경산, 난, 남이지요, 예.{경, 경상, 남, 남이지요, 예.}

10201 @ 그러면은 할머니 사실 때 그으, 집에 할아버지 계십니까?{그러면 할머니(가) 사실 때 그,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까?}

10201 # 우리 내가 잇일때 할아버지도 없었어요.{우리, 내가 있을 때 할아버지도 없었어요.}

10201 # 할배도 할아버지 다 세에상 (@ 할, 없고) 뜨고, 예.우라부지 세에상 뜨고{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다 세상 (@ 할, 없고) 뜨고, 예. 우리 아버지 세상 뜨고(=돌아가시고)}

10201 # 우리 할머니카 올엄마카 (@ 아, 할머니는 어디에서) 그으.{우리 할머니와 우리 엄마와 (@ 아, 할머니는 어디에서)}

10201 # 내가요?{내가요?} @ 아니.{아니.}

10201 # 우리, 우리 할머니는 매앵 그으 양남은 양남인데.{우리 할머니는 역시 거기 양남은 양남인데.}

10201 # 어데, 어데서, 예.{어디에, 어디에서, 예.} @ 아, 예, 예, 양남 그 정도면 됩니다. {아, 예, 예, 양남 그 정도면 됩니다.}

10201 # 어데서 출가해신지, 그, 어디 어데 마을에서 오셨는지, 그 머.{어디에서 출가하셨는지, 그 어디 어디에 (있는) 마을에서 오셨는지, 그 머.}

10201 # 디이꼴이라 하는 마을인데, 모리갯심다.{‘뒋꼴’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모르겠습시다.}

10201 @ 그므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까?{그럼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까?}

10201 @ 며살 때부터 기억납니까?{몇 살 때부터 기억납니까?}

10201 # 내가 아홉살때버텨 자꼬 이렇게 **. {내가 아홉살 때부터 자꾸 이렇게 **.}

10201 # 소도 미기야 데고, 남우 소도 미게주고, 얼라아도 바주고 그래가 해가아.{소도 먹여야 되고, 남의 소도 먹여 주고, 어린 아이도 봐주고 그렇게 해서.}

10201 # 고을 떼꺼지마 알지,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모리갯심다, 예.{그릴 때까지만 알지,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10201 @ 그럼 그때부터 저 쯔 (# 예, 예)생활을 말씀해주시지요.{그럼 그때부터 저 쯔 (# 예, 예) 생활을 말씀해 주시지요.}}

10201 # 그래, 우리 할머니카 잇다가 아인기 아이라.{그래, 우리 할머니와 잇다가 아닌게 아니라.}

10201 # 양식이 긴장하니까, 우리 엄마 잇일 때느.{양식이 모자라니까, 우리 엄마 있을 때에는.}

10201 # 자아꾸 우리 엄마가 참 다서 식꾸로 미게 살릴라니까.{자꾸 우리 엄마가 참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까.}

10201 # 우리 엄마 이. 짜. 장사르 장사르 해가주고.{우리 엄마는 이, 장, 장사를 장사를 해 가지고.}

10201 # 짱박에 머리도 없어요, 내애.{정수리에 머리(카락)도 없어요, 내.}

10201 # 내 저어 겨영주 읍내로 땡기고 울산으로: 이래 땡기미 장사로.{내 저 경주 읍내에 다니고 울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10201 # 고기 장사도 하고 미역, 우리가 도율이.{고기 장사도 하고 미역, 우리가 돌이.}

10201 # 이 우리 촌으로 말하자면 땅이 분배 받뜨시.{이 우리 촌으로 말하자면 땅을 분배 받듯이.}

10201 @ 예예.{예.} # 우리는 물에, 우라부지가 우리, 우리 오촌 아재카 삼형제가.{우리는 물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우리 오촌 아저씨와 삼형제가.}

10201 # 저게 저, 배를 쪼매:는 놀 젓꼬(절꼬) 땡기는 그 배를 머.{저기, 저, 배를 조그마한

노를 짓고 다니는 그 배를 뭐.}

10201 # 배를 하나 잇어야.{배가 하나 잇어야.} @ 그렇지요.{그렇지요.} # 무, 물에 돌도 따 분배로 받아요.{물, 물에 돌도 딱 분배를 받아요.}

10201 @ 예예.{예.} # 그래고 뵈, 그 미역돌하고 우리엄마 계실적에 받이.{그리고 뵈, 그 미역돌과 우리 엄마 계실 적에 받이.}

10201 # 시장으로 말하자면 내가 자악년에 여 저어 저자 저 항국 가가 보니까 우리 받이 여그 면적으로 받하마.{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작년에 저, 저기, 저, 한국 가서 보니까 우리 받이 여기 면적으로 말하면.}

10201 # 한 모오, 한 도오모지기는 텔거 곁애, 논하고 밭하고요.{한 마, 한 두어 모지기는 될 것 같아, 논하고 밭하고요.} @ 예예.{예.}

10201 # 고래가주고 내애 우리 할매카 ****그거부카 매애 가꾸우고.{그렇게 해서 늘 우리 할머니하고 장 **하고 매어 가꾸고.}

10201 # 참 달아가주고 양식도 해결하고.{참 (저울에 달듯이) 달아서(=절약해서) 양식도 해결하고.}

10201 # 은자 또: 양식이 쫘 바쁘며는 그 그 머 공, 그으서도 공출로 쫘 바치다가나이 나 암는 것도 없어요.{인제 또 양식이 쫘 모자라면 그것 뭐 공, 거기에서도 공출을 쫘 바치다보니 남는 것도 없어요.}

10201 @ 네예.{네.} # 그래가 미역역 톨애 가가주고 언자 우리 할매가 미역을 뜯아주면. {그래서 미역 돌애 가서 인제 우리 할머니가 미역을 뜯어주면.}

10201 # 내가 빠일고, 우리 엄마 잇일적에 따라댕기모, 그 촌애 가가주고.{내가 빨고(?), 우리 엄마 있을 적애(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 그 촌애 가서.}

10201 # 아아는 집뜰애 아 누구집 누구집애 가며는 양식을 줄끼다, 양식을 쫘 머어라.{아는 집뜰애 아, 누구 집 누구 집애 가면 양식을 줄 거다. 양식을 쫘 먹어라.}

10201 # 머, 머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미역마 갖따주며.{뭐, 뭐(를)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미역만 갖다주면.}

10201 @ 예예.{예.} # 그 아지매, 그 할매가 머어 줄끼라. (기침소리) 이래가주고.{그 아줌마, 그 할머니가 뭐(를) 줄 것이다, 이래서.}

10201 # 참 간, 미역을 해가 이고 가며는.{참 갈, 미역을 해서 이고 가면.}

10201 # 콩도 주고오 좁쌀도 주고 찹, 맵쌀도 주고.{콩도 주고 좁쌀도 주고 찹, 맵쌀도 주고.}

10201 # 보리쌀도 주고, 그래 얻아다가 또 먹고.{보리쌀도 주고, 그렇게 얻어다가 또 먹고.} @ 예.{예.}

10201 # 그으다가 내가 또 언자 열살쭈움 텔 때느.{그거다가 내가 또 인제 열살 쫘 될 때는.}

10201 # 또 인자 이 여어 바구니르 들고 베크, 보리 가실할 때느:{또 인제 이 여기 바구니르 들고 베크, 보리 추수할 때는.}

10201 # 보리이삭도 조오고 나락이삭도 조오고, 고래가 보태:고.{보리이삭도 주워 오고 베크 이삭도 주워 오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보태고.}

10201 # 우리느 이래 바, 부두까 가참아 노이께네.{우리는 이렇게 바, 부두가가 가까워 놓아서.}

10201 # 새벽에 우리 할매가 세시마 데모 깨바아요.{새벽에 우리 할머니가 세 시만 되면 깨워요.}

10201 @ 예예.{예.} # 갯가[객까]가야 야아, '우애'야 일나가주고 저어 바, 바닷가[바닥까]에 가며는.{갯가에 가서 야, '우애'야, 일어나서 저 바, 바닷가에 가면.}

10201 # 도박또 나오고오 미역또 나오고 그런거 다 주우다가 말라가주고.{도박(?)도 나오고 미역도 나오고 그런 것 다 주워다가 말려서.}

10201 # 그래 팔아가주고 보태 시자꼬 그래가아 살아 나왔어요.{그래 팔아서 보태어 쓰자고, 그렇게 해서 살아 나왔어요.}

10201 # 그러다나이, 고리고리 열살이나 열두살[열뚜살] 이래 먹을 때 인자 조끔 힘이 낮이니까.{그러다보니, 그리그리 열 살이나 열두 살 이렇게 먹었을 때 인제 조금 힘이 낮으니까.}

10201 # 우리 오오촌 아재들이, 앓, 숙모들이 자꾸 우리 소도 미게에다알라 열라아도 받.{우리 오촌 아저씨들이, 아(주머니), 숙모들이 자꾸 우리 소도 먹여달라 아이도 봐.}

10201 # 보리방아 짚을 때느 열라아도 바아달라 캐가아 그래그래 또 (@ 아아) 생활을 하고요.{보리방아 짚을 때는 아이도 봐달라고 해서 그리그리 또 (@ 아아) 생활을 하고요.}

10201 # 머어 내 살아나온거느.{뭐 내가 살아나온 것은.}

10201 @ 카아{카} # 그래애가아 흥아 열살 열두살 텔때는 언자.{그래 가지고 ** 열 살, 열두 살 될 때는 인제.}

10201 # 은자, 나무도:, 어느 오오촌 아재들도 또 전, 보국대 가고 없이니까.{인제 나무도, 어느 오촌 아저씨들도 또 저, 보국대에 가고 없으니까.}

10201 # 그저, 가, 내애 갈비로 끝아다가.{그저, 가, 내 술가리를 굶어다가.}

10201 # 내가 나모로 해다 등치등치 묶아가아 언자놓고.{내가 나무를 해서 한 짐씩 묶어서 얹어 놓고.}

10201 # 그래 우리 할매카 아 살았지요, 머어.{그래 우리 할머니하고 살았지요, 뭐.}

10201 # 예예, 그리 사아다가 내, 우리 오오촌 아재느 야양자로 왓, 와앗다가 마 보국대 뽕개[뽕깨]가지 일본으로 가뿌고.{예, 그렇게 살다가 내, 우리 오촌 아저씨는 양자로 왔다가 머 보국대(예) 뽕혀서 일본으로 가버리고.}

10201 # **** 가고 어얼매 아이시이니까.{**** 가고 얼마 안 있으니까.}

10201 # 지신, 내애 그으 나는 일년 이이년이고 그것도 모리젠데, 얼마 안 잊이니까.{지신(?), 늘 그, 나는 일년 이년이고 그것도 모를 것인데, 얼마 안 있으니까.}

10201 # 오오촌 삼촌이 보국대 가가주고 일본 가서 세상 떴다하대요.{오촌 아저씨가 보국대 가 가지고 일본 가서 세상 떴다 하대요.}

10201 @ 아아!{아!} # 그러고는 그냐양 할매카 두울이 잇았지요, 머.{그러고는 그냥 할머니하고 둘이 있었지요, 머.}

10201 # 우리 큰언니는 그으 울산 제전이라 하는 데 그게 갓, 시집가고[시직까고].{우리 큰언니는 그 울산 제전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 갓(=가서), 시집가고.}

10201 # 우리 언니느 매앵 양남인데 고오.{우리 언니는 역시 양남인데 거기에.}

10201 # 앞, 앞마을[암마을]에서 시, 둘째 언니느 고거 시집가고.{앞, 앞마을에서 시, 둘째 언니는 거기 시집가고.}

10201 # 그 안자 우리 할매카 내카 가치 깬, 우리 언니들 둘:이 출가하고는 함매가 그냐양
잇앗지요, 머.{그래 인제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그래 우리 언니들 둘이 출가
하고는 할머니와 그냥 있어지요, 머.}

10201 @ 그러므 형제:: 자매가?{그러면 형제자매가?}

10201 # 딱 삼형제라예, 딱 삼해앵제뿐이라예.{딱 삼형제예요, 딱 삼형제뿐이에요.} @ 예
에.{예.}

10201 # 그리고 인자 저어 그래그래 우리 할매카 생활하다가느, 나이 드니까예.{그리고 인
제 저, 그리그리 우리 할머니하고 생활하다가느, 나이 드니까요.}

10201 # 내애 그저 갈비도 저어:: 한 이이십니 밖에 나아가 갈비로 둥치둥치 끝아오며.{늘
그저 솔가리도 저 한 이십리 밖에 나가서 솔가리를 한 짐씩 굶어오면.}

10201 # 아침을, 아침엔 저언서 위케.{아침을, 아침에는 전부.}

10201 # 부두까에는 전수 바다 진저리 나물 아인나요.{부둣가에는 전부 바다 진저리 나물
있잖아요.}

10201 # 그 녀를 좇어다가 폭 삶아 말라가주고 당가아나앗다 죽도 끼레 묵고.{그 녀를 주
어다가 풀 삶아 말려 가지고 담귀 놓앗다 죽도 끓여 먹고.} @ 그렇지예.{그렇지요.}

10201 # 죽도 죽도 참 한도 없이 먹엇습니다.{죽도 죽도 참 한도 없이 먹었습니다.}

10201 # 그래 할매카 그리 죽 낱이 먹다가나이.{그래 할머니하고 그렇게 죽 끓여 먹다가보
나.}

1.1.2. 결혼 과정과 중국 생활 1(신혼 초에서 노년까지)

10201 # 인자 그리그리 나이 드이 우리 아버님이 참 중국에서, 열여섯살 들던[들면] 해
에.{인제 그리그리 나이 드니 우리 아버님이 참 중국에서, (내가) 열여섯 살 들던 해
에.}

10201 # 아버님이 고양에 가가주고 메느르, 볼라면 메늘로 볼라며 고양에 가가 바야지, 이
카미.{아버님이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보려면 며느리를 보려면 고향에 가서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10201 # 그래, 우라버님이 홀로 나오신편요.{그래, 우리 아버님 홀로 나오셨데요.}

10201 # 그리 나와가주고 우리 할매카 우리: 아버님 어무이 게에실때느.{그래 나와서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실 때는.}

10201 # 고오 요 우리, 우리 오오촌 삼촌네 아리땁에 게에시다가.{거기 요, 우리, 우리 오:
촌 아저씨네 아랫방에 계시다가.}

10201 # 그래노이 이 다아 마음을 알아노이.{그래놓으니, 이 다 마음을 알아놓으니.}

10201 @ 예예.{예.} # 마음, 심덕이 좋기 때면에 이것을.{마음, 심덕이 좋기 때문에, 이것
을.}

10201 # 철도[철또] 모리는 이것을 본, 저게 가가주고.{철도 모르는 이것을 * 저기 가서.}

10201 # 아, 메니리라고 생각하지마고 딸처럼 (@ 네에) 생각하고.{아, 며느리라고 생각하
지 말고 딸처럼 (@ 예) 생각하고.}

10201 # 그래, 자알 가, 잘 키아가주고 자미있게 잘 사라꼬 우리 할매카 마 그리 함의가

데에가아 (@ 예예) 보냈어요.{그래, 잘 가, 잘 키워서 재미있게 잘 사라고 우리 할머니하고 그리 합의가 돼서 (@ 예) 보냈어요.}

10201 # 글때야 머 시집인지 머언지도 모르고 마 어어른들 하는대로.{그때야 뭐 시집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어른들 하는대로.}

10201 # 그래 우라부님카 가치 또 우리 아부님도 그으 구마이라 하는 데 그으 누나들도 [또] 잇고[이꼬] 머.{그래 우리 아버님과 같이 또 우리 아버님도 거기 '구만'이라고 하는 데 거기 누나들도 잇고 뭐.}

10201 # 양남, 양남에 그그느 또 머 조카들도 잇고 다 하니까.{양남, 양남에 거기에는 또 머 조카들도 잇고 다 하니까.}

10201 # 그래그래, 고모, 시고모님이.{그래그래, 고모, 시고모님이.}

10201 # 전에는 미영베로 짜가주고오 글때느.{전에는 무명베를 짜 가지고 그때는.}

10201 # 쫌 돈 돈이 쫌 잇이모 글때 비:단이라도 쫌 한테 전:수 미영베다.{쫌 돈, 돈이 쫌 잇으면 그래도 비단이라도 쫌 하는데 전부 무명베에다.}

10201 # 빨간짓 대애고 이불에도.{빨간 짓을 대고, 이불에도.}

10201 # 이 껌등짓 (@ 예예) 대애, 껌등들 디레가[떠레가] 이런 이불을 시치, 해가아 받아 왔어요.{이 껌은 짓 (@ 예) 대, 껌은 물을 들인 이런 이불을 시치, 해서 받아왔어요.}

10201 # 그래도 이리 잘 사네요.{그래도 이리 잘 사네요.} @ 그럼요.{그럼요.}

10201 # 그래가아 언자 시집이라꼬 떠억 오니까.{그래 가지고 인제 시집이라고 딱 오니까.}

10201 # 그래 우라버님이 암마 날은 간다 해가주고 툃자 우리 오오촌 아재하고.{그래 우리 아버님이 아무 날에는 간다고 해서 '툃자' 우리 오촌 아저씨하고.}

10201 # 우리 아부님하고 내하고 서이.{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셋이.}

10201 # 그그서 기차로 푸, 우리 양남에서 자동차 차고 울산 가가아 기차타고 부산 가가주고.{거기에서 기차로 부, 우리 양남에서 자동차 타고 울산에 가서 기차 타고 부산 가서.}

10201 # 인자 이이복을 돌아오는 판이지요.{인제 이복으로 돌아오는 판이지요.} @ 계에속, 그러면 기차를?{계속, 그러면 기차를?}

10201 # 예예, 내애 계에속 일주일만에 여그 도착했어요, 상지 도착했어요.{예예, 내 계속, 일주일만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상지 도착했어요.}

10201 # 그러고나이 마아 보신을 신고나이[시잉꼬나이] 발이 또웅똥 부우떼예,내애 발을 (@ 그래 얹자 잇었으니) 디아놓고 잇으니예.{그러고 나니 버선을 신고 있으니까 발이 통통 부엌데요, 내도록 발을 (@ 그래 얹아있었으니) 드리워놓고 있으니요.}

10201 # 그래 와가아 시집이라고 참 터억 들어서 인자 상지서 양차로 정거처어 내레가아.{그래 와서 시집이라고 참, 터, 들어와서 인제 상지에서 양차로 정거장에서 내려서.}

10201 # 양차 타고{양차 타고.}

10201 # 인자 저계, 시집에 드가니까 그 참 시어른들이 다 계시고 시삼촌, 시숙모도 다 계시고.{인제 저, 시집에 들어가니까 그 참 시어른들이 다 계시고 시삼촌, 시숙모도 다 계시고.}

10201 # 그애 점:슴을 해가주고 잘: 먹었습니다.{그래 점심을 해 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 예, 예{예, 예.}

10201 # 그라다나이 본사월에 출가를 하니까 윤사월에, 본사월엔 자안치날이 업다꼬.{그러다 보니, 본 사월에 출가를 하니까 윤사월에, 본 사월에는 잔칫날이 없다고.}

10201 # 그래 윤사월 보름날로 거행해가주고.{그래서 윤사월 보름날로 정해 가지고.}

10201 # 그래, 옴, 겔혼을 했어요.{그래서 예, 결혼을 했어요.}

10201 # 그래서 인자 계론도 머어. {그래서 인제 겔혼도 머.}

10201 # 거 저어 고, 조쪽 마을에서 요쪽 집에서 하니까 마, 고고서 이인차 마 왔다가 갔다가 하고.{거,저, 그, 저쪽 마을에서 요쪽 집에서 (결혼을)하니까 머, 거기에서 바로 머 왔다가 갔다가 하고.}

10201 # 그래 사아다내 그래 밥도 하도 하, 참, 처, 어제,어제도 애애기했지마는.{그렇게 살아 놓으니 그래 밥도 하도 하, 참, 처, 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0201 # 밥을 어런기이 밥도 너무 마이 먹으이 참 축모님들이 너무 노올래요(웃음소리). {밥을 어런것이 밥도 너무 많이 먹으니 참 숙모님들이 너무 놀래요.} @ 예예.{예.}

10201 # 그래가아 언자 그래애그래 언자 우리 큰집에 한달 잇다가.{그래 가지고 인제 그리 그리 인제 우리 큰집에 한 달 잇다가.}

10201 # 아아, 참 잔칠, 겔혼을 해가주고 우리 인자 씨가집에 가, 우리 어머이가.{아, 참 잔치를, 결혼을 해 가지고 우리 인제 시가에 가, 우리 어머니가.}

10201 # 우리 숙모님, "허, 형님, 저어 그렇기 마이 묵는거 어래,어예 키우겠는가?"커더라고.{우리 숙모님이, "허, 형님, 저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을 어래, 어떻게 키우겠는가?"라고 하더라고.}

10201 # 그 소리가 우리 어머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아.{그 소리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너무 가슴 아파서.}

10201 # 어무이도 매앵 한국에 게에시던 어래테.{어머니도 역시 한국에 계시던 어른이(?) 돼놓으니.}

10201 # 글때 다아 인민으로 두랏지요, 우리 (@ 예, 예)시이부모들은.{그럴 때 다 이민으로 들어왔지요, 우리 (@ 예, 예)시부모들은.}

10201 # 그래노오이 그 소리가 너무 가슴 아파가 저거 언제 데리다 우리집에 가따가 내가.{그래 놓으니 그 소리가 너무 가슴 아파서, 저거 언제 데려다 우리집에 갔다가 내가.}

10201 # 맛있게 자미있게 먹고 지내겟노? 하고 잇앗대.{맛있게, 재미있게, 먹고 지내겠나하고 있었대.}

10201 # 그애 잔친날 ***.{그래 잔칫날 ***}

10201 # 그래 나느 또 어어른들이, 우리 할매 시킨대로 어른들은 상에 따로 밥도 따로 담아 드리아.{그래 나느 또 어른들이, 우리 할머니(가) 시킨대로 어른들은 상에 따로 밥도 따로 담아 드리니.}

10201 # 절때로 내가, 나도 시집 살미 너무너무 시집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만동세 시집도 사알고.{절대로 내가, 나도 시집 살면서 너무너무 시집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만동서 시집도 살고.}

10201 # 앞 못보는[몹뽀는] 시어머이 시집도 살았기 (@ 음) 때문에.{앞 못 보는 시어머니 시집도 살았기 (@음)때문에.}

10201 # 나느으 갓, 니카 가치 한 급.{나는 갓, 너하고 같이 한 그릇(예).}

10201 # 밥 따로 담아주, 내 양재게다 가치 부우가지고 가치 참 먹어십니다.{밥 따로 담아 주면, 내 양재기에다 같이 부어 가지고 같이 참 먹었습니다.}

10201 @ 예예.{예.} # 그래내애 우리:머 이가, 우라:번님 우리:머 이가 너:므너므 참 고맙게 그랬어요.{그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참 고맙게 그랬어요.} @ 예예.{예.}

10201 # 그래, 바늘 끝 가는 줄 아나요? 여러서살이 바늘질이 머나요? 마안날 나무 가시나 데에 (@ 그래요.) 나물이나 떠더.{그래, 바늘 끝 가는 줄(을) 아나요? 열여섯 살이 바늘질이 뭐예요? 만날 나무 계집애 돼서 (@ 그래요.) 나물이나 뜯어.}

10201 # 바닷가에 나물이나 뜯아 날리고 그랬는데.{바닷가의 나물이나 뜯어 나르고 그랬는데.}

10201 # 하도하도 우리머이 가치 이래 안, 붙들고[뿌뜰고] 앉아가아, 손목을 지고오 여어야 하고 머 넣어야 하고.{하도 하도 우리 어머니(가) 같이 이래 앉, 붙들고 앉아서, 손목을 쥐고 넣어야 하고 뭐 넣어야 하고.}

10201 # 참 그래하다가나이 마 철이 드니까 어무이 시킨대로 하이 머어든지 하겠데예.{참 그렇게 하다보니 뭐 철이 드니까 어머님이 시킨대로 하니 뭐든지 하겠데요.} @ 예, 예, 예.{예, 예, 예.}

10201 # 요 시간은 다하고.{요 시간은 다하고.}

10201 # 그 답에는자 할, 아드, 우, 내가 츠, 출가해가주고 참 그속하이 우리 어무이가.{그 다음에는, 내가 출가 해서 참 무엇하니 우리 어머님이.}

10201 # 끝때 한 사아십, 오오십 전이라요.{그때 (나이가) 한 사십, 오십 전이에요.}

10201 # 내 시집 와가지고도 우리 어무이가 애기 두울 낳았어요.{내(가) 시집 와서도 우리 어머님이 아기 둘(을) 낳았어요.} @ 어어.{어.}

10201 @ 어, 예.{어, 예.} # 그도 부모는, 끝때는 어어떤 방법이 없이니까.{그래도 부모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10201 # 머, 생긴대로 놓잖나요? (@ 그렇지요.)우리 어무이가 한 오, 사십오 뽕게 데었이니까.{뭐 생긴 대로 낳잖아요? (@ 그렇지요.) 우리 어머님이 한 오, 사십은 넘었으니까.}}

10201 # 그래가 머 어무이야, 애기 내 하나 놓으며.{그래서 머, 어머님이야, 아기 내가 하나 놓으면.}

10201 # 어무이 하나 놓고.(웃음){어머님 하나 놓고. (웃음)} @ 같이 그냥 커는 기네.{같이 그냥 커는 거네.} # 예예.{예.}

10201 # 그래애 우리무이가: 저 망한놈의 영감재이가.{그래 우리 어머님이 저 망할놈의 영감쟁이가.}

10201 # 순서도 없이 그속해가아 금옥걸은 내 손자로 못 업는다고[모오덤다고].{순서도 없이 거식해서 금옥 같은 내 손자를 못 업는다고.}

10201 # 자아꾸 당신 막내이로 그래 자꾸 망{자꾸 당신 막내를 그렇게 자꾸 막.}

10201 # 과일세로 하미 전을 먹이요.{과일을 하면서 젓을 먹여요.}

10201 # 그래가 전, 참때 데에.{그래서 젓, 참 때 돼.}

10201 # 아침 잡수면 막, 아, 우리.{아침 잡수시면 막, 아, 우리.}

10201 # 우리 큰아들로 업고[억꼬] 저, 나가뿌리고 우리 시동생 대보.{우리 큰아들을 업고

저, 나가 버리고 우리 시동생 데리고}

10201 # 내가 시, 우우머 엄머 또 엄마로 안 찾겠나요?{내가 시, (시동생이) 올면, 엄마 또 엄마를 찾지 않겠어요?}

10201 # 그래 내 우리 시동생 내 젓 먹이고, 우리무이느 예, 손자 업고 나아가아 (@ 꺼꾸로) 판데 저엄도록 노다 당신 젓 미이고.{그래 늘 우리 시동생 내 젓 먹이고, 우리 어머님은 예, 손자 업고 나가서 (@ 꺼꾸로) 판 데(서) 저물도록 놀다가 당신 젓 먹이고.} @ 꺼꾸로.{꺼꾸로.}

10201 # 저녁, 저녁 해노오먼자 저녁 잡수러 와요.{저, 저녁 해 놓으면 인제 저녁 잡수시러 와요.}

10201 # 그리그래 자알 지냈는데.{그리 그래 잘 지냈는데.}

10201 # 그래온 내노 오 내 와가주고 우리무이 애기 둘이 나아두고 놓고 사아는 거 같다 하고 우리 큰, 우리 막내이.{그래 내가 와 내(가) 와서 우리 어머님이 아기 둘 놔두고, 낳고 사는 것 같다 하고 우리 큰, 우리 막내.}

10201 # 그래 아들이 너이고 우리무이가 딸이 한나라요.{그래, 아들이 넷이고 우리 어머님이 딸이 하나예요.}

10201 # 근데 그 딸이, 이 저어 시방 '아성'에 잇는데 내 시집 오니까 고기이 세살 먹데요.{그런데 그 딸이, 이, 저, 지금 '아성'에 잇는데, 내(가) 시집 오니까 그게 세살이었어요.}

10201 # 그래가주 그 참 그거 시누부라:하고 애기야, 애기야 고러, 그렇게 살았는데.{그래서 참 그것을 시누이라 하고 아가씨, 아가씨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10201 # 시동생들 참 어떤 때느 마아 시동생들이 장난한다 그래서.{시동생들이 어떤 때는 시동생들이 장난한다고 그래서.}

10201 # 어무이, 아무 큰시동생이 머 자꾸 내잘에 막 야단해요커모.{어머님, 어느 큰시동생이 머 자꾸 나한테 막 야단해요라고 하면.}

10201 # 막 너그 너그 아지매잘에, 너그 형수자테 와그라나꼬 머라캐상심더.{막 너희, 너희 아주머니에게, 너희 형수에게 왜 그러냐고 야단쳐 씹습니다.} @ 예예.{예.}

10201 # 그래가 인자 자미있게 자알 지내다가나이 시동생들 자앙개 시집 시누부꺼정 다 보내고 나이.{그래서 인제 재미있게 잘 지내고 나니 시동생들 장가 시집 시누이까지 다 보내고 나니.}

10201 # 우루무이 우라부님 하안갑 진갑 다 지내야지요.{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환갑, 진갑 다 지내야지요.}

10201 # 동세들 마악 하 밍절이 (@ 하아) 데머는 동세들 아아 둘이 서이 데꼬 오지요. 오 오남매 다 데꼬 모이노오른 참.{동서들 막 명절이 되면 동서들 아이 둘, 셋 데리고 오지요. 오남매 다 데리고 모여 놓으면 참.}

10201 # 서열 하리 지내나머 사알나알 대애지 한 마리 잡아 나아도 훌쩍 없어지고 말아요.{설 한 번 지내 놓으면 사흘, 나흘, 돼지 한 마리 잡아 놓아도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 그렇겠네예.{그렇겠네요.}

10201 # 그래도 그 재미로, (@ 예예)글때가 다아 재미실때랴요{그래도 그 재미로, (@예) 글때가 다 재미있을 때랴요.}

10201 # 그래 지내았디마는, 인자 그러고 나이 머어.{그렇게 지냈더니만, 인제 그러고 나니

며.}

10201 # 또 내 앞에 다악치니까, 시동생 시누부들 다 처리하고 나니.{또 내 앞에 닥치니까, 시동생 시누이들 다 처리하고 나니.}

10201 # 어무이 하, 아부님 다 하안갑 진갑 지내고 나니 인자 또 내 앞에 자숙들이 나제. {어머님, 아버님 다 환갑 진갑 지내고 나니 인제 또 내 앞에 자식들이 나지.}

10201 # 그그 또 여섯이 장개 시기야지요. 우리 딸아아꺼지 이, 칠, 육남일녀로 참말로 장개 시집 보낼라이.{그것도 여섯을 장가 보내야지요. 우리 딸 아이까지 이,칠, 육남일녀를 정말로 장가 시집 보내려고 하니.} @ 아이유.{아이구.}

10201 # 이일도 이일도[이일또 이일또] 술하게 해엿심다.{일도 일도 술하게 했습니다.}

10201 # 그을때는: 생활이 곤란하이 천포도 사야지요. 소개포도 사야지요.{그때는 생활이 곤란하니 천 포도 사야지요, 숨 포도 사야지요.}

10201 # 양식도 모지래머 칠팔월에는 입이 세에니까 양식도 마이 들어가요.{양식도 모자라면, 칠팔월에는 입이 세니까(많이 먹으니까) 양식도 많이 들어가요.}

10201 @ 그렇지요?{그렇지요?} # 그, 좁쌀에다가 머어 보리쌀도, 보리쌀은 없어도 좁쌀로 글때는 마이 먹엇심다.{그, 좁쌀에다가 머, 보리쌀도, 보리쌀은 없어도 좁쌀을 그때는 많이 먹었습니다.}

10201 # 그래, 강낭살 사다가 그래 먹고 그래그래 지내다가 나니.{그래, 옥수수 사다가 그렇게 먹고 그래 그래 지내다가 보니.}

1.1.3. 결혼 과정과 중국 생활 2(노년 이후 현재까지)

10201 # 인자 내 세상 다 데엿네요.{인제 내 세상 다 됐네요.}

10201 # 인자 아아들 장개 시집 다 보내애 놓고나니.{인제 아이들 장가 시집 다 보내놓고 나니.}

10201 # 아아, 우리 큰아들 자리(?) 인지느 머어 어예끼나 너그들 다아 출가시게나앗으이. {아아, 우리 큰아들에게 이제는 머 어쨌거나 너희들 다 출가시켜 놓았으니.}

10201 # 나도 좀 자유런 좀 살아볼란다커미.{나도 좀 자유롭게 좀 살아보련다고 하면.}

10201 # 그래 엄마 어알래? 와 그래요커더라.{그래 엄마 어쨌려고? 왜 그래요라고 하더라.}

10201 # 내 조 저 어네 친구가 어느 식당으로[식파아로] 가자커더라.{내 저, 저, 어느 친구가 어느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라.}

10201 # 자기네 식당하는데.{자기네 식당 하는데.}

10201 # '천진' 가자하던데 그으 바람도 시이고 가며 안 데겻나 커이.{'천진'(으로) 가자고 하던데 거기에 바람도 쐬고 가면 안 되겠니라고 하니.}

10201 # 언자 엄마 마음대로 하라하지요.{인제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요.}

10201 # 그래 저어 '천진' 식당에 우리 친구네 우리 하 우리 고향에, 마을에 잇는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그래 저, '천진' 식당에 우리 친구네, 우리 하, 우리 고향에, 마을에 잇는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

10201 # '청아대학쫐' 울안에서 식당을 하는데 자알 하디다아.{'청화대학교' 구내에서 식당

을 하는데 잘 합디다.} @ 예예.{예.}

10201 # 그래가아 언자 그그서 한달 하다가 그 다암에느 그 잡으 오빠가 언자 식당을 하나 매런해가주고 하는데.{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한달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집의 오빠가 인제 식당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10201 # 그으 가가주고 참 식당 가가 한 일년 했어요.{거기에 가서 참, 식당, 가서 한 일년 했어요.}

10201 # 일년 해다가나이 아, 쯔, 우리 영감님이.{일년 하고나니 아, 저, 우리 영감님이.}

10201 # 자, 메늘잘에 얻어 먹으이 만만치 않는지 자아꾸 오라꼬오 연락이 와사아서.{자, 며느리한테 얻어 먹으니 만만하지 않은지 자꾸 오라고 연락이 와 썩아서.}

10201 @ 예예.{예.} # 오니까 머어 아들 메느리 대애접도 잘하고 잘 잇더마느, 할마이마 못한지[모오단지].{오니까 머 아들 며느리(가) 대접도 잘하고 잘 잇더만, 부인보다는 못 한지.} @ 그럼요. 예예.{그럼요. 예.}

10201 # 예예, 그래가 떠억 이자.{예, 그래서 떡 이제.}

10201 # 한 열을 친가맞고 왔다가아 내가 아매도: 이인츠.{한 열흘 휴가받아 왔다가 내가 아무래도 곧.}

10201 # 한 열을 이리 잇다가 간다고[간다꼬] 그래하고 왔는데 곧 가야 텐다커이 영감재이 문가라[모웅까라]커더마느.{한 열흘 이렇게 있다가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곧 가야 된다고 하니 영감쟁이(가) 가지말라고 하더만.}

10201 # 아 자숙들 밥 해주고 잇는데 나도 좀 바람도 시이고.{아, 자식들(이) 밥 해주고 있는데 나도 좀 바람도 쐬고.}

10201 # 내가 당신네 집에 아가 한평생 고생을 해엿는데.{내가 당신네 집에 와서 한평생 고생을 했는데.}

10201 # 또 이일을 해도 나도 가가 좀 바람도 시이며 안 데갯나키이 그래 가마 잇더라요. {또 일을 해도, 나도 가서 좀 바람도 쐬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 그래 가만히 있더라구요.}

10201 # 그래도 자아꾸 가가 이시모 또 저나가 오고, 그래가아 언자 그 집에서.{그래도 자꾸 가서 있으면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인제 그 집에서.}

10201 # 일년 잇다가 샌채 집에서 또 나를 와가 쫘 일 쫘 해주쇼. 샌채하는데 그**.{일년 잇다가 채소 집에서 또 나가 와서 좀 일 좀 해주쇼. 채소 하는데 그**.}

10201 # 머진 빠안, 빠채 하는데요.{무슨 반, 반찬 하는데요.} @ 머어요?{뭐요?}

10201 # 채수 하는 집에, 채수 해가 파는데.{채소 하는 집에, 채소 해서 파는 데.}

10201 # 그으 그 집에도 아지매가 오라캐가주 가가 해주이.{그, 그 집에도 아주머니가 오라고 해서 가서 해 주니.}

10201 # 그 저어 그 저 주인 아지매느 인자 새애, 샌채 팔러 신채, 샌채 해가지고 팔라가고.{그 저,그, 저, 주인 아주머니는 인제 채, 채소 팔러, 채소 채소 해가지고 팔러 가고.}

10201 # 나느 그 다암에 다아 처, 청소 해놓고 무칠거 무쳐놓고 당굴거 다룽구고 모오 마런거 마런거느 말라아놓고, 이래 다 하다가나이.{나는 그 다음에 다, 청, 청소 해놓고, 무칠 것 무쳐놓고, 담글 것 담가놓고 머 마른 것, 마른 것은 말려놓고, 이래 다 하다보니.}

10201 # 또 한 일년 지냈어요. 그러다나이.{또 한 일년 지냈어요. 그러다보니.}

10201 # 또 인자, 내가 하리이 몸이 좀 펜찬 해가주고.{또 인제, 내가 하루 몸이 좀 편찮아 가지고.}

10201 # 기침을 하이 자꾸 목에 피가 올라와사아서.{기침을 하니 자꾸 목에 피가 올라와 쌓아서.} @ 호오!{오!}

10201 # 이상하다싶아 사아장잘에 애에기하니까.{이상하다 싶어서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10201 # 내 집에 가가주고오 우리 둘째 아들이 이산테 가가아 약 쫌 시고 오겠다 하이.{내 집에 가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의사인테 가서 약 쫌 쓰고 오겠다고 하니.}

10201 # 그래 또 와가주고 한 열을 또 친가 말아 약 먹고 잇다가.{그래 또 와서 한 열흘 또 휴가 받아 약 먹고 잇다가.}

10201 # 또 갓어요. 또 가가아 잇다나이.{또 갓어요, 또 가서 있으니.}

10201 # 인자 또 하안국바람이 나와가주고.{인제 또 한국 바람이 나와 가지고.}

10201 #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간다고 나산는데 나도 시방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 없다, 어없아도 우리 할매도 세상 떴지마는.{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간다고 나섰는데, 나도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없다, 없어도 우리 할머니도 세상 떴지만.}

10201 # 그 다암에느 우리 육촌들이 다 잇는데 싶아가주.{그 다음에는 우리 육촌들이 다 잇는데 싶어 가지고.}

10201 # 우리 언니도 게에시고.{우리 언니도 게시고.}

10201 # 이래가아 그그다 전할, 지, 퍼언지르 해 놓으니까.{이래서 거기에다 전화를, 지, 편지를 해 놓으니까.}

10201 # 우리 육촌 동상잘에 펜지르 해 노이.{우리 육촌 동생에게 편지를 해 놓으니.}

10201 # 누나가 큰, 두, 두째누나가 '읍천'에 잇는데.{누나가 큰, 두, 둘째 누나가 '읍천'에 잇는데.}

10201 # 어 쯤게에 내가 연락해가주고 누나잘에 큰 둘째누나잘에 연락해가주고.{어, 저기, 내가 연락해 가지고 누나한테 큰, 둘째누나한테 연락해 가지고.}

10201 # 누나잘에 페엔지 해주고, 연락해주꾸마꼬 그래데요, 그래가아.{누나한테 편지 해 주고, 연락해 주마라고 그래데요, 그래서.}

10201 # 우리 언니가 우리 둘, 육촌동사이 참 우리 언니잘에 연락을 해가.{우리 언니가 우리 둘, 육촌 동생이 참 우리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10201 # 그래가 마 인차 또 우리도, 우리 언니가 우울기도 우울기도 나알 찾일라고 술하게 울엿대요.{그래서 머 금방 또 우리도, 우리 언니가 울기도 울기도 날 찾으려고 술하게 울엿대요.}

10201 # 그래가아, 차말로 우리 큰언니는 세상 떴지.{그래서, 참말로 우리 큰언니는 세상 떴지.}

10201 # 저거 (# 예예.)어째서라도 우리 동상을 찾아야지커미.{저, (@ 예.)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동생을 찾아야지라고 하며.}

10201 # 그래 우리 언니가, 내가 그레이 페엔지르 했디이마는.{그래 우리 언니가, 내가 그 래 편지를 했더니만.}

10201 # 와이구 내가 내가 머 똥무진 중우로 팔아도 내 동상 찾아보겠다고 그래 우리 언

니가 전화로 왔, (@ 예, 예) 편지가 왔데요.{아이고 내가 내가 뭐 똥물은 바지를 팔아도 내 동생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우리 언니가 전화를 왔, (@ 예, 예) 편지가 왔데요.}

10201 # 누우카 올라커노? 니 한자느 묻올끼고 누우카 올라커노?{누구하고 오려고 하느냐? 너 혼자느 못 올 것이고, 누구하고 오려고 하느냐?}

10201 # 그래가주 어, 어얼싸 좋다 하고 편지로 우리 큰아들이 서가주고.{그래서 가지고 어, 얼시구 좋다하고 편지를, 우리 큰아들이 써 가지고.}

10201 # 그래 저, 저, 어, 내 하안자느 언니야 몬까고.{그래 저, 저, 어, 내 혼자느 언니야 못 가고.}

10201 # 어, 내 우리 영감도: 또 지식도 어없고[어억꼬]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카 가겠다커니까.{어, 내, 우리 영감도 또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10201 # 그래 어어 우리 큰아들이 편지르 해가아 이자 우리 언니가 이인차 천, 편지르 해가아 보내엿데요.{그래 어, 우리 큰아들이 편지를 해서 인제 우리 언니가 금방 편지를 해서 보냈데요.} @ 예예.{예.}

10201 # 누우카 나올라면 둘이느 와야 텔거 아이가.{누구하고 나오려면 둘이느 와야 될 것 아니야.}

10201 # 그래가주고 둘이 참, 우리 아들카 참 근, 그래 갓어요.{그래 가지고 둘이 참, 우리 아들하고 참, 그, 그렇게 갓어요.}

10201 # 가니까 우리 언니가아 그, 팔월: 열나안날 도오착하니까 우리 언니가 며 날 온다고 머어 머 떡 하고 찌짐 꾸웁고[꾸우꼬] 야단이데요.{가니까 우리 언니가 그, 팔월 열나흔 날 도착하니까 우리 언니가 머 내가 온다고 머, 머, 떡(을) 하고 전(을) 굽고 야단이데요.}

10201 # 그래가 처억 그리니까 사아십 뻔년만에.{그래서 척, 그러니까 사십 몇 년만에.}

10201 @ 죽은 사람 만난 것기고마는.{죽은 사람 만난 것 같을 것이고 마는.} # 예예.{예.}

10201 # 참 만나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얼굴이가 다아 눈에 잊지요 머.{참 만나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얼굴이 다 눈에 잊지요, 뭐.} @ 예예.{예.}

10201 # 그래가주 마 두 형제가 시이퀸 앓아 구부미 우우미이 막 야단을 하니께.{그래서 머 두 형제가 실컷, 앓아서 구르면서 울면서 막 야단을 하니까.}

10201 # 동상아, 동상아, 우리 우, 울음은 하안도 없다.{동생아, 동생아, 우리 우, 울음은 한도 없다.}

10201 # 저, 디잇방 옷방에 어어, 저, 주인집에서 말한다, 우리 고웁게[고옥께] 울음을 끈 치자커대. 그래구 우침을 끈치고.{저 뒷방, 윗방에 어, 저, 주인집에서 말한다. 우리 곱게 울음을 그치자고 하대.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10201 # 그 다암에는 언니 해 노온 으음식 자알 먹고.{그 다음에는 언니(가) 해 놓은 음식 잘 먹고.}

10201 # 이자아 하룻밤 자고는 양남에 또 우리 고향에 우리 숙모가 계시니까 그그 또 너러갓지요.{인제 하룻밤 자고는 양남에 또 우리 고향에 우리 숙모가 계시니까 거기에 또 내려갓지요.}

10201 # 그으 가가아도 마아, 문중에서 날 왔다고 죽앗던기 살아왔다고 만 여영 문중에서

(@ 그렇지요. 예, 예)한 동네가 들썩하게 참 한잔 먹었어요.{거기에 가서도 머, 문중에서 내가 왔다고, 죽었던 것이 살아왔다고 머 영 문중에서 (@ 그렇지요. 예네. 예)한 동네가 들썩하게 참 한 잔 먹었어요.}

10201 # 그래 먹고 언자 또 그으 메칠 노오다가.{그래 먹고 인제 또 거기에서 며칠 놀다가.}

10201 # 또 겨영주 언니네 집에 가가주고.{또 경주 언니네 집에 가 가지고.}

10201 # 또 잇다가나이.{또 있다가 보니.}

10201 # 저 우리 언니, 우리 여어 저게 우리 조카, 나는 언니야 놀라운 것도.{저 우리 언니, 우리 여기 저, 우리 조카, 나는 언니야 놀라운 것도.}

10201 # 아, 우리 언니가 글때는 울산 잇얏다. 울산에 거기 잇는데.{아, 우리 언니가 그때는 울산에 있었다. 울산에 거기 잇는데.}

10201 # 그러이, 놀라운 것도 아이고 이레 왓는 바에느 일을 쫘 해.{그래, 놀라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온 바에느 일을 쫘 해.}

10201 # 저게 어디 이일이 잇얏으며[이사시머] 조웅겐다. 그래 우리도 우리 조카딸네 집에 가가주고.{저기, 어디 일이 있었으면 좋겐다. 그래 우리도, 우리 조카딸네 집에 가서.}

10201 @ 예예.{예.} # 말, 나는 못먹는다네.{말, 나는 못 먹는다네.}

10201 # 나는 안 먹어.{웃음소리}{나는 안 먹어.}

10201 # 그래가주고 우리 조카딸네 집에 가가주고.{그래서 우리 조카딸네 집에 가서.}

10201 # 거어 가 잇이이 우리 조카딸네도 그 인자 저 '울산', 제게, 그거 머고, 거개**.{거기에 가 있으니 우리 조카딸네도 그 인제 저 '울산' 저기, 그것 뭐지, 거기.}

10201 # 또 마을을 또 잇아뻘다. 그그서 언자 웨에집하는데 그으 가가아 일을 쫘 도우다가.{또 마을을 또 잊어버렸다. 거기에서 인제 헛집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쫘 돕다가.}

10201 # 또 우리 언니잘에 찾아갓지요. 우리 하룻밤 자고 우리 언니잘에 가니까.{또 우리 언니한테 찾아갓지요. 우리, 하룻밤 자고 우리 언니한테 가니까.}

10201 # 이자 또 우리 언니가 그으 또.{인제 또 우리 언니가 거기 또.}

10201 # 내가 언니야 노을고 잇능기 아이다.{내가, 언니야 놀고 있을 것이 아니다.}

10201 # 여그 (@ 음) 와 한국에 왓으며 내가 꿈적거려야지.{여기에 (@ 음.) 와, 한국에 왓으면 내가 움직여야지.}

10201 # 쫘 머어 쫘 해야 데갓다커이.{쫘 뭐 쫘 해야 되겐다고 하니.}

10201 # 그래가주 베가실한테 댓집(디찌) 댓 디에 우리 조카딸네 집에 또 메칠 잇얏지요.{그래 가지고 벼 수확하는데 댓집, 뒤, 뒤에 우리 조카딸네 집에 또 며칠 있었지요.}

10201 @ 예예.{예.} # 잇다가나이 도웅네 아지매들이, 아이구 중공에 아지매, 우리카 가치한때 이리 잇는카마 일하러 안갈란교커대. 베가실하러 나갓어요.{있다가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구 중공의 아주머니. 우리하고 같이, 혼자 이렇게 잇는 것보다 일하러 가지 않겠어요라고 하대요. 벼 수확하러 나갓어요.}

10201 # 베가실하러 간닥, 가자커대요. 그래가 (@ 베가실요?) 베가실.{벼 수확하러 간다고 가자고 하대요, 그래서 (@ 베가실요?) 벼 수확.}}

10201 # 예?{예?} @ 아, 나락?{아, 벼?} # 나락 비는거.{벼 베는 것.}

10201 # 그거 비라 나갈래요커더라.{그것(=벼) 베러 나갈래요라고 하더라.}

10201 # 아이구 그럼 세월도 보내고 시간도 보내고 가압시다커미 가노이.{아이구, 그러면 세월도 보내고 시간도 보내고 갑시다라고 하며 가 놓으니.}

10201 # 아아따 마 아인기 아이라 마아 모도 잘 비더마는.{아이고, 머 아닌 것이 아니라(=정말) 머 모두 잘 베더만.}

10201 # 내가 잘한다고 자랑이 아이라.{내가 잘한다고 자랑이 아니라.} @ (웃음소리)

10201 # 그으 한국에 잇는 아지매들보다 내가 뗏 곱을 비었지요.{거기 한국에 잇는 아주머니들보다 내가 몇 곱을 베었지요.}

10201 @ 예예, 예.{예, 예.} # 나을로 비다가나이끼네 하루 오만언석 주데요.{나흘을 베고 나니까 하루 오만원씩 주데요.}

10201 # (웃음소리) 사아장이 오만언석 주는거로 그리 또.{사장이 오만원씩 주는 것을 그리 또.}

10201 # 나을 비고 다새만에는.{나흘 베고 닷새만에는.}

10201 # 그 오야지 아저씨가.{그 책임자 아저씨가.}

10201 # 아 저 아지매, 중공에서 온 아지매 내카라 전.{아, 저, 아주머니, 중공에서 온 아주머니 나하고 저.}

10201 # 이 탈곡 좀 하라가아모 따래댕기머 안 데겿네에.{이 탈곡 좀 하러 가면 따라 다니면 안 되겠냐고 해.}

10201 # 예예, 갓, 머어 아 사장님 시킨대러 하겿습니다커미 따래댕기미.{예, 가, 머, 아, 사장님 시키는 대로 하겿습니다라고 하며, 따라 다니며.}

10201 # 해보니까 자알 해지요, 머어.{해 보니까 잘 하지요 뭐.}

10201 @ 예예.{예.} # 마아 시킨대로 머 복, 그 이일 몬하는 농민들 하는 일이야 머어든지 다 하지요. 그래가 하니께.{머 시키는 대로 머 그, 일 못하는 농민들 하는 일이야 뭐든지 다 하지요, 그래서 하니까.}

10201 # 아안, 중공에 아지매느, 쉬는 시간에, 집단농장에 이일을 얼마나 해앿나?, 이적찌 데꼬 해도 이런 아지매처럼 이리 하는거느 몬밧다는기라.{아, 중공의 아주머니는, 쉬는 시간에, 집단농장에서 일을 얼마나 했어요? 이때까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도 이런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10201 # 그래가 하로 오만언석 오만언석 또 한나잘 한 대에새 버얼엇어요.{그래서 하루 오만원씩 오만원씩 또 한나절 한 닷새 벌엇어요.}

10201 # 그러고나이 또 우리 사돈이, 우리 조카딸 시어마시가 저어 '울산' 우리 웨에사촌 동상네집 식당에서 이일을 하는 거야.{그리고 나니 또 우리 사돈이, 우리 조카딸 시어머니가 저 '울산' 우리 외사촌 동생네집 식당에서 일을 하는거야.}

10201 # 사돈요, 내일이나 내카 동상네 식당에 안 갈랑교커더라.{사돈요, 내일이나 나하고 동생네 식당에 가지 앗겠어요라고 하더라.}

10201 # 아이고, 날거튼거 가가아 식당 생활이나 하겿나요키니.{아이고, 나 같은 게 가서 식당 생활이나 하겿어요라고 하니.}

10201 # 아, 내 시킨대로 내카 가압시더, 가치 갑시더그캐.{아, 내가 시키는대로 나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라고 하더라.}

10201 # 동사이, 언니 왔다키이 텍고 오라 한다고.{동생이, 언니 왔다고 하니 데리고 오라 한다고.}

10201 # 가이께네, 참 우리 여어이 웨에사촌 동상도 그 식당을.{가니까, 참 우리 저 외사촌 동생도 그 식당을.}

10201 # 참 머어 대악, '울산' 저어 산골짜에 그.{참 머, 대학, '울산' 저 산골짜에 그.}

10201 # 뗏 천 명 데는 대악쫘 식당에 크게 하데요.{뗏 천 명 되는 대학교 식당에 크게 하데요.}

10201 # 그으 가가주 머어 또 시킨대로 하니까.{거기에 가서 머, 또 시키는 대로 하니까.}

10201 # 또 사알 하다가나이.{또 사할 하다가 보니.}

10201 # 예, 기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하는데.{예, 기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10201 # 아지매, 그 주, 삼층에 올라가시라, 아 주방장 아저씨가 그라더라요. 그래가주고. {아주머니 그 주, 삼층에 올라가세요, 아, 주방장 아저씨가 그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10201 # 아구, 그으 올라가가 어에 하시겠나요, 하겠나요, 나느 그런 (@ 하, 예에) 식당아 이일또 안해봤는데케이.{아이구,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나느 그런 (@ 하, 예.) 식당에서 일도 안 해봤는데라고 하니.}

10201 # 아이, 저 추 그그 삼층에도 주방아지매가 게에시니까.{아이, 저, 추, 거기 삼층에도 주방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10201 # 그래, 같이 가가 올라가가 하모튼 시킨대로마 하모텐다.{그래, 같이 가서 올라가서 아무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10201 # 그래 그으 또 삼층에 올라가주고.{그래, 거기 또 삼층에 올라가서.}

10201 # 밑에서 이런 가매가.{밑에서 이런 술이.}

10201 # 밥가매[박가매]가 전기로 헛는 가매가.{밥술이 전기로 하는 술이.}

10201 # 네에개씩 올라오머 그으 퍼어뜩 퍼가지고 언자.{네 개씩 올라오면 그것 빨리 퍼가지고 인제.}

10201 # 밥, 요런, 설, 전기 머엇에다 (@ 예에) 다 여어놓고.{밥, 요런, 술, 전기 뭇에다 (@ 예.) 다 넣어놓고.}

10201 # 그 다음에는 머 반찬하는대로라. 앓, 주방아지매 하는대로 다 시킨대로 따라 같이 하고.{그 다음에는 머 반찬하는 대로다. 아주, 주방 아주머니 하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하고.}

10201 # 그래노이 아인게 아이라 마아, 또 언자 점심시간에도 한, 한 시간 시이데요.{그래 놓으니 아닌게 아니라 머, 또 인제 점심시간에도 한, 한 시간 쉬데요.}

10201 # 그래가주고 (웃음소리).{그래서.}

10201 # 그래가아 저어, 저, 아지매들이 쭈욱 앉아가주고.{그래서 저, 저, 아주머니들이 쭈욱 앉아서.}

10201 # 쉬이는 시간에는 중공아지매느 노래도 하고 우리 차례대로 돌아가미 노래하자고. {쉬는 시간에는 중공 아주머니는 노래도 하고 우리 차례대로 돌아가며 노래하자고.}

10201 # 아이고여 나느 어릴때 중국 가가주고 노래도 모르고 듣도보도 모은해가주고 노래도 모오했요[모오대요]키니까.{아이고야, 나느 어릴 때 중국 가 가지고 노래도 모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노래도 못했어요라고 하니까.}

10201 # 아, 머어든지 무슨 소리라도 하라꼬.(@ 예에) 이자 내 차례 온 거로{아, 뭐든지 무슨 소리라도 하라고.(@ 예) 이제 내 차례 온 것을}

10201 # 뜯 인제 저언수 양재길리 얹아노오며 뚜덜기고도 하나*.{또 인제 전부 양재기를 얹어 놓으면 두드리기도 하나*.}

10201 # 머어 나안 또 뚜더리는 그 잘 뚜더리요.{뭐 나는 또 두드리는 (것은) 잘 두드려요.} @ 예예.{예.}

10201 # 그래 뚜더리미 노래로 해 노이.{그래, 두드리면서 노래를 해 놓으니.}

10201 # 하아, 고양 노래로 어예 그래 하나도 안 잊아뿌고 그러케 잘하는가 하데요.{하아, 고양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 하는가라고 하데요.}

10201 # 그래가 또오 우리 웬, 열, 동상네 식당에서 한달 했어요.{그래서 또 우리 외, 여, 동생네 식당에서 한 달 했어요.}

10201 # 한 달 하고나이 돈을 쪼꼬옴 우리, 우리 여어.{한 달 하고나니 돈을 조금 우리 우리 여.}

10201 # 또 여동상이 그래 월급을 줌 주는거로.{또 여동생이 그래 월급을 줌 주는 것을.}

10201 # 어얼마나 반가운지 가주고.{얼마나 반가운지, 가지고.}

10201 # 딱 한달 열열만엔 또 우리 아들카 또 와야데요.{딱 한 달 열흘만에는 또 우리 아들하고 또 와야돼요.} @ 그래치요.{그렇지요.}

10201 # 그 기한이 딱 그래데가.{그 기한이 딱 그렇게 돼서.}

10201 # 그래가주고 우리 아들이.{그래 가지고 우리 아들이.}

10201 # 어어 두달만에 왔다.{어, 두 달만에 왔다.}

10201 # 우리 아들이 오오십일이 하고.{우리 아들이 오십일 하고.}

10201 # 나는 한달 하고.{나는 한 달 하고.}

10201 # 고 다암에 우리 아들도 매애 이일하다가.{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내 일하다가.}

10201 # 그래가 엄마 가알때[가알때]가 테엔는데 가야데, 가야데데, 데제얌겟나커더라. 그 래애가.{그래서 엄마 갈 때가 됐는데, 가야돼, 가야되지, 되지않겠나고 하더라, 그래서.}

10201 # 언자 둘이 모오녀끼리 왔어요.{인제 둘이 모녀끼리 왔어요.}

10201 # 저어 모자끼, 참 두 엄마 아들카 둘이 와가주고.{저 모자끼(리), 참 두, 엄마, 아들하고 둘이 와서.}

10201 # 이이 우리 조카딸잘애, 우리 두째 사, 조카사우잘애.{이 우리 조카딸한테, 우리 둘 때 사, 조카사위한테.}

10201 # 우리이 저어 아아들이 다아 이래 한국 올라고 애로 시는데 이 사람아 초청해주머 안 데겟나키이.{우리 저,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한국 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아 초청해주면 안 되겠어라고 하니.}

10201 # 아이고 이모님 열매든지 하지요. 누구우 오실라면 누구꺼지 다.{아이고, 이모님 열매든지 하지요, 누가 오시려면 누구까지 다.}

10201 # 그래가 우리 아들네, 우리 조카사우가 초청해아지고 모옹땅 다 갖지요.{그래서 우리 아들네, 우리 조카사위가 초청해 가지고 모두 다 갖지요.} @ 예예.{예.}

10201 # 가노이 첫분애 가노이 아아들이 이일도[이일또].{가 놓으니 첫 분애 가 놓으니 아아들이 일도.}

10201 # 머어 서렴서렴하지, 고,고양애 가노이.{뭐 서먹서먹하지, 고,고양애 가 놓으니.}

10201 # 또 모오든 것이 다 조건도 불리하지.{또 모든 것이 다, 조건도 불리하지.}

10201 @ 예예.{예.} # 이래가주고 그래가주 가아들또, 그래도 가아들은 한 반, 일년만에 오고, 우리는 먼저 오고.{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도, 그래도 그 아이들은 한 반, 일년만에 오고, 우리는 먼저 오고.}

10201 @ 예예, 네.{예, 네.} # 그래 우리 아들이 두분째 또 해가주고도 가가아.{그래 우리 아들이 두 번째 또 해 가지고도 가서.}

10201 # 참 그래 가가아 쪼끔씩 버얼아오고느.{참 그렇게 가서 조금씩 벌어 오고는.}

10201 # 막 그래가 두우분 왔다가 한 문 왔다가 두분째 가가주고{막 그래서 두 번 왔다가,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가서.}

10201 # 할라커이 머어가 또 잘 안 데데요, 수속이.{하려고 하니 뭐가 또 잘 안 되데요, 수속이.} @ 예예, 예.{예, 예.}

10201 # 그래가주 마 그 다암에느 여어는 저언수 야매로 사가주고 다 갓잖나요.{그래 가지고 머,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전부 가짜를 사 가지고 다 갓잖아요.}

10201 @ 돈 많이 들었잖아요?{돈 많이 들었잖아요?} # 예예, 돈 마이 들었어요.{예, 돈 많이 들었어요.}

10201 # (웃음소리) 그래가아 도온이 마이 들어가, 골때느 골때꺼지도: 우리: 언니가 초청 하니까 돈, 돈은 쫘 자악게 드지오.{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서, 그때는 그때까지도 우리 언니가 초청하니까 돈, 돈은 쫘 적게 들지요.} @ 예예, 예, 예.{예, 예, 예.}

10201 # 그래가주고 다아 우리 아아들 다아 두분씩 갓다완는데.{그래 가지고 다 우리 아이들 다 두 번씩 갓다왔는데.}

10201 # 세에번만에 갈라하이 지인짜, 진짜 그글때는 머 야매로 사가아 갓어요.{세 번 째 가려고 하니, 진짜 진짜 그때는 머 가짜를 사서 갓어요.}

10201 # 그래가주고 내가 또 먼저 갓지요.{그래 가지고 내가 또 먼저 갓지요.}

10201 # 아 야매도 엄마가 가야 머어가 이일이 텔꺼라고 컴서나.{아, 아무래도 엄마가 가야 뭐가 일이 될 거라고 하면서.}

10201 # 그리 내가 우리 영감님하고 먼저 가가주고.{그래 내가 우리 영감님하고 먼저 가서.}

10201 # 이이년 반으로 함박식당에 일하다가나이.{이년 반을 공사현장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10201 # 아이고:, 그래가 내가 초청쫘을 해가아 보내애티마느 우리 아, 그래도 젊은 것들이 와가주고 일을 해야 데는데 싶어.{아이고, 그래서 내가 초청장을 해서 보냈는데 우리 아(들), 그래도 젊은 것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싶어서.}

10201 # 우리 큰아들카 메늘카 초청쫘을 해가 보내.{우리 큰아들하고 머느리하고 초청장을 해서 보내.}

10201 # 봄에 초청쫘 해 보내애티거로.{봄에 초청장 해 보낸 것을.}

10201 # 가을에 하니까 꾸어치해가아 구, 기일이 넘어뻬지요, 머.{가을에 (수속을) 하니까 꾸어치(+ 중국어?)해서 기일이 넘어버렸지요, 뭐.}

10201 @ 아하, 아아.{아하, 하.} # 기일이 넘어뻬가 마아 안테에가주고.{기일이 넘어 버려서 안돼 가지고.}

10201 # 엄마 정황이 이리키 데간, 글때모 우리느 모온 가기[모옹까기] 데애티하데.{엄마 정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문에 우리는 못가게 되었다고 하데.}

10201 # 그래가아 내가 이이년반으로 벌어가주고.{그래서 내가 이년 반을 (돈을)벌어 가지고.}

10201 # 와가아 인자 우리 아들, 큰애, 큰아들, 큰메느리 인자.{(중국으로) 와서 인제 우리 아들, 큰애, 큰아들 큰 메느리 인제.}

10201 # 내 그 조금 버언 돈을 가주 야매로 사가주고.{내가 그 조금 번 돈을 가지고 가짜를 사 가지고.}

10201 # 한 사람에 글때느 팔마원씩 드가서요.{한 사람에 그때는 팔만원씩 들어갔어요.}

10201 # 얼마나 비싼지, 한 사래, 중국돈을 (@ 허어유) 팔마원씩.{얼마나 비싼지, 한 사람, 중국돈으로 (@ 아이고) 팔만원씩.}

10201 # 십육만원늘 디레가 둘이로 야매로 사가 보내애고.{십육만원을 들여서 둘이를 가짜를 사서 보내고.}

10201 # 나느 인자 집에 잇다가나이.{나는 인제 집에 있다보니.}

10201 # 또 인자 저거가 가가.{또 인제 자기들이 가서.}

10201 # 또 처, 크, 우리 큰손자 아 우리 손자 두율이 인자.{또 처, 크, 우리 큰손자, 아, 우리 손자 둘이 인제.}

10201 # 할, 큰손자느 하얼빈 공대에서, 여 고중 초중꺼정 피롭(=필업)해가.{할, 큰손자는 하얼빈 공대에서,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졸업해서.}

10201 # 고 저어 할빈공대 피롭해가지고 우리 손자 또 일본 유학 보내넛찌.{그 저 하얼빈 공대 졸업해서 우리 손자 또 일본 유학 보냈지.}

10201 # 우리 자악은 녀도 고졸 초중 고중꺼정 해가주고 또 일본.{우리 작은놈도 고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또 일본.}

10201 # 저거 허영이, 저거 형이 초청해가지고 우리 손자들은 두율이 그거 (@ 예예예)가 가 잇어예.{제 형이, 제 형이 초청해 가지고 우리 손자들은 둘이 거기에 (@ 예) 가서 잇어요.}

10201 # 그래가 내가 버언거, 그래 우리 큰손자가 할매요.{그래서 내가 번 것, 그래 우리 큰손자가 할머니요.}

10201 # 엄마, 아버지 주는 돈 가주고[돈까주고] 합작, 내 새앵, 하, 엄마 아버지 학작비느 대애주는데.{엄마, 아버지 주는 돈 가지고 학비, 내 생활, 학, 엄마 아버지(가) 학비는 대주는대.}

10201 # 생활 줌 이이래 생활요용품이 모지랜다캐가.{생활 줌 이래 생활용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201 # 또 사아침, 사아침, 하안국에서 사천마 사아십만언을 부체 보내앳디이.{또 사천, 사천, 한국에서 사천만, 사십만원을 부쳐 보냈더니.}

10201 # 할매 내가 하 공부 잘해가 할매 용돈 버언, 버얼아가주: 앞으로[아푸로] 보오답하 겠타커더라.{할머니 내가 공부 잘해서 할머니 용돈 벌, 벌어 가지고 앞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더라.}

10201 # 보오답이나 새애나서락.{보답이나마나.}

10201 # 자알 췌다고, 그때는 인자 전, 전하느 안 테고 펜지로 연락이 데에가.{잘 췌다고, 그때는 인제 전, 전화는 안 되고 편지로 연락이 돼서.}

10201 # 그래가 참 할매 돈 부체가 자알 췌다고.{그래서 참 할머니가 돈을 부쳐서 잘 췌다

고.}

10201 #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잘에 마알습 하지 마래요, 욱 먹은다고.{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한테 말씀 하지 마래요, 욱 먹는다고.} @ 아아 {아.}

10201 # 그래가아 내가 오오야 알았다.{그래서 내가 오나 알았다.}

10201 # 그래가아 이거 어얼매나 바빠가 이래엿노 싶아가.{그래서 이거 얼마나 어려워서 이리했나 싶어서.}

10201 # 농사 지이가주고 아아들 밀천 대엘라머 힘들어요.{농사 지어서 아이들 밀천 대러면 힘들어요.}

10201 @ 예예.{예.} # 그래엔 돈이 이이백만원으로 아아 공부 시기라꼬 또 보내엿디마는.{그렇게 한 돈 이백만원을 아이 공부 시키라고 또 보냈더니만.}

10201 # 그이 그기이 공부로 열심히 해가주고 아이.{그래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아니.}

10201 # 이일본 가가주고 일본 유학 보내엿디마는.{일본 가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더니만.}

10201 # 야, 석사 피롭해가주고 참 자알 데엿시미다.{야, 석사 졸업 해 가지고 참 잘 됐습니다.}

10201 # 자악은 높은 미용실에 인자 미용가게로 꾸레가 잇고.{작은높은 미용실에, 인제 미장원을 꾸려서 잇고.}

10201 # 우리 큰손자는 마아 차어 머, 일본에도 일본내 어디든지 다 땡기고.{우리 큰손자는 머,저 머, 일본에도 일본 내 어디든지 다 다니고.}

10201 # 이 중국에도 사앙해애로 청도로 대애련으로 지거 회사가 다 (@ 해사 잇으면서?) 있다 하대요.{이 중국에도, 상해로, 청도로, 대련으로, 자기네 회사가 다 (@ 회사에 잇으면서?) 있다고 하대요.} # 예예.{예.}

10201 @ 예, 예.{예, 예.} # 그래 이시니까.{그렇게 있으니까.}

10201 # 그래 한문서 머어 열을이고 수무나리고 잇다가머 그으 또 노온문 스는데 야아가 잠을 모은잔다[모은잔다] 하데예, 너무 고, 이임무가 마아내가주고.{그래 한 번씩 머,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잇다가 가면 그 또 논문 쓰는데 이 애가 잠을 못 잔다고 하대요, 너무 고, 일이 많아서.}

10201 # 인자 그 녀은 사알기로 맨애 해나앗는데.{인제 그 녀은 살 걱정을 면하도록 해놓았는데.}

10201 # 자, 우리 손자들은 다 사알기 해나앗어요. (@ 예예) 우리 할매 때문에 (@ 아이구) 지거 잘 살았다고 그리하니다.{자, 우리 손자들은 다 살게 해 났어요. (@ 예) 우리 할머니 덕분에 (@ 아이고) 자기네 잘 살았다고 그러니다.}

10201 # 그러다나이 저, 인자 지거 버얼아 올 따안에.{그러다 보니 저, 인제 자기들이 (돈을) 벌어 올 동안에.}

10201 # 내가 이래가아 한 두해 참, 사아다가나이.{내가 이렇게 한 두해 참, 살다가 보니.}

10201 # 영감님도 세상 떴지.{영감님도 세상 떴지.}

10201 # 글때 또 아아들이 글때는 불버부리 잇이니까.{그때 또 아이들이 그때는 불법으로 있으니까.}

10201 # 오지도 모으했지요 머어. 자식을 머 한 구들 나아도 참말로 세상 뜰때는 아암도 모으만냈지요.{오지도 못했지요 뭐. 자식을 머 한 구들 낳아도 참말로 세상 뜰 때에는 아무도 못 만났지요.}

10201 # 우리 사우하고 내하고 우리 사아춘 시매부하고 그래 참 자양네로 했지요.{우리 사위하고 나하고 우리 사촌 시매부하고 그렇게 참 장례를 치렀지요.}

10201 # 아이고, 글때는 마 참 아인기 아이라 너무 애통해데요. 이 참.{아이고, 그때는 머, 참, 아닌게 아니라 너무 애통해데요, 이 참.}

10201 # 하양국이 조웅다하는데도 와 이리 오고가지도 묻하는가 싶어, 그래가 다아 하고나 이.{한국이 좋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오고가지도 못하는가 싶어. 그렇게 다 하고 나니.}

10201 # 인자 우리 아아도 우리 큰아아도 인자 녀름 이름을 갖던기.{인제 우리 아이도, 우리 큰애도 인제 녀름 이름으로 (한국으로) 갔던 것이.}

10201 # 글때는 인자 불법 제에시캐준다해 왔다가는 인자 제 이름을 갖다가 가고.{그때는 인제 불법 제외시켜준다고 해서 왔다가는 인제 제 이름으로 갔다가 가고.}

10201 # 우리 메늘도[메늘또] 그래 가고.{우리 머느리도 그렇게 가고.}

10201 # 그래가 인자 우리 메늘카 또 그 지그는 가가 또 안자 팔년 생활을 해었는데.{그래서 인제 우리 머느리하고 또 그 저회는 가서 또 인제 팔년 생활을 했는데.} @ 어어.{어어.}

10201 # 하이고 또 우리 메느리 뽕자페에 와가주고.{아이고 또 우리 머느리 붙잡혀 와서.}

10201 # 어제도 애애기 했지마는, 뽕자페에 와가지고.{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붙잡혀 와서.}

10201 # 아아, 막 신, 신, 신 다 탈레세 신은 그대로 (@ 그대로?) 족세 채우더라고.{아, 막 신, 신, 신 다 탈레세(?) 신은 그대로 (@ 그대로?) 수갑 채우더라고.}

10201 # 어무이요, 어무이요, 그래가 이틀만에 저언하가 오는데.{어머님요, 어머님요, 그렇게 해서 이틀만에 전화가 오는데.}

10201 # 아이고 이로 오온대 오온다꼬 왔더라고 약.{아이고 이로, 온데, 온다고 왔더라고 약.}

10201 # 그래가 왔다커미, 차, 오옷도 입은대로.{그래서 왔다고 하며, 참 옷도 입은 대로.}

10201 # 그래가주 머어 처 와가주오::: 내가 돈벌러 갔다가.{그래 가지고 머, 처 와서 내가 돈 벌러 갔다가.}

10201 # 세사아 무진 제에로 지았나?{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나?}

10201 # 고오 이쪽 식당에는 잘 이일이 잘 안 데고, 저쪽 지 잇는 우리 메느리 잇는 식파 아에는 이일이 그리 잘 데더라고요.{그 이쪽 식당에는 잘 일이 잘 안 되고, 저쪽 자기 잇는 우리 머느리 잇는 식당에는 일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10201 @ 누가 알렸구나.{누가 알렸구나.} # 그래 (@ 누가 알렸구나.) 장사가 잘 데니까 머어 꼬오 드갓는갑테여.{그래 (@ 누가 알렸구나) 장사가 잘 되니까 뭐 고발이 들어 갓는가 보테요.}

10201 # 그래가 마마: 아무 우리느 사음도 안하고 잘 지냈는데.{그래서 뭐 뭐 아무 우리느 싸움도 안 하고 잘 지냈는데.}

10201 # 그래도 뽕들레에 와가주고.{그래도 붙들려 와 가지고.}

10201 # 아이고 마 깜짝깜짝 노을랄 정도로 아아가 그래사아요, 버얼아 사알라고 저라는가 싶어가.{아이고 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가 그래 썩아요. 벌어서 살려고 저러는 가 싶어서.}

10201 # 그래가 니도 수소문하고 나도 수소문하고 수소문 해가주고.{그래서 너도 수소문하고 나도 수소문하고 수소문해 가지고.}

10201 # 또 가모 안 데나캐앳디이, 이래 또 연락을 연락을 하다가나.{또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렇게 또 연락을 연락을 하다가.}

10201 # 골때느 너억달만에 갓어요.{그때는 녀달만에 갓어요.} @ 아아, 오기 그래가지고. {아아, ?? 그래 가지고.} # 두번째, 예예.{두 번째, 예.}

10201 # 예, 두달, 두번째 뽏들려 와가주고는 너억달만에 갓는데.{예, 두달, 두 번째 뽏들려 와 가지고는 녀달만에 갓는데.}

10201 # 우리 우리 큰손자가: 첫분에 또 뽏들리 온 때느 마아 또.{우리 우리 큰손자가 첫 분에 뽏들려 왔을 때는 머 또.}

10201 # 제 이름을 모웃가고 녀우 이름을 또 갓디이마는.{제 이름으로 못가고 녀의 이름으로 또 갓더니만.}

10201 # 인자 두번째 뽏들헤에 올 때느 우리 큰손자가.{인제 두 번째 뽏들려 올 때는 우리 큰손자가.}

10201 # 소오청을 해가주오 내하고 두울이 일본을 갓지요 머.{초청을 해서 나하고 둘이 일본으로 갓지요, 머.}

10201 @ 예예.{예.} # 그래 가가주고, 그래도 이일본에는 가니깨애.{그래 가 가지고, 그래도 일본에는 가니까.}

10201 # 우리 손자, 작은손자 먹을거 반찬 카아지가지 다 해가주와 두 볼, 한 보따리, 큰 수, 큰거 한 보따리.{우리 손자, 작은손자 먹을 것 반찬 가지가지 다 해 가지고 두 보, 한 보따리, 큰손, 큰 것 한 보따리.}

10201 # 이래 해가아 가이, 일본 저게.{이래 해서 가니, 일본 저기에.}

10201 # 고양에 드가가 나올라하니까 이기이 머인가꼬 이래 조사로 하미 (@ 예예)보자 하 데요.{공항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무엇이냐고 이래 조사를 하면서 (@ 예) 보자고 하데요.}}

10201 # 그래가주고 마 할 줄 모리는 말이라도 "고향오 다베다까라 지게오(쯔게오) 이쇼니 다베마시다." "하, 오바아산노 고크고노 하나시 요로시꾸 나리마시따."{그래서 머, 할 줄 모르는 말이라도 "밥을 먹으니까 반찬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 할머니의 일본어가 좋습니다."}

10201 # 그래가주고 마아 아무 소리도 안하고 저어 문앞꺼지[문악꺼지] 내애다 주테요. 너 어무 고맙테요.{그래가지고 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 문앞까지 내다 주테요, 너무 고맙테요.}

10201 # 그래에 우리 사안, 우리 손자가 큰손자가 저 할무니커미서느 그르.{그래 우리 손, 우리 손자가 큰손자가 할머니라고 하면서는 그래.}

10201 # 그래가 인자 무사이 지내가가.{그래서 인제 무사히 지나가서.}

10201 # 딱 열일 잇다가 올라키이.{딱 열흘 잇다가 오려고 하니.}

10201 # 할머니 이리이 잇다 가가 고양에 가가 왜 이래 빨리 갈라하머, 가노 하모 머라하

실래요?{할머니 이렇게 있다 가다가 공항에 가서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면, 가느냐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10201 # 이십일마 잇다가 아버지가 비행기포로 하앙, 중국 가는 비영기포로 사가아 보내며는.{이십일만 잇다가 아버지가 비행기표를 한, 중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면.}

10201 # 그래가주고 하안국을 거체가 할매, 한국으 할매 큰할매 보고 가시면 데자않겟나. {그래서 한국을 거쳐 할매, 한국의 할매 큰할매 보고 가시면 되지 않겠나.}

10201 # 오오, 그러머 데겟다.{오, 그러면 되겠다.}

10201 # 그래가주고 참 우리, 이분에 또 나오니까.{그래 가지고 참, 우리, 이번에 또 나오니까.}

10201 # 수무날만에 나와 가주고 고앙에 나오니까.{스무날만에 나와 가지고 공항에 나오니까.}

10201 # 그래애, 한국에 어째서 간, 인자 비행기포를 그으 이꾸쥬을 보이니까.{그래 한국에 어떻게 간, 인제 비행기표를 그 입국증을 보이니까.}

10201 # 그리해 한국에 누구: 만내라 가노 거때 우리 언니가 살아게세 가주고.{그래 한국에 누구 만나러 가느냐고 해서, 우리 언니가 살아게서 가지고.}

10201 # 그래 생전에 한문 보고 가실라고 오, 온다키이.{그래 생전에 한 번 보고 가려고 온다고 하니.}

10201 # 우리 글때느 인증서도 안 했어요. 일본에느 인증서 없데요.{우리 그때는 인증서도 안 했어요, 일본에는 인증서 없데요.}

10201 @ 예예, 예.{예, 예.} # 그래가주 머어 그고 반공실에 가디마느 이인차 도장 찍아가 내애가 무사이 잇다가.{그래 가지고 머 그리고 사무실에 가더니만 금방 도장 찍어서 내가 무사히 잇다가.}

10201 # 한국 가가 한달 잇다가 우리 메느는 일하라고 내뚜고 나느 혼자 왔지요.{한국 가서 한달 잇다가 우리 며느리는 일하라고 내버려두고 나느 혼자 왔지요.} @ 예예. {예.}

10201 # 그래 와가 잇다가 나이 우리 메늘 우리 메늘은 인자 글때 갈때느 지 이름을 해가 잣거튼요.{그래 와서 잇다가 보니,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인제 그때 갈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해서 잣거튼요.} @ 예예.{예.}

10201 # 그래네, 다 글때 인자 정식이 다 데엿지요.{그러니, 다 그때 인제 정식이 다 됐지요.}

10201 # 그래가주고 인자 이적:지 잇다가.{그래 가지고 인제 지금껏 잇다가.}

10201 # 우리 큰손자 계론한다고 또 오라케가 또 잣다왔지요.{우리 큰손자 결혼하다고 또 오라고 하여 또 잣다 왔지요.}

10201 # 우리 작은 손자 계론하나꼬 또 잣다왔지요.{우리 작은 손자 결혼한다고 또 잣다 왔지요.}

10201 # 잣다 오기는 메뿐 잣다왔심미다.{잣다오기는 몇번 잣다왔습니다.}

10201 # 그래가아 인자 자알 지내는데 인자{그래서 인제 잘 지내는데 인제}

10201 # 인자 그래 왔다가 가가주고 삼년 기한이 데엿지요, 우리 큰아들카 큰메늘카. 인자 금년 시월중순에는 또 올기라라예.{인제 그렇게 왔다가 가서 삼년 기한이 되었지요, 우리 큰아들과 큰메느리와. 인제 금년 시월 중순에는 또 올것입니다.}

10201 # 오며는 인지느: 나이 육십서인제 이일또 안하몬 좋겟는데{오면 인제 나이 육십셋 인데, 일도 하지 않으면 좋겟는데.}

10201 # 또 아멘 마알하는 거어치가 또 나갈 것 겐데요.{또 아마 말하는 투가 또 나갈 것 같아요.}

10201 # (웃음)

10201 # 그래 가몬 머 또 가고.{그래 가면 또 가고}

10201 # 나알 집이나 하나 사주고요 가모 내 한자{나에게 집이나 한 채 사주고 가면 나 혼자}

10201 # 시방

1.1.4. 장례 절차

10226 @ 여그는 저 시어른 세상 돌아갓을 때 자양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여기는 저 시어른 세상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226 # 그을때 우리 어무 이, 우리 아부니 세상 뜰 때느.{그 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세상 뜰 때는.}

10226 # 매영 한국처럼 해행사로 만들아가저고.{역시 한국처럼 행상을 만들어 가지고.}

10226 @ 아 아, 그으 만들었어요?{아, 그거 만들었어요?} # 예, 행사가 저어:데 한 행사.{예, 행상이 저 어디 한 행사.}

10226 # 틀 건사하는데 또매는 집이 다 따러 잇잖나요.{틀 만드는데 ??? 집이 다 따로 잇잖아요.} @ 아, 잇엇고, 그랬습니까?{아, 잇엇고, 그랬습니까?} # 예, 그래가주 험사: 저 여.{예, 그래 가지고 행사 저 여.}

10226 # 짚을 참 새끼로 그석해가주, 글뎌 행사 미구 갓습니더, 예.{짚을 참 새끼로 거식해가지고, 그때는 행사 메고 갓습니다, 예.} @ 아 아.{아.}

10226 @ 그러문 앞수루꾼이 잇엇을거 아입니?{그러면 앞소리꾼이 잇었을 것 아닙니까?} # 아앞서리건도, 글때느 앞소, 아앞 먹이는 사암도 잇앗어요.{앞소리꾼도, 그때는 앞소, 앞 메기는 사람도 잇엇어요.} @ 예예.{예.}

10226 # 그도 인지는 그른 사안도 어없고(어억꼬).{그도 이제는 그런 사람도 없고.} @ 다: 어없쥬?{다 없쥬?} # 예, 없어야.{예, 없어요.}

10226 # 글때느 우리 아부님 세에살, 우리 어무 이, 우리 아부님 세상 뜰 때느.{그때는 우리 아버님 세상,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세상 뜰 때는.}

10226 # 행사 메고 자아 지냈습니더.{행사 메고 잘 지냈습니다.} @ 아 아.{아.} # 예, 예.{예, 예.}

10226 # 삼년 제사 다아 모오시고.{삼 년 제사 다 모시고.}

10226 # 저언수 구가안대복 해가주고.{전부 굴건제복 해 가지고.}

10226 # 저 베쁜 상복옷을 줄에다 자아 갈아놓고.{저 ?? 상복을 줄에다 쪽 걸어놓고.}

10226 # 산년상 지내고오 사.{삼년상 지내고 사.}

10226 # 삼년상 지내고 사십일 다양제꺼정.{삼년상 지내고 사십일 ??까지.}

10226 # 내가 다: 모오시니께 우리 아분, 우리:무 이가.{내가 다 모시니까 우리 아버, 우리 어머님이.}

10226 # 우리 아분님 세상 뜨고, 삼 시 시이끼 내가.{우리 아버님 세상 뜨고, 삼 시 세 끼 내가.}

10226 # 우리 찬 밥 먹으며 아번님도 찬 밥 대접허어, 뜨신밥 무구며 뜨신반데 채리간데 오.{우리 찬 밥 먹으면 아버님도 찬 밥 대접하고, 따뜻한 밥 먹으면 따뜻한 밥 차려 가지고.}

10226 # 어떤대는 참 내가 국도 안 끓이거도 끓여가주 드가며 어머니.{어떤 때는 참 내가 국도 안 끓일 것도 끓여 가지고 들어가면 어머니.}

10226 # 야아, 야, 그라지 마고오.{야, 야, 그러지 말고.}

10226 # 니 하는거 보모, 내가 일다 일 해가미 이 그래하는거 보 이, 너무 내가 볼라 이 힘들다.{너 하는 거 보면, 내가 일 다 일 해가며 그렇게 하는 것 보니, 너무 내가 보러니 힘들다.} @ 예, 예, 예.{예, 예, 예.}

10226 # 마아, 하, 초하리 보름마 시잉겨라.{그냥, 하, 초하루, 보름만 섬겨라.}

10226 @ 예.{예.} # 우라, 우리:머 이가 그라시데여.{우리 아, 우리 어머니가 그리시데 요.} @ 예.{예.}

10226 # 그럼 그래보오까 싶아가 또 어무 이 시긴대로.{그럼 그렇게 해 볼까 싶어서 또 어머니 시키는 대로.}

10226 # 하룻날 밥 떠놓고: 또 보름날 밥 떠놓고.{초하룻날 밥 떠 놓고, 또 보름날 밥 떠 놓고.}

10226 # 그래아고는 그애 삼년 지사는 꼬옥 모오싯지여, 머.{그렇게 하고는 그래 삼년 제 사는 꼭 모셨지요, 뭐.} @ 예예.{예.}

10226 # 그 또 우라:분님 저 인자 저 다암뱃볼도 내애.{그 또 우리 아버님 저 인제 저 담뱃볼도 내.}

10226 @ 또, 불이.{또 붙여.} # 담뱃볼 대애 지 대애다가 담배 불에가주 또 불 따에 불 땡게놓고.{담뱃볼 대 지 대애다가 담배 넣어 가지고 또 불, 불 땡겨 놓고.}

10226 # 그래도 해엔데, 시방으느 그그 없이 이 제일 켜테요.{그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 제일 편하네요.} @ 그래요?{그래요?} # 예.{예.}

10226 # 나느 차마 잇는 정성을 다 발이 햇심다*.{나는 참말로 잇는 정성을 다 발휘 했습니다.} @ 그랬네요.{그랬네요.}

10226 # 글때느 전수 삼베에 상복 해가 입고.{그때는 전부 삼베 상복 해서 입고.} @ 굴건 제복.{굴건제복.} # 예예, 굴간데복 다 해가주워 그래 지냈심이다, 예.{예, 굴건제복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 예, 아 아.{예, 아.}

10226 # 그렇 우리는 밑에 시너우들 사우들 우리 시이매들하고 막**.{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시누이들 사위들 우리 시??들하고 막**.}

10226 # 산소 가알 짝에느 마 줄로 하나 뺨첸니더, 차.{산소 갈 적에는 뭐 줄이 하나 뺨칩니다, 참.}

10226 # 산이 허엿게 올라가요.{산에 하얗게 올라가요.} @ 예예.{예.} # 저어 산 너메 산소에.{저 산 너메 산소에.} @ 산, 어디 여쪽 근처에 산에 잇습니까?{산, 어디 이쪽 근처에 산에 잇습니까?} # 저, 하동.{저, 하동.}

10226 # 하동, 우리 하동, 요그 요그서 한 시오리 거리.{하동, 우리 하동, 요기 요기서 한 시오리 거리.}

10226 # 요그 요그서 우리 오오게까지 드갈라마 한 시위리 데는데.{요기 요기서 우리 오게
까지 들어가려면 한 시오리 되는데.}

10226 # 그어 큰 산들이 많아요.{거기 큰 산들이 많아요.} @ 예예.{예.}

10226 # 그래가지고 오어, 하 산.{그래 가지고 어, 한, 삼.}

10226 # 삼, 삼년 지내고 한 땀해 지낸다니 이께네.{삼, 삼 년 지내고, 한 몇 해 지내고
나니까는.}

10226 # 어 어, 현에서 오백메다 아낙에 길 아낙에 잇는 산소는 다 밀아분다데예, 길, 길
에, 길 땀긴데 지장 텐다고.{어, 현에서 오 백미터 안에 길 안에 있는 산소는 다 밀어
버린다고 하데요, 길, 길에, 길 다니는데 지장을 준다고.}

10226 # 그래가 현에서 트랙또로까지고 마 다 밀아빠가.{그래 가지고 현에서 트랙터를 가
지고 뭐 다 밀어 버려서.}

10226 # 이거 아아들 오며는 아이 산소로.{이거 아이들 오면 아이 산소를.}

10226 # 풀이나 나모 모오 모털거 것데여, 그래가 우리 우리 시이매 양반하고 우리 사우하
고 우리 조카들하고 데꼬 가가.{풀이라도 나면 모, 모를 것 같데요, 그래서 우리 시??
하고 우리 사위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데리고 가서.}

10226 # 참, 어 어, 우리 시할매, 우리 아변님은 그 전에 화장을 해뻬고.{참, 어, 우리 시
할머님, 우리 아버님은 그 전에 화장을 해 버렸고.}

10226 @ 네예.{예.} # 우리 시할매하고 우리:무이하고느 아야주에.{우리 시할머님하고 우
리 어머님하고는 ????.}

10226 # 요, 베린다로 사다가 곱으 곱을 짜가주고.{요, ???를 사다가 곱을 곱을 짜 가지
고.}

10226 # 배액노지로 피고 차례대로 해골을 열어가지고.{백로지를 펴고 차례대로 해골을 넣
어 가지고.} @ 예, 예.{예, 예.}

10226 # 그래그 마 기름 한통이니까 다 해결데데, 오래 텐 산.{그래 가지고 뭐 기름 한 통
인까 다 해결 되데요, 오래 된 산.} @ 아 아, 그, 그.{아, 그, 그.} # 소 화장을 해뻬
어요.{소 화장을 했어요.} @ 에서 화장을.{?? 화장을.}

10226 # 그래 아아들 오모 풀이나 나모 중국 사람들 그그다 전수 갈아번저가주 바알을 한
데 아아들 모온 찾일 거 건대여.{그래 아이들 오면 풀이라도 나면 중국 사람들 거기
를 전부 갈아버려 가지고 밭으로 하는데 아이들 못 찾을 것 같아요.} @ 그러게, 그
러네.{그러게, 그러네.}

10226 # 그래가 날짜로 받아가지고 그래 화아장을 해뻬어요, 우리 시한무니하고 우리 어무
님하고노, 오리 아버님하고 다.{그래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화장을 해 버렸어
요, 우리 시할머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는, 우리 아버님하고 다.} @ 예.{예.}

10226 # 그래하고나 이 마 근심 걱정이 없어요.{그렇게 하고나니 뭐 근심 걱정이 없어
요.} @ 예.{예.}

10226 @ 그러모 그냥 훔어버리고 아무 표도 없습니까, 이제는?{그러면 그냥 훔어 버리고
아무 표도 없습니까, 이제는?}

10226 # 여 인자 포도 없지요 머, 화장 해뻬시니까.{여, 인제 표도 없지요 뭐, 화장 해 버
렸으니까.} @ 예, 예.{예, 예.}

10226 # 그래 원래 이제 이 산소로: 저 인자 그으 저 그 파넬쪽에.{그래 원래 이제 이 산

소를 저 인제 그 저 그 파넬 적에.}

10226 # 머 신체 파넬쪽에는 인자 그 또 산싱지이도 모오시고.{뭐 신체 파넬 적에는 인제 그 또 산신제도 모시고.} @ 예.{예.}

10226 # 산 저 참 아범님 새 집을 해 해시고 화아장한다고 이 시일성거려가주고.{산 저 참 아범님 새 집을 ??? 화장한다고 이 ???가지고.}

10226 # 산수 제에사 다아 모오시고.{산소 제사 다 모시고.}

10226 # 그래 다 하 이 마 아:무 탈없이 잘 지내예.{그렇게 다 하니 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요.} @ 그러무.{그럼요.} # 예, 잘 지냈어예.{예, 잘 지냈어요.}

10226 @ 음.{음.}

=1 @ 지금 여기는 친척들은 어던 분이 있습니까?{지금 여기는 친척들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1 # 아 아이호 친척들도 마아캔:자 우에 어른들은 어없고, 언자 우리 시누우가 아성에 하나 있고.{아이고 친척들도 모두 인제 위에 어른들은 없고, 인제 우리 시누이가 아성에 하나 있고.} @ 예.{예.}

=1 # 우리 막난 시누우가 아성에 이 있고.{우리 막내 시누이가 아성에 있고.}

=1 # 그 다음에는 어없어예, 저어 우이.{그 다음에는 없어요, 저 우리.} @ 예.{예.}

=1 # 우리 도웅세, 세째 동세가 저어 마알련에 잇는데 머.{우리 동서, 셋째 동서가 저 말련에 잇는데 뭐.}

=1 # 이래 머 사다가나 이 지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머 이, 지도 나알 보러 안 오고, 나도 지 보러 갈 새도 없고 마.{이래 뭐 살다가 보니 자기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으니, 자기도 날 보러 안 오고, 나도 자기 보러 갈 사이도 없고 뭐.} @ 그러 이 그렇게 테지오.{그러니 그렇게 되지요.}

=1 # 서루 이래가 오:나가나커저 저 소식이나 아알고 잇고 그잇심이더 이.{서로 이래 가지고 오나가나라고 하고 저 소식이나 알고 잇고 그렇습니다.}

=1 @ 저어이 중국하고 이래 교류가 데고 난 디에.{저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난 뒤에.} # 예.{예.}

=1 @ 예 예, 해방 전에 오신 분들은 한국으로 가며는 받아 조엿잖습니까?{예, 해방 전에 오신 분들은 한국으로 가면 받아 줬잖습니까?}

=1 # 예.{예.} @ 여기도 드러가안 분이 있습니까?{여기도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1 # 간 사람 많지요.{간 사람 많지요.} @ 많아요?{많아요?} # 예, 간 사람 많지요, 북쪽.{예, 간 사람 많지요, 국적.}

=1 # 국적 다 해결해가주 가는 사람 많데여.{국적 다 해결해 가지고 가는 사람 많테요.} @ 예, 예.{예, 예.}

=1 # 그애도 우리 큰아들은: 작년에도 가가주구.{그래도 우리 큰아들은 작년에도 가 가지고.}

=1 # 우리 나는 호운주 내애 호구가: 양남에 잇이니까.{우리, 나는 호적, 내 호적이 양남에 있으니까.} @ 네에.{네.}

=1 # 그래에 너그도 다른 사안도 다 호구허 국적 해결하는데.{그래 너희도, 다른 사람도 다 호적, 국적 해결하는데.}

=1 # 우리도 그래아 같은 값에 와앗다가앗다가 하며 아안 조오나 하 이.{우리도 그래 가

- 지고 같은 값에 왔다갔다 하면 좋지 않아라고 하니.}
- =1 # 아이고 어엄마 도온 벌아가주 중국에 가 사지, 하안국에 박해서 모온산다는기라, 그
래, 예, 차아.{아이고 엄마 돈 벌어 가지고 중국에 가서 살지, 한국에서는 박해서 못
산다고 하는거예요, 그래, 예, 참.} @ 이제 중국이 살기에 좋습니다.{이제 중국이 살
기에 좋습니다.}
- =1 @ 예.{예.} # 내가 중국에 있다고 그런기 아 이라.{내가 중국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 =1 # 참 선생님들 마알습 어제끼 들을란지 몰라도.{참 선생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는지
몰라도.}
- =1 # 등 따시고 배부른 나 중국이 제일이라예.{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나는 중국이 제일
예요.} @ 중국이 좋습니다, 예.{중국이 좋습니다, 예.} # 예, 중기 좇, 세에상에.{예,
중국이 좋, 세상에.}
- =1 # 말을, 마알이 중국 사란카 아 통하질 안해 그렇지.{말을, 말이 중국 사람과 통하지
않아 그렇지.}
- =1 @ 예예.{예.} # 우리 아아들은 다아 중국말 다 잘하는데여, 머.{우리 아이들은 다 중국
말 다 잘 하는데요, 뭐.} @ 다, 그러게.{다, 그러게.}
- =1 # 우리들은 그저 오오나가나 그 소리나 할 줄 아았지.{우리들은 그저 온나가나 그 소리
나 할 줄 알았지.}
- =1 # 머, 니 죽이끼나캐도, 마알 몬 해도, 이적찌 사아는데, 도온 주머 다 물건 사 주고,
머.{뭐 너 죽일거라고 해도, 말 못 해도, 이때까지 사는데, 돈 주면 다 물건 사 주고
뭐.} @ 예.{예.}
- =1 # 물건, 도온 주머 물건 사는데, 머.{물건, 돈 주면 물건 사는데 뭐.} @ 예.{예.} # 그래
가 사알머 데지여.{그렇게 해서 살면 되지요.}
- =1 하안국에는 다아 깨끗하고 언어도 통하고 다 좋은데.{한국에는 다 깨끗하고 언어도 통하
고 다 좋은데.} @ 그렇지요.{그렇지요.}
- =1 # 아, 이웃간에도 우리 고향에 가니까: 왓나:커미 반갑게노 하는데.{아, 이웃 간에도 우
리 고향에 가니까, 왔어라고 하며 반갑게는 하는데.}
- =1 @ 너무 이제 각박해졌지.{너무 이제 각박해졌지.} # 내 집에 와가주오 밥 한 때라도 먹
고가라 이리하는 소이 없데요.{내 집에 와 가지고 밥 한 끼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하
는 소리 없데요.} @ 예, 예.{예, 예.}
- =1 # 여그느 우리는 여그 시 시이내 잇이니긴 요새는 시이내 사니 그렇지, 시골에는.{여기
는 우리는 여기 시 시내에 있으니까는 요새는 시내에 사니 그렇지, 시골에는.}
- =1 # 참말 손님 어머 이틸이고 사홀이고 먹고 가고 놀다 가고 야단하는데.{참말로 손님 오
면 이틀이고 사홀이고 먹고 가고, 놀다 가고 야단인데.} @ 그게 옛날식?{그게 옛날
식?} # 예, 그으느 예옛날 식이라예, 인지느 여 시이내 와 보 이.{예, 그건 옛날 식
이에요, 이제는 여기 시내에 와 보니.} @ 예, 그을, 예.{예, 그걸, 예.}
- =1 # 문 닫아부머 저 집에 잇는 누가 죽아나가도 모올라요, 예.{문 닫아 버리면 저 집에 있
는 누가 죽어 나가도 몰라요, 예.} @ 아, 모르지요.{아, 모르지요.}
- =1 # 그기 하나, 그 장이 하나 점 그래.{그게 하나, 그 점이 하나 좀 그래.} @ 그으부 그
만큼 이제.{그러면 그만큼 이제.} # 예예, 그마끔 발전한 셈이지요, 머.{예예, 그만큼

발전한 셈이지요, 뭐.) @ 예.{예.}

=1 @ 그음 중국 와가지고는.{그러면 중국 와 가지고는.}

=1 @ 그 처음부터 이런 집에 안 살았죠?{그 처음부터 이런 집에 안 살았죠?} # 예, 저어 저 시골에 초가집에.{예, 저 저 시골에 초가집에.} @ 단독, 단독주택으로?{단독, 단독 주택으로?} # 예, 초가집에 개 다아 개인집, 개인집 그래 살았는데.{예, 초가집에 개, 다 개인 집, 개인 집, 그렇게 살았는데.}

=1 # 그래, 우리 아아카 아 나가 우리 메에늘카 아 가마 이르 짜가지고.{그래, 우리 아 이하고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가마니를 짜 가지고.}

=1 @ 예에.{예.} # 백돌집을 지았지요, 머.{백돌집을 지었지요, 뭐.} @ 예.{예.}

=1 # 우리 아아느 한달에 한 산백역언 월급을 타니까.{우리 아이는 한 달에 한 삼백여 원 월급을 타니까.}

=1 # 그아지 그거는 뿔에 붙은 밥알이구여.{까짓 그건 볼에 붙은 밥알이고요.} @ 예에. {예.}

=1 # 그애, 우리 메에느카 아 자아 죽자사자 오온 식구가 가마 이 짜가주어.{그래, 우리 며느리하고 저 죽자사자 온 식구가 가마니 짜 가지고.}

=1 # 참 백돌집을 하나 지이가주, 삼칸지기, 자알, 우에 양철지붕 읍고.{참 백돌집을 지어 가지고, 세 칸 짜리, 잘, 위에 양철지붕 없고.}

=1 # 근데 그 백돌집도 인지는 만, 천대꾸러기 텃심, 지거가 도온 벌러 간, 누우가 전사도 안 하고.{그런데 그 백돌집도 이제는 뭐, 천덕꾸러기가 됐습, 자기들이 돈 벌러 가니, 구나 전사도 안 하고.}

=1 # 그양 문 잠가놓고 내가 한분숙(하문스) 왔다가가 보거나하고.{그냥 문 잠가놓고 내가 한 번씩 왔다 가서 보거나 하고.} @ 그대로 잇네여?{그대로 있네요?} # 예, 그양 이 그대르 잇심더, 즈그 와도.{예, 그냥 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 와도.}

=1 # 오: 그 가가, 지입, 켜 우리 손자드에 은자 시 시골에 가지마고 어예든지 시내 나와가 주어{어, 그 가서, 집, 저 우리 손자들이 인제 시 시골에 가지 말고 어찌든지 시내 나와 가지고.} @ 으음.{음.}

=1 # 펜안하게 사알다가 보라그야꼬 우리 손자들이 야다 이라고요, 그 지거이가 오오면.{편 안하게 살다가 ??? 우리 손자들이 야단이에요, 그 자기가 오면.}

=1 # 집을 사알라커는데.{집을 사려고 하는데.}

=1 # 시이내 사알란지, 그 집에 대비 드갈라머 대애수리르 해야데요.{시내에 살는지, 그 집 에 다시 들어 가려면 대 수리를 해야 돼요.}

=1 # 이억 도옹삼에 자꾸 비아놓니까이 쪽쪽 짜개지고 막 허물아.{이 동삼에 자꾸 비워 놓 으니까 쪽쪽 갈라지고 막 허물어.} @ 예, 예예.{예, 예예.}

=1 # 베엑도 떨어지고 이래가.{벽도 떨어지고 이래서.}

=1 # 지그는 오며 살라하기는 하는데.{자기들은 오면 살려고 하기는 하는데.}

=1 # 어짚란지 머어, 또 또 나가가.{어찌려는지 뭐, 또 또 나가서.}

=1 # 다시 더 버얼란지 그그는 모르겠시인더, 인자 우리 아들이 와야데에여.{다시 더 벌는 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인제 우리 아들이 와야 돼요.} @ 예.{예.}

=1 # 시, 시월 중순에 오며 언자 그때 계관나니이더.{시, 시월 중순에 오면 인제 그때 결판 납니다.}

=1 # 내가 딸네 집에: 이이리 잇고 아들네 지 지차들 집에 이래 와가 잇이 이.{내가 딸네 집에 이렇게 잇고 아들네 집, 지차들 집에 이렇게 와 있으니.}

=1 # 집도 없는거고어, 새끼도 없는거코 딱 얻아먹는거처럼 내애 나 딸네 집이 잇아도요. {집도 없는 것 같고, 자식도 없는 것 같고 딱 얻어먹는 것처럼, 내, 나 딸네 집에 잇어도요.} @ 으음.{음.}

=1 @ 다 일해주고.{다 일 해 주고.} # 지그 지거 몰래 살도 사주고.{자기들, 자기들 몰래 쌀도 사 주고.}

=1 @ 예에.{예.} # 살도 한 푸대스 사다주고 바안차또 내.{쌀도 한 포대씩 사다 주고 반찬도 내.}

=1 # 머 위생지고 화장지고 내가 다.{뭐 화장지도 내가 다.}

=1 # 머어없이머 내가 사, 사들이니까.{뭐 없으면 내가 사, 사들이니까.}

=1 # 유리 아들네 집에서도.{우리 아들네 집에서도.}

=1 # 내가 살도 사고 콩지름도 사고, 내 할 건 다 해요, 바안찬도 다 사고.{내가 쌀도 사고 콩지름도 사고, 내 할 건 다 해요, 반찬도 다 사고.} @ 예에.{예.}

=1 # 지그도 또 나, 지그도 나알 먹에 살리는데.{자기들도 또 나, 자기들도 날 먹여 살리는데.}

=1 # 서루서로 이래 주고받는것:어야지, 아들네 집이라고 그저 묵고 잇이며 안데요.{서로서로 이렇게 주고받는게 있어야지, 아들네 집이라고 그냥 먹고 있으면 안 돼요.} @ 하하, 예, 으음.{하하, 예, 음.}

=1 # 난 내 거어 없이며느: 자숙들 집에 얻아묵지마느.{난 내 것 없으면 자식들 집에 얻어 먹지만.}

=1 # 안주 내가 미드리가 잇이니까.{아직 내가 미두리가 있으니까.}

=1 # 그저 그래그래.{그냥 그렇게 그렇게.} @ 예.{예.} # 그 아아들더 요용돈도 주고.{그 아이들이 용돈도 주고.}

=1 # 일본도 우리 손자들도 할머니 시라고 요용돈도 보내:, 그럼 내 약도 사묵고.{일본에 있는 우리 손자들도 할머니 쓰라고 용돈도 보내, 그러면 내 약도 사 먹고.} @ 예에.{예.}

=1 # 또 내애 비용을 그리 시고 살아요.{또 내 돈을 그렇게 쓰고 살아요.}

=1 @ 요즘 그 그 말고 다른 이 저어 돈벌이가 잇습니까?{요즘 그 그 말고 다른 이 저 돈벌이가 잇습니까?}

소음이 많이 섞여 있음

=1 @ 저 개인주택에 살 때하고.{저 단독주택에 살 때하고.}

=1 # 예.{예.} @ 이 아파트 사는 견하고 먹 어떤 차이가 잇습니까?{이 아파트에 사는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잇습니까?}

=1 # 개인에: 저 저 개인 집에 사알때느.{단독에 저 저 단독주택에 살 때는.}

=1 # 위기 초 오오 초마 초가집에 사알때느.{저기 초 오 초막, 초가집에 살 때는.}

=1 # 펜관집에 사알 때느 아 인기 아 이라.{??집에 살 때는 아닌게 아니라.}

=1 # 마 마:음대로 할똥이 하고 나무도 빼애 들루고 재도 쳐내고.{뭐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나무도 빼 들이고 재도 쳐 내고.}

=1 # 이웁에 노올라 탕기기도 좋은데요.{이웃에 놀러 다니기도 좋은데요.}

=1 # 여 시이내에 사니까 문 닫아놓모 저 집에 사는지 안 ***.{여 시내에 사니까 문 닫아 놓으면 저 집에 사는지 안 ***.} @ 모르지요?{모르죠?}

=1 # 편안하기는 문지 안나고 마 전기술에 밥 해 먹고.{편안하기는 먼지 안 나고 뭐 전기 술에 밥 해 먹고.}

=1 # 까스 까스에 채수 해 묵고.{가스, 가스에 반찬 해 먹고.}

=1 # 제일 편안하고, 화장실 아낙에 잇시 이.{제일 편안하고, 화장실 안에 있으니.} @ 예.{예.}

=1 # 제일 필요하고요.{제일 필요하고요.} @ 좋지요?{좋지요?} # 예, 예, 노인들잘에느 이 요 화장실이.{예, 예, 노인들한테는 이 요 화장실이.}

=1 # 도옹참에느요, 선, 자악년에 선배님이 안 와서 글치, 먼저 온, 저 먼.{동삼에느요, 선, 작년에 선생님이 안 와서 그렇지, 먼저 온, 저 먼.}

=1 # 저거 먼저 왔었던 손님은{저기 먼저 왔었던 손님은.}

=1 # 열:매나 눈이눈이 도오삼에 너무 와가주어 땡긴다고 저 우리 그 타아는데 글로 갖다 오미 길이 맥해아.{얼마나 눈이 눈이 동삼에 너무 와 가지고 다닌다고 저 우리 그 사 는데 거기에 갔다오며 길이 막혀서.}

=1 # 오온다고 차가 빠져가 고오생마.{온다고 차가 빠져서 고생만.}

=1 # 여그느 마 눈 한문스 동지서얼달에 눈 오며 마, 모음서리가 나요.{여기는 뭐 눈 한 번 식 동지선달에 눈 오면 뭐, 몸서리가 나요.}

=1 @ 그렇게 많이 옵니까?{그렇게 많이 옵니까?} # 기일로 길로 돌아가주* 길 키 저.{길 을 길을 돌아가지고, 길 그 저.}

=1 # 트락또로가 길, 드 대통로도 길 안 치며 차가 모은 땡기요.{트랙터가 길, 큰길도 길 안 치우면 차가 못 다녀요.}

=1 @ 예예.{예.} # 그리키 눈어 오며 마.{그렇게 눈이 오면 뭐.}

=1 하안도 없이 퍼질라냥아요, 예.{한도 없이 와요, 예.}

=1 # 그을치, 동질달에도 저 저 저 서얼달 초승에.{그렇지, 동짓달에도 저 저 저 선달 초순 에.}

=1 # 지난 동삼에느 비가 와가주어 마.{지난 동삼에는 비가 와 가지고 뭐.}

=1 # 머어 나 나가며 이 사람 팔 다텃다, 이 사람 다리 자텃다, 이 사람 허리 다텃다.{뭐 나 나가면 이 사람 팔 다쳤다, 이 사람 다리 다쳤다, 이 사람 허리 다쳤다.} @ 아 아.{아.}

=1 # 미끄럽아가 발을 몬 디나예.{미끄러워서 발을 못 디더요.}

=1 # 나 우리 딸네, 떡, 떠, 떼, 떼.{나 우리 딸네, 떡, 떡, 떡.}

=1 # 딸네 떡가게 땡기느거도.{딸네 떡가게 다니는 것도.}

=1 # 이온 주머 고까정 가느, 나는 걸어 안 땡겼어, 미끄럽아, 머.{이위엔 주면 그까지 가 는, 나는 안 걸어 다녔어, 미끄러워서 뭐.}

=1 # 차아꾸 넘어지는데여.{자꾸 넘어지는데요.} @ 그러* 큰:일나지.{그러게, 큰일나지.}

=1 @ 예예.{예.} # 그래가, 마 그게 하나 조꿈 그래.{그래서 뭐 그레 하나 조금 그렇지.}

=1 # 줌 바빠서 그렇지, 한 대엿달마 지내며 또 갠찬은데.{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대여섯 달만 지내면 또 괜찮은데.} @ 예, 예.{예, 예.}

=1 # 글때 도더영지선달 지내이가 너무 힘들어요.{그때 오동지선달 지내이가 너무 힘들어

요.} @ 아 아.{아.}

=1 # 시내에 사니까 비가 오 이 걱정 있나, 바람이 부 이 걱정 있나.{시내에 사니까 비가 오니 걱정이 있나, 바람이 부니 걱정이 있나.}

=1 # 이게 하나이 제이 필요해예.{이거 하나는 제일 필요해요.}

1.2. 생업 활동

1.2.1. 농사 이야기

10230 @ 이제느 머 저: 제사걸은거느 모시는 게 없겠군요.{이제는 뭐 저 제사 같은 건 모시는 게 없겠군요.} # 예, 없어예, 우린 제에사 안 모시야예.{예, 없어요, 우린 제사 안 모셔요.}

10230 # 누구두, 누구두 제에사 안 모시, 어떤 사람은.{누구도, 누구도 제사 안 모셔, 어떤 사람은.} @ 예.{예.}

10230 # 그래도 모오시느 사람이 잇긴 이잇어야.{그래도 모시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 예.{예.}

10230 # 그 머 자기네 성성대로 모오시모 모오시느*.{그 뭐 자기네 정성대로 모시면 모시는 *.} @ 예.{예.}

10230 # 머 조상 심게가 나쁜 일은 어없으니까.{뭐 조상 섬겨서 나쁜 일은 없으니까.} @ 예, 예.{예, 예.}

10230 @ 그래도 추도오.{그래도 추도.}

10230 # 추도식.{추도식.} @ 그으 스 식은 안 합니까?{그 식은 안 합니까?} # 안 해요.{안 해요.} @ 그웁도 안 하고?{그것도 안 하고?} # 예, 굿도 안 해요.{예, 그것도 안 해요.}

10230 # 저에느: 우리 어어른들 잇일 때 보 이 제사 모실 때느.{전에는 우리 어른들 있을 때 보니 제사 모실 때느.}

10230 # 제에문이라꼬 이래: 서가지고 제에문 이 이르고 하시데요, 젓밥 떠놓을 짝에느, 그리더만 이지느 그것도 어업고.{제문이라고 이렇게 써 가지고 제문 읽고 하시데요, 젓밥 떠놓을 짝에느, 그리더만 이제는 그것도 없고.} @ 예.{예.}

10230 # 아, 시방 세상이 제:일 편안한 세사 이라고요.{아, 지금 세상이 제일 편안한 세상이 예요.}

(웃음소리)

10230 @ 편케느 마 많이 편해졌지요.{편해지기는 많이 편해졌지요.} # 마 이 편해졌지요.{많이 편해졌지요.}

=1 @ 요쪽은 논, 밭이.{요쪽은 논, 밭이.}

=1 @ 한국하고 머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한국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1 # 하안국에느 땅이 전수 향토 아니나요.{한국에는 땅이 전부 향토 아닙니까?} @ 예.

{예.}

- =1 # 여그는 땅들이 마케 꺼어먼 흙이라요.{여기는 땅들이 모두 검은 흙이에요.}
- =1 # 개 농사는 자알 데예요.{그래 농사는 잘 돼요.}
- =1 @ 그러게, 나무잎들이 수이서.{그러게, 나뭇잎들이 ??서.} # 하안국 땅에 비하머 땅이 좀 식지요 머.{한국 땅에 비하면 땅이 좀 차지요, 뭐.}
- =1 # 내랭하지요, 땅이.{차지요, 땅이.} @ 냉해, 예.{냉해, 예.} # 예, 좀 냉하지요.{예, 좀 차지요.}
- =1 # 그애도 농사는 잘 데.{그래도 농사는 잘 돼.} @ 아 아.{아.} # 예, 하동 농장은 농사 잘 데에여.{예, 하동 농장은 농사 잘 돼요.}
- =1 @ 그으 처음에는 이기 저 요쪽에.{그 처음에는 이게 저 요쪽에.}
- =1 @ 한국, 한국 사람 오기 전에는.{한국, 한국 사람 오기 전에는.}
- =1 @ 저 논농사가 없었다메요.{저, 논농사가 없었다면서요.}
- =1 # 체예정때버터도 잇기느 쫘 잇았다 하테여.{제정 때부터도 잇기는 좀 있었다고 하대요.}
- =1 @ 그게 다아 저.{그게 다 저.}
- =1 @ 조선에서 올라와서 한 걸 아닙니까?{조선에서 올라와서 한 걸 아닙니까?} # 예, 하안국에서 와가지고 차아 전 논을.{예, 한국에서 와 가지고 참 전부 논을.}
- =1 @ 타아 만들었느**.{다 만든**.} # 수전 수전을 다 만들었지요, 머.{수전, 수전을 다 만들었지요, 뭐.}
- =1 # 저언수 화양지반 걸은 걸 갈아분제가지고.{전부 황무지 같은 걸 갈아 가지고.}
- =1 # 조, 주로 조선 사람이 수전을 마 이 했지요, 머, 예.{조, 주로 조선 사람이 수전을 많이 했지요, 뭐, 예.} @ 예.{예.}
- =1 # 그때 체예정때 전수 인민으로 다 돌아가저고 그래 농사로 다 일받아가.{그때 제정 때 전부 인민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다 일구어서.} @ 예.{예.}
- =1 # 처언수 이래 비알논이 데가주고 논, 논둑이 이 밑에 마 한질스 데는데도.{전부 이렇게 비탈 논이 돼 가지고 논, 논둑이 이 밑에 한 길씩 되는데도.}
- =1 # 시방은 저언수 온, 트랙또로 밀아가조 온전하로 맨들어가 두부모타리처럼 저어 시골에 드가머.{지금은 전부 온, 트랙터로 밀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부 모처럼 저 시골에 들어가면.}
- =1 # 우리 하동에 드가머, 처언수 논판도 자알 새.{우리 하동에 들어가면, 전부 논판도 잘 생.}
- =1 # 머엇지게 해났어요.{멋지게 해냈어요.} @ 예예.{예.}
- =1 @ 그므 그으쭈 하동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거의 조선사람이라메요.{그러면 그쪽 하동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거의 조선사람이라면서요.}
- =1 # 예, 거징 조선 글때느.{예, 거의 조선, 그때는.}
- =1 # 하안개 대대가 뭇백명스 데었는데, 인지느.{한 개 대대가 몇 백 명씩 됐는데, 이제는.}
- =1 # 그저 하안개 대대에쳐도 뭇 십 명밖어 없어예, 다 한국 가고 어없고, 죽운 사람 죽고.{그저 한 개 대대에도 몇 십 명밖에 없어요, 다 한국에 가고 없고, 죽운 사람 죽고.} @ 아 아.{아.}
- =1 @ 예.{예.} # 전수 한국 때문에 마을이 도옹네, 동네 빈다리가 마리, 그래도.{전부 한국

때문에 마을이, 동네, 동네 빈자리가 많아, 그래도.}

=1 # 저어 십삼계라고 하느 공사툰 밑에는.{저어 십삼계라고 하는 공사툰 밑에는.}

=1 # 조선사람 마을에 중구우 사람을 받아너 이 마.{조선사람 마을에 중국 사람을 받아
놓으니 뭐.}

=1 @ 아하.{아하.} # 도도, 마 도둑님 부락이 데고.{도둑, 뭐 도둑놈 부락이 되고.}

=1 @ 이 칩삼동 밑에?{이 십삼동 밑에?} # 십사안, 십삼계라고 조 공사툰 밑에.{십삼, 십
삼 계라고 저 공사 툰 밑에.} @ 십삼계, 그게 그게 일계부터 이십계까지가 잇는 모
양이지예?{십삼 계, 거기에 거기에 일 계부터 이십 계까지가 잇는 모양이지요?} #
예, 예, 예, 이십계(이식계)까지 잇습니다.{예, 예, 예, 이십 계까지 있습니다.} @ 그
므이 십사안계에서 이십계 고쫓은 중국사람들이 들었습니까?{그러면 십삼 계에서 이
십 계 그쪽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 왔습니까?}

=1 # 중우 사램이 마 이 섞여 둘앗어요.{중국 사람이 많이 섞여 들어왔어요.}

=1 @ 그럼 십이계까지.{그러면 십이 계까지.} # 그래 우리 이 공사 공사 우러는.{그래 우
리 이 공사, 공사 위로는.}

=1 # 부락이 비이도.{부락이 비어도.}

=1 # 조인섭.{???} @ 안 받고.{안 받고.} # 중구 사람 받지마자, 이래 결정 해 너 이.{중
국 사람 받지말자, 이렇게 결정 해 놓으니.} @ 예, 예.{예, 예.}

=1 # 악 바안지 안해가, 복잡하느 안해요, 이 우울루느.{막 받지 않아서, 복잡하느는 았아
요, 이 위로는.}

=1 # 그은데 인자 요 민족 민족촌 맨든다아고 언자 저 남흥에서느.{그런데 인제 요 민족,
민족촌 만든다고 인제 저 남흥에서는.}

=1 # 요 첫분 * 우리 남흥대대에서느.{요기 첫 번째 우리 남흥대대에서는.}

=1 # 시방 그래 자악 자알 꾸려놓고 잇는데 머어 어찌 할란지 모르겠심이다.{지금 그렇게
잘 잘 꾸려놓고 잇는데,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예.}

=1 # 사랑이 없이니까 미족촌 하모 머야겠나.{사람이 없으니까 민족촌 하면 뭐 하겠어요.}

=1 @ 그으 하동에 말이지오.{그 하동에 말이죠.}

=1 # 예.{예.} @ 겨영성남도에서 온 사람들 잇습니까?{경상남도에서 온 사람들 잇습니까?}

=1 # 전에는: 나암도요서도 온 사람들 더리 잇앗지마느 그 어른들이 다 세에상 뜨니까.{전
에는 남도에서도 온 사람들이 더리 있었지만, 그 어른들이 다 세상 뜨니까.}

=1 @ 아 아.{아.} # 저언수 젊은 사람들도 집에 잇는 사람도 없우예, 다한국가고 없어야.
{전부 젊은 사람들도 집에 잇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한국 가고 없어요.}

=1 @ 그우 그 가도 쟁상남도.{그러면 거기에 가도 경상남도.}

=1 # 모은 찾지요, 찾기 힘들어요.{못 찾지요, 찾기 힘들어요.} @ 찾기 힘들겠네요.{찾기
힘들겠네요.} # 예, 예, 저언수.{예, 예, 전부.}

=1 # 북선 사람이 주루 마 이 잇고.{북한 사람이 주로 많이 잇고.} @ 예.{예.} # 예, 예.
{예, 예.} @ 아 아.{아.}

=1 # 처언추어 우리: 우우로 데는 사란들은 다 세상 뜨고 없어예.{전부 우리 위로 되는 사
란들은 다 세상 뜨고 없어요.} @ 예.예, 예.{예, 예.} # 예.{예.}

=1 @ 여기는 저 머입니까.{여기는 저 뭍니까.}

=1 @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사이에.{한국에서 건너 온 사람들 사이에.}

=1 @ 서로 연락 같은 거엇이 잇습니까?{서로 연락 같은 것이 있습니까?}

=1 # 다 그래 그래 연락하기 때문에 다꺼오고가고 하지이요.{다 그래, 그래 연락하기 때문에 다 오고가고 하지요.} @ 예예.{예.} # 예.{예.}

=1 # 그코오 이 저 저 야매로 사가 하는 가는 사람도 마얏고.{그리고 이 저 저 가짜를 사서 하는, 가는 사람도 많고.}

=1 # 인지느 또 야매도 어엿고.{이제는 또 가짜도 없고.}

=1 # 자 머 노오무로 가는 사람도 잇고, 그 공우로 가는 사람도 잇고, 그래 가는 사람 잇고.{인제 뭐 노무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는 사람 있고.}

=1 # 인지느 머 그래저래도 오오년 육년 테엔 사음들도 머 어째 잘못 테가조와 안해준다고도 해샅고.{인제는 뭐 그래저래도 오 년 육 년 된 사람들도 뭐 어떻게 잘 못 돼 가지고 안해 준다고도 해 샅고.}

=1 # 머 그래도 어:쨌든지 벨 방법을 해 가주와 하안국 간다고 다 보오는 거 아 이라고.{뭐 그래도 어쨌든지 별 방법을 해 가지고, 한국 간다고, 다 버는 것 아니예요.} @ 그러게.{그러게.} # 하안국 가도.{한국 가도.}

=1 # 여그서 빌어먹던 것들이 하안국 가가도 가도 매앵.{여기에서 빌어먹던 것들이 한국에 가도 역시.}

=1 # 집에서 쉼는 바가지 나가도 새요, 여그서 근해야 한국 가도 돈 버어지요.{집에서 샌나 바가지 나가도 새요, 여기에서 부지런해야 한국 가도 돈 벌지요.}

=1 @ 맞습니다.{맞습니다.} # 그래가주어 차비가 없아가 몬 오는 사람도 많단대여.{그래 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대요.} @ 예예.{예.}

=1 # 그:니까 다: 사람 나릅이라고요.{그러니까 다 사람 나릅이에요.}

=1 # 사해를 국가로 나무래지 마고 다 보온신 문제예.{사회를 국가를 나무라지 말고 다 본인 문제.} @ 마아, 맞지요.{맞, 맞지요.} # 본신을 본인 문제지, 잘 살고 모은 사는 거느.{본인을, 본인 문제지, 잘 살고 못 사는 건.}

=1 # 시방 차 맬기 풀아놓고 니 마음대로 잘 묵고 잘.{지금 잘 맡겨 풀어 놓고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1 # 잘하며 잘 사아고 몸하모 모은 선, 몬하모 모은 산다고.{잘 하면 잘 살고 못 하면 못 산, 못하면 못 산다고.}

=1 # 버러 정책이 그래 내려믹이는데.{벌써 정책이 그렇게 내려 오는데.}

=1 # 와 이 세상에 잘 몬 살겟나요.{왜 이 세상에 잘 못 살겠어요.} @ 음.{음.}

=1 # 예, 우리 아아들은 참 열심히 벌아가 열심히 해가 살아요.{예, 우리 아이들은 참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해서 살아요.}

=1 # 한국마 갓다커머 마케 이혼하제.{한국만 갔다고 하면 모두 이혼하지.}

=1 # 아아든 아아대로 아아들대로 주구난방 테가주고.{아이들은 아이대로 아이들대로 ??? 왜 가지고.}

=1 @ 그러게, 가, 가정이 그냥.{그러게, 가, 가정이 그냥.} # 도 개망종이 테지요, 예, 가정도 다 파산시키지요.{또 개망종이 되지요, 예, 가정도 다 파산시키지요.}

=1 # 하안국 나무렐기 머 잇나논, 잘 더그다 벌아가 열심히 아아들도 그 도우고 사알며 데는데.{한국 나무랄 게 뭐 잇나요, 잘 자기들이 벌어서 열심히 아이들도 그 돕고 살면

되는데.}

- =1 # 그래 갈라진 사람도 많애, 집구석 망안 사람도 많십니다.{그래 갈라진 사람도 많아, 집구석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 마안, 많겠네요.{ 많, 많겠네요.}
- =1 # 또 우리 아아들은 안주 머어 그런 건 없이니까.{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뭐 그런 건 없으니까.} @ 예.{예.}
- =1 @ 한국에 잇을 때 가을걷이하고 난 다음, 디에는 이제 겨울 준비 안 합니까?{한국에 있을 때 가을걷이하고 난 다음, 뒤편에는 이제 겨울 준비 하잖습니까?}
- =1 # 예, 겨울준비, 그저 나무나 해딜이고.{예, 겨울 준비, 그저 나무나 해 들이고.} @ 주로 나무?{주로 나무?}
- =1 # 예, 나무 해딜이고 언자 바닥가에 짐이나 뜯아 날리고 그저 글치요 마.{예, 나무 해 들이고 인제 바닥가에 짐이나 뜯어 나르고 그저 그렇지요 뭐.} @ 예, 예.{예, 예.}
- =1 # 바닥가에 또항.{바닥가에 ??}
- =1 # 한국에느 여름 겨울더없어요, 도옹삼여난 인자 산에느 가아요 갈비 시간 잇이며 갈비 끌라 땡기고.{한국에는 여름 겨울도 없어요, 동삼에는 인제 산에 가서 갈비, 시간 있으면 갈비 굽으러 다니고.}
- =1 # 아니며 내애 부둣가에 그 머 나물이라 뜯아야 먹고사알고.{아니면 내 부둣가에 그 뭐 나물이라도 뜯어야 먹고 살고.}
- =1 # 팔거노 팔고 고기도 바까 먹고 그렇기 사지요 머.{팔 건 팔고 고기도 바꿔 먹고 그렇게 살지요, 뭐.} @ 예, 예, 예.{예, 예, 예.}
- =1 # 우리는 바닥가에 사니까 내애 노을새 없이 해애**.{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내 놀 새 없이 해**.} @ 그러이켓네여.{그랬겠네요.}
- =1 # 여그느 중국에느 마, 이 하애 농사 지이뿌모 마.{여기는 중국에는 뭐, 이 한 해 농사 지어 버리면 뭐.}
- =1 # 동삼 내애 쳐묵고 놀고 마장 놀고 노름 놀고 생 야아다 이지오 예.{동삼 내 쳐 먹고 놀고, 마작 놀고, 노름 놀고, 생 야단이지요, 예.} @ 맞습니이다, 맞아, 예.{맞습니다, 맞아, 예.}
- =1 @ 그 여기서 옛날에 그으.{그 여기에서 옛날에 그.}
- =1 @ 공동으로 그 농사 지을 때.{공동으로 그 농사 지을 때.} # 예, 예, 집체에, 집체 ***.{예, 예, 집체, 집체 ***.} @ 집체.{집체.} # 예.{예.}
- =1 @ 그으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 =1 # 그그느 인자 한 사람이: 인자 지위하머는 이일 시기머 이일 하아고.{거니느 인제 한 사람이 인제 지휘하면, 일 시키면 일 하고.}
- =1 # 마지막에 인자 지.{마지막에 인제 지.}
- =1 # 살고옥 다 하고느 다아 얼마 누가 얼마 공, 공수로 얼마 벌앗으며 그 공수이 비레해 가주고.{탈곡 다 하고는 다 얼마 누가 얼마 점, 점수를 얼마 벌었으면, 그 점수에 비레 해 가지고.}
- =1 # 인자 그으 월급을 차.{인제 그 월급을 찾.} @ 분배하고?{분배하고?} # 예, 치임금을 타자, 찾아 쓰지요 머, 그리 했어요.{예, 임금을 찾아, 찾아 쓰지요 뭐, 그렇게 했어요.}
- =1 # 그런자 공수가 얼마 안 데머 도온도 얼마 안 데고, 부지러 이 나가 버얼머는 양식

값으리 하고.{그래 인제 점수가 얼마 안 되면 돈도 얼마 안 되고, 부지런히 나가 벌
면 양식 값을 하고.} @ 예.{예.}

=1 # 크:때도: 빗찌가주고 식구도 마왕고 입이 세엔 사람들은.{그때도 빗 저가지고 식구도
많고 입이 많은 사람들은.}

=1 # 암만 버얼아도 양식값도 모으해가는 사람 많았어요, 예.{아무리 벌아도 양식값도 못
해가는 사람 많았어요, 예.} @ 안 드, 그렇지요.{안 돼, 그렇지요.}

=1 @ 하 아, 그게 저.{하, 그게 저.}

=1 @ 이 단이가 작은 데에서 큰 데, 종합 이런 식으로 데 잇었습니까?{이 단위가 작은 데
에서 큰 데, 종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예, 예, 예.{예, 예, 예.}

=1 # 개인 호, 개인으로 호조 개인으 이 이래 하다가.{개인 호, 개인으로 호조, 개인으로 이
이렇게 하다가.}

=1 # 고 다음에 열집 세집 이래 또 인자 인자 호조조로 하다가.{그 다음에 열 집, 세 집 이
렇게 또 인제, 인제 호조조로 하다가.} @ 예.{예.}

=1 # 고 답에 대영조로 언자 하다가.{그 다음에 대형조로 인제 하다가.}

=1 # 그 답 합짜기로 나와가 언자 초옹집세가 데엿지요.{그 다음에 합작으로 나와서 인제
총집세가 됐지요.}

=1 # 오온 한 마을이 초옹집세로.{온, 한 마을이 총집세로.}

=1 # 그래해가 그으서 인자 같이 이일해가.{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제 같이 일해서.}

=1 # 마 이 한 사람 마 이 분대 받아먹고 자악게 한 사람 자악게 분배 받아 먹고.{많이
한 사람 많이 분배 받아 먹고, 작게 한 사람 작게 분배 받아 먹고.} @ 예.{예.}

=1 # 공수마 마 이 버얼머 도온도 마 이 하오, 타고 그랫어요.{점수만 많이 받으면 돈도
많이 하, 타고 그랫어요.} @ 어, 허, 그을.{어, 허, 그걸.}

=1 @ 아 아, 그으.{아, 그.}

=1 @ 개인 배당이 있어 가지고 그으 끝내머는.{개인 배당이 있어 가지고 그거 끝내면.}
예.{예.}

=1 @ 인정 받고 또 더 하고 이런 식이 데갯군여.{인정 받고 또 더 하고 이런 식이 되겠군
요.} # 예, 예, 예, 근:자 타아 기공으.{예, 예, 예, 그 인제 다 기록을.}

=1 # 하루에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고 맨 시간 하고 맨 시간 너어난거 저언수 기공해가.
{하루에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고 몇 시간 하고 몇 시간 ??? 거 전부 기록해서.}

=1 # 그 통계를 다 안 보나요, 예.{그 통계를 다 보잖아요, 예.}

1.2.2.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7 @ 소 먹이셨다 그랫** 소도요?{소 먹이셨다 그러셨죠, 소도요?} # 예에, 우리
아분니 게실 때느 소도 먹엿십니더 이.{예, 우리 아버님 게실 때는 소도 먹엿습니
다.}

10327 # 소오 차도 잇앗고, 구루마 메와가주, 예.{소 차도 잇었고, 수레 메워 가지고, 예.}
@ 예, 예, ,예, 예, 크 때에 그으 얼룩소:라는게 잇었습니까?{예, 예, 예, 예, 그 때
그 얼룩소라는 게 있었습니까?}

10327 @ 얼룩배기?{얼룩빼기?} # 어 얼룩소가 잇아도 그 우유소 아이나요, 얼룩소가.{어 얼룩소가 있어도 그 젖소 아닌가요, 얼룩소가.} @ 그 말고.{그거 말고.} # 그 그 마알고요?{그거 말고요?} @ 누아란 황손데.{누런 황소인데.} # 예 예.{예.}

10327 @ 얼룩배기, 얼루기 저.{얼룩빼기, 얼루기 저.}

10327 # 얼루기 소는 모은 바앗심더.{얼루기 소는 못 봤습니다.}

10327 @ 아, 그랬습니까?{아, 그랬습니까?} # 우린 노, 누런 책깔이 잇는, 황소도 믹이고, 와안소도 믹에보고, 우리 아분님이, 예.{우린 노, 누런 색깔이 잇는, 황소도 녀이고, 암소도 먹여보고, 우리 아버님이, 예.} @ 그냥 누우런 **. {그냥 누런 **.}

10327 # 그래가 언자 농사 짓는데 내 농사느 해갈하고.{그렇게 해서 인제 농사 짓는데 내 농사는 인제 해결하고.}

10327 # 논갈이 밭갈이 하는데.{논갈이 밭갈이 하는데.}

10327 @ 소가 좀 순: 하지오?{소가 좀 순 하지오?}

10327 # 예, 개인에: 믹이느 소느 주인네마 잘 다루며 소가 순해예, 예.{예, 개인이 먹이는 소는 주인네만 잘 다루면 소가 순해요, 예.} @ 예.{예.}

10327 @ 그 소 믹이면서 쫘 애 먹어 본 적은 없습니까?{그 소 먹이면서 쫘 애 먹어 본 적은 없습니까?}

10327 # 우리느: 우라:번님카 아 우리: 주인 양반카 아 그리 하 이.{우리는 우리 아버님 하고 우리 주인 양반하고 그렇게 하니.}

10327 # 이 우리 주인 양반은: 대장 열 하안다고 집 돌볼 섰 없지, 우리 아번님까.{이 우리 주인 양반은 대장 일 한다고 집 돌볼 새는 없지, 우리 아버님하고.}

10327 # 여물을 짝뚜에다, 여물을 설아도 우라:번님카 아 내, 우:라번님 믹이고 나느 우울 리고, 젊은 놈이 힘이 좋으니까.{여물을 작두에다, 여물을 썰어도 우리 아버님하고 내, 우리 아버님이 먹이고 나느 놀리고, 젊은 사람이 힘이 좋으니까.}

10327 @ 예예.{예.} # 이틀스 믹일 걸 카아득 여물칸더 설어놓며 이틀은 믹여요{이틀 썩 믹일 걸 가득, 여물?? 썰어 놓으면 이틀은 믹여요.}

10327 # 그리고느 또 설어야 데고, 그 쫘 기찮은 일이 마않지요, 머.{그리고는 또 썰어야 되고, 그 쫘 귀찮은 일이 많지요, 뭐.}

10327 # 오양간도 쳐야지, 예.{외양간도 쳐야지, 예.} @ 예.{예.}

10327 # 대에지도 믹이고 하니까 대지우리도 쳐야데고.{돼지도 먹이고 한까 돼지우리도 쳐 야 되고.}

10327 # 크은 가매다 대지죽을 끓여놓고 삼 시 시끼 퍼 믹이고.{큰 가마에다 돼지죽을 끓 여놓고 삼 시 세 끼 퍼 먹이고.}

10327 # 게에속 불 때야 데여, 예.{게속 불 때야 돼요, 예.} @ 크: 일이 많지요, 예.{그 일 이 많지요, 예.}

10327 # 글때느 소여, 사 따른 사람들은 머어 기찮다고 생식을.{그때는 소요, 사, 다른 사 람들은 뭐 귀찮다고 생식을.}

10327 # 마린 짚을, 이 말리, 마린 여물로 믹우어.{마른 짚을, 이 말린, 마른 여물을 먹여.}

10327 # 강낭까리 훑아주고 머오, 뜨신 물마 주고 헛다우, 우리느 우루아번님이.{옥수수 가

루 흠어 주고 뭐, 따뜻한 물만 주고 했다고, 우리는 우리 아버님이.}

10327 # 그래 모은 하라 그래요, 콩 넣고 여물물.{그렇게 못 하게 해요, 콩 넣고 여물 물.}

10327 # 물로 끓여가 하얀 솔스스 영울을 삶아요.{물을 끓여 가지고 한 솔씩 여물을 삶아요.}

10327 # 그래야 뜨끈뜨끈한 거요 소로 퍼 미 잘 먹지요 머.{그래 가지고 뜨끈뜨끈한 걸 소에게 퍼 먹이면 잘 먹지요, 뭐.} @ 예, 그렇지야.{예, 그렇지요.} # 그니 살이 그저 보메느.{그러니 살이 그저 보면.}

10327 # 소가 번드리: 하 이.{소가 번드레하니.}

10327 # 털을 다 부엌고 영 좋아여.{털을 다 ??? 영 좋아요.}

10329 @ 그 남이 소 먹이는 거는 안 했습니까?{그 남의 소 먹이는 건 안 했습니까?}# 그 건 안 했습니다.{그건 안 했습니다.} @ 예.{예.} # 예.{예.}

10329 @ 그런 것도 잊었지요?{그런 것도 있었지요?} # 예, 그런 지이도 잊었지요, 그런 사암 남에 소, 여 찌게.{예, 그런 집도 잊지요, 그런 사람 남의 소, 여 저기.} @ 예.{예.}

10329 # 그고 해 가주거 키아가지고 자기네 시컨 부릴 정도며 도 다알라카며 또 조운뿌고, 또 또 판 소로 쪼매:는거로 가앗다가 또 먹에가 배양 먹이고 그래 하는 사암도 잊았어요.{그거 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자기네 실컷 부릴 정도면 또 달라고 하면 또 줘 버리고, 또 또 다른 소를 조그만 걸 갖다가 또 먹여서 ?? 먹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주고.{더 주고.}

1.2.3. 옷 만들기

10418 @ 옷은: 줌 만들어 보였습니까?{옷은 줌 만들어 보셨습니까?}

10418 # 아니오, 옷은 그저: 내가 천 뜨가 오며 내 손을 만들아가 아아들 해 입히고.{아니 오, 옷은 그저 내가 천 떠서 오면 내 손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해 입히고.}

10418 @ 예.{예.} # 또 어른들 해 디리고 그래가주구 내 손을 다 하지 머 어데.{또 어른들 해 드리고 그래 가지고 내 손으로 다 하지 뭐 어디.}

10418 # 땀기지도 안 하고.{말기지도 안 하고.} @ 그러쥬.{그렇쥬.} # 마선은 마 선을 사다 놓고.{재봉틀은 재봉틀을 사다 놓고.}

10418 # 그그 마선 사들 때도.{그거 재봉틀 살 때도.}

10418 # 하루에 새끼 굵은 새끼, 오오미리짜리라 하든가, 그런거로.{하루에 새끼 굵은 새끼, 오밀리짜리라고 하든가, 그런 걸.}

10418 # 한 스물 대엿빵구리스 꺼여, 새벽빼떠 밤새더러 저엿더러 꾸다가 나며.{한 스물대 여섯 바구니씩 파요, 새벽부터 밤새도록, 저물도록 꼬다가 보면.}

10418 # 그래 꼬가, 사아.{그렇게 파서, 사.}

10418 # 삼백토레로 파가주어 마선을 하나 사다 노 이 너어무 너무 좋아요.{삼백 토리를 파 가지고 재봉틀을 하나 사다 놓으니 정말 정말 좋아요.}

10418 # (웃음소리) 백오오십언 주고, 저 그 전에는 백오십얼매 작은 도 이 아 이라고. {백오십 위안 주고, 저 그 전에는 백오십 위안이면 작은 돈이 아니예요.} @

예, 예예.{예, 예.}

10418 #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다놓고(사다노고) 바암새도로 반갑어가.{그래 가지고 그걸 하나 사다놓고, 밤새도록 반가워서.}

10418 # 끝안고 자고 나 이.{끝안고 자고 나니.}

10418 # 그웁도 인자 더 바느질 그 기겔 다릴줄 몰라 그 우리 어때 이 한 집 기 기간소 아저씨가 있는데.{그것도 인제 또 바느질, 그 기겔르 다룰 줄 몰라 그 우리 어떤 한 집 기계점 아저씨가 있는데.}

10418 # 와 가지고 어어찌 하며 어어찌 하는 거 그건 나사도 다 조정해주고 해달,{와 가지고 어찌 하며, 어찌 하는 것, 그건 나사도 다 조절해 주고 해서.} @음.{음.}

10418 # 그래가 배우니까 돔 바느질은 머 내 절로 해가지고 아아들 옷 다 입히고.{그래 가지고 배우니까 또 바느질은 내 스스로 해 가지고 아이들 옷 다 입히고.}

10418 # 내 손으로 다 해뻐지, 어데 땀기지도 안 하고.{내 손으로 다 해 입혔지, 어디 맡기지도 안 하고.}

10418 # 고 양복 하는거는.{그 양복 하는 건.}

10418 # 그으 양복 뽀을 치수대로 떠다가.{그 양복 본을 치수대로 떠다가.}

10418 @ 뽀, 예, 해.{본, 예, 예.} # 고오 대고 딱 맑아가 하모 마 옷이 데지요.{거기에 대고 딱 말라서 하면 뽀 옷이 되지요.}

10418 # 그 바느질도 나는.{그 바느질도 나는.}

10418 # 누가 시집간다쿠며 도웅테 바느질도 나도 마 이 해엿심이다.{누가 시집간다고 하면 동네 바느질도 나도 많이 했습니다.}

10418 @ 예, 예.{예, 예.} # 큰일 치며.{큰일 치르면.}

10418 # 큰 상 채리라는 오오톨로 땡기고 마: 이 해엿심이다.{큰 상 차리라는 ???로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 마선 머언고 알아?{마선 뽀지 알아?}

10420 @ 길모 옷을 만들어 보섯으머는 그으 이름 압니까, 부분 부분이 이름?{그러면 옷을 만들어 보섯으면 그 이름 압니까, 부분 부분 이름?}

10420 # 그으.{그.} @ 요, 요거, 요리 요렇게 땡 거, 요런거.{요, 요거, 요리, 요렇게 뽀 거, 요런 거.} # 예, 예, 그리 맑아가 하며 데잖나요.{예, 예, 그렇게 말라서 하면 되잖아요.}

10420 # 이래 비이 칼르 저어.{이렇게 베어 칼로 저.} @ 그래 이름 압니까, 이름, 요어.{그래 이름 압니까, 이름, 요거.}

10420 # 아 아, 여그 이거는 진동이고, 요고 짓 대애는 거는 짓이고.{아, 이거 이건 ??이고, 요기 짓 대는 것은 짓이고.} @ 예, 짓?{예, 짓?}

10420 # 저 하안복은 요 짓을 대애잖나여.{저 한복은 요 짓을 대잖아요.} @ 지, 짓이, 예.{기, 짓이, 예.}

10420 # 그 인자 도웅전 대애고 고름 달고.{그 인제 동정 대고 고름 달고.} @ 예예, 예.{예예, 예.}

10420 # 그러므 데고, 남자들 옷은 여그 머어.{그러면 되고, 남자들 옷은 여기 뽀.}

10420 # 바지도 여그 머어.{바지도 여기 뽀.}

10420 # 이름이 다 따로 이잇어요, 머 작은 가리, 큰 가리.{이름이 다 따로 잇어요, 뽀 작은 ??, 큰 ??.} @ 예예.{예.} # {웃음소리}

10420 # 그 조선 엇으느.{그 조선 옷은.}
 10420 # 우리 이 해 보기는 해 바아도.{우리가 해 보기는 해 봐도.}
 10420 # 우리:무 이 따라서 좀 해 보기는 해 바앗심이다, 예.{우리 어머님 따라서 좀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예.} @ 예.{예.}
 10426 @ 염색도 들이부앗습니까?{염색도 들여 봤습니까?} # 아니예, 염색은 안 해바앗심이다.{아니요, 염색은 안 해 봤습니다.}

1.2.4. 식생활

1.2.4.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 그으 저축에 잇을때.{그, 저쪽에 있을 때.}
 10501 # 예예.{예.} @ 아 머, 그쪽 잇을때나 여기이 이 잇을때나 그으 채소.{아 뭐, 그쪽에 있을 때나 여기에 이 있을 때나 그 채소.}
 10501 # 예예.{예.} @ 어떤 채소오를 키우고.{어떤 채소를 키우고.}
 10501 # 그걸 가지고 어떤 반찬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그것을 가지고 어떤 반찬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10501 @ {웃음소리} # 무슨 양념넣고 이이이.{무슨 양념 넣고 이.}
 10501 # 예예, 우리.{예, 우리.} @ 구론게 참 중요하거든예.{그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 내가 예릴 때는.{내가 어릴 때는.} @ 예예.{예.}
 10501 # 할머니잘에: 이래, 이래 얻어먹다가나 이 그을때는 마아 데엔장.{할머니한테 이래, 이래 얻어먹다가 보니 그때는 뭐 된장.}
 10501 # 바다나물 무치고 귀저.{바다나물 무치고 그저.}
 10501 # 무우나 서라가 배차 곁은 그런거나 하지 머, 탄 벨 반찬도 없고(억꼬).{무나 썰어서 배추 같은 그런 것이나 하지 뭐, 탄 벨 반찬도 없고.}
 10501 # 혹시나 바다에 해물이나 생기면:자 그거나.{혹시나 바다의 해물이나 생기면 인제 그거나.}
 10501 # 저어, 무우 서리엥고 찌제먹고.{저, 무 썰어 넣고 지저 먹고.}
 10501 # 예릴때는 그런그도 배오지도 못했어요.{어릴 때는 그런 것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10501 # 언제, 십 시가에 와가지고.{인제, 십 시가에 와 가지고.}
 10501 # 자아 머어, 대사일도 많고하니까 여그저어 이집 도웅네 마을에 땡기미시도 배우고 그렇지.{저 뭐, 큰일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집(저집) 동네 마을에 다니면서도 배우고 그렇지.}
 10501 # 그 시, 예릴때는 그으런 ***. {그 시, 어릴 대는 그런 ***.} @ 그을게 요 요 쪽에 와서가 인제 좀 자세히 알겠군요.{그러니까 요 요쪽에 와서는 인제 좀 자세히 알겠군요.}
 10501 # 예, 예, 예, 시가에 와가지구도 그을때는 다아 모운 사니까 그저어 대소대소.{예, 예, 예, 시가에 와 가지고도 그때는 다 못사니까 그저 대소대소.}
 10501 # 그저 머 촌 촌에 반차 이야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데엔장 꼬지장 머어.{그저 뭐 촌 촌에 반찬이야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된장 고추장 뭐.}
 10501 @ 예예.{예.} # 인잡 이 여름 봄 한철은 또 여 사양추여 배애차여.{인제 이 여름 봄

한철은 또 이 상추요, 배추요.}

10501 # 언자 파 이 걸은거 그런거 먹고.{인제 파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10501 # 또 가을에 인자 저 인자 초복 때 데며는.{또 가을에 인제 저 인제 초복 때 되면.}

10501 # 인자 무우도 송궁고 초복때는 무우 송궁고 중복에는 또 배애차 송궁고요.{인제 무 심고 초복 때는 무 심고 중복에는 또 배추 심고요.}

10501 @ 예예.{예.} # 그래가지오 다아 식구가 만으 이 그을대 인자 배애차로 마 이 짐 치로 마.{그래 가지고 다 식구가 많으니 그때 인제 배추로 많이 김치를 뭐.}

10501 # 이런 열두 초롱 드는 까양에다 독에다가 마.{이런 열두 초롱 들어가는 강에다가 독에다가 뭐.}

10501 # 하안 세 독 네 독 해요, 그래도 우리느: 머어 벨로.{한 세 독 네 독 해요, 그래도 우리는 뭐 별로.}

10501 # 식구가 만으 이께네 그저 세 전에 그걸 다 먹어요.{식구나 많으니까 그저 설(?) 전에 그걸 다 먹어요.} @ 예예, 오오.{예, 오.}

10501 # 그래 이 우리 어무 이가 그런건 다아 글때꺼저다안주 새색시 시절이 테노 이 께네.{그래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건 다, 그때까지도 아직 새색시 시절이 돼 놓으니까.}

10501 @ 아하.{아하.} # 어머 이가 다 양념을 그숙해가주고.{어머님이 다 양념을 거식해 가지고.}

10501 # 그을때는: 마늘도 벨로 없고.{그때는 마늘도 별로 없고.}

10501 # 저어 마니저거서 없아가저고:, 어무 이요 마 을 안 여어머 데갯나요키 이.{저 마늘이 적어서 없어 가지고, 어머님요 마늘 안 넣으면 되겠어요라고 하니.}

10501 # 아 야아야 마 저영 많은 김장에나 무우로 숙수수 서라가지 연자들요.{아이 애야, 뭐 정 많은 김장에는 무를 삭삭삭 썰어 가지고 연자방아요.}

10501 @ 예예, 예.{예, 예.} # 연자들에 그그다 갈 갈아가 꼬치 까리 훑아가.{연자방아에 거기에다 갈 갈아서 고춧가루 흘려서.}

10501 # 그래가 치대가가 여어가 간만 맞이며 마 대.{그래서 버무려서 넣어 간만 맞으면 뭐 돼.}

10501 # 그으도 그래나도 맛있데요.{그것도 그래 놓아도 맛있데요.} @ 예예, 예.{예, 예.} # 무우 열고 해노 이 너무 맛있데여.{무 넣고 해 놓으니 정말 맛있데요.} @ 아 아.{아.}

10501 @ 그 아까 팡이라고 그랫잖습니까?{그 아까 팡이라고 그랫잖습니까?} # 예예? {예?}

10501 @ 팡이?{팡이?} # 파 이, 파아, 파.{파 이, 파, 파.}

10501 @ 아, 파아.{아, 파.} # 웨 요 한국을 말한 대파 이래엘잖애요.{왜, 요 한국에서 말하는 '대파' 이래 있잖아요.} @ 예예, 예{예, 예.}

10501 # 그으그요워 가앗제 올 가을에 송가노메.{????? ??? 올 가을에 심어 놓으면.}

10501 # 서릅 서리파라고 언자: 가실마당에 고 그러니께 추석전에.{서리 서리파라고 인제 가을무렵에 그 그러니까 추석 전에.}

10501 # 고 파 이로 송가눔 고기 서리파라요.{그 파를 심어 놓으면 그게 서리파예요.}

10501 @ 예.{예.} # 고곤 인자 봄 본데 땅마 아 놓오모 파 이노 이인차 자라나데요.{그 건 인제 본 본디 땅에만 놓으면 파는 금방 자라나데요.}

10501 @ 아, 예.{아, 예.} # 얼음만 녹오모, 고온:자 고새앤자.{얼음만 녹으면, 그 인제 그 새 인제.}

10501 # 봄에 송골거 나을 판에노 고오 땅 녹을 판에 고고 언자 먹고.{봄에 심을 거 나을 동안에는, 그 땅 녹을 동안에 그것 인제 먹고.}

10501 # 고 또오 보드라모 파 이리 또 승가가저고 인자 여름에 또 뽑아먹고.{그 또 보드라운 파를 또 심어 가지고 인제 여름에 또 뽑아먹고.} @ 아아, 예.{아, 예.}

10501 # 요새 그리구이자 시 시장에도 그 파 이가 그리 마 이 나와사예.{요새 그리고 인제 시 시장에도 그 파가 그리 많이 나와 쌓아요.} @ 많이 나쵸, 예예.{많이 나쵸, 예.} # 예, 마 이 나오.{예, 많이 나와.}

10501 # 그래그래 사알지, 촌에서 벨 반찬 없어요.{그래, 그래 살지, 촌에서 벨 반찬 없어요.}

10501 # 어어쨌 가주워 돈 푸 이나 생기며.{어쩌다 돈 풀이나 생기면.} @ 맞치예?{맞지요?}

10501 # 머어 참 소오고기도 쪼금 사다가 생활 개선한다고 한때씩 먹어보고.{뭐 참 쇠고기도 쪼금 사다가 생활 개선한다고 한 때씩 먹어보고.}

10501 # 돼지고기도.{돼지고기도.}

10501 # 그을때네 돼지고기 소오고기는 헐앿어요.{그때는 돼지고기 쇠고기는 헐앿어요.}

10501 @ 아, 그랫우니까?{아, 그랬습니까?} # 예예, 근코.{예, 그렇고.}

10501 # 대애지도 먹이며 내 마음대로 잡아먹고, 두 바리 잡아마(자알마) 한 마리 잡아먹고 한 마 이느 팔고.{돼지도 먹이면 내 마음대로 잡아먹고, 두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잡아먹고 한 마리는 팔고.} @ 예예.{예.}

10501 # 소도오 저어 머 중국사, 중국 마을에 가며는 소 아지도 마 이 팔아요.{소도 저 뭐 중국 사(람), 중국 마을에 가면 송아지도 많이 팔아요.}

10501 @ 예예.{예.} # 그 청년들이 모에 가지곰.{그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10501 # 추렴한다고 모에가저고 한 단석 머영다고.{추렴한다고 모여 가지고 한 잔씩 먹는다고.}

10501 # 그을머 소도 여장실 자 잘 사 잘 잡아먹어요.{그러면 소도 여상스럽게 자 잘 사, 잘 잡아먹어요.} @ 아우, 이긴.{아, 이제.}

10501 @ 그때엔 싹 값이 싹던 모양입니다.{그때에는 싹, 값이 싹던 모양입니다.} # 예, 값이 헐고.{예, 값이 헐하고.}

10501 # 맘, 이, 글게 여그 와가 여그서.{맘, 이, 그러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여기에서.}

10501 # 그 소꼬랑지고 먹고 다 내뺌다고, 한국에 우리느 *** 한국에느.{그 소꼬리고 뭐고 다 내버린다고, 한국에 우리느 *** 한국에느.}

10501 # 중국에느 소꼬란지 저 끊어가저 꺼 잡테 이가 아 가알이 가죽은 팔아도.{중국에느 소꼬리 저 끊어 가지고 껍, 껍질하고 같이 가죽은 팔아도.}

10501 # 그런건 다 버린다 이.{그런 건 다 버린다니.}

10501 # 기암을 하테여.{기함을 하테요.}

10501 # 그 소구 소꼬랑지에 그래 영양까가 많다하테예.{그 소 소꼬리에 그렇게 영양가가 많다고 하테요.} @ 예예.{예.}

10501 # 근데 우운자 인자 아알고보니까 인자 알고 한국 갓다오야 그 다 먹을줄 알아예.

{그런데 인제 인제 알고 보니까 인제 알고 한국 갔다와서 그 다 먹을 줄 알아요.} @ 예에.{예.}

10501 # 그제 그래: 그래, 촌에 그제 만날.{그제 그래 그래, 촌에 그제 만날.}

10501 # 감자도 숭가가져 그래 먹고, 강내 이도 숭가 먹고.{감자도 심어 가지고 그래 먹고, 강내이도 심어 먹고.}

10501 # 그제 그래 사아지, 특빠리 벨 념 벨난 반찬이 없어요.{그제 그래 살지, 특별히 별 놉, 별난 반찬이 없어요.} @ 예에, 예.{예, 예.}

10501 # 손님이나 오며: 언자 두부나 사다가 찌져 먹고.{손님이나 오면 인제 두부나 사다가 지져 먹고.} @ 예에.{예.}

10501 # 인자 요새애는 두부장사도 땡지만, 전에는 집애 손망들이 잇이니까.{인제 요새는 두부 장수도 다니지만, 전에는 집애 '손망'들이 있으니까.}

10501 # 갈아가주워 집에서 쪼매끄무운 두부르 해가 먹지요,{갈아 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두부를 해서 먹지요.}

10501 @ 손망이라는데 머어?{손망이라는데 뭐?} # 여 마양 마양돌 잇잖애요.{여 맏 맏돌 잇잖애요.} @ 예에, 예.{예, 예.}

10501 # 둥그란 마 수 돌.{둥그런 뭐 돌.} @ 예에, 예, 예.{예, 예, 예.}

10501 # 그게 한국에도 와 촌에는 이 망질 해샅지않겄나예?{거기에 한국에도 왜 촌에는 이 맏돌질 해 샅지 않겄어요?} @ 그 망이라 그랫습니까?{그 망이라 그랫습니까?} # 예, 망이라 하니이더, 그*.{예, 망이라 합니다, 그[X거X].} @ 맏돌 아니고요?{맏돌 아니고요?} # 맏.{맏.}

10501 # 이에 미 우리는 여그 망돌이라 하데요.{이에 미 우리는 여기 망돌이라 하데요.} @ 아 아.{아.}

10501 # 한국에는 맏돌이라 하고 맞아예.{한국에는 맏돌이라 하고, 맞아요.} @ 예, 예, 아, 망돌.{예, 예, 아, 망돌.} # 예에, 망돌이라 해예.{예, 망돌이라 해요.}

10501 # 그래, 그래가저고 마아 참 사다가.{그래, 그래 가지고 뭐 참 살다가.}

10501 # 이래애 언자 동네에 이짜 그래그리 발전을 하니까 동네에 대사도.{이래 인제 동네 인제 그래 그리 발전을 하니까 동네 큰일도.}

10501 # 개주 마 잔치도 생기고 마안.{그 중에 뭐 잔치도 생기고 뭐.}

10501 # 한갑도 생구지 니일에 생길.{환갑도 생기지, 일에 생길.}

10501 # 그래 땡기미 친고들끼리 양님도 좀 하는거도 배우워.{그래 다니며 친구들끼리 양님도 좀 하는 것도 배우고.}

10501 # 또 그렇지, 고언자 뜨 내가 또 그리그리 아아들 자양개 다아 시기고 나 이.{또 그렇지, 그 인제 또 내가 또 그리그리 아이들 장가 다 시키고 나니.}

10501 # 아이고, 인자 날 빨잡지 마라, 인자 나 자유대로 노오데 가알란다, 그래 내가.{아이고 인제 날 붙잡지 마라, 인제 나 자유롭게 어디에 가련다, 그래 내가.}

10501 # 식당 생활을 하미이서, 쫌 배운기 잇지요.{식당 생활을 하면서, 쫌 배운 게 잇지요.}

10501 # 그래, 양님 이것도 여코, 저것도 여코 여어머 그래 그 맛이 나지.{그래, 양님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넣으면 그래 그 맛이 나지.} @ 예, 예에, 예, 아! 그렇구나.{예, 예, 예, 아! 그렇구나.}

10501 @ 그러머 식당 하실 때 그으 약, 저어 반찬은?{그러면 식당 하실 때 그 양, 저 반찬은?}

10501 # 지시.{??} @ 나물 같은 거어.{나물 같은 것.} # 나물도 무쳐도 그** 우리 하안국 걸잡고 여그느 그저.{나물을 무쳐도 그** 우리 한국 같지 않고 여기는 그저.}

10501 # 저언수 찌지고 뽕옥구는거 머 그뿌 이지요 머 그런데.{전부 지지고 볶는 거 뭐 그뿐이지요 뭐 그런데.}

10501 # 인자 생채 갖고 하며는.{인제 생채 갖고 하면.}

10501 # 배치 지임치하고 언자 곁절이 무치는 거.{배추, 김치하고 인제 곁절이 무치는 것.} @예예, 예.{예, 예.}

10501 # 예, 그런거 하구어.{예, 그런거 하고.}

10501 # 인자, 저 저 저 칸두푸 서러가저고 고고다야 또.{인제, 저 저 저 건두부 썰어 가지고 거기에다 또.}

10501 # 콩, 저 저 노옥뜨나물도 삶아가저 그래 무치머 데고.{콩, 저 저 녹두나물도 삶아 가지고 그래 무치면 되고.}

10501 # 기름장, 콕.{기름장, 콩.} @ 예예.{예.}

10501 # 꼬깃가리에다 기름, 콩기름을 달아가 고거 여얼가 고래 해노오모 어마가요 꼬소한 기이 맛있어요.{고춧가루에다 기름, 콩기름을 달아서 그것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 꼬소한 것이 맛있어요.} @ 하아.

10502 @ 그르우 아까 그으 콩나물어라 그래습니까, 콩지름.{그리고 아까 그 콩나물이라 그랬습니까, 콩지름.} # 콩나물요.{콩나물요.}

10502 @ 콩나물?{콩나물?} # 콩, 콩가주버업 콩기름, 예예.{콩, 콩 가지고 콩기름, 예.} @ 예, 예, 그그느으 집에서 대개 키우지요?{예, 예, 그거는 집에서 대개 키우지요?}

10502 # 다아, 다아 도옹삼하안철은.{다, 다 동삼 한 철은.} @ 그걸 우찌 키우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줌.{그걸 어떻게 키우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줌.}

10502 # 아 아, 콩나멸, 고고 저어 벌기도 아안 묵고 충실한 콘마아 고올래가꼬요.{아, 콩나물, 그거 저 벌레도 안 먹고 충실한 콩만 골라 가지고요.} @ 예예, 그인 중요하지 예, 예예.{예, 그게 중요하지요, 예.}

10502 # 고 똥겉동그라 이 숭실한거막, 벌기 머 은거느 가이 나아바야.{그 동글동글하니 충실한 것만, 벌레 먹은 것은 그 놓아봐야.} @ 안나쥬?{안 나쥬?} # 아 자, 서거버리야.{아 자, 섞어 버려요.} @ 예예.{예.}

10502 # 고 충실한 것마 고올래가주고.{그 충실한 것만 골라 가지고.}

10502 # 짜이야, 오올막오오늘 내일에 콩나알 안출라머.{??? ????? 내일 콩나물 앓히려면.}

10502 # 오늘 골래가지고 다라 이다가 다라에다 담가나요.{오늘 골라 가지고 다라이에다 다라이에다 담가 놓아요.} @ 예예.{예.}

10502 # 밤새애두러 푸우욱 뿔은담에네 널 아치인자 고 밀에 이래 콩나멸독에다가.{밤새도록 풀 불은 담에는 내일 아침에 인제 그 밀에 이래 콩나물독에다가.}

10502 # 단지 잇잖나요.{단지 잇잖아요.} @ 예예.{예.}

10502 # 단지에다 코 놓고 언자 밀에 고이짜 단지에 구녕 뿔아가주 고래가 따악 다암마가.{단지에다 그 놓고 인제 밀에 그 인제 단지에 구멍 뚫어 가지고 그래서 딱 담아 가지고.}

10502 # 우에 인자 짚을 묶아가주오 따악 피아놓고{위에 인제 짚을 묶어 가지고 딱 피워
놓고.}

10502 # 그 자아주 물로 자주 퍼버아조야.{그 자주 물을 자주 퍼부어 줘여.} @ 근데 그
밑에: 단지 밑에.{그런데 그 밑에 단지 밑에.}

10502 # 다라로 또 농제, 대액트 대라, 다라로 놓고.{다라이를 또 놓지, ??? 대라, 다라이
를 놓고.}

10502 # 챗다리로 **** 거얼치지 않나예.{챗다리로 **** 걸치지 않나요.} @ 아, 그것만 합
니까, 지?{아, 그것만 합니까, 지?} # 예예.{예.}

10502 @ 짚을 태아가지고 이렇게 안하고요?{짚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요?} # 지,
지.{지, 지.}

10502 # 짚을 요래 출, 깨끗이 추레가지고.{짚을 요래 추려, 깨끗이 추려 가지고.}

10502 # 요래 묶아가 손, 쿵, 쿵꼬옥때다아 요래애 피아나요.{요래 묶어서 쿵 위에다가 요
렇게 피워놓아요.} @ 예예.{예.}

10502 # 고름 언자 한 나알 닷새 데머.{그럼 인제 한 나흘 닷새 되면.}

10502 # 축이 발름발름 터요.{씩이 파룻파룻 터요.} @ 예예.{예.}

10502 # 고로모 자:꼬 물로 부지러 이 주며느른.{그러면 자꾸 물을 부지런히 주면.}

10502 # 잔발이 안 나고요.{잔발이 안 나고요.} @ 예예, 예.{예, 예.}

10502 # 그럼 아 인** 벌로: 아아들이 오아들이 아아들로파테 매께놓고 어들 나갓다가 드
갓다하문 마.{그러지 않고 건성으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어디를
나갓다가 들어갓다가 하면 뭐.}

10502 # 그 담은 잔발이 나와가지고.{그 다음에는 잔발이 나와 가지고.} @ 물 줄 때를 놓
지 가지고.{물 줄 때를 놓쳐 가지고.}

10502 # 예예, 자아꼬 자조 퍼버어저야 데오.{예, 자꾸 자주 퍼 부어 줘야 되고.}

10502 # 우리 한국에 가보 이 그 콩나멸: 키우는 으 응 그.{우리 한국에 가보니 그 콩나
물 키우는 음 그.}

10502 # 찌릉 장소가 잇이니까 게에속 돌아가지않나요, 물이.{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물이.}

10502 # 그리니까 잔발이 안나고 얼마나 잘 카요, 여어도.{그러니까 잔발이 안 나고 얼마
나 잘 커요, 여기도.}

10502 # 할매들 잇는 집들은 그저 시도때도 째마 이시면.{할머니들 잇는 집들은 그저 시도
때도 째만 있으면.}

10502 @ ** 물을 주네요?{** 물을 주네요?} # 예, 물로 부우니까.{예, 물을 부으니까.}

10502 # 그런 그런 집들은 콩나멸 잔발 안나고 자알 키아요.{그런 그런 집들은 콩나물 잔
발 안 나게 잘 키워요.} @ 예예.{예.}

10502 # 콩나멸도 구웁고.{콩나물도 굶고.} @ 예예.{예예.}

10502 # 마아 바빠가지고 물도 자주 안주는 집들은 한테 영케가 잔발이 영케가지구 뜯아
내지도 못할 정도로.{뭐 바빠 가지고 물도 자주 안 주는 집들은, 한테 영켜서 잔발이
영켜 가지고 뜯어내지도 못할 정도로.}

10502 # 어예끼나 콩나물은 고래키마 기주모 데예예.{어쨌거나 콩나물은 그렇게만 기르면
돼요.}

10502 # 그코오 녹띠나물도 치울때 녹띠나물도 도옹삼하안천 다 집에서 가까서 먹어예.{그리고 녹두나물도 키울 때, 녹두나물도 동삼 한철엔 다 집에서 가꿔서 먹어요.} @ 예예.{예.}

10502 # 그 녹띠도 매앵 불하가지고 인자.{그 녹두고 역시 불려 가지고 인제.}

10502 # 고고도 여 다라에 이 이런 야양재게다 담마가지고.{그것도 이 다라이에 이 이런 양재기에다 담마 가지고.}

10502 # 녹띠나물은 콩나물 겉참고.{녹두나물은 콩나물 같지 않고.}

10502 # 오늘 인자 여 담가놔다가 빨어가진:자 다라 야양재기다 담마 보재기 따악 씨아노면.{오늘 인제 이 담가 놔다가 불려가지고 인제 다라이, 양재기에다 담마 보자기 딱 찍워 놓으면.}

10502 # 내일이 모레 한 이틀 데머 또 축이 볼름발름 트지요 뭐.{내일, 모레 한 이틀 되면 또 짝이 파룻파룻 트지요 뭐.}

10502 # 고때 또마 이 축이 나가 요마인 할 떠는.{그때 조그마하니 축이나서 요만 할 때는.}

10502 # 아침에도 씻가 건저가 또 넌 물 찌아가 뽀 담마 놓고.{아침에도 씻어 건저서 또 물 끼얹어 또 담마 놓고.} @ 아! 그으를 그냥 물만 주는기 아니고?{아! 그것을 그냥 물만 주는게 아니고?} # 예예.{예.}

10502 # 녹띠나르는 삼시 시이끼 씻가야 돼요.{녹두나물은 삼시 세끼 씻어야 돼요.}

10502 # 자아꾸 씻쳐야 데, 예, 예.{자꾸 씻어야 돼, 예, 예.} @ 들어가지고, 아! 예, 예.{들어 가지고, 아! 예, 예.}

10502 # 들어내 씻차가저오 또 물 쪽 찌아가 고오토부 다라에 담아가.{들어내 씻어 가지고 또 물 쪽 끼얹어서 그 다시 다라이에 담마 가지고.} @ 씻까서.{씻어서.}

10502 # 또 보재기 덮아놓고, 제벱에도 또 들어내가.{또 보자기 덮어놓고, 저녁에도 또 들어내서.}

10502 # 새물로 까지고 다*.{새물을 가지고 다*.}

10502 # 고래가저 하안 일주일 지내머.{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 지내면.}

10502 # 토롱토롱토롱하 이 너무 좋아요.{토실토실토실하니 너무 좋아요.} @ 예예.{예.}

10502 # 그래 이:마 이: 요마 이 기이머느.{그래 이만큼, 요만큼 길면.}

10502 # 뽕아 먹아도 이 기름에 ** 이래 뽕아먹어도 데고.{볶아 먹어도 이 기름에 ** 이래 볶아 먹어도 되고.}

10502 # 고 살짝 데와가지고 문체나도 좋고 그래여.{그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 놓아도 좋고, 그래요.} @ 예예, 예.{예, 예.}

10502 @ 그러믄 썩거일 때 이름하고 나물 해났을 때 이름하고 똑같습니까?{그러면 생 거일 때 이름하고 나물 해 놓았을 때 이름하고 똑같습니까?}

10502 # 매앵 가알지요, 이건 녹뚜나물이고 콩은 콩나물이고 글치요 머.{역시 같지요, 이건 녹두나물이고 콩은 콩나물이고 그렇지요 뭐.} @ 예예, 콩나물이고.{예, 콩나물이고.} # 예예, 예.{예, 예.}

10502 @ 생것도 녹뚜나물이고 콩나물이고?{생 것도 녹두나물이고 콩나물이고?} @ 예예, 예.{예, 예.}

10502 # {웃음소리} @ 아 아! 그렇네.{아! 그렇네.}

10502 # 서울에 계시니까안 그런.{서울에 계시니까는 그런.} @ 잘 모르죠, 예에, 예.{잘 모르죠, 예, 예.} # 잘 모르지요?{잘 모르지요?}

10502 @ 아 아, 노옥떠나물은 키우는게 다르구나.{아, 녹두나물은 키우는게 다르구나.} # 그그느 마아 촉마 트며느.{그것은 뭐 썩만 트면.}

10502 # 차아꾸 자주 쉬아야 데여.{자꾸 자주 씻어야 돼요.}

10502 @ 한 한 때 그냥 떠가지고?{한 한 데 그냥 떠 가지고?} # 예에, 예, 이래 여어 한 타 한 다레예 요래 습 다라이다 부우가지고.{예, 예, 이래 여기 한 다 한 다라이에 요 래 다라이에다 부어 가지고.}

10502 # 살랑살랑 흐드러가 소쿠리이 딱 건져나왔다 매앵 다라에다 부우가.{살랑살랑 흔들 어서 소쿠리에 딱 건져 놓았다 역시 다라이에다 부어 가지고.}

10502 # 보재기 딱 덮아놓고.{보자기 딱 덮어놓고.}

10502 # 그그느 그다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그래야.{그건 그저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 고 그래야.} @ 그럼 막.{그럼 막.}

10502 @ 뜨 디이로 막 섞이지 않습니까?{뒤 뒤로 막 섞이지 않습니까?}

10502 # 갠창에요, 그그느 그그느 그래도.{괜찮아요, 그건 그건 그래도.} @ **.{**.}

10502 # 그래 쉬으며 여러:별 쉽다가 나며 위마끔 기며.{그래 씻다가 여러 번 씻다가 보면 이만큼 길면.}

10502 # 껍떼 이가 거진 이에 자꾸 자즈 쉬이네 껍떼기 지절로 붙아지지요 머.{껍떼기가 거의 이래 자꾸 자주 씻으니까 껍떼기 저절로 벗겨지지요, 뭐.} @ 예, 예, 예, 예에, 예.{예, 예, 예, 예, 예, 예.}

10502 # 그래 토롱토라하안기, 고래 끈 녹떠나물은 자아꼬 누울러야 데예, 쉬아놓고느.{그 래 토실토실한 게, 그래 꼭 녹두나물은 자꾸 눌러야 돼요, 씻어 놓고는.}

10502 @ 시, 아이 치.{씻, 아이, 씻} # 예에, 고래야 또옹 통실통실하지요.{예, 그래야 통 토실실토실해지지요.}

10502 @ 하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 예, 그양 지이 크는대로 나뭇 주옥 빠져가 안 데예.{예, 그냥 자기 크는대로 놔두면 쪽 빠져서 안 돼요.}

10502 # 자아꾸 놀레나도 볼록볼록하 이 딸린.{자꾸 눌러 놓아도 볼록볼록하게 ??}

10502 @ 그러거 이 유렇게 물을 주멍 껍띠 이가 어떻게 어떻게 텐다구요?{그리고 이 이 령게 물을 주면 껍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10502 # 이래 씻치머어 껍떼 이가 나가자않나요, 껍떼그는 뜨 띠아보내 버리고.{이래 씻 으면 껍떼기가 떨어지잖아요, 껍떼기는 뜨 띄워 보내 버리고.}

10502 @ 껍뻬 이가 요리 데는걸 뽁 껍떼 이가 어찌 텐다 그럼니까?{껍떼기가 요렇게 되 는 걸 껍떼기가 어찌 텐다 그럼니까?}

10502 # 껍떼 이, 껍떼 이가 요오 고오 진자.{껍떼기, 껍떼기가 요 그 인제.}

10502 # 그기 촉이 나며는 요렁기 다 저저 이마끔 기이며 지절로 모음이 뽁사제요, 껍떼 이가.{그게 썩이 나면 요렇게 다 저 저 이만큼 길면 저절로 몸이 부서져요, 껍떼기 가.}

10502 @ 예에.{예.} # 고 이 녹떠나른 자꾸 쉬으며 쉬는이마아끔 까압떼 이가 촉이 가지 요.{그 이 녹두나물은 자꾸 씻으면 씻는만큼 껍떼기가 촉이 가지요.} @ 예에.{예.}

10502 # 금 마지막에는 깨깁해요.{그러면 마지막에는 깨끗해요.}

10502 # 고조 오오아다가 붙은기 이었지, 고고느 또 요래.{그저 어찌다가 붙은 게 있지, 그건 또 요래.}

10502 # 털아뿌고 먹으며 데니까.{털어 버리고 먹으면 되니까.} @ 아 아, 그러네예.{아, 그러네요.}

10502 #(웃음소리)

10502 @ 그러멘 발에:는:제 그런거오 마알고 시금치도 키우습니까?{그러면 발에는 인제 그런 것 말고 시금치도 키웠습니까?}

10502 # 예, 시금치도오 다아, 촌에는 시금치, 제 먹을 건 제가 다 승가 머어, 벨 거 다 승가놓고 먹지요, 뭐.{예, 시금치도 다, 촌에는 시금치, 제 먹을 건 제가 다 심어 먹어, 별 것 다 심어놓고 먹지요, 뭐.}

10503 @ 그그는 저언, 나물 우찌합니까?{그것은 저 나물 어떻게 합니까?}

10503 # 시금치느으 그 생거느 몬먹어도.{시금치는 그 생것은 못 먹어도.}

10503 # 다 데와가주 무치지 않나요.{다 데쳐서 무치지 않나요.}

10503 # 무 물을 끓이다가 살짝 데와가 살.{물 물을 끓이다가 살짝 데쳐서 살.}

10503 # 갑, 머어 오래 데우모 몽캐애지고, 그으느 물 설설 끓으며.{갑, 뭐 오래 데치면 몽개지고, 그건 물 설설 끓으면.}

10503 # 고마 소곰 쪼끔 한 숟가락(수까라) 여어 가져고.{그냥 소곰 조금 한 숟가락 넣어 가져고.}

10503 # 고래가 데머 새파라 이 색깔이가 더 고와요.{그래서 되면 새파랗게 색깔이 더 고와요.} @ 예예, 예.{예, 예.}

10503 # 소곰을 여어가 고래 새 물이 파팔 끓을때 여어가 디 요얼 디면.{소곰을 넣어서 그래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서 요래 뒤집으면.}

10503 # 이래 처어 함면 더 돌려가져고.{이래 척 한 번 더 돌려 가져고.}

10503 # ** 함면 덕 디베가지고느 이인차 들어내야지, 몽캐져가 안데요 고.{이러게 한 번 더 뒤집어 가져고는 금방 들어내야지, 몽개져서 안 돼요 그.}

10503 @ 그렇네예.{그렇네요.} # 시금치는 살짝 데와야 데요.{시금치는 살짝 데쳐야 돼요.} @ 예, 예.{예, 예.}

10503 # 너무 몽크 몽캐지머 영양가가 빠제뿌지요 머.{너무 몽개 몽개지면 영양가가 빠져 버리지요 뭐.}

10503 @ 근데 그으 저어 데운다 그랍니까, 데친다 그랍?{그러нде 그 저 데운다고 그릅니까, 데친다 그릅니까?}

10503 # 데친다하기도 하고, 데운다하기도 하고, 삶는다하고 머어 말.{데치다하기도 하고, 데운다하기도 하고, 삶는다하고 뭐 말.} @ 예예, 예예.{예, 예.}

10503 # 조선말은 말이 많아요 (웃음소리).{조선말은 말이 많아요.} @ 그랭습니다, 말이 많죠.{그렇습니다, 말이 많죠.} # 예예.{예.}

10503 # 그코오 여그느 펠라까다라고 무우말고도 우에는 이파리가 따악 배차 걸은데도.{그리고 여기는 '펠라까다'라고 무말고도 위에는 이파리가 딱 배추 같은데도.}

10503 # 밋데 밋데 이래, 하안국에는 그거르 머라하더라?{밋에 밋에 일래,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10503 # 여어느 중국말로 주, 페, 저어.{여기는 중국말로 주, 페, 저.} @ 펠라?{펠라?} #

펠라까다라 해요.{'펠라까다'라 해요.}

10503 @ 에, 펠라까다?{에, 펠라까다?} # 예예.{예.}

10503 # 그애, 그그로 그거도 언자 치 여어 봄앱스.{그래, 그걸 그것도 인제 치 여 봄에.}

10503 # 요새, 언자아 유월달 오을달 새에 난 이 저어 모종을 사다가.{요새, 인제 유월달, 오을달 사이에 난 이 저 모종을 사다가.}

10503 # 하나스 하나스 드문드문 송가노모 가실에는 이마아끔 해요.{하나씩 하나씩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가을에는 이만큼 해요.}

10503 @ 아 아.{아.} # 그래 그으도 너무 늦가 캐메는 곁에 심이 배기고.{그래 그것도 너무 늦게 캐면 곁에 심이 박히고.}

10503 @ 예예.{예.} # 팔얼 칠얼 중순이나 팔얼.{팔월, 칠월 중순이나 팔월.}

10503 # 근몽, 칠얼 그먼께나: 팔얼 초, 저 보름께나 그쭈 데머나.{그믐, 칠월 그믐께나 팔월 초, 저 보름께나 그쭈 되면.}

10503 # 미리 뽑아가저고 다아 요래 깎떼 이 깎, 깎떼기느 깎지 마고, 아알로 우래 밀.{미리 뽑아 가지고 다 요래 깎떼기, 깎, 깎떼기느 깎지 말고, 아래로 그래 밀.}

10503 # 밋데 이파리 꿇아뿌고 요 우래 뿌리 꿇아뿌고.{밋데 잎라 } 꿇어 버리고, 요 위에 뿌리 꿇어 버리고.}

10503 # 코래가조 그느 깎떼기르 깎아가 소곰을 처너머 뭉개지요.{그래 가지고 그건 꺾떼기를 깎아서 소곰을 처 놓으면 뭉개져요.}

10503 @ 예예.{예.} # 깎떼기느 고 이 그이 깎떼 이가 두껍어요.{꺾떼기느 그 이 그게 꺾떼기가 두꺼워요.}

10503 # 고곤 인자 그 여래 절반 짝 짜개가주워.{그건 인제 그 요래 절반 짝 쪼개 가지고.}

10503 # 지 통, 이리이 뭉티 이가 크며느 두쪽도 내고 세쪽도 내고 그래가.{지 통, 이렇게 덩어리가 크면 두쪽도 내고 세쪽도 내고 그래서.}

10503 # 소곰을 거저 콰악 처나야요.{소곰을 그저 콰 처 놓아요.}

10503 # 물, 물 쪼끔 부우가지고 소곰을 콰 처가 찹게(작게) 해노오며느.{물, 물 조금 부어 가지고 소곰을 콰 처서 작게 해 놓으면.}

10503 # 더엿기 때문에 안 뭉개지고 도대르 이시마.{엿기 때문에 안 뭉개지고 그대로 있으면.}

10503 # 은냐 먹을 때는 고걸 들어내가지고 까압떼기르 까뿌리고.{인제 먹을 때는 그걸 들어내어 가지고 꺾떼기를 까 버리고.}

10503 # 오아, 내일이쭈 모레쭈 먹을라며느.{오, 내일쭈 모레쭈 먹으려면.}

10503 # 오 올 제넥에는 여이차라 코고로 그래가 다라에다.{오늘 저녁에는 ???? 그것을 그래 가지고 다라이에다.}

10503 # 저어 보아가지고 물로 자꼐 다안 담아나앗다가 또.{저 부어 가지고 물을 자꾸 담아놓았다가 또.}

10503 # 찹은 물 우라나고 또 새로 바꾸우고 새로 바꾸고.{잔 물 우러나면 또 새로 바꾸고 새로 바꾸고.} @ 물, 예예.{물, 예.}

10503 # 요래에 뜯아 먹어보멘.{요래 뜯어 먹어보면.}

10503 # 요만하머 양념해도 간이 맞겠다하고 고래가.{요만하면 양념해도 간이 맞겠다라 하

고 그래 가지고.}

10503 # 해노오 까딱까딱한기이 거기이 맛있어예, 예.{해 놓으면 꼬들꼬들한 게 그게 맛있어요, 예.} @ 예예, 예, 아 아.{예, 예, 아.}

10503 @ 크으라고, 그으.{그리고, 그.}

10503 @ 아 아, 꼬사리, 꼬사리는 어째애거 캐고, 어느.{아, 고사리, 고사리는 어떻게 캐고, 어느.} # 예예, 예, 꼬사리느 떠어 산에 가모오.{예, 예, 고사리는 또 산에 가면.}

10503 # 우리가 참 기억 저어.{우리가 참 기억, 저.}

10503 # 저 다까우라 큰 높은 산잘으로 저 산 넘에 가모 꼬사이가. {저 ??? 큰 높은 산쪽으로 저 산 너머에 가면 고사리가.}

10503 # 봄 한 삼사월 데에가.{봄, 한 삼사월 돼서.} @ 많십니까?{많습니까?} # 오오월 전에마 나가모 꼬사리가 마악 이리키 큰 두커.{오월 전에만 나가면 고사리가 막 이렇게 큰 ??.}

10503 # 예옛날에는 도득넘아가마 마 한 푸대스 해가 와요.{옛날에는 ???가면 뭐 한 부대씩 해서 와요.}

10503 @ 아 아.{아.} # 근데 인제는 처연수 중국 사람들이 마아.{근데 인제는 전부 중국 사람들이 뭐.}

10503 # 저어느.{저.} @ 아네요?{아네요?} # 예, 남방쪽에서 둘와가주고.{예, 남방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10503 # 산 넘에다 저그끼리 가개애진맹기르 집을 지이놓고 어어 지 힘만 이시며 지 마음대로 해먹으니까.{산 너머에다 자기들끼리 ???처럼 집을 지어놓고 어 자기 힘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먹으니까.} @ 아 어.{아.}

10503 # 그 산을 막 인자 그래가 산을 뺏겨가주오.{그 산을 막 인제 그래서 산을 뺏겨 가지고.}

10503 # 참 밭을 맨들아가.{참 밭을 만들어서.}

10503 # 고악 황내 이도 송구고 콩도 송고온.{강냉이도 심고 콩도 심고.}

10503 # 저어 남방 사람들이 이쪽 저 ** 하동 저쪽에 가마 처연신에 산에.{저 남방 사람들이 이쪽 저 ** 하동 저쪽에 가면 전신에 산에.}

10503 # 논이고 깊은 꼴짝은 논 해애놓고 저수지르 막아가주 물, 물바다가 저스.{논이고 깊은 꼴짝은 논 해 놓고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 물 물바다가 저.}

10503 # 노온하고 더 높은데느 밭을 해가.{논 하고 더 높은 데는 밭을 해서.}

10503 # 중국 사람드 이 마 돈 무디기라예, 참말로.{중국 사람들이 뭐 돈 무더기예요, 참말로.} @ 그러네요.{그러네요.} # 예예.{예.}

10503 @ 그은데 남방에서 어려워서 올로 옵니까?{그런데 남방에서 어려워서 요리로 옵니까?}

10503 @ 살기 어려워서?{살기 어려워서?} # 예예, 나, 그으 츠.{예, 남, 그 *.}

10503 # 스, 남방쪽에는 저건 뜨 열매나 살기 힘든다꼬요.{남방쪽에는 저기는 또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요.} @ 어 어.{어.}

10503 # 그러 이 그 사람들이 참 옷을 벗고 오다시피 *가지고 여그 와가아.{그러니 그 사람들이 참 옷을 벗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10503 # 오다 얻어 입기도 하고 좌, 좌아간.{오다 얻어 입기도 하고 주워, 주워서.}

10503 # 입기도 하고 신도 자, 얻어 신고 이래.{입기도 하고 신도 주어, 얻어 신고 이래.}

10503 # 이래가 이래가 살아가져, 그 사안드 냐하 저 난방 사안드 여어.{이렇게 이렇게 살아 가지고, 그 사람들 저 난방 사람들 여기.}

10503 # 저 산넘에서 와가 대애부자 뗏저, 그래 인자 꼬사리는 가며는.{저 산 너머에서 와서 대부자 뗏지요, 그래 인제 고사리는 가면.} @ 하 아.{하.}

10503 # 시이게 꿔으며 밀에 꼬재 이 생가요.{길게 꿔으면 밀에 꼬챙이가 생겨요.}

10503 # 이래, 꼬사리가 이마안 하며는.{이래, 고사리가 이만하면.} @ 예예.{예.}

10503 # 딱 요만한 정더러 꿔아너머 타악 보드랍지요 머.{딱 요만한 정도로 꿔어 놓으면 딱 보드랍지요 뭐.}

10503 # 고래 꿔으며 집에 아가지고 물릅 이런스 너얼.{고래 꿔으면 집에 와 가지고 물을 이런 **.}

10503 # 뽕떡가매에다가 물을 부아가 서얼설 끓이다가.{뽕떡'가마술에다 물을 부어서 설설 끓이다가.}

10503 # 그그다 영어가 또 삶지않나요.{거기에다 넣어서 또 삶잖아요.} @ 네에.{네.}

10503 # 삶으면 그기 실쩍 삶으며언.{삶으면 그것 살짝 삶으면.}

10503 # 다음에 먹을 때느 딱딱해서 안 데여.{다음에 먹을 때는 딱딱해서 안 돼요.}

10503 # 요애 이래 디벗다가 얹앗다가 은냐 디베미서느 요래 요램 만제보면.{요래 이래 뒤집었다가 얹었다가 인제 뒤집으면서 요래 요래 만져보면.}

10503 # 베엘로 짝 말 말랑하는 경세가 잊지오.{별로 짝 말 말랑한 느낌이 있지요.}

10503 # 고릴때 해나야 낸자 다시 삶아가 먹을때느.{그릴 때 해 놓아야 나중에 다시 삶아서 먹을 때는.}

10503 @ 부드럽습, 네에.{부드럽습, 네.} # 좀 빨리 부드럽아지지요.{좀 빨리 부드러워지지요.}

10503 # 그해도 꼬사라도 잘 삶아애지, 잘못 삶아노오모 따악딱해요, 예.{그래도 고사리도 잘 삶아야지, 잘못 삶아 놓으면 딱딱해요, 예.} @ 예예.{예.}

10503 # 그리 그렁 그렁 그렁기해요.{그리 그렁 그렁 그렇게 해요.} @ 아 아.{아.}

10503 @ 꼬사리는 그그를 그으 나물으는 머어 머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고사리는 그것을 그 나물에는 뭐 뭘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503 # 꼬사리 그그느 인자 거런 그래가 인자 먹을때느.{고사리 그것은 인제 그래 그래서 인제 먹을 때는.}

10503 # 또 푸욱: 붕카나앗다가.{또 폭 불려 놓았다가.}

10503 # 뜨신물에다 또 다시 삶아요.{따뜻한 물에다 또 다시 삶아요.} @ 예예.{예.}

10503 # 술에다 물로 폭 붓고 푸욱 삶아가.{술에다 물을 폭 붓고 폭 삶아서.}

10503 # 얼릉 거언제 가제고.{얼른 건져 가지고.}

10503 # 하릿밤 자꾸 물을 거저 벌건 물이 나오며 그 뽕건 물이 다악 행가뿌리고.{하룻밤 자꾸 물을 그저 벌건 물이 나오면 그 뽕건 물을 다 행귀버리고.}

10503 # 맑은 물이 나두룩 고래가 담가놔다가.{맑은 물이 나도록 그렇게 담가 놔다가.}

10503 # 인자 먹을때느 건져가죽.{인제 먹을 때는 건져 가지고.}

10503 # 기름에 볶아가아도 먹고.{기름에 볶아서도 먹고.}

10503 # 주로 볶아글, 기름.{주로 볶아서, 기름.} @ 볶아서.{볶아서.} # 예예, 기름 뽕아가

먹지요.{예, 기름(예) 볶아서 먹지요.}

10503 # 고 양념 다아 여어**.{그 양념 다 넣어**.}

10503 # 다시다도 넣고.{다시다도 넣고.} @ 예예.{예.}

10503 # 예, 미연도 넣고, 고래아 간에 소금도 넣고.{예, 미우너도 넣고, 그렇게 간(을 할 때)에 소금도 넣고.}

10503 # 가안테, 우린 이 전에는 가안장을 위즈르 해엿는데.{그런데, 우리는 이 전에는 간장을 위주로 했는데.}

10503 # 인지는 머어 소금 넣고 판거 다 열어나까 여개** 메레치 다시다도 잇고.{인제는 뭐 소금 넣고 다른 것 다 넣으니까 여기도 멀치다시다도 잇고.} @ 예예, 예.{예, 예.}

10503 # 그런 다: 잇이니까.{그런 것 다 있으니까.} @ 아 아, 다시다가 잇으니까.{아, 다시다가 잇으니까.} # 예예, 고런거 다 열어나까 그래 맛이 좋데여.{예, 그런 것 다 넣으니까 그래 맛이 좋데요.}

10503 # 그래가 차 그래가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꼬사리 볶을때.{그렇게 해서 차 그렇게 해서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 볶을 때.}

10503 # 대지고기도 서느 설어열어가 하더마느.{돼지고기도 썰어 썰어 넣어서 하더만.}

10503 # 우린 또 그리하는거느 내 비유에 안 맞, 나느 참기름도 안 좋아하고.{우린 또 그리하는 건 내 비위에 안 맞, 나느 참기름도 안 좋아하고.}

10503 # 찬깨도 안 좋아해요.{참깨도 안 좋아해요.} @ 예예.{예.}

10503 # 그래 그저, 콩기름도 전에 어어른들도 그래 콩기름을 안 좋아하니까.{그래 그저, 콩기름도, 전에 어른들도 그래 콩기름을 안 좋아하니까.}

10503 # 알아서 그애 판 양념을 고래 해가노며.{알아서 그래 판 양념을 그렇게 해서 넣으면.}

10503 # 그대로 먹어요, 예.{그런대로 먹어요, 예.}

10503 @ 고비 잇는 나물을르, 고비나물은.{고비 잇는 나물은, 고비 나물은.}

10503 @ 저어 꼬사리하고는 줌.{저 고사리하고는 줌.} # 매앵 고비카 아 꼬사리카 아 같애요.{역시 고비하고 고사리하고 같아요.} @ 같죌?{같죌?} # 예, 같애예.{예, 같아요.}

10503 @ 드 그말고 산나물을 어떤 종류가 또 잇습니까?{또 그것 말고 산나물은 어떤 종류가 또 잇습니까?}

10503 # 산나물 취나물 여개 찬에 취나물, 한국에도 가 이 취나물로 밭에다.{산나물 취나물 여기 산에 취나물, 한국에도 가니 취나물을 밭에다.} @ 취나물, 취:나물.{취나물, 취나물.}

10503 @ 주 우 워낙 맛이 잇으니까.{저 워낙 맛이 잇으니까.} # 예예.{예.}

10503 # 그그르 밭에다 다 승가가** 산에 산에것처른.{그걸 밭에다 다 심어서** 산에, 산의 것처럼.} @ 밭에서 해에서 팝니다.{밭에서 해서 팝니다.}

10503 # 향기가 좀 더얼해요.{향기가 좀 덜해요.} @ 예, 예, 덜했죌?{예, 예, 덜하죌?}

10503 # 요래에 저어 산너메 가며 크은 수목밑에 가메느.{요래 저 산너메에 가면 큰 나무 밑에 가면.}

10503 # 막 이렇기 좋을 때느 어얼매나 연하다꼬요, 끄래까.{막 이렇게 좋을 때는 얼마나 연하다고요, 그래서.}

10503 # 가져와가 데와가져 참 삼 사노오모 맛있심더.{가져와서 데쳐 가지고 참 씹 싸 놓으면 맛있습시다.} @ 맛있쥬.{맛있쥬.}

10503 # 그래가 나주르 은제 동삼에 먹을거느.{그렇게 해서 나중예(?) 인제 동삼에 먹을것은.}

10503 # 아여 데아가져 요래 간초롬:해가 납딱납딱하게 해가.{아예 데쳐 가지고 요래 가지런하게 해서 납작납작하게 해 가지고.}

10503 # 봉다레다 수 비니리봉다르레 영가(여가).{봉지에 비닐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10503 # 데앵, 어, 어는 칸에다 딱 얹하노모.{?, 어, 어는 칸에다 딱 얹어 놓으면.} @ 낸, 예, 네.{냉, 예, 네.}

10503 # 먹을 때느 녹하가지고.{먹을 때는 녹혀가지고.} @그래예.{그래요.}

10503 # 그래 먹어도 껌아 먹어도 데고, 산.{그렇게 해서 먹어도 볶아 먹어도 되고, 씹.}

10503 # 삼 사 먹어도 데고.{씹 싸 먹어도 되고.}

10503 # 하악 산나물도 나물취하고 .{산나물도 취나물하고.}

10503 # 어 저이 저이 딱주삭도 잇고.{어 저 저 '딱주삭'도 잇고.}

10503 # 활나물도 잇고 여그느 하안국맹이러 배뺨추라 하는 그그 그 나물은 없어요.{활나물도 있고, 여기는 한국처럼 비비추라 하는 그것 그 나물은 없어요.} @ 그은 없고, 참:나물은 잇습니까?{그건 없고, 참나물은 잇습니까?} # 참나물.{참나물.}

10503 # 참나멸은 저어.{참나물은 저.}

10503 # 저 찌 제 연벤짜에는 잇다하더마느 우린 참나물 여게서느 몬밧어요.{저 저 저 연변 쪽에는 잇다하더만 우리는 참나물 여기에서는 못 봤어요.} @ 예.{예.}

10503 # 도라지느 저어 수리잔산에 저런데 가부어 감, 저어.{도라지는 저 '수리잔산'에 저런데 가보면 가면, 저.}

10503 # 장수쪽에들 그레 도라지 많다캐샅테예.{‘장수’쪽에도 그리에 도라지 많다고 해 썻데요.} @ 많, 예예, 예.{많, 예, 예.}

10503 # 더덕도 이잇고.{더덕도 잇고.}

10503 # 더덕도 그그으 깔 같 더덕이 그웁도 영양까 아 잇나요.{더덕도 그것 껌 껌 더덕이 그것도 영양가 있잖아요.} @ 예예.{예.}

10503 # 껌띠 이를 뱃기아 톡톡 뚜데레 껌띠기 사알 뱃게가지고.{껌테기를 뱃겨서 톡톡 두드려 껌테기 살 뱃겨 가지고.}

10503 # 짹 짜개가주어.{짹 쪼개 가지고.}

10503 # 꼬치장하고 단거도 좀 영고.{고추장하고 단 것도 좀 넣고.}

10503 # 백태당 까리 그으 좀 영고.{‘백태당’ 가루 그것 좀 넣고.}

10503 # 꼬치장에다가.{고추장에다가.}

10503 # 간장 쥬 부우가져 노고리:하 이 해가.{간장 쥬 부어가지고 노골노골히 해서.}

10503 # 찹찹 발라가지고.{찹찹 발라 가지고.}

10503 # 기름에 차악착 더뽀노.{기름에 착착 튀어.}

10503 # 톡 맹태 곱아놓온거 걸시임더 그레 놓오모, 너어무 잘 먹어예 아아들이 그레 주머, 예.{꼭 맹태 곱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레 놓으면, 정말 잘 먹어요, 아이들이 그레 주면, 예.} @ 맞습니더 이, 예예, 예예, 맛있쥬.{맞습니다, 예, 예, 맛있쥬.}

10503 # 겔 그 웃도 생거 좋아하는 사람, 쪽 쪽 췌가주워.{그레 그것도 생것 좋아하는 사

람, 쪽 쪽 찌 가지고.}

10503 @ 예예, 예.{예, 예.} # 새콤 새콤달콤하게 또 문채낭아도 먹을만해요, 예, 사갈사갈 한기이.{새콤, 새콤달콤하게 또 무쳐놓아도 먹을 만해요, 예, 아삭아삭한 게.} @ 그렇 습니더 이.{그렇습니다.}

10503 @ 그음 밭에 키우는 거:로는 나물 해먹는 게?{그럼 밭에 키우는 거로는 나물 해먹 는 것이?}

10503 # 밭에느 주로오.{밭에는 주로.}

10503 @ 호오박은 어떻습니까?{호박은 어떻습니까?} # 호오박은 저어 건천에 마 이 숨 가놓오모 마 이 달리요.{호박은 저 밖에 많이 심어 놓으면 많이 달려요.} @ 예예. {예.}

10503 @ 많이 달리쥬, 후박?{많이 달리쥬, 호박.} # 예, 마 이 달리요, 그래놓오머.{예, 많이 달려요, 그래 놓으면.}

10503 # 동삼에 대, 전에는 그 저언수 그래해가져 대애지 믹일라꼬요.{동삼에 돼, 전에는 그 전부 그래 해 가지고 돼지 먹이려고요.}

10503 @ 아 아.{아.} # 막 숨가놓오머 차아떠기로 실아다가.{막 심어 놓으면 차 빼기로 실어다가.}

10503 # 호박시노 봄아가 언자 팔고 여어 받는데가 잇이니까.{호박씨는 발라서 인제 팔고, 여기 받는데가 있으니까.} @ 예예, 예, 예.{예, 예, 예.}

10503 # 호박시느 한 근에 머, 글때느 일언스도 하고 그래가 팔마.{호박씨는 한 근에 뒀, 그때는 일 원씩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팔면.}

10503 # 한 여나은 근 하머 또 돈 십언스 넘게 해요.{한 여남은 근 하면 또 돈 십 원씩 넘 게 해요.}

10503 # 그래가 팔아보고.{그렇게 해서 팔아 보고.}

10503 # 언자 저저 언자 그 아 그 호오박 곁에 거노 호오박 그으느 잔 쫓아가지고.{인제 저 저 인제 그 아 그 호박 곁의 것은 호박 그것은 잘 쫓아 가지고.}

10503 @ 사료 하고.{사료 하고.} # 대애지 삼아주고.{돼지 삶아 주고.}

10503 @ 고 호 호오박이 막 그렇게 좋다는데.{호 호 호박이 막 그렇게 좋다는데.} # 대애 지 죽 끓이주고, 예예, 예.{돼지 죽 끓여주고, 예, 예.}

10503 # 그리 조웅다한테 근자 대애 폐애 보고 단 거느: 골래낭앗다가 동삼에 노을민:자 삶아가주구 아아들카 아 먹기도 하고, 그리해여.{그리 좋다하는데 그 인제 깨어보고 단 것은 골라 놓았다가 동삼에 놀면서 인제 삶아 가지고 아이들하고 먹기도 하고, 그 령게 해요.} @ 아 아, 예예.{아, 예.}

10503 @ 저어, 팔할 때, 애동호오박 잇지 않습니까, 그은 나물하쥬?{저, ?? 때, 애호박 있잖습니까, 그건 나물하쥬?}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503 # 그그은 요래애 똥골똥골하 이 설아가도: 저언도 부치고.{그건 요래 똥골똥골하게 썰어 가지고 전도 부치고.} @ 예.{예.}

10503 # 채애로 설아가주고도 또 저언도 부칠 수 잇고 그 나물도 하고 머어.{채로 썰어 가 지고도 또 전도 부칠 수 잇고, 그 나물도 하고.} @ 남, 네, 예예.{나물, 네, 예.}

10503 # 여그 전에는 우리 어조 이 촌에 잇일때느.{여기 전에는 우리 촌에 있을 때는.}

10503 # 박도 숨가가 박도 바가지소 숨가놓오모.{박도 심어서 박도 바가지도 심어 놓으

면.} @ 양.{양.}

10503 # 구 바악나멸도 맛있어요, 예, 예, 바악나멸도 맛있세예.{그 박나물도 맛있어요, 예, 예, 박나물도 맛있어요.} @ 맛있죠.{맛있죠.}

10503 # 야양님마 잘하고 간마 맞차나마, 주물라놓오모 다아 먹어요.{양님만 잘하고 간만 맞춰 놓으면 다 먹어요, 주물러 놓으면 다 먹어요.} @ 마맛습니다, 예.{맛습니다, 예.}

10503 @ 저어, 정구지, 부추도 심었습니까?{저, 전정구지, 부추도 심었습니까?} # 예, 예, 정구지도 여그 다 하있지요.{예, 예, 정구지도 여기 다 했지요.} @ 정구지라 했죠? {정구지라 했지요?} # 예, 예.{예, 예.}

10503 # 저어 폐 안도, 찌 저 하암경도 사란들은 그그러.{저 평안도, 저 저 함경도 사람들은 그거를.}

10503 # 아이, 무, 이름이 또 따요, 아이.{아이, 무, 이름이 또 달라요, 아이.}

10503 # 너어, 부추라하든, 부추도 아 이라.{뭘, 부추라하든, 부추도 아니라.}

10503 # 그 이름이 저어 함경도 사란들은 그긔 떠 벨낭게 부리데, 우린 정구지라 하는데. {그 이름이 저, 함경도 사란들은 그긔 또 별나게 부르데, 우린 정구지라 하는데.} @ 예예.{예.} # 예.{예.}

10503 @ 그긔는 나무는 어떻게 해 먹습니까?{그긔는 나물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10503 # 그긔는, 찻갈 열고 생거 무체낭아도 갠참고요.{그긔, 찻갈 넣고 생거 무쳐 놓아도 갠참고요.} @ 썩겔로 합니까?{생거로 합니까?}

10503 # 그으 혈압 높은 사란들은 그긔 좋다하테요.{그긔 혈압 높은 사란들은 그긔 좋다하테요.} @ 크으리 좋다네예, 남자들한테.{그리 좋다네요, 남자들한테.} # 예예, 예예, 그래가주고 혈압 높은 사란들 그긔 무체.{예, 예, 그래 가지고 혈압 높은 사란들 그긔 무쳐.}

10503 # 짓 저 저 찻갈 열고 무체 생거 그양 무체낭아도 맛있고.{찻, 저 저 찻갈 넣고 무쳐, 생거 그양 무쳐 놓아도 맛있고.}

10503 # 아니머 또 새파랗게 데아가지고도 요래 무체낭아도.{아니면 또 새파랗게 데쳐 가지고도 요래 무쳐 놓아도.}

10503 # 고오느 간장 열고 마 을이나 쫄그테**** 열고.{그긔는 간장 넣고 마늘이나 쫄어 **** 넣고.}

10503 # 근놓오모 그웃도 먹을 만해요.{그래 놓으면 그긔도 먹을 만해요.}

10503 # 여러:가지 다 반찬을 그저 하머 데에여.{여러가지 다 반찬은 그저 하면 돼요.} @ 그랭저, 예예.{그랭쥬, 예.}

10503 # 전에는: 우리 예일때 저 촌에 잇일때는 마늘도 다아 집에 지 목을거느 다 숨가가 먹짬나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저 촌에 있을 때는 마늘도 다 집에 자기 먹을 것은 다 심어서 먹지 않나요.}

10503 @ 그랭쥬니다, 예예.{그랭쥬니다, 예.} # 예예.{예.}

10503 @ 까지도 심었습니까?{가지도 심었습니까?} # 예, 가지 다 숨말 먹어예.{예, 가지 다 심어 먹어요.}

10503 @ 까지는 그으 머얼 주로 어떻게 해 먹십니까?{가지는 그 뭘 주로 어떻게 해 먹습니까?} # 가지느으 우리느 기름을 좋아 안해, 아아들 젊은 아아들따문에.{가지는 우

리는 기름을 좋아하지 않아, 아이들 젊은 아이들 때문에.}

10503 # 인자 쪽 송성손서 설어가아지고.{인제 쪽 송송송송 썰어 가지고.}

10503 # 기름에 볶아주고.{기름에 볶아 주고.} @ 예예.{예.}

10503 @ 생거로요?{생거를요?} # 나느 그거르 찌인 기름 기름을 좋아 안하니까.{나는 그 거를 기 기름 기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10503 # 쪼 요래 쪽 짜개애가지고 찌가주고.{쪼 요래 쪽 쪼개 가지고 찌 가지고.} @ 예예.{예.}

10503 # 쪽쪽 찌가주고 양념장에 찜 찍아먹어도 맛있어요.{쪽쪽 채 가지고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 손을.{손을.}

10503 @ 그렇습니다, 예예.{그렇습니다, 예.} # 고기 제일 깨분해예, 나느 기름을 안 좋아 이.{그게 제일 개운해요, 나느 기름을 안 좋아하니.}

10503 # 요새도 내애 아아들 그리 주며 잘 먹어예, 예.{요새도 내 아이들 그리 주면 잘 먹어요, 예.} @ 어 어.{어.}

10503 # 글코오, 아아, 지름들 기름을 좋아하미는.{그렇고 아이, 기름들 기름을 좋아하면.}

10503 # 요만큼만 통가지, 통거.{요만큼 한 통가지, 통채.} @ 예예, 예예, 예예.{예, 예, 예.}

10503 # 그글 언자 기름에다 덜덜 뒤아가 그 우에 양념을 여러:가지 해가, 찰찰 처가주고. {그걸 인제 기름에다 달달 뒤어서 그 위에 양념을 여러가지 해서, 찰찰 처 가지고.}

10503 # 해너머 그으도 벨맛이라요.{해 놓으면 그거도 별맛이에요.} @ 예예.{예.}

10503 # 꺾치도 저저 생꺾치 퍼어런거 열마 그 갖다가.{고치도 저 저 생고추 파란 것 열면 그 갖다가.}

10503 # 요래 기름을 달아가주고.{요래 기름을 달구어 가지고.}

10503 # 이래 타, 이 티게 내며는.{이래 타, 이 튀겨 내면.}

10503 # 굿도 양념 해놓오모 그곳도 다 먹을 만하고.{그것도 양념 해 놓으면 그것도 다 먹을 만하고.} @ 예예.{예.}

10503 # 꼬이 이이래 칠팔얼 때모 꼬치떡을 어얼매나 하나요, 짜개가져, 찹살까리로까.{고 이래 칠팔얼 되면 고춧떡을 얼마나 하나요, 쪼개 가지고, 찹쌀 가루를 가지고.}

10503 # 그래, 기름에 말라가 티게놓오며.{그래, 기름에, 말려서 튀겨 놓으면.}

10503 # 유가 하듯이 버어식 일아가 어숙어숙하 이 좋아요.{유가 하듯이 불쑥 일어서 바삭바삭하니 좋아요.} @ 예, 아 아 그렇**.{예, 아, 그렇**.}

10503 @ 그러믄 오이 냉국은 안 해 먹습니까?{그러면 오이 냉국은 안 해 먹습니까?} # 와아요, 오이냉격도 요새 더월때느 해가지고 시:언하 이.{왜요, 오이 냉국도 요새 더울 때는 해 가지고 시원하니.} @ 밥 밥 우에 찌은 거얼 가지고 이렇게.{밥 밥 위에 찌운 걸 가지고 이렇게.}

10503 @ 쪼, 쪼지요?{쪼, 쪼지요?}

10503 # 가지요, 가지요?{가지요, 가지요?} @ 요렇게, 가지, 아, 가지, 가지, 가지.{요렇게, 가지, 아, 가지, 가지, 가지.} # 아 아, 가지 내앵국은 안 해 먹어 바앗심더.{아, 가지 냉국은 안 해 먹어봤습니다.}

10503 # 우리 아아들은 그그 해노며.{우리 아이들은 그거 해 놓으면.} @ 그렇습니까?{그렇습니까?} # 나느 하안국 가가 식당에서.{나는 한국 가서 식당에서.}

10503 # 그리 해먹어 밧안테(바안테) 아아들은 그그르 어제 먹느캐산테, 여그 아아들은 안 해 먹어 바가지.{그리 해 먹어 봤는데, 아이들은 그걸 어찌 먹냐고 해 썻는데, 여기 아이들은 안 해 먹어 봐서.} @ 아 아, 과지도 맛있는데.{아, 가지도 맛있는데.} # 예예, 가지 이 냉국도 산짜 썻가지고 그래해놓와 갠찰예예.{예, 가지 이 냉국도 살짜 썻 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갠찰아요.} @ 예예.{예.}

10503 @ 그러며는.{그러면.}

10503 # 오이도 요새 요새는 찐자 저 지.{오이도 요새 요새는 ****.}

10503 # 우린 시이내 잇이 이 글치, 초오네 잇는* 지 구 오오이도 따다가.{우리는 시내 잇으니 그렇지, 촌에 잇는 * 그 오이도 따다가.}

10503 # 소고옴, 물도 붓지마고.{소금, 물도 붓지 말고.}

10503 # 막 소금을 콰악 때지.{막 소금을 콰 때*} @ 예예.{예.}

10503 # 첩첩이 소금을 처가 콰악 이런 두옹그란 도올로까적 콰 찍아노모.{첩첩이 소금을 처서 콰 이런 둥근 돌을 가지고 콰 찍어 놓으면.}

10503 # 할빔 지이며 마 오오이 물이 마 저언수 ** 다 장계가 잇지요.{하룻밤 지내면 뭇 오이 물이 뭇 전부 ** 다 잠겨 잇지요.} @예예.{예.}

10503 # 고게 그 물을 인자 오오이가 거진 인자 다 잔.{고게 그 물을 인제 오이가 거의 인제 다 잠.}

10503 # 다 소 숨이 절이젓시메는.{다 소 숨이 죽었으면.}

10503 # 단제에다 옹고.{단지에다 넣고.}

10503 # 그 물으는 물 그그는 다시 물에다가 술을 물에 술에다 버글버글 끓이가 식하가지고.{그 물은 물 그거는 다시 물에다가 술을 물에, 술에다 버글버글 끓여서 식혀 가지고.}

10503 # 매앤 그 물 바아낱마 꼬옥가지도 안 찌이고 또.{맨 그 물 부어 놓으면 곰팡이도 안 슬고 또.}

10503 # 쪼오쫼 여름으 가거마 쪼쫼 끝까지가 찌일라 하메는.{조금 여름이 가서 조금 곰팡이가 슬려고 하면.}

10503 # 그 물을 손아바아가저 또 또 때리요.{그 물을 쏘아 부어서 또 또 다려요.} @ 또 오, 예예.{또, 예.}

10503 # 때려가주고 또 식하가 붓고, 그래 그래가줄 해가 먹어.{다려 가지고 또 식혀서 붓고, 그래 그래 가지고 해서 먹어.}

10503 # 고래가 먹을 적에는 짹으니까 그 놈을 내 오이여.{그래서 먹을 적에는 짜니까 그 놈을 내어, 오이를.}

10503 # 송송송 설아가지고 당가가.{송송송 썰어 가지고 담가서.}

10503 # 쫄 우웃가여, 하 하리마 우웃구모 고 따악 먹기 간이 딱 맞지여.{쫄 물혀요, 하 하 루만 물히면 그 딱 먹기에 간이 딱 맞지요.}

10503 # 물을 자꾸 갈아 부어가지.{물을 자꾸 갈아 부어서.}

10503 # 고래가 기름자양 해가 고 무체나아도 맛있어예.{그렇게 해서 기름장 해서 그 무쳐 놓아도 맛있어요.}

10503 # 마늘이나 쫄 찍아 옹고 *****.{마늘이나 쫄 찢어 놓고 *****.} @ 예예.{예.}

10503 @ 오오히리, 오이 보토 그때 그 기억에 오이라 햇십니까, 예라 그랫십니까?{오이,

오이 보통 그때 그 기억에 오이라 했습니까? 외라 그랬습니까?}

10503 # 머얼라유, 우린 에일때버터 오오이라커대예, 예, 예.{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이라고 하데예, 예, 예.} @ 오이라 그랬십니까?{오이라 그랬습니까?}

10503 # 무레, 무레라컨다, 무레.{물외, 물외라고 한다, 물외.} @ 무레, 예예, 예.{물외, 예, 예.}

10503 # 에릴때 할매들 물에라 이카데예.{어릴 때 할머니들 물외라 이렇게 하데예.} @ 물에, 예.{물외, 예.} # 예예.{예.}

10503 @ 썩갯 같은거 압니까, 썩갯?{썩갯 같은 것 압니까? 썩갯.} @ 예, 썩갯 여그 많아요.{예, 썩갯 여기 많아요.}

10503 # 그그도 데아가.{그것도 데쳐서.} @ 많아요?{많아요?}

10503 # 그그는 생거도 생, 사추까 삼 살 직에.{그건 생거도 생, 상추와 쌈 쌀 적에.}

10503 @ 그래, 같이 넣어가지고 먹습니다.{그래 같이 넣어 가지고 먹습니다.} # ** 하난, 예, 같이 사넝머 그웁도 먹을 만해요.{**하나, 예, 같이 싸 놓으면 그것도 먹을 만해요.}

10503 # 갯닙도 생거 삼 사나도 데고.{갯잎도 생거 쌈 싸놓아도 되고.}

10503 # 매앵 하, 조선사람은 매앵 우리* 그리 그리 으음씩 먹고.{역시 하, 조선사람은 역시 우리* 그리 그리 음식을 먹고.}

10503 # 숙갯도 그렇고 갯도 간해넛다가 가실에는 간 절카넛다가.{썩갯도 그렇고 갯도 간해 놓았다가 가을에는 간 절여 놓았다가.}

10503 # 칸 숨 죽은 다음에는.{간 숨 죽은 다음에는.}

10503 # 또 매앵 배애편 양념하듯이 그래 섞아가.{또 역시 배추 양념하듯이 그래 섞어서.} @ 예예.{예.}

10503 # 잔잔한 파 이나 썩아가주 같이 절카넛다가.{잔잔한 파나 씻어 가지고 같이 절여 놓았다가.}

10503 # 그래가주 꼬치나 요마끔한 거 영어가주고.{그래 가지고 고추나 요만큼 한 것 넣어 가지고.}

10503 # 따악 젓 포옥 삭은 다음에 먹으며 맛있십니다.{딱 저 폭 삭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 맛있쥬, 예.{맛있쥬, 예.} # 예예, 맛있십니다.{예, 맛있습니다.}

10503 @ 그으런 때에는 저어 오이썩백이가 잇었습니까?{그런 때에는 저 오이소박이가 있었습니까?}

10503 # 요, 오이소백이도 잇지요, 그은때도 저 오이소백이 해먹어 **심니다.{요, 오이소박이 있지요, 그때도 저 오이소박이 해 먹어 봤습니다.} @ 아, 했어요?, 예예.{아, 했어요?, 예.}

10503 # 그리 요래요래 짜개가딘 네에번을 해가 양념해가 요오.{그리 요래요래 쪼개 가지고 네 번을 해서 양념해서 요기.}

10503 # 정구지하고: 마늘도 영고 꼬치가리하고.{정구지하고 마늘도 넣고 고춧가루하고.} @ 예예.{예.}

10503 # 고 모 또 판거도 여진* 맛있게 할라머 다시다도 좀 영고 위 미연도 영고.{그 뭐 또 다른 것도 *** 맛있게 하려면 다시다도 좀 넣고 위, 미원도 넣고.}

10503 # 고래 딱 간 맞게 해가저고.{고래 딱 간 맞게 해 가지고.}

10503 # 요 딱 장 열어가 고래 해노며.{요 딱 넣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10503 # 한 이틀 지낸 다음에느.{한 이틀 지난 다음에는.}

10503 # 맛있심:다, 예, 맛있어요.{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 예에, 맛있죠.{예, 맛있죠.}

10503 # 개에 여자들이 그 저 머어든지 반찬을.{그래 여자들이 그 저 뭐든지 반찬을.}

10503 # 때가 데면 반찬 새 신경을 서야데예, 예에, 신경을.{때가 되면 반찬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신경을.} @ 만*, 그렇죠, 그으.{만*, 그렇죠, 그.}

10503 @ 보통 신경 써서 안 데입니다, 그기.{보통 신경 써서 안 됩니다, 그게.} # 예, 예, 예.{예, 예, 예.}

10503 # 개, 우리 딸아느 마.{그래, 우리 딸아이는 뭐.}

10503 # 원래도오 그대로 하던기 마, 하안국 잣다오 이 마 모은: 하는기 없어요.{원래도 그런대로 하던 게 뭐, 한국 잣다오니 뭐 못 하는게 없어요.}

10503 # 오오이 소박이 그그르 해가지고.{오이소박이 그거를 해 가지고.}

10503 # 저 오오이 찌* 맹 맹물집치로 고래 해놓며, 새금새금한기이 맛있어요.{저 오이 ** 물김치를 고래 해 놓으면, 새금새금한 것이 맛있어요.}

10503 # 내앵장꼬레 이틀 배갈에 낳아돏다가 내앵장꼬 열너며 따악.{냉장고에, 이틀 바깥에 낳아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딱.}

10503 # 새콤달콤한기이 맛있죠.{새콤달콤한 게 맛있죠.} @ 예에.{예.}

10503 # 무우도: 가실에느.{무도 가을에는.}

10503 # 처연수 이래 채칼에다 밀아가주어.{전부 이렇게 채칼에다 밀어 가지고.}

10503 # 바알 피고 모거장 피고 바알 피 바알 꼬우페다 모거장 피가.{발 피고 모기장 피고 발 피 발 위에다 모기장 퍼서.}

10503 # 말라가주 하리며 다암벨에메 늘아놓며 다암벨이며 하르발이며 다야 말라요.{말려 가지고 하루면 팽벌에 늘어놓으면 팽벌이면 하루 벌이면 다 말라요.} @ 그렇네예. {그렇네요.}

10503 # 고래가주 무우어가리도.{그래 가지고 무오가리도.}

10503 # 언자 말라낳앗다가.{인제 말려 놓았다가.}

10503 # 소곰물에다 언자 반찬을 할라며 소검물에다.{소곰물에다 인제 반찬을 하려면 소곰물에다.}

10503 # 소곰을 한 호큼 영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물.{소곰을 한 움큼 넣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물.}

10503 # 소곰물을 차악짜 치이대여, 먹을마 이.{소곰물에 착착 치대요, 먹을 만큼.}

10503 @ 예에,{예.} # 마 이, 식구가 많으며 마 이 하고, 작으며 자악으니마:꿈 고래가저온.{많이, 식구가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은 만큼 그래 가지고는.}

10503 # 하안참 주무리다나며 소곰물에다 주구리 주무리마.{한참 주무르다 보면 소곰물에서 주무르. 주무르면.}

10503 # 거품이 나미서.{거품이 나면서.}

10503 # 스운 무시물이 다 빠지고, 예에.{쓴 무 물이 다 빠지고, 예.} @ 빠지인다. {빠진다.}

10503 # 고래 꼭, 고고* 소곰물에서 꼬옥 갱물 열치마우 꼬오양 꼬옥 짜가지고.{고래 꼭

그걸 소금물에서 꼭 짠 물 넣지 말고 그냥 꼭 짜 가지고.}

10503 # 인자아 옛물카앙.{인제 옛물하고.}

10503 # 인너 당, 옛 옛물 여 물로 쪼끔 붓거(부커) 옛 붓고(복꼬).{인제 당, 옛 옛물 옛, 물을 조금 붓고 옛 붓고.}

10503 # 미원도 옹고(여코) 다시다도 옹고(역꼬).{미원도 넣고 다시다도 넣고.}

10503 # 바글바글바글 끓이지요 머.{바글바글바글 끓이지요, 뭐.} @ 예예.{예.}

10503 # 그름 인자 꼬칫까리에다 고오 옛물을 봐아가지고.{그럼 인제 고춧가루에다 그 옛 물을 부어가지고.}

10503 # 그으 뜨끈하거로 매앤 꼬오 무우워가레다 무우오가리, 오각지 하는 데다가.{그 뜨끈한 것을 맨 그 무오가리에다 무오가리, 오가리하는 데다가.}

10503 # 주물라 무체나머 그리 참말로 아아들 잘 먹어요, 반찬 머억기 좋아요.{주물러 무쳐 놓으면 그리 참마로 아이들 잘 먹어요, 반찬(으로) 먹기 좋아요.}

10503 # 그애 내가 천진 가가 그그느 전에 우리 어머 이다 잇일때느{그애 내가 천진 가서 그것은 전에 우리 어머님도 있을 때는.}

10503 # 아 야아들아 마, 그래 차안물에 깨끗이 빠, 요래 마린것 요리 머얼름 오래 나뉘 퍼지고.{아 애들아 뭐, 그래 찬물에 깨끗이 빨, 요래 마른 것 요리 ??? 오래 놔두면 퍼지고.}

10503 # 그애 얼른 빨아가 건저가조 간장물에 담가넣앗다가 문체라 그래 배아보 이.{그래 얼른 빨아서 건저 가지고 간장물에 담가 놓았다가 무쳐라, 그래 배워 보니.}

10503 # 먹기는 먹는데.{먹기는 먹는데.}

10503 # 줌 오래 가모 우에 줌.{줌 오래 가면 위에 줌.}

10503 @ 아 아.{아.} # 가, 곶, 찌게.{가, 곶, 저게.}

10503 # 저, 그이, 그리까, 하아 이 곶패 이가 퍼지오, 머.{저 그 그러니까 하얗게 곶팡 이가 퍼지오, 뭐.} @ 꼬까지가 피* 예예, 곶, 예.{꼬까지가 피, 예, 곶, 예.}

10503 # 글티마느 내가 찬.{그렇더니만 내가 참.} @ 머가 핀다고요?{뭐가 핀다고요?}

10503 # 곶패기 저어, 예예 곶패기 퍼지오 머.{곶팡이 저 예예, 곶팡이 퍼지오, 뭐.} @ 예예,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 예.}

10503 # 그래가 인자 저얼 내가 천진에 가가 또오.{그래서 인제 저 내가 천진에 가서 또.}

10503 # 그 샌채하는 집에 가가 한번 해해보니까.{그 생채하는 집에 가서 한 번 해 보니까.}

10503 # 그래 그 아지매가 하는거 보 이.{그래, 그 아주머니가 하는 거 보니.}

10503 # 매앵 그그느 옛물을 끓에가저고.{역시 거기는 옛물을 끓여 가지고.}

10503 # 마린: 찌저 소, 그예에 아까 하듯이.{마른 저 저 소(금), 그 아까 하듯이.}

10503 # 저어 매앵 그 소곰물에 빨며, 소곰물에 빠알메나.{저 역시 그 소곰물에 빨며, 소곰물에 빨면.}

10503 # 퍼지기는 퍼진데, 화악 퍼지진 앓에예.{퍼지기는 퍼지는데, 확 퍼지지는 않아요.} @ 예예.{예.}

10503 # 그래 고거 언자 고어 아안 퍼질 쟁도로 해가주 고래가.{그래 그것 인제 그것 안 퍼질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0503 # 옛물을 끓이가 봐아가지고 같이 치대너머.{옛물을 끓여서 부어 가지고 같이 버무

려 놓으면.}

10503 # 너어무 맛있어요.{정말 맛있어요.}

10503 # 깨도 좀 뿌아가 영고.{깨도 좀 볶아서 넣고.} @ 예예.{예.}

10503 @ 자양떡{장떡.} # 예예?{예?} @ 장떡 해?{장떡 해?}

10503 @ 드시보시겠습니까?{드셔보셨습니까?} # 예예, 데엔장떡 데엔장도.{예, 된장떡, 된장도.}

10503 # 고고 미, 몇살까리나 영어서 시방은 머어, 가입 샅까이 살까리네 이일일이 뽕오 지노 모은하고.{그그 미, 맵쌀가루나 넣어서 지금은 뭐, 가루, 찹쌀가루루, 쌀가루 일일이 뽕지는 못하고.}

10503 # 시방 조용 밀까리 파니가.{지금 ?? 밀가루 파니가.}

10503 # 밀까리 영고도 고래가 데엔장.{밀가루 넣고도 그렇게 해서 된장.} @ 예예, 예예.{예, 예.}

10503 # 데엔장 떡도 끝아놓오로 밥반찬 데고.{된장 떡도 구워 놓으면 밥반찬 되고.}

10503 # 꼬치장도 좀 섞우고.{고추장도 좀 섞고.} @ 거 머어머 영엇습니까?{거기 뭐 뭐 넣엇습니까?}

10503 # 고은 그저 데엔장 하고오.{거기는 그저 된장하고.} @예예.{예.}

10503 # 미오 이나 쪼끔 영고 고래가주 마.{미원이나 조금 넣고 그래 가지고 뭐.}

10503 # 짹짹알하게 고래 노와.{짹짹하게 그래 놓으면.}

10503 @ 그 정구지 안 영엇습니까?{그 정구지 안 넣엇습니까?}

10503 @ 정구지?{정구지?}

10503 # 정구우지 영어머는 너무 짹짹하잖나요.{정구지 넣으면 너무 질척하잖아요.}

10503 # 고 데엔장마 고래 끝아넣도.{그 된장만 그렇게 곁어 놓아도.}

10503 @ 그에 그 자양 장떡은:제 그렇게마 하네예?{그 그 장 장떡은 인제 그렇게만 하네요?} # 예, 예, 자양떡 고래놓머.{예, 예, 장떡 그래 놓으면.}

10503 # 밭그시리이 하미서도 맛있어요, 짹짹한기이, 예예, 예.{밭그스레하면서 맛있어요, 짹짹한 것이, 예, 예.} @ 예예, 우린 그제 정구지를 영거든요.{예, 우린 거기에 정구지를 넣거든요.}

10503 # 정구지도 영어도 데지요 머.{정구지도 넣어도 되지요, 뭐.} @ 예예.{예.} # 예, 데지요.{예, 되지요.}

10503 @ 텐장을 조흠 너영고 이라무 맛있쥬.{된장을 조금 넣고 이러면 맛있쥬.} # 예예, 그리눔 맛있십데.{예, 그래 놓으면 맛있습시다.} # 예예.{예.}

10503 @ 그으 더어 머야, 풋고치(푸코치).{그 저 뭐야, 풋고추.} # 바안찬 없을 때느, 예예, 예.{반찬 없을 때느, 예, 예.} @ 풋고치드 깨애가주 넣고 그러므 좀 맵씩하고.{풋고추도 깨 가지고 넣고 그러면 좀 맵콤하고.} # 그그드 좀 설어 여영고 예, 예, 예, 예.{그것도 좀 썰어 넣고 예, 예, 예, 예.}

10503 # 그리하머 데에예.{그리 하면 돼요.}

10503 @ 열무김치 담가 보시겠습니까?{열무김치 담가 보셨습니까?}

10503 # 열무김치 삼아 마 이 먹어 바앗지요.{열무김치 담가 많이 먹어봤지요.}

10503 # 총각김치도 마 이라.{총각김치도 많이.} @오 오, 오 오.{오, 오.}

10503 # 안 알타리도 그으드 알타리점치도 마 이 해보고.{알, 알타리'도 그것도 '알타리'

김치도 많이 해보고.}

10503 # 어 떠 깍뚜기 짐지더 하안국 가가 마, 여그도 해가주루 가실 한철에 요새 여름무
느 그숙해도 가실에는 그런거 마 이 해가 **예.{어 또 깍뚜기 김치도 한국 가서 뒤,
여기도 해 가지고 가을 한 철에 요새 여름에는 거식해도 가을에는 그런 것 많이 해서
먹어요.} @ 그그느 호울씬 커서 했지오?{그건 훨씬 커서 했죠?} # 예예?{예?}

10503 @ 아이, 어렸을 때도 그그 했었*?{아, 어렸을 때도 그것 했었나요?} # 아 아, 어
릴때느: 우리 할매 하는것마 바앗지.{아,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니 하는 것만 봤지.}

10503 # 어릴때 안한데, 인자 여그 내가 커서 하미서느.{어릴 때는 안 했는데, 인제 여기에
서 내가 커서 하면서는.}

10503 # 인자 그리 해보 이 다아.{인제 그리 해보니 다.}

10503 # 하안국 갓다가 와가도 배앗깃지마느.{한국 갓다가 와서도 배웠겠지만.}

10503 # 여구 위언래두 해 묵엇이니까.{여기 원래도 해 먹었으니까.}

10503 # 두앗 다아 해 먹어요, 하안국 음식은 다 해 먹어예.{다 해 먹어요, 한국 음식은 다
해 먹어요.}

10503 @ 그으.{그.}

10503 @ 나박기임치느 어떻게 합니까?{나박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나박끼춘 요래에 상
성송성.{나박김치는 요래 송송송송.}

10503 @ 머를요?{뭘요?}

10503 # 배애차하고 무우하고.{배추하고 무하고.}

10503 # 같이 섞아 설어가지고 그으느 크게 안 하고.{같이 섞어 썰어가지고 그건 크게 안
하고.}

10503 # 그래가 마아 이리 막 섞아났다가.{그렇게 해서 뭐 이리 막 섞어났다가.} @ 자
악게?{작게?}

10503 @ 예예.{예.} # 예, 양념해가 섞어가지고.{예, 양념해서 섞어 가지고.}

10503 # 딱 덮아났다가 또 한 이틀 지낸 다음에.{딱 덮어 났다가 또 한 이틀 지난 다음
에.} @ 그럼 물은 그으느 어떻게 합니까?{그럼 물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고오.{그.}

10503 @ 물을 많이 해야 됩니까?{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물.{물.}

10503 # 국물 좋아하는 사람은 국물을 좀 나있게 하고요.{국물 좋아하는 사람은 국물을 좀
많이 하고요.}

10503 # 국물 좋아 안 하며 그저 차분:하게 요래 해너며.{국물 좋아하지 않으면 그저 차분
하게 요래 해 놓으면.} @ 짜부*게.{????}

10503 # 딱 먹기 조웅지요, 머어.{딱 먹기 좋지요, 뭘.}

10503 @ 그으 뭇니까, 아까 한.{그 뭇니까, 아까 한.}

10503 @ 열무김치.{열무김치.}

10503 # 예, 열무.{예, 열무} @ 여을뜨김치는 어찌 담습니까?{열무김치는 어찌 담습니
까?} # 열뜨기인치느 오 올 또 우리가 촌에 저 저 오오게 가, 사계 가고오 우
리 시누부네 집에 가가 얻아다가.{열무김치는 오늘 또 우리가 촌에 저 저 오게 가,
사계 가서 우리 시누이네 집에 가서 얻어다가.}

10503 # 또 숨 처나앗는데.{또 숨 처 났는데.}

10503 # 마, 이이 절반.{뭐, 이 절반.}

10503 # 뿌 역, 하안국에너 고 하안국에는 열무김치도 뿌리가 그리 안 커요.{뿌, 열, 한국에는 그 한국에는 열무김치도 뿌리가 그리 안 커요.}

10503 @ 예예.{예.} # 고어여, 고곤 찢라부리고 마.{그거요, 그건 잘라버리고 뭐.}

10503 # 이마 이, 요마끔마 이 두 동가리마 내가저고 소곰 처낫다가.{이만큼, 요만큼하게 두 동강만 내 가지고 소곰 처 낫다가.}

10503 # 고어 꼬칫까리 마 이 영지 마알고.{거기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말고.}

10503 @ 예예.{예.} # 약간 넣고 그래가 또 해노옹머 맛있어요.{약간 넣고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맛있어요.}

10503 @ 열무는 종류가 다름니까, 무시하고?{열무는 종류가 다름니까, 무하고?} # 예예, 그으느 보 뿌리가 그래 안 굵어요.{예 그건 보, 뿌리가 그리 안 굵어요.}

10503 # 따, 요리 따악 가늘게.{딱, 요리 딱 가늘게.} @ 아 아, 가늘게.{아, 가늘게.} # 예예, 가아느 뿌리가 가늘게 잇이니까 고오느 마 찢라 버리도 테예.{예, 가는 뿌리가 가늘에 있으니까 그건 뭐 잘라 버려도 돼요.} @ 예예, 예.{예, 예.} # 예.{예.}

10503 # 열무김치 그래눔 맛있습다, 요새애.{열무김치 그래 놓으면 맛있습니다, 요새.} @ 그럼, 그은.{그럼, 그건.}

10503 @ 저어 열무웁만 합니까, 배추도 쪼끔 영습니까?{저 열무만 합니까, 배추도 조금 넣습니까?} # 아니요, 배애차 안 영요, 고고마 해요.{아니요, 배추 안 넣어요, 그것만 해요.}

10503 @ 구긱만?{그것만?} # 고고마, 고고 할 때느.{그것만, 그것 할 때는.}

10503 # 어 어, 찹쌀:까리가 잇이마.{어, 찹쌀가루가 있으면.}

10503 # 가알이 * 물로 붓고 고고 언자.{같이 물을 붓고 그것 인제.}

10503 # 미원도 쪼름 넣고 해가주어.{미원도 쪼름 넣고 해 가지고.}

10503 # 발아발 끓이지요 머, 풀로 끓여가주고.{팔팔 끓이지요 뭐, 풀을 끓여 가지고.} @ 예예.{예.}

10503 # 풀이 머얼걸 정도로 끓예가.{풀이 멀걸 정도로 끓여서.}

10503 # 그래가저 쪼끔 여눔 맛이 빨리 쥼히요.{그래 가지고 조금 넣어 놓으면 맛이 빨리 들어요.} @ 예예.{예.} # 예, 찹쌀까리 그 풀 여노모.{그 찹쌀가루 그 풀 넣어 놓으면.}

10503 # 맛이 빨리 쥼히이.{맛이 빨리 들어.}

10503 @ 보리밥에 저 열무김치 탁 넣고 텐장 조끔 하고 사악사 비이비 놓으며는.{보리밥에 저 열무김치 탁 넣고 된장 조끔 하고 삭삭 비벼 놓으면.} # 예예, 예, 예.{예, 예, 예.}

10503 # 오늘도 우리 시누우네 집에 가 이 막 길넉에 만 깨애끗한.{오늘도 우리 시누이 집에 가니 막 길넉에 뭐 깨끗한.}

10503 # 민들레가 마 이이랑기 조웅테요, 너어무 좋아가 마.{민들레가 뭐 이렇게 좋테요, 너무 좋아서 뭐.} @ 하 아.{하.}

10503 # 자앙 하 한 오오분 똥안에 한 푸대 뜯아오가 우리 딸네 집에.{잠 하 한 오분 동안에 한 부대 뜯어 와서 우리 딸네 집에.}

10503 # 데와가 너니이더, 우리 딸이.{데쳐서 냅니다, 우리 딸이.} @ 호:이구.{하이구.}

10503 # 그래 그그도 민들레 그그느.{그래 그것도 민들레 그건.}

10503 # 그저 삶아가저고 말라나앗다가 이래 주옥 줄루 치고 말라나앗다가.{그저 삶아 가지고 말려 났다가 이래 죽 줄을 치고 말려 났다가.}

10503 # 동삼에 먹을때느 또 물에 담가가 불하가지고.{동삼에 먹을 때는 또 물에 담가 가지고 불려 가지고.}

10503 # 폭 삶아가 육아가주우 그 답에느.{폭 삶아서 ?? 가지고 그 다음에는.}

10503 # 또 데엔장 열고 무채도 좋고.{또 된장 넣고 무쳐도 좋고.}

10503 # 요 소오고기 자양조름 할때도 고거 쪼끔시 여모 찢기찢기하 이 그긋도 맛있어 예.{요 쇠고기 장조림 할 때도 그것 조금씩 넣으면 쫄깃쫄깃하니 그것도 맛있어요.}

@ 예예, 크어때 그기 그렇게 약이 텐답니더.{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약이 된답니다.} # 예예, 예.{예, 예.}

10503 # 여 여그느 민들레로 참말로 크게 약처럼 써요.{여 여기는 민들레를 참말로 크게 약처럼 써요.} @ 크웃 마옵습니까?{그것 많습니까?}

10503 # 그기이 위에도 조용고.{그게 위에도 좋고.} @ 예예.{예.}

10503 # 머어, 혈압 노옴은 사람 혈압에도 조용고.{뭐 혈압 높은 사람 혈압에도 좋고.}

@ 예예.{예.}

10503 # 다아 좋다꼬 여그이 민들레 예옛날버터 봄에 요래 뿔룩뿔룩하 이 요래 나올적에느.{다 좋다고 여기 민들레 옛날부터 봄에 요래 볼썽볼썽하니 요래 나올 적에는.}

10503 # 비이다가 고올때느 스읍지도 안하고.{베다가 그럴 때는 쓰지도 않고.} @ 그걸 뱌니까, 뿌리채 안 빼옵니까?{그걸 뱌니까, 뿌리채 안 뽑습니까?}

10503 # 뿌리느 아 아, 뿌리.{뿌리는 아, 뿌리.} @ 뿌리가 그 약이라는데.{뿌리가 그 약이라는데.} # 예, 약은, 뿌리느 약 할 사람은.{예, 약은, 뿌리는 약 할 사람은.}

10503 @ 아 아, 뿌리도 하고.{아, 뿌리도 하고.} # 뿌리르 뿌리채로 몽땅 캐고.{뿌리를, 뿌리채로 몽땅 캐고.}

10503 # 고 이파리마 먹는덴(머엔덴) 요 칼로 도려가가, 고랜.{고 이파리만 먹는 데는 요 칼로 도려 가지고, 고래.} @ 아하 아.{아하.}

10503 # 문체에 저 데엔장 한 손가락 여옹고 꼬치까도 옹, 꼬치장도 쫂 옹고.{무쳐, 저 된장 한 손가락 넣고 고춧가루도 넣, 고추장도 좀 넣고.}

10503 # 이런 양재게다 옹고 비베나바요, 그양 옹고, 어매나 맛있다고요.{이런 양재기에다 넣고 비벼 봐봐요, 그냥 넣고, 얼마나 맛있다고요.} @ 예예.{예.}

10503 # 우리가 그래 먹으며 판 사람들은.{우리가 그래 먹으면 판 사람들은.}

10503 # 스으 야아 풀로 우에 그**, 아, 이 사람들아 광:고에도.{야, 풀을 어찌 그**, 아, 이 사람들아 광고에도.}

10503 # 풀, 저저 야아채르 마 이 먹어야 사람잘에 좋다아는데 밥마 먹는기 아 이다.{풀, 저저 야채를 많이 먹어야 사람한테 좋다하는데 밥만 먹는게 아니다.}

10503 # 우리 딸은 또 바이 야아채르 마 이 먹어요.{우리 딸은 또 ?? 야채를 많이 먹어요.}

10503 @ 아 아, * 좋지요, 몸에 정말 좋지요.{아, 그 좋지요, 몸에 정말 좋지요.} # 예예, 우리 식구들은.{예, 우리 식구들은.}

10503 # 우리느으 가실마당 데머는 무우 밭에 마 무수쥬, 무우이파리 쥬기가 이런거로.{우리는 가을 때 되면 무 밭에 무 쥬, 무이파리, 쥬기 이런 걸.}

10503 # 우리 시아번님이, 야아들아 그 이파리 술술 홀차뿌고 데엔장에 꾸욱꼭 찍아바라 덜크은하 이.{우리 시아버님이, 애들아 그 이파리 훌훌 훑어버리고 된장에 꺾꺾 찍어봐라 달큰하니.}

10503 # 그래 배아가 먹으 이 다른 사람 웃어사아요, 벨거 다 먹는다고.{그래 배워서 먹으니 다른 사람 웃어 썩아요, 별 것 다 먹는다고.}

10503 @ 찌어, 한국에서 미국 의사가.{저, 한국에서 미국 의사가.}

10503 @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10503 @ 한국 사람이 물었어요.{한국 사람이 물었어요.} # 예,예, 예예.{예, 예, 예예.}

10503 @ 한국에서 본 음식 주에서{한국에서 본 음식 중에서.}

10503 # 무우징 무.{무, 무.} @ 제엘 권하고 싶은게 무우충.{제일 권하고 싶은 게 무청.}

10503 # 무우 시래기.{무시래기.} @ 무우, 옐, 그겜.{무, 예, 그게.} # 예예.{예.}

10503 @ 아암에도 좋고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암에도 좋고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 으 응, 그.{응, 그.}

10503 # 그웁고 또 저어 내가 함박식파 아서 일도 해봣, 식파 아 완찬도 해왓지마는.{그렇게 또 저 내가 공사장 식당에서 일도 해 봤, 식당에서 반찬도 해봤지만.}

10503 # 고덩어 싱싱한거 사다가.{고등어 싱싱한 거 사다가.}

10503 @ 밑에에 깔고.{밑에 깔고.} # 예예, 이래 어식어식하 이 빠져가지고.{예, 이래 어숫어숫하니 빠져 가지고.}

10503 # 치 시래 이로 무우 시래 이로 푸욱 삶아가 딱 두까치스으.{시래기를 무시래기를 푹 삶아서 딱 두 줄기씩.}

10503 # 또올뜰 무여긴자 하안 먹, 요오애 향 한 토막에.{뜰뜰 묶어 인제 한 먹, 요래 한 토막에.} @ 아 아, 뭉.{아, 뭉.}

10503 # 두까치스 요래 또올뜰 말아가저 쪼옥 깔고.{두 줄기씩 요래 뜰뜰 말아 가지고 쪽 깔고.}

10503 # 양념 차악착 쳐놓고 또 그래가.{양념 착착 쳐 놓고 또 그렇게 해서.}

10503 # 이런 다라에다 하안 다라 떠덴 노가대들이 며.{이런 다라이에다 한 다라이 지지면, 인부들이 뭐.}

10503 # 한 사라스 한 상에, 이만한 사라에다 한 사라스.{한 접시씩, 한 상에, 이만한 접시에다 한 접시씩.}

10503 # 퍼, 한 사발스 퍼들라러마.{퍼, 한 사발씩 퍼 들여 놓으면.}

10503 # 자알 잡사요오.{잘 잡쥬요.} @ 초아 맛, 맛이 좋지요, 예예.{참 맛, 맛이 좋지요, 예.} # 그이 맛있어요, 이리 지인거 쭈욱 뜯.{그게 맛있어요, 이리 긴 거 쪽 뜯.} @ 예예.{예.}

10503 # 고개 젓기고 먹어바요, 너무 맛있어요, 예예.{고개 젓히고 먹어 봐요, 너무 맛있어요, 예.} @ 맞으(마스), 그렇습니다.{맞습, 그렇습니다.}

10503 # 무우시래 이 그으 고덩어 찌지인데느 무우시리가 제일이라, 예예.{무시래기 그거 고등어 지지는데는 무시래기가 제일이라, 예.} @ 체에고이지요. 예.{최고지요,

예.}

10503 @ 그 몸에도 좋고.{그 몸에도 좋고.} # 예.{예.}

10503 # 우리는 그래가 가을데머: 작년에도 우리 딸아카 아.{우리는 그래서 가을 되면 작년에도 우리 딸아이하고.}

10503 # 엄마, 그양 말라놓모 삶으라며 힘드는데.{엄마, 그냥 말려 놓으면 삶으려면 힘드는데.}

10503 # 데와가 말라, 말류머 좋다 이기, 데와가지고 말라가 낳았다가.{데쳐서 말리, 말리면 좋다 이기, 데쳐가지고 말려 놓았다가.} @ 아 아, 데웠습니, 예에, 예.{아, 데웠습니, 예, 예.}

10503 # 또 담가놓가 푸욱 삶아 가지고.{또 담가 놓았다 폭 삶아 가지고.}

10503 # 또오 한 이틀 육아놓오모 푸우 지대로 퍼저가.{또 한 이틀 ??놓으면 폭 제대로 퍼져서.}

10503 # 여영 먹기 좋지요, 마, 예에, 예.{영 먹기 좋지요, 뭐 예, 예.} @ 조옹지요.{좋지요.}

10503 # 무우 시래 이가 제일이라요, 우우느 우리 시어른들잘에 버어여 그거를 배아놓아가.{무시래기가 제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어른들한테 벌써 그거를 배워 놓아서.} @ 으음, 그렇습니다.{음, 그렇습니다.}

10503 # 우리 식구들은 트읍빠빨히 나물을 마 이 먹어예.{우리 식구들은 특별히 나물을 많이 먹어요.}

10503 @ 예에, 조옹지요?{예, 좋지요?} # 예에.{예.}

1.2.4.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 산에 나는 나물하고 들에 나는 하고가 다릅니까?{산에 나는 나물하고 들에 나는 나물하고 다릅니까?}

10504 # 드을에 나는거느 벨로 먹을 나물이 없는데, 산에 가모 마 나물들이.{들에 나는 건 별로 먹을 나물이 없는데, 산에 가면 뭐 나물들이.} @ 산에가 많지요?{산에 많지요?} # 예, 산에 나물이 훨씬 맛이 나았지.{예, 산에 나물이 훨씬 맛이 낫지.} @ 요개서는 어떤 종류가 납니까?{요기에서는 어떤 종류가 납니까?}

10504 # 여그 여으느 다 산에 가 뜯지, 들판에느 농, 저어 이 노, 노, 예.{여기 여기는 다 산에 가서 뜯지, 들판에느 농, 저, 이 노, 노, 예.} @ 예, 예, 논밭?{예, 예, 논밭.}

10504 # 수전바 논독에느.{수전밭, 논독에느.}

10504 # 약, 풀 나지마라고 약을 때리나야까 모운 묵어예, 예, 모운 먹어예.{약, 풀 나지 말라고 약을 뿌려 놓으니까 못 먹어요, 예, 못 먹어요.} @ 아, 그 안테갯군여.{아, 그 안 되겠군요.}

10504 # 나도 모운 먹어예.{나도 못 먹어요.}

10504 # 글코오 저어 도랑뚝에.{그리고 저 도랑 뚝에.}

10504 # 붓독 *** 키이큰 도랑뚝에나 그런테에노 감모 미나리 나잖나요.{붓독, ??? 도랑뚝에나 그런테 가면 미나리 나잖아요.} @ 미나리 좋지요.{미나리 좋지요.} # 미나리 그웃 가지고오.{미나리 그것 가지고.}

10504 # 이 여그 여그느 조오, 지오즈라 하는데, 하안국에느 물.{이 여기 여기는 조, 지오

즈(교자)라 하는데, 한국에는 물.}

10504 # 찌게, 만두라 하잖나요, 만두라 하잖나예.{저기, 만두라 하잖아요, 만두라 하잖아
요.} @ 예, 마안두.{예, 만두.}

10504 # 그그 차말로 맛있어요.{그것 참말로 맛있어요.}

10504 # 야아, 우리 저어 나오그 우린 미나리까주어져.{야, 우리 저 나는 우린 미나리 가지
고.}

10504 # 그으 저어 소옥 옹고 하는거느 처음 먹어반데, 자악년에 우리.{그 저 소 넣고 하
는 것은 처음 먹어 봤는데, 작년에 우리.}

10504 # 우리 둘째 아들네 집에 가가.{우리 둘째 아들네 집에 가서.}

10504 # 엄마아, 나도 해 먹어 보 이 너어무 맛있더라, 그럼 어 이 하노 보자.{엄마, 나
도 해 먹어 보니 정말 맛있더라, 그럼 어찌 하는지 보자.} @아 아.{아.}

10504 # 지가 마 어디 가디마느 낫을 비이가지고 와가져고.{자기가 뭐 어디 가더니만 낫으
로 베어 가지고 와 가지고.}

10504 # 데와가지고.{데쳐 가지고.}

10504 # 칼로 다제가지고 대지고기 다제 용개네.{칼로 다져 가지고 돼지고기 다져 넣으니
까.} @ 예예.{예.}

10504 # 너어모 맛있데요, ***.{정말 맛있데요, ***.} @ 아, 그 만두 소로 한단 말이
**?.{아, 그 만두 소로 한단 말이지요?} # 예예, 만두 속 영는기 너어무 맛있어
예.{예예, 만두 소 넣는 게 정말 맛있어요.}

10504 @ 미나리 넣은 거느 아직 못 무어 바앗습니다.{미나리 넣은 거느 아직 못 먹어 봤
습니다.} # 예예, 미나이 못자안사 바앗쥬, 우리이 여그느 그그느.{예예, 미나리 못
잡쥬쥬, 우리 여기는 그건.} @ 아 아.{아.}

10504 # 저 오오갈피나무요, 산에 가모 오오갈피나, 그그도 데와가지고.{저 오갈피나무요,
산에 가면 오갈피 나무, 그것도 데쳐 가지고.} @ 예예, 예.{예, 예.}

10504 # 소옥 영어 낳아 보래여.{소로 넣어 놓아 보세요.}

10504 # 대지고기 송송 설이가지고.{돼지고기 송송 썰어 가지고.} @ 아 아.{아.}

10504 # 그긋 그그도 다제가지고 구래 같이 설아가 섞어.{그것 그것도 다져 가지고 그래
같이 썰어서 섞어.}

10504 # 인냐 고오 저 야양파도 존 이 이 야양파 이리 등그란거.{인제 그 저 양파도 좀 이
이 양파 이리 등근 거.} @ 예예, 예.{예, 예.}

10504 @ 다마네기?{다마네기?} # 야양파, 예, 다마네기 그그도 소리 옹고오 파 이도 설
이 옹고.{양파, 예, 다마네기 그것도 썰어 넣고 파도 썰어 넣고.}

10504 # 그리 참 매앤두 사노며 마앗인니더.{그리 참 만두 빻어 놓으면 맛있습니더.} @ 하
아, 크으 참.{하아, 그 참.}

10504 # 그래 내 우리 아아들이 우리 야 큰아들이 군대 갓다와가.{그래 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갓다와서.}

10504 # 한 해 설을 시일라마 한 천 개숙 해, 이천 개숙.{한 해 설을 쇠려면 한 천 개씩
해, 이천 개씩.}

10504 # 이런 마카 이 송구이숙 사놓고 손님어머 먹고 우리 어중가안허며 먹고.{이런 막
이 소쿠리씩 빻어 놓고 손님 오면 먹고 우리 어중간하면 먹고.} @ 도오이 후

어, 아 아.{??? 우와, 아.}

10504 # 그래노은 그래가주우 우리가 그리 해 먹어 바아노 이, 모오도 그래가 해 먹어보
고 얻아먹어보곤 다아 맛있다고.{그래 놓으니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리 해 먹어 봐
놓으니, 모두 그렇게 해 먹어보고 얻어 먹어보고는 다 맛있다고.}

10504 # 누구 집이라도 명절에는 크게 사아요.{누구 집이라도 명절에는 많이 빚어요.}

10504 # 그 본 그 저 만두르 마 이 삽니다.{그 보 그 저 만두를 많이 빚습니다.}

10504 # 개 내가 식파 아 덩기메서도 그거르 배아노오 이 머.{그래 내가 식당에 다니면
서도 그걸 배워 놓으니 뭐.}

10504 # 나는 머어 한 삼사백개는 내 한자라도, 얼른 얼른 밀아가저 저어 내앵장고 업하농
고.{나는 뭐 한 삼사백 개는 내 혼자라도, 얼른 얼른 밀어 가지고 저 냥장고에 올려
놓고.} @ 혼자서, 예예.{혼자서, 예.}

10504 # 심심하며 또 데아 저어 삶아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심심하면 또 데워 저 삶아 가
지고 또 먹기도 하고.} @ 예예, 아이구.{예, 아이고.} # (웃음소리), 예예.
{예.}

10504 @ 고들빼기라는거 압니까?{고들빼기라는 거 압니까?}

10504 # 꼬들빼기 여그로 여그는 말하자며 꼬인.{고들빼기 여기로 여기는 말하자면 ??}

10504 # 개 하안국에는 꼬들빼기라고.{그 한국에는 고들빼기라고.}

10504 # 그으긔, 예예.{그것, 예.} @ 뿌리.{뿌리.} # 이래 줄이 주울 나가암세느.{이래 줄
이 줄 나가면서는.} @ 예예.{예.}

10504 # 신내 이처럼 오올라오는기 잇잖나여.{썸바퀴처럼 올라 오는게 있잖아요.} @ 예
예, 예.{예, 예.}

10504 # 여그는 그그 아안 먹어예, 대애지 먹지 사아람은 안 먹어예.{여기는 그것 안 먹어
요, 돼지 먹지 사람은 안 먹어요.}

10504 @ 허이구, 그으 젓갈에다 기 김치 담아놓모 오얼마나 맛있습니까.{허이구, 그 젓갈
에다 김치 담가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10504 # 하안국에 가보 이 그 머 젓갈 옆고 무체노 이, 예, 머어.{한국에 가보니 그 뭐
젓갈 넣고 무쳐 놓으니, 예, 뭐.} @ 아, 비쌉니다, 그거.{아, 비쌉니다, 그거.}

10504 # 먹기 좋데요, 식파 아 가보 이 아, 저.{먹기 좋데요, 식당에 가보니 아, 저.}
@ 조옹지요.{좋지요.}

10504 # 사장 아저씨가 장봐가오며 그런거 사가오데.{사장 아저씨가 장봐서 오면 그런 거
사가오데.}

10504 # 아:오 이거 어찌 먹어요, 내가 첫번 가아 그라 이께네.{아오, 이거 어찌 먹어요,
내가 첫 번에 가서 그러니까는.}

10504 # 아이고, 할매, 아지매요.{아이고, 할머니, 아주머니요.}

10504 # 해 나아보소 맛:이심다개사터라 참 해 노으 이 마.{해 봐 보소, 맛있습니다라고해
썰더라, 참 해 놓으니 뭐.}

10504 # 찢깁 옆고 주방아지매카 아 둘이 가알이 해 여어 이.{젓갈 넣고 주방아주머니하
고 둘이 같이 해 놓으니.}

10504 # 맛있던데예.{맛있던데.} @ 맛:잇쥬, 그이 그웃도 야악 약 데고.{맛있쥬, 그게 그
것도 약, 약 되고.} # 그그도 야악제라예, 신내 이도 약제라요.{그것도 약제예요, 썸

바퀴도 약재예요.} @ 예예, 그렇지요.{예, 그렇지요.} # 예.{예.}

10504 # 여그느 그그르 다아 대애지 뜯아다 덩겨 썰 나락 덩게 영고, 그래.{여기는 그걸 다 돼지, 뜯어다 겨, 찔겨 넣고, 그래.} @ 어이고, 대애지 호강하네.{아이고, 돼지 호강하네.}

10504 @ 그으 호박도 대애지 호강한다고 준다메예.{그 호박도 돼지 호강시킨다고 준다메요.} # 예예, 대애지도 흔.{예, 돼지도 ?.}

10504 # 가실철에는 동삼에 전에 이인지는 그런 걸 안 하 이 그렇지.{가을철에는 동삼에 전에, 인제는 그런 걸 안 하니 그렇지.}

10504 # 호오박 무디 이가 태산 걸애도.{호박 무더기가 태산 같아도.}

10504 # 동삼 내애 콩 영고 대애지 삶아가 먹이잖나요.{동삼 내 콩 넣고 돼지 삶아서 먹이잖아요.}

10504 @ 호:박 머리가 맑아지고.{호박, 머리가 맑아지고.} # 예예.{예.}

10504 # 저어 부석 나는데도 좋고, 글타데예, 예.{저 부석한 데도 좋고, 그렇다데요, 예.} @ 예예, 부웃중에, 예.{예, 부엌을 때, 예.}

10504 # 부석날 때.{부석할 때.} @ 그러므 여기는 저어 누룬티 이.{그러면 여기는 저 '누렁통이'.}

10504 # 누룬티 이라?{누룬티 이라?} @ 누른느 누런 호박, 가알그예.{누런, 누런 호박 가을에.} # 예예,예.{예,예.}

10504 @ 그그 안 해 먹십니까?{그거 안 해 먹습니까?}

10504 # 그그 안 해 먹어요.{그것 안 해 먹어요.} @ 호박 오오가해 해 가지고 떡 안 합니까?{호박 오가리 해 가지고 떡 안 합니까?} # 호박 오가리, 전에 우리 어무 이 계실 때:느.{호박 오가리, 전에 우리 어머님 계실 때는.}

10504 # 호박 오가리로 해가야: 줄을 주 줄애다 주욱 늘어났다가.{호박 오가리를 해서 줄을 주 줄애다 죽 늘어났다가.} @ 예예, 늘어서 빼들빼들.{예, 늘어서 ????.}

10504 # 동삼 데모 또 그그르 요래 송송 설아가주 물에 담가났다 얼른 건져가.{동삼 되면 또 그걸 요래 송송 썰어 가지고 물에 담가났다 얼른 건져서.}

10504 # 쫄 뽕기 전에 그래가 시리떡 찌놓모 그웁도 맛있니이다.{쫄 ??? 전에 그래 가지고 시루떡 찌 놓으면 그것도 맛있습니다.} @ 허, 호박 시리떡이 온때나 맛있습니까.{호박 시루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10504 @ 예 예{예.} # 홀:떡 호박떡 해노머 맛있어예.{호박떡 호박떡 해 놓으면 맛있어요.} @ 아니, 여기도 호박시리떡 안 합니까?{아니, 여기도 호박 시루떡 안 합니까?}

10504 # 우, 우리 떡가게느 호박떡 해요.{우, 우리 떡가게는 호박떡 해요.} @ 하지오?{하지요?} # 예예, 예.{예, 예.}

10504 @ 맛:잇쥬, 그으 단 단 거 딱 호박 들어 잇으며느.{맛이쥬, 그 단 단 거 딱 호박 들어 있으면.} # 예예, 예.{예, 예.}

10504 # 언 인자 호오박을 요새느 제대르이 깍 야무지르 안 해노 이 분이 쪼끔 더얼 해요.{어 인제 호박을 요새는 재래로 이 짝 여물지 안 해 놓으니 '분'이 조금 덜해요.} @ 예예, 예.{예, 예.}

10504 # 그래가지고 인자 고 하 하나스 사다가.{그래 가지고 인제 그 하 하나씩 사다가.}

10504 # 듬북듬부 성글아가 켜예요, 찌가지고.{송덩송덩 썰어서 찌요, 찌 가지고.}

10504 # 가리에 섞아가, 툇.{가루에 섞어서, 또.}

10504 # 쫘, 쫘 갈아가지고.{갈아 가지고.}

10504 # 언자 그래 물발 나르가 어영근체로 찰가지고 새 노며.{인제 그래 물 발 내려서 어 레미로 쳐 가지고 해 놓으면.}

10504 # 여영 좋아요 맛있어요.{영 좋아요, 맛있어요.} @ 후어, 맛있, 이만저만 아 이쥬.{하, 맛있, 이만저만 아니쥬.} # 예예.{예.}

10504 # 자악년에는 내가 집에서 이시메 저어 한.{작년에는 내가 집에서, 있으며 저 한.}

10504 # 하동에 그때 왔다가갸다 하미.{하동에 그때 왔다가갸다가 하며.}

10504 # 우리 뜨락에다 송가나앗다.{우리 뜰에다 심어 놓았더니.}

10504 # 우리 사우가 가디 이 이이런 포대로 두 포대 뜯아 왓데요, 그래야.{우리 사위가 가더니 이런 부대로 두 부대 뜯어 왔덴, 그래 가지고.}

10504 # 안 사고 조군데 섯는데.{안 사고, ??? 썼는데.}

10504 # 마 그거 떨어지니까 자꼬 사다 하니까 호박 한 근에 도 이, 비싸요.{뭐 그거 떨어 지니까 자꾸 사다 하니까 호박 한 근에 돈이, 비싸요.}

10504 @ 호박은 살라면 비싸지요.{호박은 사려면 비싸지요.} # 예, 살라무 비싸요. {예, 사려면 비싸요.}

10504 # 그래, 오올개도 우리 사우가 안 아팿이모 우리 바알에 노는 밭에 송글라 했디 이.{그래, 올해도 우리 사위가 안 아팿으면 우리 밭에 노는 밭에 심으려고 했더니.}

10504 # 아이고, 송그머 또 내가 해야 데엔네 내가 그 고생을 어예 하네.{아이고, 심으면 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고생을 어찌 해.}

10504 @ 근데 호박은 한 번 송그로언먼.{그런데 호박은 한 번 심어 놓으면.}

10504 # 예, 줄 나가모마예, 예, 그 그 전에 큰 품마 쳐뿌머.{예, 줄 나가면요, 예, 그 그 전에 큰 품만 쳐 버리면.} @ 이 일이 그냥, 손 안 *어도 안 텨니까?{이 일이 그냥, 손 안 *도 안 텨니까?}

10504 @ 익 저 거름 자알 해가지고 복 숨겨놓으면.{이 저 거름 잘 해 가지고 * 심어 놓으면.} # 예, 예예, 맞아요, 그래요.{예, 예예, 맞아요, 그래요.}

10504 # * 호오박은 미 인분이 드가야 호박이 달아요.{* 호박은 인분이 들어가야 호박이 달아요.} @ 예예.{예.}

10504 @ 가악 해서 깍 ** 지질로.{깍 해서 깍 ** 저절로.} # 예예, 예.{예, 예.}

10504 # 호오박은 구디 이로 밑에다 콕.{호박은 구덩이를 파고 밑에다 콕.}

10504 # 가뜩 묻어놓고 우에다 홀로 조마 이 얹아가 그 담에.{가뜩 묻어놓고 위에다 흙을 조금 얹어서 그 담에.}

10504 # 호박 뽑기 안 드갈, 밭 안, 밭 뜨가가 땡기 올릴 정도로마 해놓머. {호박 ?? 안 들어갈, 밭 안, 밭 들어가서 당겨 올릴 정도로만 해 놓으면.}

10504 # 자알 데니이더.{잘 됩니다.} @ 자알 데지오?{잘 되지요?} # 예, 잘 데요.{예, 잘 돼요.}

1.2.4.3. 밀반찬의 조리

10510 @ 국시도 해 묵십니까?{국수도 해 먹습니까?} # 예예?{예?} @ 국시?{국

수?}

10510 # 국시도 밀까리이 그 해가지고.{국수도 밀가루 그 해 가지고.}

10510 # 저 칼국시도 해 먹고 이에 뜨더국시도 해 묵고 그리 해애여.{저 칼국수도 해 먹고 이 수제비도 해 먹고 그리 해요.}

10510 @ 그러며는 저어 기계에다 하는.{그러면 저 기계에다 하는.}

10510 @ 도웅그란거 가늘고 또웅그란거 있잖습니까, 고곶하고.{동그란 거, 가늘고 동그란 거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 예예, 예, 그.{예, 예, 그.}

10510 @ 손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는 건하고.{손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하고.}

10510 # 아 아.{아.} @ 이름이 다른니까?{이름이 다릅니까?}

10510 # 그런건 안 해 바앗습니다.{그런 건 안 해 봤습니다.}

10510 # 우리는 그저 우리 여.{우리는 그저 우리 여.} @ 주로 칼국시.{주로 칼국수.}

10510 # 예예, 칼국시데.{예, 칼국수인데.} @ 그리고 손 떼에 가지고 이려는 거는요?{그리고 손(으로) 떼어 가지고 이려는 거는요?} # 예예, 이랜 바안죽을 멀쩡:하게 치대 가지고.{예, 이래 반죽을 멀쩡하게 치대어 가지고.}

10510 # 미역이나 빨아 옹고.{미역이나 씻어 넣고.}

10510 # 이래 툇 툇 뜯아옹고 그래 가지고.{이래 툇 툇 뜯어 넣고 그래 가지고.} @ 그 걸 머라 그릅니까?{그걸 뭐라 그릅니까?} # 떡.{떡.}

10510 # 떡국 떡, 저 떠 뜨더.{떡국 떡, 저 떠 뜯어.}

10510 # 뜯 떠그 뜨더국이라합니이더, 뜯아옹는다고 뜨더국이라 일하데예, 뜯아 이 뜨더국이라.{뜯 떠그 뜨더국이라 합니다, 뜯어 넣는다고 뜨더국이라 이러데요, 뜯아 이 뜨더국이라.}

10510 # 그래가.{그래 가지고.} @ 수지, 수제비라는 마을 잇업?{수지, 수제비라는 말은 잇어버?} # 예예, 그으느 수지비란 마알 맞지요.{예, 그거는 수제비라는 말 맞지요.}

10510 @ 그런 말은 자알 안 씻습니까?{그런 말은 잘 안 씻습니까?}# 여와아여, 서그 들.{???? ???.}

10510 # 수지비라 수진 드, 수지비 주욱 짧이아꼬 우리 어무 이 그라는데, 우리 어무 이 그거 좋아해가.{수제비라 수제, 수제비 죽 끓여 가지고 우리 어머님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거 좋아해서.}

10510 # 우이노 고보끼리 그래가점 몸이나 아프고 춥우모 그런거 잘 해 먹어요.{우리는 고 부끼리 그래 가지고 몸이나 아프고 추우면 그런 거 잘 해 먹어요.} @ 조웅지요. {좋지요.} # 예예, 예.{예, 예.}

10510 @ 그을면 국물은 머얼 가지고 합니까?{그러면 국물은 뭘 가지고 합니까?}

10510 # 국물 매애 물 붓고 간장 옹고.{국물 그냥 물 붓고 간장 넣고.} @ 예예.{예예.}

10510 @ 간장만 옹고오요?{간장만 넣고요?} # 예예.{예.}

10510 # 간장 옹고.{간장 넣고.} @ 메엘치 안 넣고요?{멸치 안 넣고요?} # 예예?{예?}

10510 @ 메르치?{멸치?}# 아 아, 메르치 여그느 글때느 메르치, 시자양도 메르치.{아, 멸치, 여기는 그때는 멸치, 지금도 멸치.} @ 메에치가 없엇어요?{멸치가 없엇어요?}

10510 @ 다시다는 그림 넣엇겟네?{다시다는 그림 넣엇겟네?} # 그래.{그래.}

10510 # 다시다도 그을때는 없었어요, 예.{다시다도 그때는 없었어요, 예.} @ 그때, 아
아 초창기에:{그때, 아, 초창기에.} # 예, 예.{예, 예.}

10510 # 그여.{그래.} @ 그음 장국물에다가 그양.{그럼 장국물에다 그냥.} # 예,
그저 자양국무에다 고에 간 맞차가지고 그래 해놓오모 그때로 또 먹을만한데.{예, 그
저 장국물에다 그래 간 맞춰 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그런대로 또 먹을 만한데.}

@ 예에, 예.{예, 예.}

10510 # 인지는 그런 양념이 많으 이 그거 안 영어모 또 맛 없어요.{인제는 그런 영념이
많으니 그거 안 넣으면 또 맛없어요.} @ 맛이 없지요?{맛이 없지요?} # 예,
맛없어요.{예, 맛없어요.}

10510 # 이 양념 나온제도 인자 하안 십년 데엿겠다.{이 양념 나온지도 인제 한 십 년 되
었겠다.} @ 그랫네에.{그랬네.}

10510 # 그래, 우리: 주인양반이.{그래, 우리 주인양반이.}

10510 # 친구네 집에 놀라가면.{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10510 # 아무개 황 동무노.{아무개 황 동무는.}

10510 # 머 해 놓은기이.{뭐 해 놓은게.}

10510 # 우리 음식보다 또 맛이 따더라고.{우리 음식보다 또 맛이 다르더라고.}

10510 @ 으 음.{음.} # 굼다고요, 그래 나 우리도 머 나암잘에 빠지게는 안 해먹는데,
와.{그렇다고요, 그래 내, 우리도 뭐 남에게 빠지게는 안 해 먹는데,왜.}

10510 # 와 그리 우리꺼는 맛이 없노कु미.{왜 그리 우리 것은 맛이 없어라고 하며.}

10510 # 내가 저 우리 친구잘에.{내가 저 우리 친구한테.}

10510 # 야, 너그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영감재 이가 가앗닥 오모.{야, 너희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영감쟁이가 갔다가 오면.}

10510 # 자아꼬 저 저 그.{자꾸 저 저 그.} @ 음.{음.}

10510 # 너그 음식 맛있다कु더라, 머 영노키 이.{너희 음식 맛있다고 하더라 뭐 넣어라고
하니.}

10510 # 머어 벨 거 안 해애.{뭐 별 것 안 해.}

10510 # 그으 찌거.{그 저거.}

10510 # 다시, 전에, 여그는, 전에는 미이온을.{자시, 전에 여기는 전에는 미원을.}

10510 @ 예에, 미원.{예, 미원.} # 위이수라 하니이더, 여어 중국말로, 위이수.{위이수라
합니다, 여기 중국말로, 위이수.} @ 위이수요?{위이수요?}

10510 @ 아지날모도.{아지날모도.} # 예에, 아지날모도.{예, 아지날모도.}

10510 @ 예 예.{예.} # 나느 그그 사다가 쪼끔시아.{나는 그거 사다가 조금씩.}

10510 # 아:매 그룽치, 요리가 더 워어런기 드가니까 맛이 따지.{아무럼 그렇지, 요리가 더
요런게 들어가니까 맛이 다르지.}

10510 # 그래, 그 말 듣고 나도 그거르 사다 영어보 이.{그래, 그 말 듣고 나도 그걸 사다
넣어보니.}

10510 # 아, 쪼끔시 쪼끔시 ** 벨맛이데요.{아, 조금씩 조금씩 ** 별맛이데요.}

10510 @ 그게 이제 입에 들며는.{그게 이제 입에 들면.}

10510 @ 그냥 한 거 맛이 없쥬?{그냥 한 것 맛이 없쥬?} # 예에, 맞어(마더) 인자 그그
그그 안 영어머.{예에, 맞아, 인제 그거 그거 안 넣으면.}

10510 # 소고기국에도 그기 드가야 맛있고요, 대지고기에도 어어디든지 고기이 쪼끔스 영어나야 맛이 나요.{소고기국에도 그게 들어가야 맛있고, 돼지고기에도 어디든지 그게 조금씩 넣어놔야 맛이 나요.} @ 하여 몸에는 차암 안 좋습니다.{?? 몸에는 참 안 좋습니다.} # 예, 예.{예, 예.} @ 예예.{예.} # 예.{예.}

10510 # 그기 안 좋다고요?{그게 안 좋다고요?} @ 예예.{예.} # 아 아.{아.}

10510 @ 그냥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그냥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 예예, 예.{예, 예.}

10510 # 호오 간마 딱 맞차가 해노며, 그리꾸 우리 딸아느.{그 간만 딱 맞춰서 해 놓으면, 그리고 우리 딸 아이는.} @ 예예, 그 대신.{예, 그 대신.}

10510 @ 메르치 같은 거 다시 내고.{멸치 같은 것 달이고.} # 예예.{예.}

10510 @ 그런걸 해애야 맛있죠.{그런 걸 해야 맛있죠.} # 메르치 다시 내는데는 다시 매도 열고.{멸치 달이는 데는 다시마도 넣고.} # 예예.{예.}

10510 # 그리 여러가지 무우도 송 송.{그렇게 여러가지 무도 송송.} @ 자연 식품인데 그그는.{자연 식품인데 그거는.}

10510 @ 화학적으로 만든 겁니다.{화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 예예.{예.}

10510 # 저저 무우도 덩병덩병 상그라가 크으게 삶아 그 다시다 빼엔데 그리노모 시원한 맛이 나, 예.{저저 무도 송덩송덩 썰어 가지고 오래 삶아서 그 달인 물 빼는데, 그래 놓으면 시원한 맛이 나, 예.} @ 시:원하지요?{시원하지요?}

10510 @ 그으 송능어할 때 그냥 밍물에 햇습니까, 뜨물에다 햇습니까?{그 송능 할 때 그냥 맹물에 햇습니까, 뜨물에다 햇습니까?}

10510 # 예옛날에 우리 어른들 잇을 때느.{옛날에 우리 어른들 잇을 때는.}

10510 # 살로 치, 이래애 마악 도어불 치대가 따라빠리고.{쌀을 치, 이래 막 두어 번 치대서 따라 버리고.}

10510 # 그 답에는 파악 팍 치대가 보하안 물이 나오며.{그 답에는 팍 팍 치대서 보얀 물이 나오면.}

10510 # 시라꾸 끓여노모 데엔장 열고.{시래기국 끓여 놓으면 된장 넣고.}

10510 # 시라꾸 끓이노모 그웁도 촘 맛있어요.{시래기국 끓여 놓으면 그것도 참 맛있어요.} @ 오올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 매 앵물에 끓이노며.{맹물에 끓여 놓으면.}

10510 # 눈깔이 땀똥하 이 치다보는기던예.{눈이 말똥하니 쳐다보거든요.} @ 예예, 예.{예, 예.}

10510 # 우리 어어른들 잇을때느 꼬옥은 머.{우리 어른들 잇을 때는 꼭 뭐.}

10510 # 한구 하던 십관(식판)을 그대로 하니까.{한국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니까.}

10510 @ 송능도 그렇게 해 놓면 맛있죠?{송능도 그렇게 해 놓으면 맛있죠?} # 예예, 송능도 그래가.{예, 송능도 그래 가지고.}

10510 # 버얼 끓라오릴 때마다 자아꾸 누룬지르 주개로 가야 젓이머느.{버글버글 끓여 오를 때마다 자꾸 누룽지를 주걱을 가지고 저으면.}

10510 # 꺄쭈하미이서 구신 맛이 마 이 나고.{꺄쭈하면서 구수한 맛이 많이 나고.}

10510 # 그라에도 겨영산도 사람들은.{그러지 않아도 경상도 사람들은.}

10510 # 송녕 해 놓머 제일 맛있다고 판 사람들이 그래살아요.{송녕 해 놓으면 제일 맛있

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쌓아요.} @ 마맛습니다.{맛습니다.} # 송녕이 제일이지요.{송녕이 제일이지요.} @ 위에 요즘은 워낙 그 비료로 하고 이라니까.{?? 요즘은 워낙 그 비료를 하고 이라니까.}

10510 # 비이료도 하고 뽕팡고오느 송녕해나도 맛도 없고 안 돼.{비료도 하고 '뽕팡고오'는 송녕 해나도 맛도 없고 안 돼.} @ 읊, 예예.{읊, 예.}

10510 # 송녕 데지도 안하고요, 밥이 삭.{송녕 되지도 않고요, 밥이 삭.}

10510 # 바이, 그래에 춤 이만:한 술에 세술에다 해애야.{밥, 그래, 이만한 술에 쇠술에다 해야.}

10510 # 노리노리: 눅하아 쪼오끔 더얼 누르며 불을 도부숙 열어가.{노릇노릇 놀놀려 조금 덜 놀리며 불을 ??? 넣어서.}

10510 # 노리노리 수리미, 그 물이.{노릇노릇 ???, 그 물이.}

10510 # 술이 다알라하머 물을 봐아가지고.{술이 달으려고 하면 물을 부어 가지고.}

10510 # 버얼버얼 끓여나바요 얼마나 구신 맛이 나나요.{버글버글 끓여봐봐요 얼마나 구수한 맛이 나요.} @ 그렇지요, 예예.{그렇지요, 예.}

10510 # 이 전에 우리 초온에 잇일때느 다 그리 해 먹은데.{이 전에 우리 촌에 있을 때는 다 그리 해 먹었는데.}

10510 # 여그 와 노 이 누른지도 길 없지.{여기 와 놓으니 누룽지도 길이 없지.}

10510 # 하안국에는 그래가 누른지 눅하가 파는데도 있데요.{한국에는 그래서 누룽지 눌러서 파는 데도 있데요.} @ 일버러, 예 예, 눅하 파알치요.{일부러, 예, 눌러 팔지요.} # 글트마느 우린 가매술에.{그렇지만 우린 가마술에.}

10510 # 그래가저븐 누른지 하안번시스 끌라로마 아아들이 머 어느새 다 집아 먹어뿌는 지.{그래 가지고 누룽지 한 번씩 끓여 놓으면 아이들이 어느새 다 집어 먹어 버리는 지.}

10510 @ 장아찌 많이 담쥬?{장아찌 많이 담쥬?}

10510 # 장아찌 우리나라 전에나.{장아찌 우리는 전에는.}

10510 # 갯닙도 뜯아다가 요래.{갯잎도 뜯어다가 요래.}

10510 # 차악착 재애가지고 테엔장 밑에 열어놓머.{착착 재 가지고 된장 밑에 넣어 놓으면.} @ 착, 예, 예예.{착, 예, 예.}

10510 # 그으도 맛있고, 콩눕도 뜯아다 *.{그것도 맛있고, 콩잎도 뜯어다 *.} @ 그렇지요. {그렇지요.}

10510 # 어어른들 잇일때느 그래 했는테에, 인지는 그곳도 저것도 간 곳 없고, 테엔장도 이 초에.{어른들 있을 때는 그래 했는데, 인제는 그것도 저것도 간 곳 없고, 된장도 이 촌에.}

10510 # 이 머 시내에 잇이며 테엔장 못한다캐가 우리느 아.{이 뭐 시내에 있으면 된장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

10510 # 와아 테엔치인다 ** 묻하노 했디마느.{왜 ???????? 못하나 했더니만.}

10510 # 여어 난치가 들오메는 뜨끈뜨끈하잖애요.{여기 난방이 들어오면 뜨끈뜨끈하잖아요.}

10510 # 구어 머, 테엔장 메에주 수여노 이 띄우기도 마르기도 좋고.{그 뭐, 된장 메주 쭈어놓으니 띄우기도 좋고.} @ 큼바양, 그치요.{금방, 그렇지요.}

10510 # 오온데 시골에 집에서 불드 잘못 열고 하며.{온 데 시골에 집에서 불도 잘못 넣고 하면.}

10510 # 석아가 뜨그 뜨지마느.{썩어서 뜨, 뜨지만.}

10510 # 어얼때나 오온도가 지대로 맞은지, 우린 시내 와도 내엔분 왜.{얼마나 온도가 제대로 맞는지, 우리는 시내에 와도 ??? ?.}

10510 # 난치 꼭대 저 우 얼리며 눈치막에 쫓옥 나아두며.{나나방 위에 저 우 올리면 ??? 에 쫓 놔두면.}

10510 # 요래가저엄 바아썩 겐으마아 셋:노랗게 마리고.{요래 가지고 바썩 겐으면 셋노랗게 마르고.} @ 조용지요, 예, 예.{좋지요, 예, 예.}

10510 # 쫓오꿈 꿈파구가 날라 말라 할 때느.{조금 꿈팡이가 필라말라 할 때는.}

10510 # 고마 고래가주온 시임지러 딱 사가지고.{그냥 그래 가지고 신문지로 딱 싸 가지고.}

10510 # 차악착 종개농모 지질로 뜨지 않나요. 예예.{착착 포개 놓으면 저질로 뜨지 않나요, 예.} @ 예예.{예.}

10510 # 그레눔 맛있어요.{그레 놓으면 맛있어요.}

10510 # 우리야 초 이, 이 시내에 나와도 난.{우리야 촌이, 이 시내에 나와도 난.}

10510 # 내가 다 우리 딸네집에서 다 메에주 끓여간.{내가 다 우리 딸네집에서 다 메주 끓여 가지고.}

10510 # 데엔장은 모도 얻아무우라 온, 저 데엔장이.{된장은 모두 얻어 먹으러 오, 저 된장이.}

10510 # 해 묵는다고 얻아, 얻으라 오는 사암도 있어예.{해 먹는다고 얻어,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10510 # 시내에서 *** * 아 아무데사드 진들.{시내에서 *** * 아 아무데서든지 ??.}

10510 # 연구마 하 오 데지, 안 텔끼 머 있나예.{연구만 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뭐 있나요.} @ 그렇지요, 예예.{그렇지요, 예.}

10510 @ 마늘도 넣었습니까?{마늘도 넣었습니까?}

10510 @ 쟁아치, 마늘 장아치.{장아찌, 마늘 장아찌.}

10510 @ 마늘쫑.{마늘쫑.} # 마느을 쫑도.{마늘쫑도.}

10510 # 어떤 사람은 자양찌 영는데.{어떤 사람은 장아찌 넣는데.}

10510 # 요오 마늘 대가이 여 시인쪽 마 알요, 왕마늘 마알고.{요 마늘 대가리 여 신쪽 마늘요, 왕마늘 말고.} @ 그으 꺼어고 이것 다암만 마늘 찌어.{그 ??? 이것 ??? 마늘 저.}

10510 @ 즐기.{즐기.} # 예예, 고고 저, 아스.{예, 고거 저, 아.}

10510 # 마늘 찌 요래 빼애가 즐기 그그도.{마늘 저 요래 빼서 즐기 그것도.} @ 때, 쫑때, 예예.{대, 쫑대, 예.}

10510 # 전에는 해가 먹었어여, 근디 아아들이 없으니까 먹는 사람 없으 이 하진 앓애 예.{전에는 해가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없으니까 먹는 사람 없으니 하지 앓아요.} @ 그렇네.{그렇네.}

10510 # 근데 요새는 또 이래 저 섌.{그런데 요새는 또 이래 저 섌.}

10510 # 시인쪽 저게 왕마늘 마알고, 시인쪽이라고 잔잔한 쫓가리네.{신쪽, 저기 왕마늘 말

고, 신쪽이라고 잔잔한 쪼가리네.) @ 여, 예에, 예, 예.{여, 예, 예, 예.}

10510 # 고곳 딱 인자 요오 칠열.{그것 딱 인제 요 칠월.}

10510 # 칠열 그름께 데머는.{칠월 그름께 되면.}

10510 # 탕수완이라캐요, 그걸 언자(그거던자).{'탕수완'이라고 해요, 그것 인제.}

10510 # 요앤 껌떼기 다아 뱃게부워 마지막 껌떼기 하나, 한 볼마 나아뚜고느.{요래 껌떼기 다 벗겨 버리고 마지막 껌떼기 하나, 한 벌만 놔두고는.}

10510 # 고골 하룻밤 식초로 좀 영고 소금 점 영고.{그걸 하룻밤 식초를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10510 # 들석거려가지고 물도 붓지 마알고.{들씩거려 가지고 물도 붓지 말고.}

10510 # 고양 들석거려 젖아놓고 이리 디베놓고 디베놓면.{그냥 들씩거려 저어놓고 이리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으면.}

10510 # 넬 아직 새에 나누마 고고 쪼옥 건져가주고.{내일 아침 ?? ??? 그것 쪽 건져 가지고.}

10510 # 언자 썩, 살 사탕 백탕까리 영고.{인제 썩, 살, 사탕, 백탕(설탕)가루 넣고.}

10510 # 사탕가리 영고.{설탕 넣고.}

10510 # 식초 영고 간장 영꼬.{식초 넣고 간장 넣고.}

10510 # 마악 물로 고: 우어 잠길 정도로 물을 어느 정도로 봐아가.{막 물을 그 위에 잠길 정도로 물을 어느 정도 부어서.}

10510 # 술에다 끓이요.{술에다 끓여요.} @ 예에.{예.}

10510 # 파알팔 끓인 담에.{팔팔 끓인 다음에.}

10510 # 거 여어 찍어 먹거보며 달미서도 찹짜부리: 하지요, 머.{거 여 찍어 먹어보면 달면 서 찹짜름하지요, 뭐.} @ 네에, 예.{네, 예.}

10510 # 고래가 단지에다 따악 마늘 찢 영고.{그래 가지고 단지에다 딱 마늘 넣고.}

10510 # 고 우에다 물로 봐아가지고 돌짱을 따안 요오로오론 깨끗한 돌을.{그 위에다 물을 부어 가지고 돌맹이를 딱 요런 요런 깨끗한 돌을.}

10510 # 비니리에다 사가져 따악 우에 양자노며{비닐에다 싸 가지고 딱 위에 얹어 놓으면.}

10510 # 인자 요래 속꼬제 이리 요래 여어시 꼬제 이리 사아방 돌레가 뜨지 마아도록 고래 딱 눌러 놓머.{인제 요래 ??? 이리 요래 넣어서 ?? 이리 사방으로 돌려서 뜨지 않도록 그렇게 딱 눌러 놓으면.} @ 예, 예, 몬 올로오게.{예, 예, 못 올라오게.}

10510 # 한 열열 가머 그게 그리 맛이 쯤허가 맛있어요, 아아들이 그양 들고 땡김 먹는데 이.{한 열흘 가면 그게 그렇게 맛이 들어서 맛있어요, 아이들이 그양 들고 다니며 먹는데요.} @ 그러고, 예에.{그리고, 예.}

10510 @ 아삭아삭하고 그렇지요?{아삭아삭하고 그렇지요?}# 예, 예에, 좋아요.{예, 예에, 좋아요.}

10510 # 꼬 저 여게 그릇 탕수완 마케 그래해여.{그 저 여기 그렇게 '탕수완' 전부 그렇게 해요.}

10510 @ 음.{음.} # 그웁도 잘못 해너마.{그것도 잘못 해 놓으면.}

10510 # 우리꺼느 와 부글부글 개애노, 꼬오까지가 피노캐사도.{우리 거는 왜 부글부글 ???, 곰팡이가 퍼라고해 썰아도.}

10510 # 그 잘못 하며 그래**, 어예끼나 이걸 끓에가지고 식하가 하며는 다 머어가 제대로 데예요.{그 잘못 하면 그래**, 어쨌든지 이걸 끓여 가지고 식혀서 하면 다 뭐가 제대로 돼요.} @ 그렇지요, 예예, 예.{그렇지요, 예, 예.}

10511 @ 그 보름에는.{그 보름에는.}

10511 # 보름에는 오곡, 잡곡.{보름에는 오곡, 잡곡.} @ 예예, 오곡, 잡곡 해가지고 밥 했죠, 예예.{예, 오곡, 잡곡 해 가지고 밥 했죠, 예.} # 나물도 다섯여섯가지 다 해 먹고.{나물도 다섯 여섯 가지 다 해 먹고.}

10511 @ 그오 오곡 잡곡이라는게 머어머를 말합니까?{그 오곡 잡곡이라는게 뭐 뭐를 말합니까?}

10511 # 팍끼, 찹쌀, 멥쌀, 지정 머어 저 그러니까.{팍, 찹쌀, 멥쌀, 기장 뭐 저 그러니까.}

10511 # 찰수도 찰수수셔스{찰수도 찰수수**.}

10511 # 수수살도 넣고.{수수도 넣고.} @ 네에.{네.}

10511 # 그래가 다아 하안 다섯가지.{그렇게 해서 다 한 다섯 가지.}

10511 # 짓 다 하잖나요.{? 다 하잖아요.}

10511 @ 그 답 저 나물은요?{그 다음 저 나물은요?}

10511 # 나물으느 고사리도 머.{나물에는 고사리도 뭐.}

10511 # 저어 저 산에 산나물도 머 여러 가지 나물을 그래 해가 또.{저 저 산에 산나물도 뭐 여러 가지 나물을 그렇게 해서 또.}

10511 # 무쳐 먹고 그래샅데예.{무쳐 먹고 그래 쑥데요.}

10511 @ 그 오곡밥은 보통 밥 할 때하고 좀 다르지요?{그 오곡밥은 보통 밥 할 때하고 좀 다르죠?}

10511 # 고 언자 찹쌀로 쫄쫄 더 넣어머느 차분하미서.{그 인제 찹쌀을 조금 더 넣으면 차분하면서.}

10511 # 가지이가지 섞아가.{가지가지 섞어서.}

10511 # 한꺼분에 섞아가 이래가.{한꺼번에 섞어서 이렇게 해서.} @ 아 아, 그걸.{아, 그걸.}

10511 # 예예, 파악 예, 한테 섞아가지고.{예, 팍 예, 한테 섞어 가지고.} @ 오곡을 넣, 가지고, 예예.{오곡을 넣, 가지고, 예.}

10511 # 그래 마야 밥을 안착 해 너어머.{그래 뭐 밥을 안쳐 해 놓으면.}

10511 # 바압, 고리.{밥, 그리.} @ 소곰을 조옴 넣어야 됩니까?{소곰을 좀 넣어야 됩니까?}

10511 # 어떤 사람들은: 소곰 조어 가 간이 간을 맞게 하는 사람도 있고.{어떤 사람들은 소곰 ?? 가 간이 간을 맞게 하는 사람도 있고.} @ 쫄 간가안하게.{쫄 간간하게.}

10511 # 언든 싸암즈는 또 소곰 넣어머 맛없다고 안 영, 쫄오곰 넣어머모 간 맛이 점 나았는데, 예.{어떤 사람들은 또 소곰 넣으면 맛없다고 안 넣, 조금 넣으면 간 맛이 좀 나는데, 예.} @ 아 아, 쫄오곰 넣어야 맛있죠.{아, 조금 넣어야 맛있죠.}

10511 # 그래해요, 예.{그렇게 해요, 예.} @ 예예, 아 아.{예, 아.}

10511 @ 그러므 그으때 복 저업.{그러면 그때 보, 저.}

10511 @ 어, 보름 때는 그으 어, 어찌합니까, 오곡밥 해가지고.{어, 보름 때는 그 어, 어찌

합니까, 오곡밥 해 가지고.}

10511 # 주 식구끼리 아 그저 앓아 머우.{저 식구끼리 아, 그저 앓아 먹어.} @ 그냥 먹고 끝납니까?{그냥 먹고 끝납니까?} # 예예, 먼고 끝나지요,{예, 먹고 끝나지요.}

10511 # 우리 어릴 때 보며 고양이 잇일 때 보 이.{우리 어릴 때 보면, 고양이 있을 때 보니.}

10511 # 언자아우부 집집마장 채를 들고 아아들이.{인제 집집마다 채를 들고 아아들이.}

10511 # 그것 먹으며 머 여어여 오 머 어얼굴에.{그것 먹으면 뭐 여기 여 뭐 얼굴에.}

10511 # 마린버어점도 안 나아고 조웅다고 바 양간에 가 먹으라캐샅데요.{마린버점도 안 나고 좋다고 방앗간에 가 먹으라고해 썩데요.}

10511 @ 예예.{예.} # 얻아가저고 어자 바 양간에 가 지이끼리 노오나묵고 새앵야단을 했다왔나요.{얻어 가지고 인제 방앗간에 가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생야단을 했잖 아요.} @ 그리고 이름 부를르 불러가지고 내 더우 다 사가라 이거봐 안 헛십니까?{그리고 이름 불러 불러 가지고 내 더위 다 사가라 이것도 안 헛습니까?}

10511 # 그런 술저마 그런 소온 할매들이 안 치기니까 몬해바앗십니다, 예예.{그런 소리는 뭐 그런 소리는 할머니들이 안 시키니까 못 해 봤습시다, 예예.} @ 예예.{예.}

10511 @ 그러며는 저어 뽕니까, 으 으, 아이구.{그러면 저 뽕니까, 음, 아이구.}

10511 @ 약밥, 약식, 약밥.{약밥, 약식, 약밥.} # 예예, 예.{예, 예.}

10511 # 찹살까주고.{찹살 가지고.} @ 그, 고고느 우떠게?{그 고건 어떻게?}

10511 # 그그느으.{그건.}

10511 # 우운 저저 우리 딸아도 요새 그그 해가 파아지요, **. {우 저 저 우리 딸애도 요새 그것 해서 팔지요, **.} @ 예, 예, 그으 우찌 합니까?{예,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511 # 그 찹살로 푸욱 담가놔다가 내일이 할라모 ** 오늘따 오온 오후에 이때쯤 담가노 멘.{그 찹살을 푹 담가 놔다가 내일 하려면 ** 오늘 오늘 오후에 이때쯤 담가놓으면.}

10511 # 밤새애더러 부르메는.{밤새도록 불면.}

10511 # 인자 그그르 은자.{인제 그걸 인제.}

10511 # 대추도 여얼고, 아 아 대추 열기 전에.{대추도 넣고, 아, 대추 넣기 전에.} @ 예예, 예.{예, 예.}

10511 # 한 불 언자 사탕까리르 태와요.{한 번 인제 설탕을 태워요.}

10511 # 이런.{이런.} @ 태워요?{태워요?} # 예예, 이래이래가지고 이끼마난 가매 에다가.{예, 이래이래 가지고 이만한 가마에다가.} @ 예,예.{예, 예.}

10511 # 매애치과를 불 때머.{???? ? 때면.}

10511 # 자아꾸 젓어요.{짜꾸 젓어요.}

10511 # 젓어모 지절로 밑에서 가무리:하메서느 발그시리하 이.{저으면 저절로 밑에서 거 무스름하면서 발그스름하니.} @ 예, 예.{예, 예.}

10511 # 고래 태아가, 그게, 예.{그렇게 태워서, 그게, 예.} @ 색깔 내는거구나.{색깔 내는 거구나.}

10511 # 그기 다아 녹오 녹아가지고.{그게 다 녹으 녹아 가지고.}

10511 # 벌거 이 입 이 색깔이가 그래 다 녹으며.{벌거니 이 색깔이 그렇게 다 녹으면.}

10511 # 어잔 소드배 이르 닫고 물로 한 바가지 부우요.{인제 솔뚜껑을 닫고 물을 한 바
가지 부어요.}

10511 # 물로 부우모 화악 끓어요.{물을 부으면 확 끓어요.}

10511 @ 예에.{예.} # 끓은 담에 한참 때다가.{끓은 다음에 한참 때다가.}

10511 # 그그르 은자 퍼내내가 퍼내가 식은 다음에느.{그걸 인제 퍼내내가 퍼내서 식은 다
음에는.}

10511 # 이자 그그러 찹살 찹살밥을 찌가저고.{인제 그걸로 찹살 찹살밥을 찌 가저고.}
@ 예에.{예.}

10511 # 고구로 하안 요런 바가지로 한 도어 바가지.{그걸 한 요런 바가지로 한 두어 바가
지.}

10511 # 영고 고:이 섞어요.{넣고 고이 섞어요.}

10511 # 대애추, 바암, 저저.{대추, 밤, 저저.} @ 음.{음}

10511 # 해바래기씨이.{해바라기씨.} @ 예에.{예.}

10511 # 고론거 영어 가주고.{그런 거 넣어 가저고.}

10511 # 언자 섞아가.{인제 섞어서.}

10511 # 치리에다 다 첫볼 찢 때느 그런거 안 영꼬(여꼬){시리에다 다 처음 찢 때는 그런
것 안 넣고.}

10511 # 두불만에 찢 때느 그런거르 섞아 가주워.{두 번째 찢 때는 그런 걸 섞어 가저고.}

10511 # 고 사탕물 영어 가주 고래 때:엔짜 고오 참기름도 조금 봐아여.{그 설탕물 넣어
가저고 그렇게 된 인제 거기 참기름도 조금 부어요.} @ 예에, 예, 예.{예, 예, 예.}

10511 # 고래가주어 찌가주고 다시 찌가주거.{그래 가저고 찌 가저고, 다시 찌 가저고.}

10511 # 사늘허 이 식하가.{사늘하게 식혀서.}

10511 # 내일이 할 거느,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안 세에 석.{내일 할 거느, 한꺼번에, 한꺼
번에 한 세 술.}

10511 # 세 술 할 걸 한꺼번네 찌가주오 오늘 할 거느.{세 술 할 걸 한꺼번에 찌 가저고
오늘 할 거느.}

10511 # 따인 내일에 할 거느 또 봉다리에 담마가 내앵장꼬 영놓고.{내일 할 건 또 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10511 # 오늘 할 거느 그거르 다시 찌가주고.{오늘 할 건 그걸 다시 찌 가저고.}

10511 # 인자 저 저 이런 오봉에다가 부우가이 꼬꼬 똑똑 눌러가.{인제 저 저 이런 쟁반에
다 부어 가저고 똑똑 똑똑 눌러서.}

10511 # 고거 척수대로 찢라가지 그래 팔아요.{그거 척수대로 잘라 가저고 그렇게 팔아
요.} @ 잘라서, 예에, 예.{잘라서, 예, 예.}

10511 # 그리 팜므 그 아아드이 고고 함 요 요래 하나 하안 ** 하안 도시락에 파느거느:
{꺄 팔면 그 아이들이 한 요 요래 하나 한 한 도시락에 파는 건.} @ 조웅, 좋아
하지요?{좋, 좋아하지요?}

10511 # 어 어 다래가 파니까, 한 근 조금 모은 데게 다래놓모 고고 오 원씩 받거든여.
{어, 달아서 파니까, 한 근 조금 못 되게 달아 놓으면 그것 오 원씩 받거든요.} 예에,
예.{예, 예.}

10511 # 탐방탐방 끓어.{송덩송덩 잘라.} @ 예에.{예.}

10511 # 구 언자 요 일 언짜리는 요렝기 쪼만:하게 또.{그 인제 요 일 윈짜리는 요렇게 조 그만하게 또.} @ 쪼금 작습니까?{조금 작습니까?} # 예예.{예.}

10511 # 고고 저 인자 비니리에다 사가지고 딱 딱 하니까.{고거 저 인제 비닐에다 싸 가지고 딱 딱 하니까.}

10511 # 고고느 이일 엔식 헨조.{그건 일 윈씩 하죠.}

10511 # 먹기, 가미도 뜯아 먹기도 좋고, 그거 다 잘 팔리요.{먹기, 가면서 뜯어 먹기도 좋고, 그거 다 잘 팔려요.} @ 예예, 좋지요.{예, 좋지요.} # 예, 그그 잘 팔리요.{예, 그거 잘 팔려요.}

10511 # 우리 딸아가 머 ** 하안국에서 다 배아네 이.{우리 딸애가 뭐 ** 한국에서 다 배워 놓으니.}

10511 # 하안국에 하는 떡 이름은 다 하지 않나예.{한국에(서) 하는 떡 이름은 다 하잖아요.}

10511 @ 그렇기, 그렁대요, 떡 종류가 많더라구요.{그렁, 그렁대요, 떡 종류가 많더라고 요.} # 예, 예, 예예, 종류가 많아예.{예, 예, 예예, 종류가 많아요.}

10511 # 찹쌀, 멥쌀가지고도 뗏 가지르 하는지도 몰라요.{찹쌀, 멥쌀 가지고도 뗏 가지를 하는지도 몰라요.} @ 예예.{예.}

1.3. 질병과 민간요법

1.3.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2 @ 그으 어제 이야기하던 것 중예요.{그 어제 이야기하던 것 중예요.} # 예예.{예.}

10702 @ 그 전에는 이 머리 같은 데 이 똥글똥글하고 한 그런.{그 전에는 이 머리 같은 데 이 똥글똥글하고 그런.}

10702 # 비름, 머리 비름.{비듬, 머리 비듬.} @ 이발소에서.{이발소에서.} # 예예.{예.} @ 가면 저 오르는 그런 머리.{가면 저 읊는 그런 머리.}

10702 @ 병, 머리가 똥고랑게 빠지고 하는 그런게 안 잇었습니까?{병, 머리가 똥고랑게 빠지고 하는 그런 게 안 있었습니까?} @ 예.{예.}

10702 # 그래도 우루느 그런거 모리겠심더.{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10702 @ 그러믄 요게 똥글똥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그러면 요기 똥글똥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 # 똥글똥글아 하얀케 소비즘이라고 생기는기 잇지요.{똥글똥글하고 하얗게 쇠버짐이라고 생기는 게 잇지요.} @ 예, 예.{예, 예.}

10702 # 그런거느 보며 할매들이 저게.{그런건 보면 할머니들이 저기.}

10702 # 엿을 까지고 요래 엿을 녹하가주 불엿다 띠잇닥하노 고 따까리가 하야 이 자꾸 묻어나오데요.{엿을 가지고 요래 엿을 녹혀 가지고 불엿다 뻘다가 하니 그 딱지가 하얗게 자꾸 묻어 나오데요.}

10702 @ 그렇게 해서 인제 그이 고칩니까?{그렇게 해서 인제 그걸 고칩니까?} # 예, 예, 그래가 고온치지.{예, 예, 그래 가지고 고치지.}

10702 # 자아꾸 여러번 이라면 언자 마지막에느.{자꾸 여러 번 이라면 인제 마지막에는.}

10702 # 그기 흰 따까리가 다아 떨어진 담에느.{그게 흰 딱지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10702 # 피가 나데요.{피가 나데요.} @ 예예, 예.{예, 예.} # 고고 또 고래가저 깔.{고거 또 그래 가지고 가라.}

10702 # 쪼 메칠 잇다 까라얏인 담에 또 그러고나 이께네 메 뗏 번 안 그러니까 그으느 소 소비즘 걸은 거, 예.{또 며칠 있다 가라얏은 다음에 또 그러고 나니까 며 몇 번 안 그러니까 그건 쇠 쇠버짐 같은 거, 예.}

10702 # 마린 버짐이지 그기.{마른 버짐이지 그게.} @ 예, 예.{예, 예.} # 예예.{예예.}

10702 # 전에 그 아아들이, 우리도 그런 거 낫지마는.{전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도 그런 거 낫지만.}

10702 @ 그그 많이 낫습니다.{그거 많이 낫습니다.} # 예, 할매들이 고 고래가저고 이리 버짐을 빼데요.{예, 할머니들이 그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버짐을 빼데요.} @ 아 아, 옛으로 가.{아, 옛을 가지고.} # 옛을 윤 막 찢:닥하게 해가저고.{옛을 요 막 찢득하게 해 가지고.}

10702 # 손에다 붙아가 요래 붙앗다 뗏다하며.{손에다 붙여 가지고 요래 붙였다 뗏다 하면.}

10702 # 요래 고 고것도 요래 대비 접아가지고 또 붙앗다 뗏다하며.{요래 고 고것도 요래 다시 접어 가지고 또 붙였다 뗏다 하면.} @ 예예, 예.{예, 예.}

10702 # 여러번 그라머 막 피가 다 나요.{여러 번 그러면 막 피가 다 나요.}

10702 # 고런 피가 나머느 골때느 언자 줌 중제시키가저 고웁도.{고런 피가 나면 그때는 인제 줌 중제시켜 가지고 그것도.}

10702 # 따까리가 줌 주지얏일라 할 때.{딱지가 줌 주저얏으려고 할 때.}

10702 @ 예, 예.{예, 예.} # 또 그래 또 빼고, 그래다 한 서러번마 그럼 다 일 없데요.{또 그렇게 또 빼고, 그래다 한 서너 번만 그러면 다 괜찮아요.} @ 예, 예.{예, 예.} # 예예.{예예.}

10702 @ 금 기계충, 기계충인가 이런거 잇었지 않습니까, 머리에.{그럼 기계충, 기계충인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에.}

10702 # 모르겠습니까.{모르겠습니까.} @ 그르느 그건 모르겠구요?{그런 그건 모르겠고요?} # 예, ** 그으느 남자들이 이이발하러 땡기니까 그런거느.{예, ** 그건 남자들이 이발하러 다니니까 그런 건.} @ 예예.{예.}

10702 # 우린 여자든 그저 마안날 머리로 감아 뺏어도.{우리 여자들은 그저 만날 머리를 감아 빗어도.}

10702 # 살뜨물로 받아가 이런: 웅가지에다 저어 울타리 밑에다 가얏다 놓고 딱 덮아놓머.{살뜨물을 받아서 이런 웅기에다 저 울타리 밑에다 갖다 놓고 딱 덮어 놓으면.}

10702 # 오래애 두, 하 한 메, 그 그 오래애 도요, 오래 더도.{오래 두, 한 한 며, 그 그 오래 뒤요, 오래 뒤도.}

10702 # 고고 얏아가 이시며 양금 우에 안 한 바가진 인자 물.{고거 얏아 있으면 양금 위에 얏, 한 바가지는 인제 물.}

10702 # 물, 머리 감아올라머.{물, 머리 감으려면.}

10702 # 물 더, 물을 더꾸미셔도 그거 한 바가치 열어가 감아 보래여.{물 더, 물을 ??면서

도 그거 한 바가지 넣어서 감아 봐요.}

10702 # 참 매끄럽고 머리 질이 곱아요.{참 매끄럽고 머릿결이 곱아요.} @ 예, 예.{예, 예.}

10702 # 여, 우리 할매 보 이 그리 하데요.{여, 우리 할머니 보니 그렇게 하데요.}

10702 # 예예, 머리 감데 이 시방으느 머, 온갖거로 다 발라가 머리로 감는데.{예, 머리 감는데 이 지금은 뭐, 온갖 걸 다 발라서 머리를 감는데.} @ 예.{예.}

10702 # 딱 그거 물 물 뜨끈하 이 끓이가주 그그르 한 바가지 넣고 끓이가주 감으며.{딱 그거 물 물 뜨끈하게 끓여 가지고 그걸 한 바가지 넣고 끓여 가지고 감으면.}

10702 # 막 매끌매끌해요, 때도 사악 빠지구요.{막 매끌매끌해요, 때도 싹 빠지고요.} @ 아 아.{아.}

10702 @ 그게 지혜지오.{그게 지혜죠.} # 예예, 그거 좋아저.{예예, 그거 좋아요.} @ 예예.{예.}

10702 # 그 녀 살뜨물이야 어디든지 살.{그 녀 쌀뜨물이야 어디든지, 쌀.}

10702 # 그러고 우리 엄마가 우라:버지 세상 뜨고.{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세상 뜨고.}

10702 # 마아 딸 서이 데에꼬.{뭐 딸 셋이 데리고.}

10702 # 연노하신 부모님 모오시고 살림을 살라 이 마.{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림을 살려니 뭐.}

10702 # 우라:부지 때문에 바수 화앗병이 낫어요.{우리 아버지 때문에 뭐 화병이 낫어요.}

10702 # 그래가주고 자아꾸 기침을 하시데요, 그런데.{그래 가지고 자꾸 기침을 하시데요, 그런데.}

10702 # 그때는 저 어떤 이사, 이사, 노인들이.{그때는 저 어떤 의사, 의사, 노인들이.}

10702 # 약, 약국에 가 이해길 하니까.{약, 약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10702 # 바알 가는 쟁기요.{밭 가는 쟁기요.} @ 예, 예.{예, 예.} # 이 쇠, 볼, 바알 가는 쟁기 볼 그그르.{이 쇠, 볼, 밭 가는 쟁기 볼 그걸.}

10702 # 저어 낚은거 잊이머 어디 가 빌레다가.{저 낚은 거 있으면 어디 가서 빌려다가.}

10702 # 물에다 내애 담가 노옹고.{물에다 내 담가 넣고.}

10702 # 근:자 오래: 잊이니까 그 녹이 우에 녹물이 찌이데요.{그 인제 오래 있으니까 그 녹이 위에 녹물이 끼데요.}

10702 # 그그르 자아꾸 먹으라 하데요.{그걸 자꾸 먹으라고 하데요.} @ 허어.{허.}

10702 # 그래가 저어 어째든지 물만 먹으 머억구 싶으머 그그 떠먹으라커데요, 그으 떠묵고나 이 그런지.{그래서 저 어쨌든지 물만 먹으 먹고 싶으면 그거 떠먹으라고 하데요, 그거 떠먹고 나니 그런지.}

10702 # 구 우리 엄마가 좀 호과가 좀 잇았던거라요.{그 우리 엄마가 호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 아 아.{아.}

10702 # 그으 내 그그느 알아요.{그 나 그건 알아요.} @ 예예.{예.}

10702 @ 아이 그래도 그때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예.{아이 그래도 그때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 우리 할매가 내카 같이.{우리 할머니가 나하고 같이.}

10702 # 저어 높은 언덕에 고구마밭에 고구마밭을 매다가.{저 높은 언덕에 고구마밭에 고구마밭을 매다가.}

10702 # 어찌 우리 할매가 돌아서다가 전부 막 뻘알에 구부러 너리가 저어 밑에 떨어졌어.{어찌 우리 할머니가 돌아서다가 ?? 막 뻘알에 굴러 내려서 저 밑에 떨어졌어.}

10702 # 그래가조 하 잘 *치 나느 절로 길로 돌아가 그 밑에 찾 할매 찾아가니까.{그래 가지고 할 ? ?? 나는 저리로 길로 돌아서 그 밑에 찾, 할머니 찾아가니까.} @ 하아.{하아.}

10702 # 모 일어나서요, 허리가 다쳐가주어.{못 일어서요, 허리가 다쳐 가지고.} @ 예예.{예.}

10702 # 그래가 우리 오오촌 아재잘에 또 집에 쫓아가가지고 할머니가 다쳤는데.{그래서 우리 오촌 아저씨한테 또 집에 쫓아 가 가지고 할머니가 다쳤는데.}

10702 # 삼촌 가서 좀 할매 모오시고 오마 안 되겠는가키 이.{삼촌 가서 좀 할머니 모시고 오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니.}

10702 # 글타고커미 요여여 우리 삼초 이 또 쫓아 넘어 가이가주어.{그렇다고하면 하며 우리 삼촌이 또 쫓아 넘어 가 가지고.}

10702 # 우리 삼초 이 업고 올라 오세가지고.{우리 삼촌이 엮고 올라 오서 가지고.}

10702 # 아:무 약도 벨 약도 안 시고{아무 약도 벨 약도 안 쓰고.}

10702 # 대, 대변, 대변 잇잖아요.{대, 대변, 대변 잇잖아요.} @ 예, 예, 예.{예, 예, 예.}

10702 # 그그러 참대남 이파리에다가.{그걸 참대나무 이파리에다가.}

10702 # 참대나무 이파리에다가 요래 오 꼬옥 요래 오옹캐사가.{참대나무 이파리에다가 요래 오 꼭 요래 싸 가지고.}

10702 # 또올똥 새끼로 감아가지고.{똥똥 새끼로 감아 가지고.}

10702 # 그으다 물로 담가가 도올로 물로 담아갖고.{거기에다 물을 담아서 돌을 물을 담아 가지고.}

10702 # 뜨, 끓는 물느 끓는 물로 갖다 부우 놓고느 돌로 딱 찍구데요.{뜨, 끓는 물을, 끓는 물을 갖다 부어 놓고는 돌로 딱 누르데요.}

10702 @ 예예.{예.} # 그래가 이 한 사나알 지내 이 물이 누러 이 우러나요, 똥물이.{그래 가지고 한 사나알 지내니 물이 누렇게 우러나요, 똥물이.} @ 예, 예.{예, 예.}

10702 # 우리:무 이, 우리 할매느 그거 잡숫고 이 허리 다친거 다 고운쳤어요.{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그거 잡수시고 이 허리 다친 거 다 고쳤어요.} @ 허어, 그어 참.{허어, 그거 참.}

10702 # 우리 할매 그저 게에속 그그르 버, 어떤 사람들은 머 남자들이.{우리 할머니 그저 계속 그걸,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10702 # 똥짱구 이 미이고 가다가 막 허리 꿈틀해가 다치며.{똥장군 메고 가다가 막 허리 뻘끗해서 다치면.} @ 예예.{예.}

10702 # 머어 참 벌구다 아, 저 똥 벌, 큰 똥구디 이 잇지 않나요.{똥 참 벌구덩이, 저 똥 벌, 큰 똥 구덩이 있잖아요.}

10702 # 그 가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거기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 예예.{예.}

10702 # 퍼 잡숫고, 그그 그기 그래 모운해서 그렇지.{퍼 잡수시고, 그거 그게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 호오, 그냥?{호오, 그냥?}

10702 # 그래마 잡수며 이 허리 곁은 거 바아친데는 그기 제일이라예.{그렇게만 잡수시면

이 허리 같은 거 받힌데는 그게 제일이에요.}

10702 # 인분물이 제일이라예.{인분 물이 제일이에요.}

10702 # 시방 아아들은 추접다고 그런 거 안 해요.{지금 아이들은 더럽다고 그런 거 안 해요.} @ 그러지, 그러게요.{그렇지, 그러게요.} # 예.{예.}

10702 # 그 이, 그리 그래 그래 밀방약으러우 시는거느 내가 바앗습니다.{그 이, 그리 그래 그렇게 민간 처방을 하는 것은 내가 봤습니다.} @ 아, 하, 하.{아, 하, 하.} # 예.{예.}

10702 @ 그러게, 우리 저 미일방약 같은 게 참 여러 가지가 잇는 모양이네요.{그러게, 우리 저 민간처방 같은 게 참 여러 가지가 잇는 모양이네요.} # 예예, 여러 가지 많지요.{예, 여러 가지 많지요.}

10702 @ 또 다른 거느 머어가 잇어*?{또 다른 건 뭐가 잇어*?} # 판 거느: 내가 친거느 모르 몰바안데.{다른 건 내가 쓰는 건 모르, 못 봤는데.}

10702 # 그으 감탕 잇잖애요, 요마아끔한 감탕나무.{그 감탕 잇잖아요, 요만한 감탕나무.} @ 예예.{예.}

10702 # 고오 고오 그 저 이파리가 납작한데 이지.{고거 고거 그 저 이파리가 납작한데, ??.}

10702 # 새과랑게 달랏다가 언자 익으며 까아망게 요래 달리느.{새과랑게 달랏다가 인제 익으면 까망게 달리느.}

10702 @ 예예.{예.} # 그으 신경에 좋다고요, 할매들 보며 여 여 촌에 요새도 보마.{그거 신경에 좋다고요, 할머니들 보면 여기 여기 촌에 요새도 보면.}

10702 # 이런 양재기리 따다가 꿀에다 재애놔다가 그래 다 먹어샅데요.{이런 양재기로 따다가 꿀에다 재어놔다가 그래 다 먹어 샅데요.} @ 머를요?{뭘요?}

10702 # 신경 나쁜데.{신경 나쁜데.}

10702 @ 감탕나무?{감탕나무?} # 예, 감탕나무 열매로.{예, 감탕나무 열매를.} @ 아, 열매를.{아, 열매를.}

10702 # 고고 따다가.{그거 따다가.} @ 예.{예.}

10702 # 고어 따다 그 꿀에다 재애가 그이 그리 좋다커미 모더 잡사샅데요, 예.{그거 따다 그거 꿀에다 재어서 그게 그리 좋다고 하며 모두 잡쉬 샅데요, 예.}

10702 @ 머 효과는 좀 잇는가요?{뭐 효과는 좀 잇는가요?} # 예, 여느케 조죽 우리 우리 마을에 혈압 높은 사람이.{예, 어느 저 우리 우리 마을에 혈압 높은 사람이.}

10702 # 그그르 게에속 해 먹으니까요.{그걸 계속 해 먹으니까요.} @ 지금 여기이서요?{지금 여기에서요?}

10702 # 저어 하동 오오게 잇어예.{저 하동 오게에 잇어요.} @ 저어 그 이 그리 이 들 중국 와가지고?{저 그 이 그러니 중국 와 가지고?} # 예, 예, 예.{예, 예, 예.} @ 아아.{아.}

10702 # 개 밀반약도오 호파보며 호파 바아요.{그래 민간 요법도 효과 보면 효과 봐요.} @ 그렇지요, 그어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니까.{그렇죠,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 * 바로마 시며, 예, 예.{* 바로만 쓰면, 예, 예.}

10702 @ 그으.{그.}

10702 # 그그 철납새 이 이래 담절리는데 어떤때느 쟈조 머 하다가나머.{그거 '철납생' 이

래 담 걸리는데 어떤 때는 어찌 좀 뭐 하다가 보면.}

10702 # 옆구레도 절리다가 이쪽에도 절리다가 마 등줄도 덜리다가.{옆구리도 걸리다가 이
 쪽에도 걸리다가 뭐 등줄기도 걸리다가.}

10702 # 숨 딱 딱 맥힐 정도로 가슴도 덜릴 때가 있지, 그기 다암 아이나요, 담이라 하데
 요.{숨 딱 딱 맥힐 정도로 가슴도 걸릴 때가 있지, 그게 담 아닌가요, 담이라고 하데
 요.} @ 예에, 다안, 담이쥬.{예, 담, 담이쥬.}

10702 # 그런게 무지 신경이 잘못 데머 그럴 수가 이인데.{그러니까 무슨 신경이 잘못 되
 면 그럴 수가 있는데.}

10702 # 무점은 거 잔물 꼬떡 모암 놓고 들다가느 마 뜨끔할 때게.{무거운 거 잘못 까딱
 마음 놓고 들다가 뭐 뜨끔할 때에.} @ 예.{예.}

10702 @ 예.{예.} # 그 철남새 이.{그 '철남생'.}

10702 # 저어 그그러 캐다가 말라가지고.{저 그걸 캐다가 말려 가지고.}

10702 # 담 잇는 사람은 그그 먹어머 아뭇진도 앓는데, 담 앓는 사람 먹으마 헛바닥이 쪽
 쩍 다 갈라지는 걸애요.{담 잇는 사람은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앓는데, 담 앓는 사
 람이 먹으면 헛바닥이 쩍 쩍 다 갈라지는 것 같아요.} @ 아 아.{아.}

10702 # 그래 내가 하안국 갈 적에,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일 하다가 어떨노: 싶아가지고 내
 가.{그래 내가 한국 갈 적에,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일 하다가 어떨까 싶어 가지고 내
 가.}

10702 # 저 우리산에 가가주 캐애다가.{저 우리 산에 가 가지고 캐다가.}

10702 # 저 짹 깨끗이 쉬아가 마 잔잔하 이 짜개가.{저 짹 깨끗이 씻어 가지고 뭐 자잘하
 게 쪼개어서.}

10702 # 빠, 언자 세절구에다 요래 돌절구에다 요래 뺏아가지고.{빠, 인제 쇠 절구에다 요
 래 돌절구에다 요래 뺏아 가지고.}

10702 # 요마 이 도오 손가락 데게 가주앗다.{요만큼 두어 손가락 되게 가져 왔더니.}

10702 # 한면 오야다가네 우리 우리 막내 이가 일하고 와가 언자 나알 집에 잇다고.{한
 면 어찌다가는 우리 우리 막내가 일하고 와서 인제 내가 집에 잇다고.}

10702 # 시, 시는 날이라커미 오디 이, 엄마, 엄마 지난밤에 자고나 이 마 무심결에 그저
 떠어끔 해가 숨도 모운 시고 게와 엄마잘에 왔다 이카민서느.{쉬, 쉬는 날이라고 하
 며 오더니, 엄마, 엄마 지난 밤에 자고 나니 뭐 무심결에 그저 뜨끔 해서 숨도 못 쉬
 고 겨우 엄마한테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는.}

10702 # 아이고 그러나, 그렇거들나 이 철남새 이 이거르 좀 먹어바아라.{아이고 그래, 그
 령거든 이 '철남생' 이걸 좀 먹어봐라.}

10702 # 그래, 그래 나 물로 따끈하 이다가.{그래, 그래 내가 물을 따끈하게 해다가.}

10702 # 요래 손가락가 쪼오끔 떠가지고 한 손가락 타가 믹에.{요래 손가락 가지고 조금
 떠 가지고 한 손가락 타서 먹여.}

10702 # 쪼오끔 눅아 잇다가나 엄마 지잇다가 나아분거 곁애그, 마아 일어나쇼, 아뭇지도
 앓다미.{조금 누워 잇다가는 엄마 쉼있다가 뉘버린 것 같다고, 그냥 일어나쇼, 아무렇
 지도 앓다며.} @ 오, 오.{오, 오.} # 철남새 이가 담 절린 데 저기 제일 약이 좋은
 거라요.{'철남생'이 담 걸린 데 저게 제일 약이 좋은 거예요.} @ 그렇네요.{그렇네
 요.} # 예.{예.}

10702 # 저 우리 오오계산에는 가모 시장 가모 산능에나 그그 그 열매가이 따악 요래 납
 딱하 이 또옹그라 이 고래.{저 우리 오계산에는 가면 지금 가면 산능선에나 그거
 그 열매가 딱 요래 납작하게 똥그랗게 고렇게.}

10702 # 마 새 그 다암에 새끼를 처가 야양 덕에 붙아가 마얏어요, 나물 뜯아라 가면 산에
 그런기 마얏아요, 철남새 이라고.{뭘, 새, 그 담에 새끼를 처서 양 쪽에 붙어서 많아
 요, 나물 뜯으러 가면 산에 그런 게 많아요, '철남새'이라고.} @ 하아.{하.}

10702 @ 그으 알아두어야 데인네.{그거 알아두어야 되겠네.} # 예예, 예, 예.{예, 예, 예.}
 @ 예.{예.}

10702 그 남 나무 그 뿌리나 잎이나 줄기, 또 열매 이런 것들이 약이 되는게 상당히 많네
 예.{그 남 나무 그 뿌리나 잎이나 줄기, 또 열매 이런 것들이 약이 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 그 오오갈피 나무 뿌리가 또.{그 오갈피 나무 뿌리가 또.}

10702 @ 그그는 며얼 먹는가요?{그건 뭘 먹는가요?} # 그으 이제 뺏골 사고.{그 이제 뺏
 골 차고.}

10702 # 우리 저어 저이 아이 뺏 해 전에도 우리 오오계 산에 저거 가며는.{우리 저 저기
 아니 몇 해 전에도 우리 오계 산에 저기에 가면.}

10702 # 저언수 그거르 캐애다가 언자 오 오갈피나무 뿌리 그그르 이마아끔하 이 기인
 거르 캐다가 설어가야지고.{전부 그걸 캐다가, 인제 오 오갈피 나무 뿌리 그걸 이만
 큼 긴 걸 캐다가 썰어 가지고.}

10702 @ 예.{예.} # 푸옥 삶아가주어 그 물에다가 탁주르 해가주워 그래 마신다커데예.{푹
 삶아 가지고 그 물에다가 탁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마신다고 하네요.} @ 아, 그냥?
 {아, 그냥?} # 예.{예.} @ 예.{예.}

10702 # 탁줄 흰자 술밥으 찌가주 그애 삭주르 해가죽워.{탁주를 인제 지에밥을 찌 가지고
 그래 탁주를 해 가지고.}

10702 # 게예속 마시니까 마 이 좋다 이카테요, 예.{계속 마시니까 많이 좋다 이렇게 하
 테요, 예.} @ 어 오.{어.}

10702 @ 그렇겠네요, 그기.{그렇겠네요, 그게.} # 예.{예.}

10702 # 우리 걸은 거 이래 마알 안 해도.{우리 같은 거 이렇게 말 안 해도.}

10702 # 참 선뺏님이 저어 하안국 시골에 가며 사안골에 오온갖 약품들 다 많잖애.{참 선
 생님이 저 한국 시골에 가면 산골에 온갖 약품들 다 많잖아.}

10702 # 한국 아지매들이 더 말슴 잘 하실건데.{한국 아주머니들이 더 말슴 잘 하실건데.}

10702 @ 어 아 이, 그거 아, 그 쭈우 다릅니다, 예, 예.{어, 아, 이, 그거 아, 그 쪽은 다
 립니다, 예, 예.} # {웃음소리} 예, 해, 그래요?{예, 해, 그래요?}

10702 @ 그으 여름에 많이 생기는 거예.{그 여름에 많이 생기는 거요.}

10702 @ 더운데 드러누워 잇으며는.{더운데 드러누워 있으면.}

10702 # 땀때기 나는 거.{땀때 나는 거.} @ 등이 막.{등이 막.} # 예예.{예예.} @ 그 머라
 그런다구여?{그 뭐라 그런다고요?} # 그 땀때기라 하잖나요.{그 '땀때기'라 하잖아
 요.} @ 땀때기.{땀때기.}

10702 # 땀 너무 흘리며 마 아 인기 아 이라 마 오온 몸에 땀때 이가 데에게 덥우며.
 {땀 너무 흘리면 뭘 아닌게 아니라 뭘 온 몸에 땀때가, 되게 더우면.} @ 예예.{예.}

10702 # 그애 그그: 땀때기 난데 그으는 머 땀거.{그래 그거 땀때 나는데, 그건 뭘 다른

거.} @ 꼬어떤 방법이 있습니까?{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예예, 그은* 나는 마.
 {예, 그건 나는 뭐.}

10702 # 식파 아서 일하다가 너무너무 땀때기가 나가주어.{식당에서 일하다가 너무너무
 땀때가 나 가지고.}

10702 # 밤으로느 와가주어 모오옥 삭 하고노.{밤으로느 와 가지고 목욕 삭 하고는.}

10702 # 소금물로 따끈하게 해가주 고 소금을 짹짹하게 해가.{소금물을 따끈하게 해 가지
 고, 그 소금을 짹짹하게 해서.}

10702 # 요래, 데에게 엄하게 나안데느.{오래, 되게 심하게 난 데는.}

10702 # 고 시워우니에까 고 이튼날은 또 따갑지도 안 하고 괜찮아요.{그 씻으니까 그 이
 튼날은 또 따갑지도 앓고 괜찮아요.}

10702 # 첫 분 바릴 짹에는 딱 소금이 데에가 따끈따끈해요.{첫 번 바를 적에는 딱 소금이
 돼서 따끈따끈해요.} @ 아, 소금.{아, 소금.}

10702 # 그 이신아저에는 막 그 증세가 다 풀아지지요.{그 이튼날 아침에는 막 그 증세가
 다 없어지지요.} @ 예, 예.{예, 예.}

10702 @ 예.{예.} # 그래 나느 그래가주고 식파 아서 이인, 머 식파 아.{그래 나는 그래
 가지고 식당에서 있, 뭐 식당에.}

10702 # 수우구 목을: 목에다 수군을 걸아 이일이 해도.{수건 목을, 목에다 수건을 걸고 일
 을 해도.} @ 식당이 그렇지요?{식당이 그렇지요?} # 바압을 시이 가매 네에 가매 그
 거 다 하다나면 머 어얼매나 덮은지 마알도 못 해요{밥을 세 가마, 네 가마 그거 다
 하고나면 뭐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 해요.} @ 마앗습니다.{맞습니다.}

10702 # 그래 땀때기느: 우리 하안국에는, 우리는 부우듯가에 잇이니까.{그래 땀때는 우리
 한국에는, 우리는 부듯가에 잇으니까.}

10702 # 땀때기 날 새더:세, 매애 여름에는 물에 가가 짹은 물에 가 사니까요, 예.{땀때 날
 새도 앓어, 내 여름에는 물에 가서 짹 물에 가서 사니까요.} @ * **** 머 그렇지요,
 예예.{* **** 뭐 그렇지요, 예.}

10702 # 파도가 조용할 때는 마 노오방 아아들이 물에 물가에 가가 안 사나요.{파도가 조
 용할 때는 뭐 노상 아이들이 물에 물가에 가서 살잖아요.}

10702 # 인자 파도가 치면 못 들어가고, 예.{인제 파도가 치면 못 들어가고, 예.} @ 예
 예.{예.}

10702 # 그러면 또 음식을 저어 머 잘못 먹고 이라며 어떤 음식이 막 먹고 마악 이러게.
 {그러면 또 음식을 저 잘못 먹고 이러면 어떤 음식을 막 먹고 막 이렇게.}

10702 @ 두둘두둘혀 이 나느거 잇지 앓습니까?{두둘두둘하게 나느 거 잇지 앓습니까?}
 # 아 아, 그거.{아, 그거.}

10702 # 워민하는거다 그 꺾민한다 하잖나요, 그런거 날때느 또.{과민하는거다, 그 '꺾민'한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날 때는 또.}

10702 # 비 운에 가며 약 주데예.{병원에 가면 약 주데요.} @ 그으 머라 그럼니까?{그거
 뭐라 그럼니까?}

10702 @ 워, 워민, 중국말인가예?{워, 워민, 중국말인가요?} # 예, 꺾민한다건:자 그이 저
 머어가 나오 인께네 그 머 잘못 먹구머 꺾민한다고 그런기 잇어요.{예, 과민한다는
 거 인제 그게 저 뭐가 나오니까는 그 뭐 잘못 먹으면 과민한다고 그런게 잇어요.}

10702 @ 똥, 똥디.{두드, 두드.} # 두드레기처럼.{두드러기처럼.} @ 예 예.{예.} # 두드레 이치넴 나오미 별긋별긋하 이 머 그린기 잇어예, 예.{두드러기처럼 나오며 불긋 불긋하니 똥 그런게 잇어요, 예.} @ 예.{예.}

10702 @ 아, 금 병원에 가야만.{아, 그럼 병원에 가야만.} # 예, 베 운에 감, 벼운 가머 약, 그런 약 잇어예, 예.{예, 병원에 가면, 병원 가면 약, 그런 약 잇어요, 예.} @ 금 방 데고, 예.{금방 되고, 예.}

10702 # 그래 우리도 어릴 때 몸에, 아아들때는 몸에 두드레 이가 그래 나살데요, 아뭇지도 앓는데도 덤아도 나고 추워도 나 이 우리 할매가.{그래 우리도 어릴 때 몸에, 아이들 때는 몸에 두드러기가 그래 나 썩데요, 아무렇지도 앓는데도 더워도 나고 추워도 나니, 우리 할머니가.}

10702 # 조어 벤숫간에 가가지고 용마름을.{저 변소간에 가가지고 용마름을.}

10702 # 한 움큼 빼다가요 짚을 엮어가 용마름 해 놓잖나요.{한 움큼 빼다가요, 짚을 엮어서 용마름 해 놓잖아요.} @예, 예예.{예, 예예.}

10702 # 그글가 한 아꿈 빼애다가 요래 불을 놓고 나아를.{그걸 가지고 한 움큼 빼다가 요래 불을 놓고 나를.}

10702 # 사이 사리마다마 입히 놓고.{사리, 속바지만 입혀 놓고.}

10702 # 빗자리로가 자아꾸 연개심을.{빗자루를 가지고 자꾸 연기 ??를.}

10702 # 이래, 시.{이래, 시.} @ 연기를.{연기를.} # 예예, 연기로 이 빗자리로 이래가지고 싹가 디로느르고, 오 저 저.{예, 연기를 이 빗자루를 이래 가지고 ?? ???, 오 저 저.} @ 예.{예.}

10702 # 저어 머어시 더 질.{저 땀이 더 질.}

10702 # 오옷 그 머어고 그라미서네 그그 내가 삭하달라고 자아꾸 그래.{옷, 그 뭐야, 그러면서는 그거 ?? 삭혀 잘라고 자꾸 그래.}

10702 # 어 저게 그러 이께 저 옷.{어 저기 그러니까 옷.}

10702 # 더 이거 그렇게 오옷 그 나가지고 빨긋빨긋 하잖나요.{저 이거 그렇게 옷 그 나가지고 불긋불긋 하잖아요.} @ 예예, 예.{예, 예.} # 그그 삭하달라고 우리 한매가 자아고 그래 연개심을 하 이.{그거 삭혀 달라고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래 연기 ?? 하니.}

10702 # 그곳도 또 삭아지데요.{그것도 또 삭데요.} @ 아 오.{아.}

10702 # 연 연개로 가 자아꾸 이래.{연 연기를 가지고 자꾸 이래.} @ 그이 연이 연개가 그.{그게 연기 연기가 그.}

10702 # 빗자리로 가지고 연개로 자아꾸 이래 해가지고 또 쉬아가 너루고.{빗자루를 가지고 연기를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씻겨 내리고.}

10702 # 그 저이 이래 두어 찌던터 누름 찌더 그거 머야 그르께**{그 저 이래 두어 ??? ?? ?? 그거 뭐야 그러니까 ??.}

10702 # 두드레기 아 이가, 두드레기 좀 삭하달라고 그래 자아꼬 우러:머 이, 우리 할매가 그리 얘기하미.{두드러기 아니야, 두드러기 좀 삭혀 달라고 그래 자꾸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가 그리 얘기하며.}

10702 # 이이 나느 서어가 잇고 한때는 그리 연개 심을 쉬 이.{니렇게 나느 서거 잇고 할머니는 그렇게 연기 ?? 썩이니.}

10702 그웁도 그러고 나뉼 자연지이 삭아여.{그것도 그러고 나뉼 자연스레 삭아요.} @ 자연, 예, 예.{자연, 예, 예.} # 예, 어엿아지고 말아예.{예, 엿어지고 말아요.}

10702 @ 그으 저 머야 어 새.{그 저 뭐야 어 새.}

10702 @ 새어 새비젼이나.{새우, 새우젼이나.} # 예, 새우젼도 먹으먹.{예, 새우젼도 먹으면.} @ 그으 톡 나 나오지오, 고이?{그 톡 나 나오쵸, 그리?} # 예, 쵸 쵸민해요.{예, 과, 과민해요.}

10702 @ 고등어 같은 거.{고등어 같은 거.} # 예, 그런거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안 맞이며 그리 꾸민 데바.{예, 그런 것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안 맞으면 그리 과민 돼.}

10702 # 막 빨긋빨긋하고.{막 불긋불긋하고.}

10702 # 쵸 약으 그래가 병언에 그런 사람들도 약, 병언에 가 약 사먹으머 또 폴리데예.{쵸 액을 그래서 병원에 그런 사람들도 약, 병원에 가 약 사먹으면 또 폴리데요.} @ 예, 예.{예, 예.}

10702 # 어떤 머 고기로 먹고나 이 이렇더라하며.{어떤 뉼 고기를 먹고나니 이렇더라라고 하면.} @ 예예, 예.{예, 예.}

10702 @ 떠 여름에 발가락 사이에.{또 여름에 발가락 사이에.} # 예.{예.}

10702 @ 이제 머 근 근지럽은 거 안 잇습니까?{이제 뉼 가, 가려운 것 안 잇습니까?} # 쵸, 조옴, 쵸, 물쵸 생기능거요?{쵸, 쵸, 쵸, 무쵸 생기능 거요?}

10702 # 그그느: 저 우리 딸아가 한국에서 나아 내애 이래 낫으로 신을 시인고 잇으 이.{그건 저 우리 딸애가 한국에서 나, 내 이래 낫으로 신을 신고 잇으니.}

10702 # 신 붓일 새가 없이 자 발이쵸 새앵겨가.{신 뱃을 새가 없어 자 발에 쵸 생겨서.}

10702 # 너 저 어떤 사람 어떤 아저시가 그리 야 막 너무 바알이 아파어, 머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바알 새애가 히저가 그리이 바 물쵸이 생겨아 그을타 이께네.{너, 저 어떤 사람, 어떤 아저씨가 그리 야 막 너무 발이 아파, 뉼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잘 새가 헤어져서 그래 무쵸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니까는.}

10702 # 아 아 그러므 좋은 약이 잇다고, 무슨 약 아저시, 무슨 약을 하는가 하 이께네.{아, 그러면 좋은 약이 잇다고, 무슨 약 아저씨, 무슨 약으로 하는가 하니까는.}

10702 # 식초에다가 밀까릴, 밀까리에다 식초를 부우가요.{식초에다 밀가루, 밀가루에다 식초를 부어 가지고요.} @ 네예.{네.}

10702 # 딴 건 붓지마고 식초르 부아가 반죽을 물렁:하게 해가지고 마.{다른 건 붓지 말고 식초를 부어서 반죽을 물렁하게 해 가지고 뉼.}

10702 # 오온 발 새고 마 쵼구고 이 발에 머.{온 발 새고 뉼 끼우고 이 발에 뉼.}

10702 # 이 발 디축에도 다 짜개애지고 마 행피인도 없이 그리 데.{이 발 뉼꿈치도 다 갈라지고 뉼 형편도 없이 그리 돼.}

10702 # 껌떼 이가 붙아지고.{껌떼기가 벗겨지고.}

10702 # 그래 그을 오온 발에다가 이래 파악 발새고 마 그 쵼가가.{그래 그걸 온 발에다가 이래 껌 발 새고 뉼 그 끼워서.}

10702 # 너무 무리게도 하지마고 너무 데에게도 하지마고 물렁:하게 해 가주우.{너무 무르게도 하지말고 너무 되게도 하지말고 물렁하게 해 가지고.}

10702 # 그래가 딱 발라가 비니리 보 비니리로 요래 딱 씨아가 양발 따악 신고.{그래 가지

고 딱 발라서 비닐 보, 비닐을 요래 딱 씌워서 양말 딱 신고.}

10702 # 두 분, 한 사나알 제넥마 하마 다.{두 번, 한 사나홀 저녁만 하면 다.}

10702 # 또 다이기 따갑다 그래요, 우린 안 해바안데.{또 되게 따갑다 그래요, 우리는 안 해 봤는데.}

10702 # 엄마 마 불이 켜 펄 펄 나도, 그래애도 그거르 켜질 하 인께.{엄마 뭐 불이 켜 펄 펄 나고, 그래도 그걸 참으니까.} @ 참고.{참고.} # 예, 참고 잇이니까 아침에 이래 뽀 깨애*마.{예, 참고 있으니까 아침에 이래 ???}

10702 # 참 껌때 이가 숙숙 붓아지고 그렇대요, 그래가 또 그.{참 껌데기가 숙숙 벗겨지고 그렇대요, 그래가 또 그.}

10702 # 그 날 지내고, 또 다음날 또 매영 물에 쉬아가주어 매영 그래 해가주어.{그 날 지내고, 또 다음날 또 역시 물에 씻어 가지고 역시 그렇게 해 가지고.}

10702 # 세에 분 하고나 이 인자 발이 정상이라요.{세 번 하고 나니 인제 발이 정상이에요.}

10702 @ 그웁도.{그것도.} # 식초에다가 밀가루에다 식초 반죽해가.{식초에다가, 밀가루에다 식초 반죽해 가지고.} @ 밀가루, 예.{밀가루, 예.}

10702 # 마 좀 먹는데느, 무좀 뭉데느 그기 제일이라요.{뭐 좀 먹은 데는, 무좀 먹은 데는 그게 제일이에요.}

10702 # 나 우리 딸아가 다 껌아놓은 보올 내 경험이 댜 일러, 예, 예, 그래가주 그그 이.{내, 우리 딸애가 다 껌어 놓은 바람에 대 경험이 댜 일러, 예, 예, 그래 가지고 그게.} @ 이, 그렇지요, 경험이 이 잇으면 그에.{이, 그렇죠, 경험이 잇으면 그 게.}

10702 # 무좀 뭉데 그기 제일이라요, 머 병원에 약도 좋지마는.{무좀 먹은데 그게 제일이에요, 뭐 병원에 약도 좋지만.}

10702 # 지도 약도 병원에 약도 마 이 발라 바닷대요.{자기도 약도 병원에 약도 많이 발라 봤대요.} @ 예예.{예.}

10702 # 그애도 안 데더라고.{그래도 안 되더라고.}

10702 # 누 한 사람이 어느 아저시가 그리 시기더라케보 이.{누구 한 사람이 어느 아저씨가 그리 시기더라고 해 보니.}

10702 # 그기 제일 효과 좋, 우리 사우도 그래어 바알 디척이 마악.{그게 제일 효과 좋, 우리 사위도 그래 가지고 발 뒤꿈치가 막.}

10702 # 저언수 짜개애지고 행피인도 없고 껌때 이가 보오자디디마는.{전부 갈라지고 형편도 없고 껌데기가 벗겨지더라.}

10702 # 지이가 와가주가이 우리 딸아아 와 가주어 저 우리 사우라 한 메칠 썬그리 해 보디마는.{자기가 와 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와 가지고 저 우리 사위랑 한 며칠 저녁 그리 해 보더니만.}

10702 # 우리 사우도 인자 발도 여영 정사 이라요.{우리 사위도 인제 발도 영 정상이에요.} @ 또?{또?}

10702 @ 이야.{이야.}

10702 @ 또 무좀 말고.{또 무좀 말고.} # 예.{예.} @ 저어.{저.}

10702 @ 지인이 썬득썬득 하면서 또 가렵고 하는 그런게 안 잇습니까?{진이 썬득썬득하

면서 또 가렵고 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10702 # 예, 그 그근 또 우리는 그런걸 안 겪어 바노니까.{예, 그 그건 또 우리는 그런 걸 안 겪어 봐놓으니까.} @ 습, 습진인가?{습, 습진인가?}

10702 # 그 습진이라고 그런 수도 있다 하긴 하데요.{그 습진이라고 그런 수도 있다 하긴 하데요.} @ 예.{예.}

10702 # 그으도 또 무슨 약이 또 잇겠지요, 머.{거기에도 또 무슨 약이 또 있겠지요, 뭐.} @ 그러게여.{그러게요.}

10702 @ 그 답에 예옛날에는 이어기 이런 데 머어가 많이 낫잖습니까.{그 답에 옛날에는 여기 이런 데 뭐가 많이 낫잖습니까.} # 예, 부스름이 나지요.{예, 부스름이 나지요.} @ 예?{예?}

10702 # 부스름 나지요.{부스름 나지요.} @ 예, 예.{예, 예.} # 예예예.{예예예.}

10702 @ 부스름이라 그랫습니까, 부시름이라 그랫습니까?{부스름이라 그랫습니까, 부시름이라 그랫습니까?} # 부시름이라 하고도 하고 헨디 이라 하기도 하고 머 그래.{부시름이라 하기도 하고, 헨디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 @ 아, 헨디 이, 맞 마앗습니다{아, 헨디이, 맞, 맞습니다.} # 예, 예, 헨디 이라고도 하고 부스름이라고도 하고 그래예, 예.{예, 예, 헨디이라고도 하고 부스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 예예.{예.}

10702 @ 그그는 머얼 가지고 고쳤습니까?{그건 뭘 가지고 고쳤습니까?} # 그른 약으은 어른들이.{그런 약은 어른들이.}

10702 # 무슨 약을 섰는지, 우리는 안 겪어 바안데 따른 사람이 그래 이시니까니 머 어예 무슨 약을 서야 텐다 그래 샅데야.{무슨 약을 썼는지, 우리는 안 겪어 봤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무슨 약을 써야 된다 그래 썰데요.} @ 아 아, 예 예.{아, 예.}

10702 @ 고쪽은 은제 잘 모르시군요.{고쪽은 인제 잘 모르시군요.} # 예예.{예예.}

10702 @ 그 머리이 이러머는 툭툭 허영게 떨어지는기.{그 머리 이러면 툭툭 허영게 떨어지는 게.} # 비름.{비듬.}

10702 @ 예, 예.{예, 예.} # 머리 비름떠, 하이구 그곳도 아아들이 복 우리 아아들도 그런 아아들이.{머리 비듬도, 하이구 그것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10702 # 마않지요, 머 그래가 이리 머리 금상 그 머 오온갓거 시장 좋곤 약을 발라가져 머 리로 감아도.{많지요, 뭐 그래서 이리 머리 금방 그 뭐 온갓 거 요즘 좋은 약을 발라가지고 머리를 감아도.}

10702 @ 안 데요.{안 돼요.} # 마리모 또 흐리지요.{마르면 또 흐르지요.}

10702 # 그래가저고: 미용실에 가가주 얘기하 이께네 그그 그 좋은 약.{그래 가지고 미용실에 가 가지고 얘기하니까는 거기에 그 좋은 약.}

10702 # 한 빙사리, 요마끔한 빙사리에.{한 병, 요만한 병에.}

10702 # 우리 큰아들이 막 엄마 마 추접어 모은 사알겟다커미서느.{우리 큰아들이 막 엄마 뭐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는.}

10702 # 그래가 내글 저 저게 지가 가가 그 약을 한 비 이 사 사십언인가 오오십언인가 주고.{그래 가지고 ?? 저 저기에 자기가 가서 그 약을 한 병 사 사십 위안인가 오십 위안인가 주고.}

10702 # 그그 바리고나 이 마 사 여영 요새 없어요.{그거 바르고 나니 뭐 영 요새 없어

요.} @ 그래요? 오 오.{그래요? 오.}
 10702 # 미영실에 가며 그런 좋은 약이 있어예.{미용실에 가면 그런 좋은 약이 있어요.}
 @ 미영실에, 예, 예.{미용실에, 예, 예.}
 10703 @ 그으 먹은 음식 때문에.{그 먹은 음식 때문에.} # 예.{예.} @ 그 생기는 저어 병
 으로.{그 생기는 저 병으로.}
 10703 @ 마약 설사하고 토하고 하는 그런게 잇잖습니까?{막 설사하고 토하고 하는 그런
 게 잇잖습니까?}
 10703 # 설사하고 토할 때느.{설사하고 토할 때는.}
 10703 # 우리 아번님 보 이께네 막 설사를 하고 이럴 때 보 이.{우리 아버님 보니까는
 막 설사를 하고 이럴 때 보니.}
 10703 # 욱무초요.{익모초요.} @ 예, 예.{예, 예.} # 욱무초 그그르 생거르.{익모초 그걸
 생것으로.}
 10703 # 아이 야아들아 내가 힘이, 힘이 없어 모은 가 이 그 욱무처 그그르 좀 마 이 뜯
 아오라 하데이.{아이, 야들아 내가 힘이, 힘이 없어 못 가니 그 익모초 그걸 좀 많이
 뜯어 오라 하데요.}
 10703 # 뜯아 와가지고 절구에다 코웅콩 찍어가 물도 붓지마고.{뜯어 와 가지고 절구에다
 쿵쿵 찼어 가지고 물도 붓지말고.}
 10703 # 마 이 찍으며 꼬옥 짜며 물 나와요.{많이 찼으면, 꼭 짜면 물 나와요.} @ 그으,
 예, 예.{그, 예, 예.}
 10703 # 그그 먹으 이 제일 머 빨리 멈치데여.{그거 먹으니 제일 뭐 빨리 멈추데요.} @
 오 오, 오.{오, 오.} # 꼬옥 짜가주고.{꼭 짜가지고.}
 10703 # 수군에다 꼭 짜가주거{수건에다 꼭 짜 가지고.}
 10703 # 우라:번님은 그을 십은 약으로 그 시위도 아픈 거보다 나았지커며 막 한 사발 꿀
 떡 마시디마는.{우리 아버님은 그걸 쓴 약으로 그 써도 아픈 것보다 낫지라고 하면
 막 한 사발 꿀떡 마시더니만.} @ 크으.{크.} # 고마 개앰참데여.{그냥 괜찮데요.}
 10703 # 이튿날은 갠참데요.{이튿날에는 괜찮데요.} @ 그래요?{그래요?} # 예, 욱무초 그
 기 제일이라요.{예, 익모초 그게 제일이에요.} @ 욱 욱무초?{익, 익모초?} # 예.{예.}
 10703 # 집엘 내가지고?{줍을 내 가지고?} # 예, 예.{예, 예.}
 10703 @ 아 아.{아.}
 10703 @ 토사각란이라는 말 들어봣습니까?{토사곽란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 토하구
 어 사고 그기 토사각란 아니나요, 예.{토하고 싸고 그게 토사곽란 아닌가요, 예.} @
 예, 예.{예, 예.}
 10703 # 그, 그으, 그런 병도.{그, 그, 그런 병도.}
 10703 # 비 운에 가모 또 약 시마 데고.{병원에 가면 또 약 쓰면 되고.}
 10703 @ 예예.{예.} # 만약에 임신 데가주고 밥을 모은 먹고 머 먹기마 하마 자아꼬 토하
 는.{만약에 임신 돼 가지고 밥을 못 먹고 뭐 먹기만 하면 자꾸 토하는.}
 10703 # 임신 덴 사람은 또 독한 약을 모은 시라하잖나요.{임신 된 사람은 또 독한 약을
 못 쓰게 하잖아요.} @ 못 쓰라 **.{못 쓰게 **}. # 그리기 때문에 어어른들이.{그
 령기 때문에 어른들이.}
 10703 # 이이사들이 말하는데.{의사들이 말하는데.}

10703 # 백돌 잇잖아요?{백돌 있잖아요?} @예.{예.}

10703 # 저 우리 부석에 불 때머는 홀로 발라노며 여언 안에 흙이 버알가 이 오래 때다
나마.{저 우리 부석에 불 때면 흙을 발라 놓으면 안에 흙이 발랑게 오래 때다보면.}

10703 # 안에 그 흐키 버알잖나요.{안에 그 흙이 발랑잖아요.} @ 예, 예, 예.{예, 예,
예.} # 타가 잇는 고런 홀로.{타 잇는 그런 흙을.}

10703 # 한 덩거리 사 소 그룩에다 띠이 놓고 물로 팔팔 끓에가져 부우며.{한 덩어리 그릇
에다 때 놓고 물을 팔팔 끓여 가지고 부우면.}

10703 # 바알랑게 우라나요.{발랑게 우러나요.} @ 예,예.{예,예.} # 그기 토하난데는 자알
제일 방팝이고.{그게 토하는데는 잘 제일 방법이고.} @ 하아.{하.}

10703 @ 예예.{예.} # 또 그으 시방 시내에는 그런기 없이니께.{또 그 지금 시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10703 # 저저 백돌 시방 백돌 집 짓는 백돌 여 니미 뽀다안거 바알간거 저거, 예.{저 저
백돌 지금 백돌 집 짓는 백돌, 네모 뽀듯한 거 빨간 거 저거, 예.} @ 발간거, 예예.
{빨간 거, 예.}

10703 # 고고 깨끗한 거 좇어다가 씹아빠리고.{고거 깨끗한 거 주워다가 씹어 버리고.}

10703 # 술에다 열고 두 개나 두 덩거리나 하 세 덩거리나 갖다가 이만한 멧판에다 물로
마 이 붓고.{술에다 넣고 두 개나 두 덩어리나 하 세 덩어리나 갖다가 이만한 ??에
다 물을 많이 붓고.}

10703 # 오옥덕 옥덕 삶아요, 시잇건 삶아 가지고.{옥덕옥덕 삶아요, 실컷 삶아 가지고.}
@ 예, 예.{예, 예.}

10703 # 그애 삶아나도 물이 마알깡단나요, 그그 자아꼬 떠 먹어라 하데요.{그래 삶아봐도
물이 말깡잖아요, 그거 자꾸 떠 먹으라고 하데요.} @ 예.{예.}

10703 @ 아 아.{아.} # 우리 셋째 메느리 이임신 데가주어 아아무리 약을 써도 안 데고,
또 이임신 데엿다고 독한 약은 모운 시고.{우리 셋째 며느리 임신 돼 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또 임신 났다고 독한 약은 못 쓰고.}

10703 # 좋은 약은 서도 안 데가주어.{좋은 약은 써도 안 돼 가지고.}

10703 # 그래 어어떤 하알배가 그래키이 그그이 도쿄 사양하는데는 이임신 분들은 독한
약을 모운 시니까.{그래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거, 토하고 싸는데는 임신한 분들
은 독한 약을 못 쓰니까.}

10703 # 이 토하는데는 그기 제이라커.{이 토하는 데는 그게 제일이라고 해.}

10703 # 참 내가 그 시킨대여 해 보니까.{참 내가 그 시킨 대로 해 보니까.}

10703 # 고고 하리 먹고 이틀만에는 그 중재가 데예요.{그거 하루 먹고 이틀만에는 그 중
지가 돼요.} @ 근데 그그는, 아 아.{그런데 그건, 아.}

10703 # 머 너네 물 먹지 마고 먹국 물 먹고집은 그 식하나머 또 일없어요.{뭐 ?? 물 먹지
말고 먹고 물 먹고 싶은, 그 식혀 놓으면 또 괜찮아요.}

10703 @ 예예, 예.{예, 예.} # 그래가 뜨실 때도 먹고.{그래 가지고 따뜻할 때도 먹고.}

10703 # 저 식하가도 먹고하 이 한 사나알 먹으 이 마 토하는게 중재 데데예.{저 식혀서
도 머고 하니, 한 사나홀 먹으니까 뭐 토하는게 중지 되데요.} @ 예,예.{예, 예.} #
예.{예.} @ 크으.{그.}

10703 @ 히한하다, 그 속에 머어가 잇는모양이지요?{회한하다, 그 속에 뭐가 잇는 모양이

지요?}

10703 # 그을치요.{그렇지요.} @ 예.{예.} # 그 메엿 백 도로 끝아가지 베엑들을 때, 오웅기 곱듯이, 하안국에 오웅기 꾸슷이 그런 구에 꾸 그 곱아노 이 그다 머어가 좋은 일이 잇글래 그렇지, 예.{그 몇 백도로 구워 가지고 벽돌을 만, 웅기 곱듯이, 한국에 웅기 곱듯이 그런 곱듯이 그런 그 곱 그 구워놓으니 거기에다 뭐가 좋은 것이 있길래 그렇지, 예.} @ 예예, 예, 예.{예예, 예, 예.}

10703 @ 아 아, 그으.{아, 그.}

10703 @ 그 됴에 음식 먹고 이렇게 소화가 안 데고.{그 다음에 음식 먹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10703 @ 막 아픈게이, 아플 때.{막 아픈게, 아플 때.} # 그근 없히자않나요.{그건 없히잖아요.} @ 없혔다 그랫** 없혔다.{없혔다 그랫**, 없혔다.} # 없헤이 없헤, 예, 없헤엿지요.{없헤이, 없헤, 예, 없헤엿지요.}

10703 # 없힐 때느 머 요그 그저 손 이래 훑아가주 요 딱 묶아가.{없혔을 때는 뭐 요기 그저 손 이래 훑어 가지고 요 딱 묶어 가지고.}

10703 # 딱 요그 야앙쪽에 딱 쭈아놓고 요 이 침을 가 꼭 찌르며 새애까만 피가 나와요.{딱 요기 양쪽에 딱 묶어놓고 요 이 침을 가지고 꼭 찌르면 새까만 피가 나와요.} @ 예, 예.{예, 예.} # 영 대애베 없힌 사람마는.{영 되게 없히 사람은.}

10703 # 마알간 물이 나와요.{말간 물이 나와요.} @ 아 아.{아.} # 그래가조오 고 피 나올 정도 찢리눔머 고래.{그래 가지고 그 피 나올 정도로 찢러 놓으면 고래.}

10703 # 숨 쉬게 해, 인제 숨통 통해 놓으모.{숨 쉬게 해, 인제 숨통 띄워 놓으면.}

10703 @ 아하.{아하.} # 어느새 줌, 마, 이인차 이인차 너러 가테요.{어느새 줌, 뭐 , 금방 금방 내려 가테요.} @ 내려가네요?{내려가네요?}

10703 # 그애 우리 손녀들은 아프머 막 할매 따달래캐샅아 따주머.{그래 우리 손녀들은 아프면 막 할머니 따 잘라고 해 쌓아, 다 주면.}

10703 # 마안 버얼벌 기다가도 그래 따고나머 일 없테요.{그냥 벌벌 기다가도 그렇게 따오 나면 괜창테요.} @ 예예, 예, 그으 또.{예, 예, 그 또.}

10703 @ 그으.{그.}

10703 # 급할 짝에는 바 을로 따는기 제일이라예.{급할 짝에는 바늘로 따는게 제일이에요.}

10703 @ 바늘 따서 피를 낸다 말이지오?{바늘로 따서 피를 낸다는 말이죠?} # 예예, 예예, 바 을로 요게 따악 요거다가.{예예, 예예, 바늘로 요기에 딱 요기다가.}

10703 # 요거다 가운데 요거 따악 탐머 꼭 찢라뽀마.{요기에다 가운데 요기 딱 한 번 꼭 찢러 버리면.} @ 예예.{예예.}

10703 # 마아 피가 새애까만 피가 나온 나와요.{그냥 피가 새까만 피가 나온 나와요.} @ 예예, 예.{예, 예.}

10703 # 고오 꼬옥 짜가뿌고 마 그래눔마 아뭉지도 안 해요.{고기 꼭 짜 버리고 뭐 그래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10703 @ 크으 그 쉬운 방법 이인데, 예예.{그 그 쉬운 방법 있는데, 예.} # 예예, 그기 쉬운 방법, 아아들은 죽는다가 안 맞을라캐도 뽏들고 머 억지로 뽏들아가 낫아눔.{예, 그게 쉬운 방법, 아이들은 죽는다고 안 맞으려고 해도 붙들고 뭐 억지로 붙들어 가지

고 고쳐 놓으면.}

10703 # 아고 한매 인자 일없어, 그양 한참 잊이마 일없다커는데.{아이고 할머니 인제 괜
찮아, 그냥 한참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 예예.{예.}

10703 # 우리 가게에 잇는 손녀딸아가.{우리 가게에 잇는 손녀딸아가.}

10703 # 하안국 가가저고 미영실에서 배앗다커미, 누가 었헛다커며 따악 얹아 눕혀 놓고
는.{한구구 가 가지고 미용실에서 배웠다고 하며, 누가 었헛다고 하면 딱 얹어 눕혀
놓고는.}

10703 # 요고 요고서부터 차악착 놀리단, 대거 었힌 차은 놀레 내려가머는.{요기 요기서부
터 착착 누르다가, 대개 었히 사람은 놀러 내려가면.}

10703 # 꼬옥꼭 놀리며 뚜걱 소리나요.{꼭꼭 누르면 뚜걱 소리 나요.} @ 예예.{예.} # 그
러구나면 마이 아롱지도 않지요, 머.{그리고 나면 뭐 아무렇지도 않지요, 뭐.} @ 아
하.{아하.}

10703 # 우리 손녀딸으 고.{우리 손녀딸은 그.} @ 금 등 드응 인제.{그러면 등, 등, 인제.}
예예, 어디에서 등 등 요 빠로 따악닥 누울레가다가 나머는.{예, 어디에서 등, 등,
요 빠를 딱 딱 눌러 가다가 보면.}

10703 # 어디메 하나 누울리며 뚜걱 소리 나요.{어디에 하나 누르면 뚜걱 소리 나요.} @
예예.{예.} # 그리고 나면 고마 이매 갠찮아요.{그리고 나면 그냥 이내 괜찮아요.} @
아 아.{아.}

10706 @ 어를 때 굳하는 거 바앗습니까?{어릴 때 굶하는 거 봤습니까?}

10706 # 굳요?{굳요?} @ 무당 굳 하는 거.{무당 굶 하는 거.} # 아, 무당 굳 하는기야 예
릴 때 마 이 바앗지요.{아, 무당 굶 하는거야 어릴 때 많이 봤지요.}

10706 # 한국에는: 이래 초온에.{한국에는 이래 촌에.}

10706 # 쫌 하는데도 잊지마는, 주우로 부듯가에.{쫌 하는데도 있지만, 주로 부듯가에.}

10706 # 고기잡이 하는 사람, 뱃 뱃 배** 하는 사람들이 재수 잇이라고.{고기잡이 하는 사
람, 배, 배, 배**하는 사람들이 재수 있으라고.} @ 예, 예.{예, 예.}

10706 # 앓 봄에 한 축 오구하고 베엘손하고.{아, 봄에 한 축 오구하고 ??하고.}

10706 # 그래하며 할매들이 또 구경하러 얼마나 가나요.{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또 구경
하러 얼마나 가나요.} @ 그렇지요.{그렇죠.} # 여 풍막 쳐놓고 하는데.{여 풍막 쳐놓
고 하는데.}

10706 # 굳 하는거 마 이 바앗심이더.{굶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 그으느 오터 절차
가 어떻든가요?{거기는 어떻 절차가 어떻든가요?}

10706 # 그으 우리 하던 하던 도중에도 가가 보고, 무당들이 춤추고 화래 이들은 중, 장
구 뛰드리고 머.{그 우리는 하는 하는 도중에도 가서 보고, 무당들은 춤추고 박수들
은 징, 장구 두드리고 뭐.}

10706 # 오온갓 사아실을 풀아대 샅데요.{온갓 사설을 풀어 대 썩데요.} @ 예예, 예.{예,
예.}

10706 # 머 요양님잘에도 비일고 머 산신님 산선림잘에도 비이고.{뭐 용왕님한테도 빌고
뭐 산신님 산신령한테도 빌고.}

10706 # 고 동네 고을맥잇는 잘에도 비이고 머 온갓 소리 그리 해샅데에여.{고 동네 ???
한테도 빌고 뭐 온갓 소리 그리 해 썩데요.}

10706 @ 그으 북 장구 치는 사람들은 머라 그런다고요?(그 북, 장구 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 남자들, 화래 이 아이나요.{남자들, 화랭이 아닌가요.}

10706 # 화.{화.} @ 화, 화.{화, 화.} # 화래 이라 이카테예.{‘화랭이’라 이렇게 하데요.} @ 화래 이, 예예, 예, 예.{‘화랭이’, 예, 예, 예.} # 예, 넘즈 남자들은 하래 이고 여자들은 무우당 아이나요, 춤추는, 예.{예, 남자, 남자들은 ‘화랭이’고 여자들은 무당 아닌가요, 춤추는, 예.} @ 무당, 예예.{무당, 예예.}

10706 # 그래 깨앵가리도 치고, 징도 치고, 머 그 구절에 따라서.{그래 췌과리도 치고, 징도 치고, 뭐 그 구절에 따라서.}

10706 # 엽불도 해가미 잘 하테여.{엽불도 해 가며 잘 하데요.} @ 예예.{예.}

10706 # 우리 그런 구우경을 우린 부똥가예, 저게.{우린 그런 구경을 우린 부똥가예, 저기.} @ 많이 보겠네예?{많이 보겠네요?} # 예예, 가암포러버터 대밀에 읍천에 머어.{예, 감포로부터 ??? 읍턴에 뭐.}

10706 # 저 정자로 구 저 과안성으로 수르매르 그 주:옥 간테 전수 배 잇는데느, 곧 마 이 해예요.{저 정자로 그 저 광성으로 수리매로 그 죽 가는데 전부 배 잇는데는, 굿 많이 해요.} @ 예예, 그렇네.{예예, 그렇네.}

10706 @ 음.{음.}

1.3.2. 세시 풍속과 놀이

10801 @ 저어 서얼 때.{저 설 때.} # 예.{예.} @ 설 때 기억납니까?{설 때 기억납니=까?}

10801 # 설 때에 그저어 설 데머.{설 때 그저 설 되면.} @ 어떤, 어떤 *?{어떤, 어떤 *} # 맛있는 음식들 해놓고 언자.{맛있는 음식들 해 놓고 인제.} @ 예예.{예.}

10801 # 하룻날 아침에느 다아 어른들 세배 디리고.{하룻날 아침에는 다 어른들 세배 드리고.}

10801 # 또 툐에서도 친척똥또 오고.{또 툐에서도 친척들도 오고.}

10801 #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오고, 셉, 어른들 만나러 와 샅테여.{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오고, 세배, 어른들 만나러 와 썰테요.} @ 예예.{예.} # 예예.{예예.}

10801 @ 여기서도 세배 드리머 세뱃돈 주고 이렇 이래 ****?{여기서도 세배 드리면 세뱃돈 주고 이렇게 이렇게 ****?} # 옛날에느: 그그르 몰랐는데.{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10801 # 하안국에 갓다아, 가니까 마아캐 그래 세뱃돈을 조샅테요.{한국에 갔다, 가니까 모두 그렇게 세뱃돈을 줘 썰테요.} @ 예예.{예.} # 언자 그래가 우리 손자들도.{인제 그래서 우리 손자들도.}

10801 # 아, 아 인기 아 이라 첫 번째느 돈, 줌, 쟁제가 줌 쫄릴때느.{아, 아닌게 아니라 첫 번째는 돈, 줌, 쟁제가 줌 어려울 때는.}

10801 # 십언숙 오원숙 그래 존테, 인지는 오오 작아야 오십언이고 백원식이랴요.{십위안식 오위안씩 그렇게 줬는데, 인제는 오 작아야 오십위안이고 백위안씩이에요.}

10801 # 요놈들이 가 이 커가지고 마 이 바래요.{요놈들이 간이 커 가지고 많이 바래요.} @ 그게*.{그게*.}

10801 @ 이제 그만큼.{이제 그만큼.} # 근 내가 하안 돈 천연숙 개짬에 넣어놓머.{그래 내가 한 돈 천 위안씩 걸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10801 # 이 녀 백 언, 이 녀 백 언 다서 여섯이 오올 때느.{이 녀 백 위안, 이 녀 백 위안, 다섯, 여섯이 올 때느.} @ 술술 나갔어요?{술 술 나가지요?} # 돈 천언 하모 예, 줄 줄 수웁떡 나가뿌리요, 그리 머 지거.{돈 천 위안 하면 예, 줄줄 훌떡 나가 버려요, 그래 뭐 자기들.}

10801 # 저그 암마 이 저거:마 이, 저가:바 이가 다 이 내 요용돈 주는 것도 그래 풀아 먹으문 데잖나요.{자기들 엄마, 자기 어머니, 가지 아버지가 다 이 내 용돈 주는 것도 그렇게 풀어 먹으면 되잖아요.}

10801 @ 소, 손주 손녀들이 많게엿군요.{소, 손자 손녀들이 많겠군요.}

10801 # 시방은 자악게 놓으니까.{지금은 적게 놓으니까.}

10801 # 우리 큰아들네가 둘이, 둘째 아들네가 둘이.{우리 큰아들네가 둘이, 둘째 아들네가 둘이.}

10801 # 으, 셋째 아들네가 서어이.{으, 셋째 아들네가 셋이.}

10801 # 그 담에 오누이 오너이 해가 다아 들이습이라요.{그 다음에 오누이 오누이 해서 다 들씩이라요.} @ 어 어.{어.} # 예.{예.}

10801 # 그래가주거 하 모이며 참말랄 머 할매잘에 인사하라고 하모.{그래 가지고 하 모이면 참말로 뭐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하면.}

10801 # 마아케 돈 달라고 처가 잇는거.{모두 돈 달라고 서서 잇는 거.}

10801 # 그 또 한 푼숙 저야 안 되나예.{그 또 한 푼씩 줘야 되잖아요.} @ 백 언씨의 하면 천 언도 모잘라겠네요.{백 위안씩 하면 천 위안도 모자라겠네요.}

10801 # 돈 백 언, 촌 천 언 찜가놓오모 마 백 온숙 백 언스 나가머 훌떡해요.{돈 백 위안, 돈 천 위안 끼워 놓으면 뭐, 댄 위안씩 백 위안씩 나가면 훌떡해요.} @ 예예.{예.}

10801 # 십 언숙 오 온숙 줄 때너.{십 위안씩 오 위안씩 줄 때느.}

10801 # 그으도 하안 이삼 백원 넣어놓모.{그래도 한 이삼 백 위안 넣어놓으면.} @ 그래요.{그래요.} # 고 잔전을 미리, 새 돈을 잔전을 바까가 따악 건사르 해 놓지요.{그 잔돈을 미리, 새 돈을 잔돈을 바꿔서 딱 건사를 해 놓지요.} @ 예예, 예.{예, 예.}

10801 # 그래 조니, 아원:자 세월이 발전하 이 그으 세배값도 또 올라가네요.{그래 주니, 아우 인제 세월이 발전하니 그 세배돈도 또 올라가네요.}

10801 @ 또오 손주들이 많이 컸지요?{또 손자, 손녀들이 많이 컸지요?} # 예예?{예?}

10801 @ 다 컸지, 다 컸지여?{다 컸지, 다 컸지요?} # 예, 아아들 인자 다: 컸어요.{예, 아이들 인제 다 컸어요.}

10801 # 인자 우리 막내 이네 딸아가 여어 고중 삼학년예.{인제 우리 막내네 딸애가 여기 고등학교 삼학년예.}

10801 # 인자 오을개, 인자 방학하면, 개학하면는 고중 삼학년예 올라, 고기이 제일 어린 거라예, 예.{인제 올해, 인제 방학하면, 개학하면 고등학교 삼학년예 올라, 고게 제일 어린 거예요, 예.} @ 예예, 예.{예, 예.}

10801 @ 보름 때는?{보름 때는?}

10801 # 보름 때는 그저어 찰밥이나 오오곡 잡곡밥이나 먹고 머 그래 다 지내지요.{보름 때는 그저 찰밥이나 오곡 잡곡밥이나 먹고 뭐 그렇게 다 지내지요.} @ 예예, 그으

저.{예, 그, 저.}

10801 @ 다알, 달맞이?{달, 달맞이?} # 어, 달맞이 저어 높은 산에 가가지고 일찌감치 가 달 올라오는거 그.{어, 달맞이 저 높은 산에 가 가지고 일찌찌감치 가 달 올라오는 거, 그.}

10801 # 날이 청명하며느 볼 수 이인데, 날이 흐리며 못 보지요.{날이 청명하면 볼 수 있는데, 날이 흐리면 못 보지요.} @ 그렇지요.{그렇죠.}

10801 @ 그으.{그.} # 전에 우리 첫 분에나 저어.{전에 우리 첫 번에는 저.}

10801 # 귀네도 매아가 떠기도 하고, 머어 널도 띄고.{그네도 매어 띄기도 하고, 뭐 널도 띄고.} @ 너얼.{널.}

10801 # 다아 그런게 했는데 인지이느 그런 것도 저런 거, 우운동 할 때나 그런 거 해었지요.{다 그런 거 했는데 인제는 그런 것도 저런 거, 체육대회할 때나 그런 거 했지요.}

10801 @ 여기서요?{여기서요?} # 예, 구네 띄고 주 저어 줄 땡기기도 하아고.{예, 그네 띄고 주, 저 줄다리기도 하고.}

10801 # 그래 해요, 너얼도 띄거.{그렇게 해요, 널도 띄고.}

10801 # 운동할 때느 그 큰 인자 민족대회 할 때나.{체육대회할 때는 그 큰 인제 민족대회 할 때나.} @ 아, 그런 거 하겠네예.{아, 그런 거 하겠네요.} # 오, 온, 예, 글때느 해애요.{오, 온, 예, 그때는 해요.}

10801 @ 그 나무 이렇게 그 꺾어서 세와놓고 불 지리고 동정 같은 거 저 태우고 머 그런 거 안 했습니까?{그 나무 이렇게 그 꺾어서 세워놓고 불 지르고 동정 같은 거 저 태우고 뭐 그런 건 안했습니까?} # 예, 중국에느 어없어예.{예, 중국에는 없어요.}

10801 @ 아 이.{아.} # 중국에 그그느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중국에 그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10801 # 하:이키나 무슨 밍절이라도.{하여간에 무슨 명절이라도.}

10801 # 누런 도운쥬이에 또 도운을 찍아가지고 종이에다 도운 찍아놓은 그런거.{누런 돈 종이에 또 돈을 찍어 가지고 종이에다 돈 찍어 놓은 그런거.} @ 도운.{돈.}

10801 # 백 원짜이도 있고, 오십 언짜리도 있고 머어 천언 짜리 잇는 그런거 사다아.{백 원짜리도 있고, 오십 원짜리도 있고 뭐 천 원짜리 잇는 그런 것 사다가.}

10801 # 그 사란들은 무디기리 해가 태와요.{그 사람들은 무더기로 해서 태워요.}

10801 # 그래 너그 머안데 우리가 우리 우리 딸아가 너그 머안데 이이리 태우노커 이.{그래 너희 뭐 하는데, 우리가 우리 우리 딸아가 너희 뭐 하는데 이렇게 태우냐고 하니.}

10801 # 너그 사람들은: 이기 이리에 또 돈을 안 태아 보내기 때문에 저승 가서 잇는 어른들이.{너희 사람들은 이거 이래 또 돈을 안 태워 보내기 때문에 저승 가 잇는 어른들이.}

10801 # 너그는 너글 안 도와 주지메나 우리는 다아 이래 조내이께네.{너희는 너희를 안 도와 주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주 놓으니까는.}

10801 # 내앵자 죽아도 자숙들도 자알 데고 잘 텐다고 그래 글 태아 준테요.{나중에 죽어도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된다고 그렇게 그걸 태워 준테요.}

10801 # 우리집 우리나 그래 안 해요.{우리집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 저승돈이네, 그러니께.{지전이네, 그러니까.} # 예, 예.{예, 예.}

10801 # 마 열심히, 청명이고 설이고 보름이고 마.{뭐 열심히, 청명이고 설이고 보름이고 뭐.}

10801 # 그 사람들은 추석이고 마 아:무때고.{그 사람들은 추석이고 뭐, 아무 때고.} @ 하 아.{아.}

10801 # 어느 날짜 또 귀신날 따로 있다 이거, 그날은 도옹네가 둘라빠지요, 치통 터주운 다고.{어느 날짜 또 귀신날 따로 있다 이거, 그 날은 동네가 둘러 빠져요, '치통' 터트 린다고.}

10801 @ 아, 그.{아, 그.} # 자아 중궁 사란 그런 거느 자알 지키요, 예, 대애단해요.{자 중궁 사람 그런 건 잘 지켜요, 예, 대단해요.} @ 그 정신 대단하네예.{그 정신 대단 하네요.}

10801 @ 그리고 머 이렇게 아니고 이이렇게 막.{그리고 뭐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막.}

10801 @ 한 데 잇쥬?{하는 데 잇쥬?} # 예, 막 이리 종애르 무 종애르 막 존 종애 누런 누런 종애하고 도온 종애하고 머 이이렇기 상농고:저.{예, 막 이렇게 종이를 무 종이 를 막 돈 종이 누런 누런 종이하고 돈종이하고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저.}

10801 # 하안참 꼬재 이로 갖다놓고 하안참 태우데여.{한참 꼬챙이를 갖다놓고 한참 태우 데요.} @ 많:이 도와달라는.{많이 도와달라는.} # 마 고을목골목이 마 종애 무더기가 사라진 무더에 그래가.{뭐 골목골목이 뭐 종이 무더기가 사라진 무더기에 그래 가지 고.} @ 하 아.{아.}

10801 #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이 체다 실기는 슬어도.{아침에 청소하는 사람이 죄다 쓸기 는 쓸어도.}

10801 # 그렇디 태와요, 꿀짝꿀찍이.{그렇게 태워요, 골짝골짝이.} @ 예예.{예.}

10801 @ 여기도 성며 가압니까, 생모.{여기도 성묘 갑니까, 생모?} # 예?{예?}

10801 # 생머어?{생머?} @ 예예.{예.}

10801 # 생머이 저어 무진:자 운동이나 하고 하알 때 엔자네 모양모 출 찍에느 그그 새앵 모 돌리지예.{상모 저 무슨 인제 체육대회나 하고 할 때 인제 농악무 출 찍에는 그거 상모 돌리지요.} @ 아 아, 그 말고요.{아, 그 말고요.} # 예, 예.{예, 예.}

10801 @ 서 설날, 추석날 제.{설날, 추석날 이제.}

10801 @ 그으 조상들.{그 조상들.} # 예.{예.}

10801 @ 미이에 가지 않습니까?{묘에 가지 않습니까?} # 산소예요?{산소예요?} @ 예, 산 소 가는 거.{예, 산소 가는 거.} # 산소에 동삼에느 춥아 모온 가고.{산소에 동삼에는 추워서 못 가고.}

10801 @ 동삼 못 가**.{동삼 못 가*} # 추석에.{추석에.}

10801 # 오을 단오에, 이이래 가는 사람은 잇어예.{오을 단오에, 이래 가는 사람은 잇어 요.} @ 예예.{예예.} # 예.{예.}

10801 # 그때는 가여.{그때는 가요.} @ 그 머 한다 그럼니까?{그 뭐 한다 그럼니까?}

10801 # 그으 머어 가가아.{거기 뭐 가서.}

10801 # 장 바다가 성의 머 술이고 과실 해가지고 떡도 하고 해가.{장 바다가 성의 뭐 술 이고 과일 해 가지고 떡고 하고 해서.}

10801 # 밥도 한 그릇 하고 조상에 따라서 그래.{밥도 한 그릇 하고 조상에 따라서 그래.}

10801 # 모두 담마가 가 샅테예.{모두 담아서 가 쌓테요.} @ 그래 하는 걸 머?{그렇게 하

는 걸 뭐?}

10801 @ 머어 머 간다 그럼니까?{뭐 뭐 간다 그럼니까?}

10801 # 산소에 간다 그러지예.{산소에 간다 그러지요.} @ 생머, 산소 간다 그럼니까?{성묘, 산소 간다 그럼니까?} # 예, 산소 간다치, 예.{예, 산소 간다하지, 예.}

10801 @ 여기도 안택굿 합니까, 안택굿?{여기도 안택굿 합니까, 안택굿?}

10801 # 안택구어 여그느 그거 없어예.{안택굿 여기는 그거 없어요.} @ 없고요?{없고요?} # 예, 여그느 그거 없어예.{예, 여기는 그거 없어요.}

10801 @ 용왕먹이기는?{용왕먹이기는?} # 요 양 먹이는 거도: 전에 어어른들은 어떤 할매들은.{용왕먹이는 것도 전에 어른들은 어떤 할머니들은.}

10801 # 그래 요 양을 먹이인데 우리 하안국에는: 바닷가에 가 요 양 먹이는 사람 많습니더.{그래 용왕을 먹이는데 우리 한국에는 바닷가에 용왕 먹이는 사람 많습니다.} @ 바닷가에 정말 요 양 먹이야지요.{바닷가에 정말 용왕 먹여야지요.} # 예예, 처언수 바닷가아 가가지고.{예예, 전부 바닷가에 가 가지고.}

10801 # 그래가 요 양 먹인다고.{그래 가지고 용왕 먹인다고.} @ 무어합니까 요 양 먹이는 거?{뭐 합니까, 용왕 먹이는 거?}

10801 @ 무얼?{뭬?} # 머어 머허 그 다 자기네 좋으라고 그랜겟지요.{뭐 뭐 그 다 자기네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지요.} @ 아니, 뭬.{아니, 뭬.}

10801 # 아 아, 고 머얼.{아, 그 뭬.} @ 준비를?{준비를?} # 주운비로 머 벨 거 안 해 가데요.{준비를 뭬 별 거 안해 가데요.}

10801 # 종애하고.{종이하고.}

10801 # 그래 저어.{그래 저.} @ 무억, 머하고요?{뭬, 뭬하고요?} # 소오지 올릴, 소오지 올릴 종애 참종애 착착 접아가주 그래애 가고.{소지 올릴, 소지 올릴 종이 '참종이' 착착 접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고.}

10801 # 머 판 거느 가주가는거 모을겟십더.{뭐 다른 건 가져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10801 # 그 우름, 우루 할매도 보 이.{그 우리 엄, 우리 할머니도 보니.}

10801 # 에 저 요 양 미 인다, 우리 미역돌 잘에다 미역 잘 대애 달라고.{에 저 용왕먹인다고 우리 미역돌 곁에다 미역 잘 되게 해 달라고.} @ 그렇지, 예예.{그렇지, 예.}

10801 # 머어 동해바다 요 양님네, 서해바다 요 양님네, 남해바다 요 양님네 그저.{뭐 동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그저.}

10801 # 어쨌든지 우리 미역도올에 잘 데애 다알라고.{어쨌든지 우리 미역돌이 잘 되게 해 달라고.}

10801 # 그래 빌어 샅데예.{그렇게 빌어 쌓데요.} @ 자아꾸 손 비비고.{자꾸 손 비비고.} # 예, 예.{예, 예.} @ 예.{예.}

10801 # 우리 할매 따라댕기미 그런 거 구경은 했어예.{우리 할머니 따라다니며 그런 거 구경은 했어요.} @ 예, 예, 예.{예, 예, 예.} # 예예.{예예.} @ 아 아.{아.}

10801 # 멍태 한 마리하고 머어.{멍태 한 마리하고 뭬.} @ 예.{예.}

10801 # 찌 참종애 착착 접아가주 쫘 가주아가고.{저 '참종이' 착착 접어 가지고 쫘 가지고 가고.}

10801 # 그래가주어 마 멍태느 물에 떠아뿌고.{그래 가지고 뭬 멍태는 물에 띄워 버리고.}

10801 # 그라시데예.{그러시데요.} @ 그러므 바다를 보고 합니까?{그럼 바다를 보고 합니

까?) # 예, 바달 보고 하지요.{예, 바다를 보고 하지요.} @ 그 채리 놓는 거냐?{그
 차려 놓는 거냐?}
 10801 # 채리 노는 거냐 그저: 종애 한 작 갖다 따악 깔아놓고.{차려 놓는 건 그저, 종이
 한 장 갖다 딱 깔아놓고.} @ 깔고.{깔고.} # 예, 동애 한 자 까알고 그래 하테여.{예,
 종이 한 장 깔고 그렇게 하테요.}
 10801 @ 조항, 조양신.{조왕, 조왕신.}
 10801 # 조양은 술 보고 조양이라 하고.{조왕은 술 보고 조왕이라 하고.} @ 예, 예, 예.
 {예, 예, 예.}
 10801 # 성주는 은자 이이 가정 내에 대들보 보고 성조조양이라 이카테여.{성주는 인제 이
 가정 내에 대들보 보고 성주조왕이라 이렇게 하테요.} @ 아 아, 예.{아, 예.} # 예,
 예.{예, 예.}
 10801 @ 조양만테 빌 때는.{조왕한테 빌 때는.}
 10801 # 며얼 저.{뭇 저.}
 10801 # 그냐.{그건.} @ 머 물 같은 거 떠 놓십니까?{뭐 물 같은 거 떠 놓습니까?} # 예,
 물 떠놓고 해요.{예, 물 떠놓고 해요.} @ 그으 머라 그럼니까?{그 뭐라 그럼니까?} #
 물로 고 술.{물을 그 술.}
 10801 # 요거 요 술으 술 전에 고저 물 한 그릇 떠다 놓고.{요거 요 술 술 앞에 그저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10801 # 성주 조양님께 머 어째어째 잘 데에 달라고 할매들이 그래 머 군지렁거리.{성주
 조왕님께 뭐 어째어째 잘 되게 해 달라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뭐 중얼거리.} @ 저 그
 으 그때도 자꾸 술에 빌지요?{저 그 그때도 자꾸 술에 빌지요?} # 예, 글때도 매양
 비이지요, 예, 글때도 비일테요{예, 그때도 역시 빌지요, 예, 그때도 빌테요.}
 10801 @ 그 무을일 머 정화수라 그럼니까, 머어라 그럼니까?{그 물을 뭐 정화수라 그럼니
 까, 뭐라 그럼니까?} # 고 인자아.{그 인제.}
 10801 # 그그도 물에.{그것도 물에.}
 10801 # 새, 저 저 무 물을 저녁에 스다가 뜨다가 하안 동 메아놓으마.{새, 저 저 무 물을
 저녁에 쓰다가, 떠서 한 동이 채워 놓으면.}
 10801 @ 예.{예.} # 고 첫 첫 물에 고고 뜨가지고 그래 하시테예.{그 첫 물에 고것 떠 가
 지고 그래 하시테요.} @ 정신 들어야지요.{정성 들어야지요.} # 예, 예, 정성을 들이
 지요.{예, 예, 정성을 들이지요.}
 10801 @ 그러고 그 전날에 머 머리 같은 거냐?{그리고 그 전날에 머 머리 같은 거는
 요?} # 아우, 머리 감고 모오욕하는 거냐 정성을 해요.{아우, 머리 감고 목욕하는 건
 정성으로 해요.}
 10801 @ 그렇지요?{그렇죠?} # 예, 예, 머리 감구 무구 딱 새옷 갈아입고 그런거 하시지
 여.{예, 예, 머리 감고 ?? 딱 새옷 갈아입고 그런 거 하시지요.}
 10801 @ **.{{.}} # 우리 엄마가.{우리 엄마가.}
 10801 # 전에는 그이 여그는 우리는 교를 믿으니까 그치 전에*.{{.}}{전에는 그 여기는 우리는
 (기독교)교를 믿으니까 그렇지 전에.}
 10801 # 불교로 마 이 믿잖나요, 한국에는.{불교를 많이 믿잖아요, 한국에는.} @ 그러인
 예.{그러*, 예.}

10801 # 그래 절에 가안 때는 우리 엄마는 초하리 보름에는 꼬옥:꺼져 우리 엄마는.{그래
절에 갈 때는 우리 엄마는 초하루 보름에는 꼭 ?? 우리 엄마는.}

10801 # 거랑국에 거랑에 여 독 거랑 도옹지 던달에도 거랑독에 어어 얼음이 살얼음이 숙
숙숙숙 버언디더.{거랑독에 거랑에 여 독 거랑, 동지 선달에도 거랑독에 어 얼음이
살얼음이 숙숙숙숙 보여도.}

10801 # 그 얼음을 까고 그그 모욕하고 머릴 잡고.{그 얼음을 깨고 거기 목욕하고 머리를
잡고.}

10801 # 아가주거저 옷 갈아입고 언자 아침 해 잡숫고는 절에 날 서기 전에 일찌가암치
절에 올라가시데요.{와 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인제 아침 해 잡수시고는 절에 날
새기 전에 일찌감치 절에 올라가시데요.} @ 예예.{예.}

10801 @ 아이요.{아이고.} # 그래감스 살:로 요마아끔 일곱 불로 십아가 가지고.{그래 가
면서 쌀을 요만큼 일곱 번을 쏘어 가지고.} @ 예예.{예.}

10801 # 일곱 불로 십아가 딱 봉기애가죽 그래애 사가 가지고.{일곱 번을 쏘어서 딱 ???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 가지고 가지고.}

10801 # 그 절에는 무진 비리진 고기는 안 그속하니까.{그 절에는 무슨 비린 고기는 거식
하지 않으니까.} @ 예예, 예.{예, 예.} # 그래 가멘 절에는 가몬:자{그래 가면 절에는
가면 인제.}

10801 # 나물로 주로 나물채르.{나물을 주로 나물 반찬을.} @ 나물, 예예.{나물, 예.} #
예.{예.}

10801 나, 콩나물이나 무진 나물, 산나물 곁은 거 고롱 무체가주 놓고, 그래 하시테예.{나,
콩나물이나 무슨 나물, 산나물 같은 거 그런 거 무쳐 가지고 놓고, 그렇게 하시테요.}

10801 @ 복조리 같은 것은.{복조리 같은 것은.}

10801 # 여그는 지 중국에는 보옥제, 한국에는 촌시마자 복조레어라고 시기시기 또 어디
갓다 거얼지 않나요, 여그는 그런거 어없습니다.{여기는 지 중국에는 복조리, 한국에
는 ????? ?????? 시기 시기 또 어디에 갓다 걸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
안했습니까, 예, 예.{안했습니까, 예, 예.}

10801 @ 그라며는.{그러면.}

10801 @ 부정 쫓는거.{부정 쫓는 거.}

10801 # 그그 저거 부서어 붙이는 거요?{그게 저기 부적 붙이는 거요?} @ 예, 예.{예,
예.} # 어떤 사람들은 그런거 서어가 붙이요, 점재 이들잘에 물어보고.{어떤 사람들
은 그런 거 써서 붙여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10801 # 이 징국 사람들이 오을 단어에는 또.{이 중국 사람들이 오월 단어에는 또.}

10801 # 버들로, 새북 새 시머 한 시머 한 시, 두 시머 두 시, 새 날마 도착하며는.{버들을
새벽, 새 시면, 한 시면 한 시, 두 시면 두 시, 새 날만 되면.}

10801 # 저어 뎌 멀얼리 가가 물 내려온 그게 가가지고.{저 머 멀리 가서 물 내려 오는 거
기에 가 가지고.}

10801 # 퍼들러 끓아가 처연수 여이 그 달아가 대앵기는 그을즈 그런 파는기 잇어요.{버들
을 꺾어서 전부 여기 그 달아서 다니는 그걸 그런 파는 게 있어요.} @ 예예.{예.}

10801 # 그런거가 치 그 물에 시이수하고 물 내려오는 그거.{그런 거 가지고 세 그 물에
세수하고 물 내려오는 거기.}

10801 # 시저어 중구 사람이 그거는 하나 잘 지키요.{지금 중국 사람이 그건 하나 잘 지키요.} @ 아우, 켜자 이 정성 지극하네요.{아우 굉장히 정성 지극하네요.} # 예, 그건 잘 지켜요.{예, 그건 잘 지켜요.}

10801 # 그래 우리 사우도 그 뿐 따라가지고 그그 저어 새복어는, 안 아플때는 저어.{그래 우리 사우도 그 본 받아 가지고 그거 저 새벽에는, 안 아플 때는 저.}

10801 # 따바 이라고 물내러오는 그으 가가이서.{‘따방이’라고 물 내려오는 거기에 가 가지고.}

10801 # 세수하고 수건 빨아가지고 눈 닦고.{세수하고 수건 빨아 가지고 눈 닦고.}

10801 # 저 머 그리 상안다 캐샅디이더.{저 뭘 그리 쌓는다 라고 해 쌓더이다.}

10801 @ 달집 태우기 그는 안 어 안한다고요?{달집 태우기 그건 안 어 안한다고요?} # 예, 예, 안해요.{예, 예, 안해요.}

10801 @ 소 건강 비는거는요?{소 건강 비는 거는요?}

10801 # 그런거 나 모릅더.{그런 거 나 모릅니다.} @ 소, 예예.{소, 예.} # 예, 그런거는 몰라예.{예, 그런 건 몰라요.}

10801 @ 머 귀밝이술 이런 거 잇었지요?{뭘 귀밝이술 이런 거 있었지요?}

10801 # 지방요?{지방요?} @ 귀, 귀밝이술.{귀, 귀밝이술.} # 귀밝애술은 그 저저 보름날에 기밝애술을 먹지요, 머.{귀밝이술은 그 저저 보름날에 귀밝이술을 먹지요, 머.} @ 귀.{귀.}

10801 @ 아, 귀밝애술.{아, 귀밝애술.} # 예, 기밝애술은 보름날이 먹데여.{예, 귀밝이술은 보름날에 먹데요.} @ 예, 예예, 맞습니다.{예, 예예, 맞습니다.} # 머 암만 못 먹어도 입매 입을 적사도 먹어라 카, 그래 쪼끔스 마시라 하니이더.{뭘 아무리 못 먹어도 입만 입을 적서도 먹어라고 하, 그래 쪼끔씩 마시라 합니다.} @ 쪼끔, 예.{쪼끔, 예.}

10801 # 또 콩 뽕아가 보름에 먹고.{또 콩 볶아서 보름에 먹고.}

10801 # 이제 부시럼이 나지 마라고, 와삭아 따닥따닥 깨묻는거.{이제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와삭와삭 따닥따닥 깨 먹는거.} @ 아 아, 부시럼, 예, 예.{아, 부스럼, 예, 예.}

10801 # 그래 콩 뽕아 먹고, 아니머 또 해바라기도 까가아 뽕아가 까먹고, 땅콩도 뽕아 까먹고, 모두 그리샅데예.{그래 콩 볶아 먹고, 아니면 또 해바라기도 까서 볶아 가지고 까먹고, 땅콩도 볶아 까먹고, 모두 그리 해 쌓데요.} @ 예.{예.}

10801 # 예.{예.} @ 여기서?{여기서?} # 예, 예.{예, 예.} @ 예예, 예.{예, 예.}

10801 @ 그런 내이깬.{?? ???}

10801 @ 그럼 부름 깨묻는거 잇습니까, 부름 깨무는거.{그럼 부름 깨 먹는 거 잇습니까, 부름 깨무는 거.}

10801 # 부름이 먼 **예.{부름이 뭘 **예.} @ 귀밝애술하고오.{귀밝이술하고.} # 예애.{예예.}

10801 @ 이빨 건강하라고 머 와닥 한 번 씹지 않습니까, 바암, 밤.{이빨 건강하라고 뭘 와닥 한 번 씹지 않습니까, 밤, 밤.} # 모리갯시.{모르겠습.}

10801 # 바암?{밤?} @ 예예.{예.} # 예예, 그그는 모리갯심더어.{예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10801 # 우딘.{우린.} @ 아니, 보름에 저.{아니, 보름에 저.} # 보름에 그저.{보름에 그저.} @ 술, 저, 귀밝개술하고.{술, 저, 귀밝이술하고.} # 귀밝애술 마시고.{귀밝이술

마시고.}

10801 # 콩 뽕아가 그거 먹고.{콩 볶아서 그거 먹고.} @ 아 아, 그 코옹, 콩.{아, 그 콩, 콩.}

10801 # 예예, 저 산에 가모 콩알 조오라꼬 삼 사먹고.{예, 저 산에 가면 콩알 주우라고 삼 사먹고.} @ 밤 대신 콩이다, 예, 예.{밤 대신 콩이다, 예, 예.}

10801 # 그리 하테여.{그리 하테요.}

10801 @ 더우 파는거는요?{더위 파는거는요?} # 예?{예?} @ 더우 팔기.{더위 팔기.}

10801 # 더우 팔기?{더위 팔기?} @ 예.{예.}

10801 # 그이.{그게.} @ 누구야아하 부르멘 답하머는.{누구야 부르멘 답하면.}

10801 @ 아 아.{아.} # 내 더우 다 사가라, 이런거이.{내 더위 다 사가라, 이런 거요.}

10801 @ 안 했습니까?{안했습니까?} # 모리겠어요.{모르겠어요.}

10801 @ 그 답에 조리밥 얻는 거.{그 답에 조리밥 얻는 거.}

10801 # 조오리.{조리.} @ 조리.{조리.} # 예, 조리요, 예.{예, 조리요, 예.} @ 예.{예.}

10801 @ 고 밥 얻으러 땡기고 이런거 없었습니까?{고기 밥 얻으러 다니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 아 아, 그 보름에 체 가지고 밥 얻어가 땡기지요.{아, 그 보름에 체 가지고 밥 얻어서 다니지요.} @ 예.{예.}

10801 @ 체를 가지고.{체를 가지고.} # 보름밥에, 예, 동그란 체.{보름밥에, 예, 동그란 체.} @ 예예.{예예.} # 예, 고거다가.{예, 고기에다가.}

10801 # 할매들이 가주고 저 누구집이 누구집에 각성바지 집에 가가 밥 빌리라 이카테예. {할머니들이 가지고 저 누구집에 누구집에 각성바지 집에 가서 밥 빌려라 이렇게 하테요.}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 # 그거는 조레에아가 안 하고 체로 우리 할, 예, 체로 받, 체로 가지.{그건 조리에 안 하고 체로, 우리 할, 예, 체로 받, 체를 가지.} @ 체로 하군요?{체로 하군요?}

10801 @ 그음 그그 받아가지고 어짬니까?{그럼 그거 받아 가지고 어찌 합니까?} # 바 양간에 가가 먹지요, 바 양간에 가 먹으라 하테요.{방앗간에 가서 먹지요, 방앗간에 가서 먹으라고 하테요.} @ 그것도요?{그것도요?} # 너으끼리 어불라가지고 바 양간에 가 노나먹어.{너희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나눠 먹어.}

10801 # 조센에는 하안국에는 디딜방에 잇잖애요.{조선에는 한국에는 디딜방아 있잖아요.}

10801 # 그으 가가 바 양간에 가 먹으라**.{거기 가서 방앗간에 가서 먹으라**.} @ 여기서도 바 양간에?{여기서도 방앗간에?} # 여그는 그런거 안해애요.{여기는 그런 거 안 해요.} @ 아, 그런거 아, 없고, 예.{아, 그런 거 안, 없고, 예.} # 예.{예.}

10801 @ 머 유웁놀이 널뛰기 이런거는 합니까?{뭐 윷놀이 널뛰기 이런 건 합니까?} # 아, 아, 유웁놀이 너얼뛰기는 저.{아, 아, 윷놀이 널뛰기는 저.} @ 많이 합니까?{많이 합니까?} # 예, 마 이 해여.{예, 많이 해요.}

10801 # 율 율은 여거 마 이 놀아요 보름 한 철. {윷, 윷은 여기 많이 놀아요, 보름 한 철.}

10801 @ 예예.{예.} # 보름 한철에는 예.{보름 한 철에는 예.}

10801 @ 너얼뛰기는요?{널뛰기는요?} # 너얼뛰기는 그땐 춤아 모은 놀고 언자.{널뛰기는 그때는 추워서 못 하고 인제.}

10801 # 민족운동해할 때, 더 뜨실 때 그런건 하 서 잊지 *** 예, 여그는.{민족 체육대회 할 때, 더 따듯할 때 그런 건 할 수 있지 *** 예, 여기는.} @ 아 아, 아, 아, 예, 예, 예.{아, 아, 아, 예, 예, 예.}

10801 # 동삼에 그런거는 근본 머 얼이십지기도 모은해여, 춥아가 얼음 눈이 태산 걸은데, 예.{동삼에 그런 건 근본 뭐 생각하지도 못해요, 추워서 얼음 눈이 태산 같은데, 예.} @ 그 무어 워낙 추워서 그러니까?{그 워 워낙 추워서 그러니까?}

10801 @ 노옹사 지으머는 지불놀이 같은 거는 안 합니까?{농사 지으면 쥐불놀이 같은 건 안 합니까?}

10801 # 뱃집요?{뱃집요?} @ 쥐불놀이.{쥐불놀이.}

10801 # 지뽈놀이, 그거도 안 해요.{쥐불놀이 그것도 안 해요.} @ 그으 논둑에 불 태우는 거영.{그 논둑에 불 태우는 거요.}

10801 # 아 아, 여그는 그그 없어요.{아, 여기는 그그 없어요.} @ 그러 안하믄 깡통에다 불 넣어 가지고.{그리 안 하믄 깡통에다 불 넣어 가지고.}

10801 # 그긔도 안 해요, 예, 그긔도 안 해요.{그긔도 안 해요, 예, 그긔도 안 해요.} @ 빙 빙 돌리는, 아 아.{빙빙 돌리는, 아.}

10801 # 하안국에는 뽈난거 다 하지 않나요.{한국에는 뽈난 것 다 하잖아요.} @ 예예. {예.}

10801 @ 떡국 같은 거는 끓이 먹지요?{떡국 같은 건 끓여 먹지요?} # 예, 떡국 끓인테, 보름날 저녁에 떡국작 끓에 먹으며.{예, 떡국 끓이는데, 보름날 저녁에 떡국 끓여 먹 으면.}

10801 # 나락이삭 굶아진다고 그랴아.{벼이삭 굶어진다고 그래.}

10801 @ 아 아, 나락이삭 때문에?{아, 벼이삭 때문에?} # 예예, 나락이삭 굶아진다고 떡 국 잃인다 하대예.{예, 벼이삭 굶어진다고 떡국 끓인다 하대요.} @ 그으 머어 열어십 니까?{거기 뭐 넣었습니까?}

10801 @ 떡국에?{떡국에?} # 그으 떡국은 그저 소고기 사다 송송 썰어 가지고.{그 떡국은 그저 소고기 사다가 송송 썰어 가지고.}

10801 # 그래암 그 물 끓이다가 그그 언자 떡국 열어가지 끓이가 먹지, 음자 그 담에.{그 래서 그 물 끓이다가 거기 인제 떡국 넣어 가지고 끓여서 먹지, 인제 그 담에.}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 # 뜨 풀 나알 적에는 떠 그릇에 떠놓을라 할 땐, 파 이나 만이나 썰어가져 고리 영 고, 예, 그라므 데여.{풀 날 적에는 떠 그릇에 떠 놓으려고 할 때, 파나 마늘이나 썰 어 가지고 고루 넣고, 예, 그러면 돼요.} @ 줌, 예.{조므 예.}

10801 @ 마안두는요?{만두는요?} # 만두, 만두는 그양 물에 삶아가저고.{만두, 만두는 그 냥 물에 삶아 가지고.}

10801 # 어 어, 한국에는 보 이 국물채로 이린.{어, 한국에는 보니 국물채로 이리.}

10801 # 뚝뚝 깨가 먹더마느, 여그는.{뚝 뚝 잘라서 먹더만, 여기는.} @ 예.{예.}

10801 # 그래 만두느으 안 하고 매앵 지오즈라고 자악게 하지요, 자악게 해가조.{그래 만 두는 안 하고 그 지오즈라고 작게 하지요, 작게 해 가지고.} @ 자악게?{작게?}

10801 # 조례로 건저가저고 먹지.{조리로 건져 가지고 먹지.}

10801 # 예, 조례로.예, 조리로.} @ 만두 속에는 머어 넣습니까?{만두 속에는 뭐 넣습니

까?) # 그으 대지고기하고 시, 여그 신채하고 신채 그 배애차하고.{그 돼지고기하고 시, 여기 셀러리하고 셀러리 그 배추하고.}

10801 # 양과 큰 영.{양과 큰 넣.}

10801 # 양과 그그 예.{양과 그거 예.} @예, 예예, 다마네기.{예, 예예, 다마네기.} # 그 다마네기 그그 다지 여고 판 대판 서리영고 해가.{그 다마네기 그거 다져 넣고 파, 대파 썰어넣고 해서.}

10801 # 한 서너어 가지 고리 양념마 영어가.{한 서너 가지 그렇게 양념만 넣어서.}

10801 # 대지고기하고 신채하고 배애차.{돼지고기하고 셀러리하고 배추.}

10801 # 배애차하고 신채하고느.{배추하고 셀러리하고느.}

10801 # 총 총 설어가 소금밑 살짝 쳐요.{총 총 썰어서 소금을 살짝 쳐요.} @ 예, 예.{예, 예.} # 소금을 살짝 처가조.{소금을 살짝 처 가지고.}

10801 # 고어 요리 디죽거리며, 물이 생기며 인자.{거기 요렇게 뒤적거리면, 물이 생기면 인제.}

10801 # 포오다이 천에다 꼬옥 짜지요, 삼배 천에다 쿡 짜가, 물기 없이 사가.{포대 천에다 꼭 짜지요, 삼배 천에다 꼭 짜서, 물기 없이 짜 가지고.}

10801 # 그 다음에 고기로 기름 기름 술 콩기름 좀 다루다가 달달 뒤아가지고.{그 다음에 고기를 기름, 기름 술, 콩기름 좀 달구어서 달달 뒤어 가지고.}

10801 # 그웁카 아 같이 *** 버물라요.{그것하고 같이 *** 버무려요.}

10801 # 미원도 좀 넣고.{미원도 좀 넣고.} @ 예, 예.{예, 예.}

10801 # 소곰모, 소곰물에 배애차는 죽인기 데가 그으느:자.{소곰물, 소곰물에 배추는 죽인 것이어서 그건 인제.}

10801 # 이래 먹어 보고느 짹으며느 안 영고 쪼끔 싱겁으며 고오도 간을 맞추가.{이래 먹어 보고는 짜면 안 넣고 조금 싱거우면 그것도 간을 맞추어 가지고.}

10801 # 고 추 채엘로 딱 해가지고 해 놔.{그 추 야채로 딱 해 가지고 해 놓음.}

10801 # 그래 해놈 맛있어요.{그렇게 해 놓으면 맛있어요.} @ 맛있지요.{맛있죠.} # 예, 맛있죠.{예, 맛있죠.} @ 그러므 그거 넣은거는 좀 저 됩니까, 만두가 큼니까?{그러면 그것 넣은 건 좀 저 됩니까, 만두가 큼니까?} # 아니요이.{아니요.}

10801 @ 작은데?{작은데?} # 우리이 우린 요거 자악게 해영저.{우리 우린 요거 작게 해 넣죠.}

10801 @ 아 아.{아.} # 예, 그 자악게 해도.{예, 그 작게 해도.}

10801 # 너, 이, 마 하안국에 보 이 커:다끔하게 해 가주어.{너, 이, 뭐 한국에 보니 커다랗게 해 가지고.}

10801 # 그 한 그릇이에 두 개도 영고 세 개도 영가 똑똑 꼬가아 그리 먹으 이 막 크것도.{그 한 그릇에 두 개도 넣고 세 개도 넣어서 똑똑 끓어서 그렇게 먹으니 막 그것도.} @예예.{예예.}

10801 # 양념 물이 버제 나오 이 맛있데예요, 예.{양념 물이 번져 나오니 맛있데요, 예.} @ 예예.{예.}

10801 @ 한식은?{한식은?} # 예?{예?} @ 한식?{한식}

10801 # 한식?{한식?} @ 예.{예.} # 한식이 먼고?{한식이 뭐지?}

10801 @ 저어 절기 중에 한식이라는 거 잊지 않습네.{저 절기 중에 한식이라는 것 있잖습

니까.}

10801 @ 청명, 정명, 곡오, 하안식.{청명, 청명, 곡우, 한식.} # 예, 한식, 청명 머 벼얼 거 청 저얼기가 다 있지오.{예, 한식, 청명, 뭐 별 거 청 절기가 다 있죠.}

10801 # 한식이:.{한식이.}

10801 # 청명 다음에 한식인지이 그근 모리겠심다, 내 노 그슨 농사의 저얼기네.{청명 다음에 한식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 농, 그것은 농사의 절기네.} @ 그 머 따로 하는거느 없:고요?{그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 예, 따로 하는 거느 없어요.{예, 따로 하는 건 없어요.}

10801 # 한식날, 한식날 그 날은.{한식날, 한식날 그 날은.}

10801 # 머어 부지께 이로 까꼴르 서아도, 청명날 한식날은.{뭐 부지깽이를 거꾸로 세워도, 청명날, 한식날은.}

10801 # 머 부지께 이를 까꼴르 서라도 좋다한다고 그저 그리 어른들 마알습 하데에예. {뭐 부지깽이를 거꾸로 세워도 좋아한다고 그저 그리 어른들이 말씀 하시테요.} @ 예, 예, 아 아.{예, 예, 아.}

10801 @ 그러머는.{그러면.}

10801 @ 영등할머니 오신 날 머 그런 거?{영등할머니 오신 날 뭐 그런 거?} # 이이월 영등할, 여그느 그그 없어요.{이월 영등할, 여기는 그거 없어요.} @ 예, 예, 없고요.{예, 예, 없고요.}

10801 # 하안국에느 벌어 하리 영등 초 이이월 초하리라 하머는.{한국에는 벌써 하루, 영등 초, 이월 초하루라 하면.}

10801 # 매앵태하고 미역하고.{명태하고 미역하고.}

10801 # 따악 조고다 주방에다 달아놓멘.{딱 조기다 주방에다 달아 놓으면.}

10801 # 머어 물건 사가오며 그그부터 먼저 달고.{뭐 물건 사 가지고 오면 거기부터 먼저 달고.}

10801 # 그래가 언자 스무날마렌지 느 언자.{그래 가지고 인제 그무날만인지 인제.}

10801 # 오올라간다커든가 머 그때는.{올라간다고 하든가 뭐 그때는.} @ 예, 영등할멈 올라갈 때.{예, 영등할머니 올라갈 때.} # 예, 영등할매 올라갈 따안저는 그그다 띠가주 먹고.{예, 영등할머니 올라갈 때는 그것 다 때 가지고 먹고.}

10801 # 또, 또, 새로할 때, 하안 서너번 할 거라요.{또 또, 새로할 때, 한 서너 번 할 거예요.} @ 예예.{예.} # 그래가 데해가주건 띄 새려다알고 새르 다알고.{그래가지고 또 해 가지고 또 새로 달고 새로 달고.}

10801 # 아이고 하안국에느 벨 거 다해요.{아이고, 한국에는 별 거 다해요.}

10801 @ 저어 줄맹기기 합니까, 여기서?{저 줄다리기 합니까, 여기서.} # 예, 줄맹기, 우 운동 때 줄맹기기 해요.{예, 줄다리기, 운동 때 줄다리기 해요.}

10801 @ 그럼 줄을 새로어 저 짚을 가지고 안 만듭니까?{그럼 줄을 새로 저 짚을 가지고 안 만듭니까?} # 아니라예, 짚울가 아니고.{아니예요, 짚을 가지고 아니고.}

10801 @ 밧줄?{밧줄?} # 저 새마로까지고 이렇기 구웁게 새.{저 삼을 가지고 이렇게 굵게, 새.} @ 어 어, 아, 마, 마아로 가지고.{어, 아, 마, 마를 가지고.} # 예, 예, 새마르.{예, 예, 삼으로.}

10801 # 그리끼네 삼이지오, 삼줄.{그러니까 삼이지요, 삼줄.} @ 삼이지.{삼이지.}

10801 # 전에는 그르 삼줄로까 했는데, 요새는 또.{전에는 그걸 삼줄을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또.}

10801 # 저언수 술로: 걸은 그런 가는 것까지고 한때 줄로 엮아가.{전부 '술로' 같은 그런 가는 것까지고 한 데 줄을 엮어서.}

10801 # 이래 굵게 해요.{이렇게 굵게 해요.} @ 구웁게 해가지고.{굵게 해 가지고.}

10801 # 그래가 줄땡기노 우, 년에 우운동 때도 하고.{그래 가지고 줄다리기는 우, ?에 체육대회 때도 하고.}

10801 # 저어 산에 너어 놀라가야야.{저 산에 ? 놀러 가서.}

10801 # 바닥이 넓은데는 그그서도 또 줄땡기기여이.{바닥이 넓은 데는 거기에서도 또 줄다리기로.} @ 예예.{예.} # 이 소대에 저 소대.{이 소대, 저 소대.} @ 아, 소대별로.{아, 소대별로.} # 갈라, 예, 소대별로 갈라가 줄도 땡기이.{갈라, 예, 소대 별로 갈라서 줄도 당겨.}

10801 @ 그으 소대들이 잇고 계에가 잇고하니까 대항이.{그 소대들이 잇고 계가 있으니까 대항이.}

10801 @ 서로 언제 경쟁하는 그런 운동이 잇겠네요.{서로 언제 경쟁하는 그런 운동이 있겠네요.} # 예, 예, 그래 그래가지 일등 하려는 무진 장.{예, 예, 그래 그래 가지고 일등 하면 무슨 상.}

10801 # 상품도 좀 머 헐찍한 거 사다가 섭섭짜 이 서안게 저 저 상품도 태아주고 그래요.{상품도 좀 뭐 싼 거 사다가 섭섭하지 않게 서안게 저 저 상품도 주고 그래요.} @ 예, 아 아.{예, 아.}

10801 @ 저어 단오를 땡 명절, 예 많이 크게 합니까?{저 단오를 땡 명절, 예 많이 크게 합니까?} # 예예, 차 저 전에 단오 명절:{예, 저 저 전에 단오 명절.}

10801 # 단오명절이: 숙떡 해가주어.{단오 명절에 숙떡 해 가지고.}

10801 # 머어 단오 명절 어어른들 전에 단오가.{뭐 단오 명절 어른들 전에 단오가.}

10801 # 웨에서 단오라하냐머 구려영 죽은 날이라고 그래 기념지킨다는 겐데요.{왜 단오라하냐면 굴원 죽은 날이라고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 겐데요.} @ 예예.{예.}

10801 # 그래가 여어 단오도.{그래서 여기 단오도.}

10801 # 이 다 단오 숙떡은 열심히 해가 지야 잘 지내요.{이 단오 숙떡은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지내요.} @ 그렇구, 예, 예.{그렇구, 예, 예.}

10801 # 머 크게 떠벌리진 았애도.{뭐 크게 떠벌리지는 았아도.}

10801 # 꼭 단오 숙떡은 해 먹어예.{꼭 단오 숙떡은 해 먹어요.}

10801 @ 그때는 근.{그때는 그네.} # 켜뵈 전에 어어릴 때 보머 켜뵈 꿰어다 삶아가주어 머리 감고.{창포 전에 어릴 때 보머 창포 꿰어다 삶아 가지고 머리 감고.} @ 예예, 예, 예.{예, 예, 예.}

10801 @ 그때 그에 저 그네 뛰고 이런 건 안합니까, 단오때.{그때 그 저 그네 뛰고 이런 건 안합니까, 단오 때.}

10801 # 전에는 그래 했어요.{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 예.{예.}

10801 # 저 단오 때 저어 하동 고옹사에서 큰 우운동을 하지요, 고 하동 고옹사 내에서, 그을 때야.{저 단오 때, 저 하동 공사에서 큰 체육대회를 하지요, 그 하동 공사 내에서, 그 때야.}

10801 # 몇 천 명 데지요, 모에놓머 대애단해요, 큰 운동 마당에.{몇 천 명 되지요, 모여
놓으면 대단해요, 큰 운동장에.} @ 크으, 굉장했겠네요.{크, 굉장했겠네요.} # 예, 그
래가 참 머 머.{예, 그래서 참 뭐 뭐.}

10801 # 일등하머 머어 마선도 주고 머어 입성도 주고 다아 장금을.{일등하면 뭐 재봉틀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상품을.}

10801 # 사당을 조어요.{상을 줘요.}

10801 # 나도 군에도 띠어 보고 널도 띠어 보고, 널도 잘 띠고 군에도 잘 띠었던 거라요.
{나도 그네도 띠어 보고 널도 띠어 보고, 널도 잘 띠고 그네도 잘 띠었던 거예요.}
@ 예, 예.{예, 예.}

10801 @ 아 아.{아.}

10801 @ 화전 놀이: 같은 거는 안 합니까?{화전놀이 같은 건 안 합니까?} # 화전 놀이느:
한국에 잊지 여그느 삼월, 삼월 삼즌날에 한국에느.{화전놀이는 한국에 잊지 여기는
삼월, 삼월 삼진날에 한국에는.}

10801 # 크게 놀잖:나요, 오온 동네 사.{그게 농잖아요, 온 동네 사.} @ 예, 예.{예, 예.} #
저 도웅민들이, 그런데 여그느 그그 없어예.{저 동민들이, 그런데 여기는 그거 없어
요.} @ 그거느 없고요?{그건 없고요?}

10801 # 메주우 끓에나앗다가 따악 말라나앗다가 삼월 삼즌날 나알세 좋다고 글때 다 자
양 마 이 답십니다, 예.{메주 끓여 왔다가 딱 말려 왔다가 삼월 삼진날에 날씨 좋다
고 그때 장 많이 답급니다, 예.} @ 그래, 그렇죠, 예예,{그래, 그렇죠, 예.} # 자양 마
이 답아예.{장 많이 답아요.}

10801 @ 그으 초파일?{그 초파일일?} # 파, 저게 사월 초파일날 한국에느 절에 가니까.
{파, 저기 사월 초파일날 한국에는 절에 가니까.} @ 사오, 예.{사월, 예.} # 초파일도
기념을 잘 지내조.{초파일도 기념하며 잘 지내죠.} @ 예.{예.} # 여그느 그그 모올라
요.{여기는 그거 몰라요.}

10801 # 중국 사람들이: 저어 산 넘에 절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지키예.{중국 사람들이
저 산 너머에 절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지켜요.} @ 절이 있습니까?{절이 있습니
까?} # 예, 지끼요.{예, 지켜요.}

10801 @ 한국 사람들 그쪽 절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까?{한국 사람들 그 쪽 절에 가는 사
람 별로 없습니까?} # 와 이 더이 잇 더이 조선 사암도 절에 가는 사람 이잇어예.{와
이 더러 있, 거기 조선 사람도 절에 가는 사람 있어요.} @ 예예.{예.} # 절당에.{절
당에.}

10801 # 저어 산 넘에 절이 몇 군데 잇이니까 절따 아 가는, 절.{저 산 너머에 절이 몇
군데 있으니까 절당에 가는, 절.} @ 예, 예.{예, 예.}

10801 # 절 저어 부어 불교 지키는 사람은 절당에 가고.{절, 저 불, 불교 믿는 사람은 절당
에 가고.} @ 그이치, 가고.{그렇지, 가고.} # 예, 안 가는 사람은 교 믿고 이런 사람
은 그운데 안 가고 그래예.{예, 안 가는 사람은 교 믿고 이런 사람은 그런 데 안 가
고 그래요.}

10801 @ 여기도 씨름 대해 같은 건 있습니까?{여기도 씨름 대회 같은 건 있습니까?} #
시름도 우언팅 때느 시름도 해요.{씨름도 체육대회 때는 씨름도 해요.}

10801 @ 예, 예, 오 아까 모오든게 이제 운동 때에 다아 하**.{예, 예, 오 아까 모든게 이

제 체육대회 때 다 하**.) # 예, 막 소, 참말로 소르 내걸어 놓고 일등은 소네, 머 큰 소는 모은 그속해도.{예, 막, 소, 참말로 소를 내걸어 놓고 일등은 소네, 뭐 큰 소는 못 거식해도.}

10801 # 총, 황소새끼이 송아지르 갖다 놓고 자 이 그래 다 자양금 받아요, 요 우리.{송, 황소 새끼, 송아지를 갖다놓고 상이 그래 다 상 받아요, 요기 우리.}

10801 # 우리 네째 메늘:{우리 넷째 며느리.}

10801 # 기이버 텐 이가 시름 자알 하지요, 그래거이.{계부 되는 이가 씨름 잘 하지요, 그래 가지고.}

10801 # 화양소 사아가 글때느 이름 납니다.{황소 타면 그때는 이름 납니다.}

10801 # 아, 요기 여기는 참.{아, 요기, 여기는 참.}

10801 @ 조선족이 많으니까 대회를 크으게 하겠습니까.{조선족이 많으니까 대회를 크게 하겠습니까.} 예에, 예, 여어 여, 상지현에는 그 민족대회가 따로 잇잖나요.{예,예, 여 기 여, 상지현에는 그 민족대회가 따로 잇잖아요.} @ 민족대회?{민족대회?} # 민테 우운동 대회가 따리 이잇어예.{민족 운동 대회가 따로 있어요.}

10801 # 소서민족우운동대헤라고 여기 사안지운 여그서 하마 한 일주일씩 해요.{소수민족 운동대회라고 여기 ???? 여기에서 하면 한 일주일씩 해요.} @ 그거 팔월에 안 합니까?{그거 팔월에 안 합니까?} # 아니요, 그러 이께네 구월.{아니요, 그러니까 구월.}

10801 # 팔월 그믐젠가 구월 초승에 양력 구월 초승에 주로 마 이 해요, 예.{팔월 그믐께 인가 구월 초순에, 양력 구월 초순에 주로 많이 해요.} @ 아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0801 @ 여어 저어쪽에 저어 중국.{여 저쪽에 저 중국.}

10801 @ 사막.{사막.} # 예에, 예.{예, 예.} @ 그쪽 가니까 거기서 하는데.{그쪽 가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10801 # 아 아.{아.} @ 그때가 팔월:, 아 아 그때 팔월말.{그때가 팔월, 아, 그때 팔월 말.}

10801 # 예, 팔월 말이나 구월 초나 그리 하메는.{예, 팔월 말이나 구월 초나 그렇게 하면.} @ * *** ***.{* *** ***.}

10801 # 그얼, 거랑물은 떨어체도.{걸, 도랑물은 떨어져도.}

10801 # 좀 선서언할 때가 좋아요.{좀 선선할 때가 좋아요.} @ 그렇네예.{그렇네요.} # 예, 그래가 민족대에 크게 해애요.{예, 그래 가지고 민족대회 크게 해요.} @ 아 아, 그래서 그랫구나.{아, 그래서 그랫구나.}

10801 # 전에는 그 우운동을 중시 마 이 해앤데, 인자 학생들이 자아꾸 주니이까 운동도 크게 모은해예.{전에는 그 체육대회를 많이 중요시했는데, 인제 학생들이 자꾸 주니까 체육대회도 크게 못해요.} @ **, ***, 예, 예.{**, ***, 예, 예.}

10801 @ 추석은 상당히 그 큰 명절로 셉니까?{추석은 상당히 그 큰 명절로 셉니까?} # 예, 여그느: 하연격 걸인 안 지내도오 추석은 그대로 또.{예, 야기는 한국 같이는 안 지내도 추석은 그대로 또.}

10801 # 마 참 머 장 바다가 식구끼리 따시받게 해 묵고 지내요, 예, 예.{뭐 참 뭐 장봐다가 식구끼리 따뜻하게 해 먹고 지내요, 예, 예.} @ 예, 예.{예, 예.}

10801 # 우리 하안국에야 추석이 대에명절 아이나요.{우리 한국에야 추석이 대 명절 아닌

가요.}

10801 @ 그렇지요, 서얼, 추석이 크으지여.{그렇지요, 설, 추석이 크지요.} # 예, 예, 처얼, 수석이 대에 대명절 아이나요.{예, 예, 설, 추석이 대, 대 명절 아닌가요.}

10801 @ 동지때.{동지 때.} # 예.{예.}

10801 # 동지때는 팔끼 삶아가 다아 도옹지 파안진만, 예.{동지때는 팔 삶아서 다 동지 ???, 예.} @ 팔끼 삶악 하시오.{팔 삶아 하죠.}

10801 # 팔 삶아가지고 팔물이.{팔 삶아 가지고 팔물이.}

10801 # 어 저 간분이 좀 이래 떠 가지고.{어, 저, ??? 좀 이렇게 떠 가지고.}

10801 # 동지 팔죽 끓이면서 언자 저어 백알에 산 니기에다가 한 소가아스 뿌레놓잖나요. {동지 팔죽 끓이면서 인제 저 벽 앞쪽에 산 네 귀에다가 한 숟가락씩 뿌려 놓잖나요.} @ 아 아.{아.} # 예엔날버터.{옛날부터.} @ 그애 그거는 계속합니까?{그래 그 건 계속합니까?} # 예, 예, 그래 하디 이여.{예, 예, 그렇게 하데요.} @ 예.{예.}

10801 @ 그 쪽에 머어 넣십니까, 그 집.{그 속에 뭐 넣십니까, 그 집.}

10801 # 그으느.{거기는.} @ 팔, 팔죽을.{팔, 팔죽을.} # 찹, 찹쌀 수지비 영잖나요.{찹, 찹쌀 수제비 넣잖나요.} @ 예예.{예.}

10801 # 찹쌀 수지비밖으 안 영어요.{찹쌀 수제비밖에 안 넣어요.} @ 팔죽 쑹는 거는 어떤 식으로 쑹니까?{팔죽 쑹는 건 어떤 식으로 쑹니까?} # 팔, 팔꺼느.{팔, 팔은.}

10801 # 머어 저 식구가 열매 데머는 너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 우무 이, 우라:번님 게 실 때느.{뭐 저 식구가 얼마 되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게실 때느.}

10801 # 막 이런 큰 술에다 끓에가 이런.{막 이런 큰 술에다 끓여서 이런.}

10801 # 번 따아편에다가 한 편숙 바너고, 우라:무 이는 자아꾸 그르 식은죽을 좋아해요, 팔죽으로.{? ???에다가 한 ?? ???, 우리 어머님은 자꾸 그렇게 식은 죽을 좋아했어요, 팔죽을.} @ 큰 술 하죠?{큰 술에다 하죠?}

10801 # 그러 이까 조 시장한 낮에도 떠 잡숫고, 저녁에도 떠 잡숫고 그랜데.{그러니까 * 시장한 낮에도 떠 잡수시고, 저녁에도 떠 잡수시고 그랬는데.}

10801 # 내 어머 이아부 나느 그으 팔끼 음식을 무어 속이 안 좋아요, 막 생먹이 가리고.{내 어머님?? 나느 그 팔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막 생목이 올라오고.} @ 팔끼 음식 먹으면 피를 맑게 해준다는데.{팔 음식 먹으면 피를 맑게 해준다는데.} # 예, 그랜데 마악.{예, 그랜데 막.}

10801 # 속이 스리요, 마 속이 스 막 속이 생먹이 가라아마.{속이 쓰려요, 뭐 속이 쓰 막 속이 생목이 올라와서.} @ 안 맞네요, 아 아, 그암.{안 맞네요, 아, 그럼.}

10801 # 어무 이, 아번님 세상 뜨고느 팔끼주원.{어머님, 아버님 세상 뜨고는 팔죽은.}

10801 # 팔죽은 안 끓이바앗는데, 그 답에 아아들이 어떤 때느 먹고자다 끓이다개논.{팔죽은 안 끓여 봤는데, 그 답에 아이들이 어떤 때는 먹고 싶다고 끓???}

10801 # 그 쪼매끈 끓여가지구 이 여리는 안 먹지어, 한 도어 때나 한 때는 먹으며 마.{그 조금씩 끓여 가지고 이 여러 번으 안 먹지, 한 두어 때나 한 때나 먹으면 뭐.}

10801 # 쪼끔 끓이가주.{조금 끓여 가지고.} @ 예.{예.} # 그래 팔끼부.{그래 팔을.}

10801 # 팔끼러 걸러 언자 체에다 걸라가지고 꺾떼기는 빨아뿌고 여러 불.{팔을 걸러 인제 체에다 걸러 가지고 꺾떼기는 빨아버리고 여러 번.}

10801 # 빨아가 물, 물도 해당하게 부아가주고.{빨아서 물, 물도 적당하게 부어 가지고.}

10801 # 매에 버글버글버글 짝끼 물로 끓이다가.{매 버글버글버글 팔물을 끓이다가.}

10801 # 고 담에 살로 섞아놔다가 열어가주.{그 담에 쌀을 씻어놔다가 넣어 가지고.}

10801 # 살이 쫄 익을라 하며는.{쌀이 쫄 익으려고 하면.}

10801 # 거진 익으면:자.{거의 익으면 인제.}

10801 # 또 저 수지비 여얼개치.{또 저 수제비 ???} @ 예, 예.{예, 예.} # 수지비 열어가 또 한참 저엇다가 언자 다 익으메는 수지이가 동동 뜨거 익으며는.{수제비 넣어서 또 한참 젓다가 인제 다 익으면 수제비가 동동 뜨도록 익으면.}

10801 # 인자 조금 조금 열어가 간 맞차가 그래 머 그래 먹으면 데에여.{인제 조금 조금 넣어서 간 맞추어 가지고 그래 뭐 그래 먹으면 돼요.} @ 아 아, 그렇군너, 우선 그.아, 그렇군요, 우선 그. # 예, 예.{예, 예.}

10801 @ 짝끼를 삶아가지고.{팔을 삶아 가지고.} # 예, 삶아가지고 물이 물이 처분:하게 삶아가지고.{예, 삶아 가지고 물이 물이 처분하게 삶아 가지고.} @ 이것.{이것.}

10801 # 막 문대가주어 걸러요, 체에다가.{막 문대 가지고 걸러요, 체에다가.} @ 문대?{문대?}

10801 @ 그래서 껌찔을 건어내고?{그래서 껌질을 건어내고?} # 예, 껌떼기는 버려빠리고.{예, 껌떼기는 버려 버리고.}

10801 @ 그 다음에, 이제 스.{그 다음에, 이제 스.} # 고쿠 고 담에 언자 물이 물이 해당하게 부우가지고.{그렇고, 그 담에 인제 물을 물을 적당하게 부어 가지고.}

10801 # 끓ियो.{끓여요.} @ 끓일 때.{끓일 때.} # 예, 팔물 그거를 끓이다가.{예, 팔물 그걸 끓이다가.}

10801 # 매에 끓이다가 고 잠에 살로 섞어나았다가 쪼끔마 이.{매 끓이다가 그 담에 살을 씻어놔다가 조금만.}

10801 # 살 좋아하는 사람은 살을 머, 팔죽에 살 마 이 들어놓머 맛 없어요.{쌀 좋아하는 사람은 쌀을 뭐, 팔죽에 쌀 많이 들어 놓으면 맛없어요.} @ 예예, 예.{예, 예.}

10801 # 팍글, 팍글 마 이 영고, 수지비 마 이 영지요.{팔을, 팔을 많이 넣고, 수제비 많이 넣지요.} @ 예.{예.}

10801 @ 그레이션.{????} # 고래가주 끓이놓머.{그래 가지고 끓여 놓으면.}

10801 # 치 맛있심디, 그래 사른 사람 죽 끓이놓머 우리 어무 이 끓인 거 걸잖애요.{맛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죽 끓여 놓으면 우리 어머님 끓인 것과 같지 않아요.}

10801 @ 아 아.{아.} # 팔죽도 잘 쫄이야 맛있지, 하안국에.{팔죽도 잘 끓여야 맛있지, 한국에.} @ 예, 예.{예, 예.}

10801 # 구 저 구려시장에 땡기보며 뜨끈뜨끈하 이 끓여가주어 머엇지게 끓에가 팔잖나요.{그 저 구로시장에 다녀 보면 뜨끈뜨끈하게 끓여 가지고 멋지게 끓여서 팔잖나요.}

10801 @ 그 저 수제비를 새알심이라고도 합니까?{그 저 수제비를 새알심이라고도 합니까?} # 새알이라 하기도 하고 수지비아 찰수지비라 하고 그압니더예.{새알이라 하기도 하고 수제비라 찰수제비라 하고 그러니다.} @ 새알.{새알.}

10801 @ 그느 찰, 저 찰쌀가지고.{그건 찰, 저 찰쌀 가지고.} # 고고느 순전히 찰쌀가리로 해가.{그건 순전히 찰쌀가루로 해 가지고.}

10801 # 구웁게 하며 먹기가 힘들고, 요 저 잔자안하게 요래.{굵게 하면 먹기가 힘들고, 요 저 자잘하게 요래.} @ 예.{예.}

10801 # 반죽을 데직하게 해가 해 놓머.{반죽을 되직하게 해서 해 놓으면.}

10801 # 맛있어예.{맛있어요.} @ 맛있지요, 쫄득쫄득하게.{맛있죠, 쫄득쫄득하고.} # 예, 맛있어예.{예, 맛있어요.}

10801 @ 음.{음.} # 우리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애 머 한국 하는 식대로는 다 해가 먹었 십이더.{우리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래 뭐 한국 하는 식대로는 다 해서 먹었습니 다.} @ 아 아.{아.}

10801 @ 그 저 팔죽 이 뿌리는 것은 시간이 언 언제 합니까?{그 저 팔죽 이 뿌리는 건 어 느 시간에 합니까?}

10801 # 고고도 언자 고 어저 잘 저 동짓달에는 보머 땃 시 땃 그라고 달력에 다 잇잖나 요.{고것도 인제 그 인제 저 동짓달에는 보면 몇 시 몇 거라고 달력에 다 잇잖아요.} @ 그런게 잇지요, 예.{그런 게 잇지요, 예.}

10801 # 고 시간에 딱 끓이가주 고고 시간에 가가주 고 시간 데면.{그 시간에 딱 끓여 가 지고 그거 시간에 가 가지고 그 시간 되면.} @ 예, 아 아.{예, 아.}

10801 # 열한 시머 열한 시 밤, 밤에머 밤에, 고 시간에 구부숙꺼지 고.{열한 시면 열한 시, 밤에면 밤에 , 그 시간에 ???? 그.}

10801 # 시간 데기 전에 끓이 먹고 고곤 따로 떠놓지요, 머인테.{시간 되기 전에 끓여 먹 고 그건 따로 떠놓지요, 먼저.}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 # 그래가 뿌리테예.{그래 가지고 뿌리테요.} @ 어디 어디다가 뿌린다 그랫습니까? {어디, 어디다가 뿌린다고 그랫습니까?} # 요어.{요기.}

10801 # 네에 기때기에 돌아가미.{네 귀통이에 돌아가며.} @ 기탱이 밋에, 위에?{귀통이 밑에, 위에?}

10801 @ 어디다가예?{어디다가요?} # 그저 백 앞, 백 앞 끝에다 약간스 약간스 뿌리나요, 그그 머.{그저 벽 앞, 벽 앞 곳에다 약간씩 약간씩 뿌려봐요, 그거 뭐.} @ 예에.{예.}

10801 # 그 머 무슨 바안지한다고 그런다으는 걸테여.{그 뭐 무슨 방지한다고 그런다느 것 같데요.} @ 예에.{예.}

10801 @ 머아, 그 저 기신 막는 건가요?{뭐, 그 저 귀신 막는 건가요?} # 예예, 그렇지 어.{예, 예, 그렇지요.}

10801 # 그코어, 새집을 지이도 우리 어무 이 보 이 새집 짓는데느.{그렇고, 새집을 지어 도 우리 어머님 보니 새집 짓는데느.}

10801 # 네 기때기에 주춧돌 놓일 짝에, 주춧돌 놓기 전에 네 기때기에다가.{네 귀통이에 주춧돌 놓을 적에, 주춧돌 놓기 전에 네 귀통이에다가.} @ 예에, 예, 예.{예, 예, 예.}

10801 # 팍끼하고 메물하고.{팔하고 메밀하고.}

10801 # 소곰하고 약쭈하고.{소곰하고 약쭈하고.}

10801 # 스, 무세하고 다섯 가지로.{쇠, 무쇠하고 다섯 가지로.}

10801 @ 무슨 세요?{무슨 세요?} # 무세, 무세 저, 췌.{무쇠, 무쇠 저, 쇠.} @ 췌, 췌, 예, 예.{쇠, 쇠, 예, 예.} # 요거로 삼각으로 요래 따악 낱아가저고.{요걸 삼각으로 요래 딱 낱아 가지고.}

10801 # 웬 세는 밑에 삼각을 주춧돌 밑에다 고래 놓고.{먼저 쇠는 밑에 삼각을 주춧돌 밑

에다 그렇게 놓고.}

10801 # 인자 숙 놓고 저게 소곰 저게 팍끼 메물.{인제 쑥 놓고 저기 소곰 저기 팔, 메밀.}

10801 # 제 고론거 놓고 인자.{전부 그런 거 놓고, 인제.}

10801 # 요거 보고 * 놓고 언자 고 답에느.{요거 보고 * 놓고 인제 그 답에느.}

10801 # 약, 소곰 놓고 약쑥, 약쑥은 웬 꼭때 이 놓고 고오다 불 췌데요, 그래.{약, 소곰 놓고 약쑥, 약쑥은 가장 꼭대기에 놓고 거기에다 불 붙이데요, 그래.}

10801 # 고고 언자 지신 놀린다고.{그거 인제 지신 누른다고.} @ 예, 예, 예.{예, 예, 예.}
그애 건:자 치코 고래 고그.{그래 그 인제 ?? 그래 그.}

10801 # 집 지일 때 그래 지신을 놀레 놓며느.{집 지을 때 그렇게 지신을 놀리 놓으면.}

10801 # 무사하게 지낸다고.{무사하게 지낸다고.} @ 예.{예.}

10801 # 그 언자 그래 놓미서느 웨엔발로.{그 인제 그렇게 놓으면서 윈발로.}

10801 # 저어 터전 지신 놀리자.{저 터전 지신 누르자.} @ 예.{예.}

10801 # 오, 저 조양지신 놀리자.{오, 저 조왕지신 누르자.} @ 요렇게, 자꾸.{요렇게, 자꾸.} # 오오방지신 놀리자 이리미, 세 부운숙 밝이미서.{오방지신 누르자 이러며, 세 번씩 밝으면서.} @ 이, 요렇게 떼고.{이, 요렇게 떼고.} # 고래가 딱 묻아놓으면.{고렇게 해서 딱 묻어 놓으면.}

10801 @ 예.{예.} # 주춧돌 딱, 이리 덮아놓며 주춧돌 따 딱 놀레가 지동 기동 세우지 않나요.{주춧돌 딱, 이렇게 덮어 놓으면 주춧돌 딱 딱 놀러 가지고 기동 기동 세우잖아요.} @ 예, 예.{예, 예.} # 그래놓며 그리 좋다고.{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좋다고.}

10801 # 타아 우리느 집만 지머 그래해애티 이.{다 우리는 집만 지으면 그렇게 했더니.}

10801 # 아 아 그거리 벨일이라고 너그느 집 지일 때 머하노캐살아, 그래 베저놓며 그었다 이.{아, 그걸 벨일이라고 너희는 집 지을 때 뭐하나라고 해쌍아, 그래 보여줘 놓으면 그것도.} @아 아.{아.}

10801 # 저그가 그리 지질이 내나요, 모은 하니이더.{자기들이 그렇게 지컬여 낼 수 있나요, 못 합니다.}

10801 # 나 모른다 커니 이더.{나 모른다고 합니다.} @ 예예.{예.}

10801 # 나, 우리:무 이.{나, 우리 어머님.} @ 아, 그러고 난 뒤에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놓고?{아, 그러고 난 뒤에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놓고?} # 예, 주춧돌 놓고 기딩 세우지요.{예, 주춧돌 놓고 기딩 세우지요.} @ 예, 예.{예, 예.}

10801 # 그내 그래 놓마: 집에 무슨 우환도 없고 잘 지낸다 이카테여.{그래 그렇게 해 놓으면 집에 무슨 우환도 없고 잘 지낸다 이렇게 말하데요.} @ 그으 집에에?{그 집에?}

10801 @ 그 나무 가지나 나무 꺾질 같은 거 어디인가 안 넣습니까?{그 나무 가지나 나무 꺾질 같은 것 어디인가 안 넣습니까?}

10801 # 아니요, 그은 모르겠어예.{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10801 @ 백양나무가 그.{백양나무인가, 그.}

10801 # 예, 그으느 모르겠어여, 우리느 우리 우무 이 하는 대로.{예,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어머님 하는 대로.} @ 아하.{아하.}

10801 # 우리가 우리가 한문 집을 새집을 지미이.{우리가 우리가 한 번 새집을 지으며.}

10801 # 어무 이가 저어 점하는 우리 디잇동네 할매잘에 가가 물으니까.{어머님이 저 점

하는 우리 뒷동네 할머니한테 가서 물으니까.}

10801 # 그래하라 커더라고, 언자 그래 배아가 나도 그래 배아가.{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인제 그렇게 배워서 나도 그렇게 배워서.}

10801 @ 예, 예.{예, 예.} # 그저 신마지이며 그저 안가태평하라고 나너 그래 해요.{그저 ?? 지으면 그저 안가태평하라고 나는 그렇게 해요.} @ 그래 합니까, 예, 예.{그렇게 합니까, 예, 예.}

10801 @ 애기동지때에는 팔죽 안 끼?{아기동지 때에는 팔죽 안 꼬?} # 애기동지때는 애기동지라고 다 안 끓이먹고.{아기동지 때는 아기동지라고 다 안 끓여먹고.} @ 팔죽 안, 팍.{팔죽 안, 팔.} # 떡 하는 사람은 떡마 끓이먹고 머 팍끼밥 해먹고 그러데예, {떡 하는 사람은 떡만 해서 먹고 뭐 팔밥 해 먹고 그러데요.}

10801 @ 팍끼밥을 해 묵는데, 팔죽이라 급니까, 팍끼죽이라 그러니까?{팔밥을 해 먹는데, 팔죽이라 그러니까, 팍끼죽이라 그러니까?}

10801 # 그저 팍, 팍끼밥 그냥 해 먹지요, 머.{그저 팔, 팍끼밥 그냥 해 먹지요, 뭐.} @ 아 니, 죽, 죽은?{아니, 죽, 죽은?}

10801 # 아, 죽은 팔죽이라 하고.{아, 죽은 팔죽이라 하고.} @ 아 아, 죽은 팔죽이라 하고.{아, 죽은 팔죽이라 하고.} # 예, 죽은 팔찌울기하고.{예, 죽은 팔죽이라 하고.}

10801 @ 밥은 팍끼밥이라 하고?{밥은 팍끼밥이라 하고?} # 예, 팍끼밥이라 하고.{예, 팍끼밥이라 하고.}

10801 @ 아 아.{아.}

1.3.3. 전통 놀이

10802 @ 여기 연날리기 합니까?{여기 연날리기 합니까?} # 예?{예?} @ 연.{연.}

10802 # 연요, 여스, 우리 아아들 키울 때는 연도 더러 했어요.{연요, 연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연도 더러 했어요.} @ 예.{예.}

10802 # 그더마는 중국 사람 저래, 새애도 맨들고 해가 중국 사람이.{그러더니만 중국 사람 저래, 새도 만들고 해서 중국 사람이.} @ 중국 연날리기 참 아주 잘하던데, 예 애.{중국 연날라기 참 아주 잘하던데, 예.} # 예, 연 날리요, 예, 연 날리요, 예.{예, 연 날려요, 예, 연 날려요, 예.}

10802 # 오온갓 새애고 머고 기러가지고 그래 띠아살데여, 중국 사안들은 그거 해해요.{온 갓 새고 뭐고 그러 가지고 그렇게 띄워 쌓테요, 중국 사람들은 그거 해요.} @ 예예.{예.}

10802 @ 지심밧기 이런 거 합니까?{지심밧기 이런 거 합니까?}

10802 # 그그도 전에는 했어요.{그거도 전에는 했어요.}

10802 # 우리 어른들 게실 때는 누가 집짓고 하마 한 추 한.{우리 어른들 게실 때는 누가 집 지소 하면 한.}

10802 # 이이 집들이 한다고.{이 집들이 한다고.}

10802 @ 예.{예.} # 그래가 머 먹고, 어화신지신아 지신지신 바왓자고 마악 누울집 띠미 이.{그래 가지고 뭐 먹고, 어화신지신아 지신지신 밧자고 막 ?? 뛰며.} @ 예, 예.{예, 예.}

10802 # 춤추고 놀아요.{춤추고 놀아요.} @ 예, 예.{예, 예.} # 예, 그래 해엇어요, 전에는

그래 해었어요.{예,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10802 @ 아, 요즘 이제 그게.{아, 요즘 이제 그게.} # 그그도 인자 개명테가 안 해요, 예.
{그거도 인제 개명한 세상이라 안 해요.} @ 마힙니다, 예.{힙니다, 예.} # 개명
테가 안 해요.{개명한 세상이라 안 해요.}

10802 @ 그으 농사 지잇고 이제 일 다하고 저어.{그 농사 짓고 이제 일 다하고 저.}

10802 @ 짐 다 매고 난 뒤에.{짐 다 매고 난 뒤에.} # 예.{예.}

10802 @ 그 답 언제 거두어 들이고 난 뒤에.{그 답 인제 거두어 들이고 난 뒤에.}

10802 @ 호미씨잇기 머 이런 거 하, 합니까?{호미 씨이 뭐 이런 거 합니까?}

10802 # 콩요?{콩요?} @ 호미.{호미.} # 호미?{호미?} @ 호미씨이.{호미씨이.}

10802 @ 이제 농사일 다 하고.{이제 농사일 다 하고.} # 예, 호미 쉬는다꼬요?{호미 썰는
다꼬요?} @ 예, 한 번 저 다: 이제 쟁기.{예, 한 번 저 다 이제 쟁기.}

10802 @ 그 그만 농기구 다 넣고 하루 노는게 안 잇십니까?{그 그만 농기구 다 넣고 하루
노는 게 안 잇십니까?} # 아, 글때사 농사 다 하고는.{아, 그때야 농사 다 하고는.}

10802 # 이 저 서어레도 농사 다하며 삭 쉬아가주 달아 매 놓지요.{이 저 씨레도 농사 다
하면 썩 썰어 가지고 달아 매 놓지요.} @ 예, 예.{예, 예.}

10802 # 호미도 우리는 밭 매고느, 호미 안 쉬고 어떤 집에는 흙이 떠도가 붙아** 녹이 나
서 안 데요.{호미도 우리는 밭 매고느, 호미 안 썰고 어떤 집에는 흙이 ??? ??? 녹이
슬어서 안 데요.} @ 그렇지요?{그렇쥬?}

10802 # 우리 바알 매머느 착 도랑에 가 깨애틀이 쉬나놓어.{우리 밭 매면 착 도랑에 가서
깨끗이 썰어놓아.}

10802 # 밥 순가락처럼 반들반들하잖나요.{밥 순가락처럼 반들반들하잖아요.} @ 예, 예,
예.{예, 예, 예.}

10802 @ 예.{예.} # 연장은 시모 다 그리 쉬아다라요.{연장은 쓰면 다 그리 썰어 다루어
요.}

10802 @ 그으 농사 다 끝나고 인제.{그 농사 다 끝나고 인제.}

10802 @ 하루종:일 머 재미잇게 놀고 이런 거 없습니까?{하루종일 뭐 재미잇게 놀고 이런
거 없습니까?} # 예, 그런건 어엿힙니다, 예, 그런건 어엿어예.{예, 그런 건 없힙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 예, 예.{예, 예.}

10802 @ 여기도 그그 잇엇습니까?{여기도 그거 잇엇습니까?}

10802 @ 저어, 풍악, 통물.{저, 풍악, 풍물.}

10802 # 어엿어, 저 여 도옥보조에는 그리.{엿어, 저 여 독보조에는 그리.}

10802 # 놀, 무옥고 노 온데 뛰디리고 노는 풍각 그그지 머 북이고.{놀, 먹고 노는데 두드
리고 노는 풍악 그거지 뭐, 북이고.} @ 저어.{저.}

10802 @ 이거 돌리고, 돌리고.{이거 돌리고, 돌리고.} # 생미 돌리고: 북도 치고 저영거
덩장구데 족보조에는 잇아도:.{상모 돌리고 북도 치고 저런 거 장구도 독보조에는 잇
어도.} @ 예, 예.{예, 예.}

10802 @ 아 아.{아.} # 촌에는 엿어예.{촌에는 엿어요.}

10802 # 예, 촌에는 엿어, 시골에는 엿어예.{예, 촌에는 엿어, 시골에는 엿어요.}

10802 @ 저 머야, 일계에서 십이계까지 잇으며는 크으지 않습니까?{저 뭐야, 일 계에서
십이 계까지 잇으면 크잖습니까?} # 예예.{예.}

10802 # 이십계꺼정 동, 동네가 많지여.{이십 계까지 동, 동네가 많지요.} @ 아, 이십계까지 있어요, 예.{아, 이십 계까지 있어요, 예.}

10802 # 예, 동, 하안개 대대가 텔 뎌, 대대가 대대느.{예, 동, 한 개 대대가 될 때는, 대대가 대대느.}

10802 # 일, 여어, 여구 여거 여 첫번버떠 이일계, 이이계, 사암계, 사계.{일, 여기, 여기여 기 여 첫 번부터 일계, 이계, 삼계, 사계.}

10802 # 쪼옥 내려가미 마을이 드갓다가 나갓다가 그리해도.{쪼 내려가며 마을이 들어갔다 가 나갓다가 그리 해도.}

10802 # 이십 계꺼정 있어요, 도옹네가 크지요, 글때느.{이십 계까지 있어요, 동네가 크지요, 그때느.} @ 그을 머 풍악놀이 같은 거 안 했어요?{그 뭐 풍악놀이 같은 거 안 했어요?}

10802 # 오, 마 이 했지요, 전에는, 했는데, 인지느 그그도 안 해요, 예.{오, 많이 했지요, 전에는, 했는데, 인제는 그것도 안 해요, 예.} @ 예.{예.}

10802 # 그애도 하안국에는 전:통을 안 잇일라고.{그래도 한국에는 전통을 안 잇으려고.}

10802 # 계:속 아, 어른 아아들잘에도 그런거르 자꾸 보이지 않나요, 여그느 그런거 안 해요.{계속 아, 아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자꾸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거 안 해요.} @ 새르 인제 배워주고, 예.{새로 인제 가르쳐주고, 예.}

10802 @ 자꾸: 저 머야.{자꾸 저 뭐야.}

10802 # 예, 예.{예, 예.} @ 나가고 이러니까 그렇지요?{나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 예, 예, 맞아요.{예, 예, 맞아요.}

10802 @ 아, 여기는 그거 뎡니까?{아, 여기는 그거 뎡니까?}

10802 @ 애들 노 놀이하는 거.{애들 놀이하는 거.}

10802 @ 머 돌차기 하고 이런 거.{뭐 돌차기 하고 이런 거.}

10802 @ 없었습니까?{없었습니까?} # 학 학교느 해요.{학 학교는 해요.} @ 학교에서?{학교에서?} # 예, 학교서느 해애.{예, 학교에서는 해요.} @ 예, 그이 줌.{예, 그게 줌.}

10802 @ 모르시겠구나, 예.{모르시겠구나, 예.} # 예.{예.}

10802 @ 손자 손녀들:자 어릴 때애.{손자 손녀들 인제 어릴 때애.} # 예.{예.}

10802 # 도옹네 노올미 요래 머 차개돌 해가주 그래도 해긴 했는데 시방 아아들은 그런구도 안 해요, 막.{동네에 놀며 오래 뭐 '차개돌'을 해 가지고 그렇게도 하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안 해요.} @ 예, 예, 예, 요거?{예, 예, 예, 요건?}

10802 @ 둘 다섯개 가지고 요 하는거*, 그근 머라 그럽니까?{둘 다섯 개 가지고 요 하는 거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 예, 예, 예, 예 맞아예, 오자미라 하잖나요, 요 요 고거다 콩 넣어 가지고 노오는 오자미도 하고.{예, 예, 예, 예 맞아요, 오자미라고 하잖나요, 요 요 거기예다 콩 넣어 가지고 노는 오자미도 하고.} @ 오자미 말고.{오자미 말고.} # 예.{예.}

10802 @ 저어.{저.} # 요, 도옹그란테다가, 요, 예.{요, 동그란 데다가, 요, 예.} @ 둘, 도올 다섯 개 놓고 하나씩 하나씩 했다가 또 두 개씩 했다가 이런 거.

10802 @ 없애가저고 요렇게.{없어 가지고 요렇게.} # 아 아, 그건 사개 받는 거.{아, 그건 공기받기.}

10802 @ 예.{예.} # 그거 우리 예.{그거 우리 어.} @ 머라 그래뇨?{뭐라 그래요?} # 사갓

둘 노오는거, 그거 우리 에에릴 때 그런 거 마 이 놀았심디.{공깃돌 노는 거거, 그거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 아 아, 많이 했죠?{아, 많이 했
 죠?} # 예, 예.{예, 예.}

10802 @ 공기니 머 이런 **. {공기니 뭐 이런 **.} # 쾡기는 여 저 처얼리카 고오. {공기는
 여 저 천을 가지고 고.}

10802 # 저어 머 그거 옹고 저 저 저게. {저 뭐 그거 넣고 저 저 저기.}

10802 # 줍살도 옹고 아니머 또 팍끼도 옹고 쿵도 옹고 고래아. {줍살도 넣고 아니면 또 팔
 도 넣고 쿵도 넣고 그래 가지고.} @ 예, 예. {예, 예.}

10802 # 또 여래 공기 집아가주 쾡기도 노지 않나요. {또 이렇게 공기 기워 가지고 쾡기도
 놀잖아요.} @ 예, 예, 예. {예, 예, 예.}

10802 # 그런 장난은 마 이 했십니다. {그런 장난은 많이 했습니다.} @ 아 아. {아.}

10803 @ 그 애들이 인제 기다가. {그 애들이 인제 기다가.}

10803 @ 걷고, 약, 야약가 일어서고 할 때. {걷고, 약, 약간 일어서고 할 때.} # 예. {예.}

10803 @ 저, 요렇게도 하고. {저, 요렇게도 하고.} # 여, 막 업 조용다고 얼마나 환영하나
 요. {여, 막 어 좋다고 얼마나 반겨요.}

10803 @ 애들 세워놓고. {애들 세워놓고.} # 용타용타하고. {용타용타하고.} @ 요렇게 요렇
 게도 하고. {요렇게 요렇게도 하고.} # 예, 불매불도 하고. {예, 부라부라도 하고.} @
 아, 구 불매불매라 구릅니까? {아, 그 부라부라라 구릅니까?} # 짹짹하고, 쪼막쪼
 막드. {짹짹하고, 쪼막쪼막도.} @ 예. {예.}

10803 # 제 우리는 쪼막쪼막 이자 췌췌췌재 하잖나요. {저 우리는 쪼막쪼막 이자 췌췌췌췌
 하잖나요.} @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803 # 아아들 키울때는 벨에벨 장난 다 가아치조요. {아이들 키울 때는 별의 별 장난 다
 가르쳐줘요.} @ 그 담요? {그 다음요?}

10803 @ 어 어, 잡았다가 손을 딱 놓고 머라 그러니까? {어, 잡았다가 손을 딱 놓고 뭐라
 그러니까?}

10803 # {웃음소리} @ 그 서잇으라고. {그 서 잇으라고.}

10803 # 아 아, 용타용타 그러지예, 머. {아, 용타용타 그러지요, 뭐.} @ 예, 예. {예,
 예.}

10803 # 여 거얼저 첫걸음에 요래 기다가 어예 무심길에. {여 거 저 첫걸음에 요래 기다가
 어찌 무심길에.}

10803 # 지도 모올리 서요, 클때는 좋다고 마악. {저도 모르게 서요, 그때는 좋다고 막.} @
 예, 예. {예, 예.}

10803 # 빗자루 가수가저고 아랫두리르 약간 때리인더, 반갑다고, 빨리 걸으라고. {빗자루를
 가져 가 가지고 아랫도리를 살짝 때립니다, 반갑다고, 빨리 걸으라고.} @ 아 아,
 예, 예예. {아, 예, 예.}

10803 # 예, 그래 그건 그런거는 할매들이 하니까. {예, 그래 그건 그런 건 할머니들이 하니
 까.}

10803 @ 요, 요리 하는거냐요? {요, 요렇게 하는 건요?}

10803 # 그으는 인자 그 저 오온갖 장난을 다 하제. {그건 인제 그 저 온갖 장난을 다 하
 지.} @ 요리, 요리, 요리 하고. {요리, 요리, 요리 하고.} # 이 이거는. {이, 이

건.}

10803 # 짹짹, 요래 하는 거 지인진.{짹짹, 요래 하는 건 곤지곤지.} @ 예, 예.{예, 예.}

10803 @예.{예.} # 제엠쥼, 그러지요 머.{쥼쥼, 그러지요 뭐.} @ 시, 실제로 하는 거 같이 함 해보죠.{시, 실제로 하는 것 같이 한 번 해 보죠.}

10803 @ 손자, 손녀한테 하듯이.{손자, 손녀한테 하듯이.}

10803 # 아이고, 자아 아무개야, 짹짹 해라커머 지 어 또 보고 지도 뛰디리요.{아이고, 자 아무개야 짹짹해라라고 하면 자기 어 또 보고 자기도 두드려요.} @ 예, 예에.{예, 예.}

10803 # 근 쥼재미 해:라커머 또 쥼쥼하고.{그럼 쥼쥼 해라고 하면 또 쥼쥼하고.} @ 예, 예, 예.{예, 예, 예.}

10803 # 그럼 지인지해라커머 또 이래 지 손가락 지고.{그럼 곤지곤지해라라고 하면 또 이렇게 자기 손가락 쥐고.} @ 예, 예.{예, 예.}

10803 # 아, 손자들 키울 때 그그 다아 시키모 고대려 하머.{아, 손자들 키울 때 그거 다 시키면 그대로 하면.} @ 예.{예.}

10803 # 너느 오에 손자르들로 그런걸 다 갈채주노캐산데 우리 친고들이.{너는 어찌 손자들에게 그런 걸 다 가르쳐주냐고 해 썻는데 우리 친구들이.} @ 예에, 예.{예, 예.}

10803 # 그느 우리 아아들은 못하니꼬 그래 학쫓 땡기면서도 방위어.{그건 우리 아이들은 못하니까 그래 학교 다니면서도 ??}

10803 # 우리 손자 둘이느 이쪽에 눅히고 이짜, 저거 할배느 저 우에 누웠거.{우리 손자들이는 이쪽에 눅히고 이쪽, 자기 할아버지는 저 위에 누웠고.}

10803 # 할매애, 나 와 형아도 보고, 나 할매 와 나는 안 보노?{할머니, 나, 왜 형만 보고, 나, 할머니 왜 나는 안 봐?} @ 아 아, 그렇지예?{아, 그렇지요?}

10803 # 그래가 또 이래도 바앗다가 이래도 뵈다가 또 언자 저 중학쫓, 소학쫓 대앵기다 중학쫓때 갔다가 오머.{그래서 또 이렇데고 뵈다가 이렇게도 뵈다가 또 인제 저 중학교, 소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 갔다가 오면.}

10803 # 공일날 들오머 또 야앙쫓에 눅아가.{공휴일이 되면 또 양쪽에 누워서.}

10803 # 할매 머어 노래하라컨다, 내 무슨 노래하노, 나 노래도 할 지 모린다.{할머니 뭐 노래하라고 한다, 내가 무슨 노래 해, 나는 노래도 할 줄 모른다.}

10803 # 하안매 그래도 해 보라컨아, 그래모 하먼 해 보께.{할머니 그래도 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해 볼게.}

10803 # 낙영서언: 시입리하에 이 노래 해노오모 이 넘이 그그르 듣고 또 자알 하니더.{낙양성 십리하에 이 노래를 해 놓으면 이 놈이 그걸 듣고 또 잘 합니다.} @ 예, 예, 아야.{예, 예, 아.}

10803 # 그래 우리 손자들은 노래도 누구보다더 더 잘 하고.{그래, 우리 손자들은 노래도 누구보다도 더 잘 하고.} @ 예.{예.}

10803 @ 예.{예.} # 무진 마알도 하는거 보모.{무슨 말도 하는 거 보면.}

10803 # 내가 다 고대로 대애주너 고대려 하니까 남우 아들보다 쫓 또 따요, 따기는, 예. {내가 다 그대로 들여주는 그대로 하니까 남의 아들보다 쫓 또 달라요, 다르기는, 예.} @ 듣고, 예에, 예, 그렇네.{듣고, 예, 예, 그렇네.}

10803 @ 요:렇게 하는 걸 머 한?{요렇게 하는 걸 뭐 한?} # 이거, 불매:불매 하지여.{이거, 부라부라 하지요.} @ 불매불매.{부라부라.}

10803 # 불매야, 부울매야아.
겨영산도나 대불매애.
후르르딱딱 불매야.

10803 @ 그 해 해보시죠, 그으, 그.{그 해 해 보시죠, 그거, 그.}

10803 @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와아요, 하안국에는 다 해요.{왜요, 한국에는 다 해요.} @ 아니, 아니요, 마 다 잊어버렸어요.{아니, 아니요, 뭐 다 잊어버렸어요.} # 아안 그래요, 그 저 경.{안 그래요, 그 저 경.}

10803 @ 그러믄.{그러면.} # 또 머어 몇 개 머 위른들 하는 소리 별로 들으니까 제대로 다 하지도 모은 해요.{또 뭐 몇 개 뭐 어른들 하는 소리 대충 들으니까 제대로 다 하지도 못 해요.} @ 그대로 해 보시죠.{그대로 해 보시죠.} # 예예, 예.{예, 예.}

10803 # 그리 그래 불매질의 그래 하마 아아들이 바알열 꼬떡꼬떡 들앗다 그리 샅니이다.
{그리 그렇게 불매질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발을 꼬떡꼬떡 들었다 그렇게 쌍습니다.} @ 예, 예.{예, 예.}

10803 @ 아니, 겨영상도라{아니, 경상도라.} # 겨영상도나 대불매.{경상도나 대불매.}

10803 # 후르르딱딱 불매야, 짹: 짹 밟아라, 그래 샅매 해 놓머.{후르르딱딱 불매야, 짹 짹 밟아라, 그래 쌍으며 해 놓으면.}

10803 # 인자 나알 따라 지가 발로 꼬으떡 꼬떡 들어 해요.{인제 날 다라 자기가 발을 꼬떡 꼬떡 들어서 해요.} @ 그 답.{그 다음.}

10803 @ 길지요, 그것도?{길지요, 그것도?} # 예? 예 지일지는 안해여, 그래 간단해애여, 예.{예? 어 길지는 않아요, 그래 간단해요, 예.} @ 예.{예.}

10803 @ 그 답.{그 다음.} # 그 머이 엮아 텔라머 저 할매들 총기 잇는 사람들은 벨 말을 다 엮아데도.{그 뭐 엮어 되려면, 저 할머니들 총기 잇는 사람들은 벨 말을 다 엮어 돼도.} @ 아 아.{아.}

10803 # 그저 간단하 이 그렇게, 그래 놓머 아아들은 조용다 그래 샅아요.{그저 간단하게 그렇게, 그래 놓으면 아이들은 좋다 그래 쌍아요.}

10803 @ 그으른 저어 그 다음엔 이제 마주해서 발을 요렇게 놓고.{그런 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주하고 발을 요렇게 놓고.}

10803 @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하는.{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하는.} # 새야 새야 그걸.{새야, 새야, 그걸.} @ 예, 그거 해 보시죠.{예, 그거 해 보시죠.}

10803 # 아이구 다 잊아빠가 안 데요, 잘 안 데요, 그건 진짜 참말 잊아.{아이고 다 잊어버려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건 진짜 참말로 잊어.}

10803 @ 이 거리 저 거리 가안 거리.{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 # 아 아, 맞아.{아, 맞아.}

10803 @ 예.{예.} # 이 거리 저 거리 갈 거리 천사 만사 구만사.{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 천 사 만 사 구만 사.}

10803 # 아이고 또 머어더라, 그 잊아빠가 안 데네요.{아이고 또 뭐더라, 그 잊어버려서 안

되네요.}

10803 @ 안 됩니까?{안 됩니까?}# 예, 안 돼요.{예, 안 돼요.}

10803 @ 그래 그걸로 아:무리 저어 머야이.{그래 그걸 아무리 저 뭐야.}

10803 # 그 아는 사람을 찾아도.{그 아는 사람을 찾아도.}

10803 # 모은 찾아요, 참 모은 찾았어요?{못 찾아요, 참 못 찾았어요?} @ 잘 없어요, 예.{잘 없어요, 예.}

10803 # 그래 다아찌 이래 쭉욱 앉아가 이래체 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 천사 만사 구만 사.{그래 다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 천 사 만 사 구만 사.}

10803 # 마지막에 가는 사람 니 노래 해라.{마지막에 가는 사람 니 노래 해라.} @ 예 예, 그그이.{예, 그게.} # 또 그래 다리 거다덜이기도 하고.{또 그래 다리 거뒤들 이기도 하고.} @ 또, 예.{또, 예.}

10803 @ 그 천사 만사밖에 안 됩니까?{그 천 사 만 사밖에 안 됩니까?} # 예, 그래밖 으 모은 해요.{예, 그래밖에 못 해요.}

10803 # (웃음소리) @ 아 아.{아.}

10803 # 아이요, 아:이고 온갖거 다 하실라 하네요.{아이고, 아이고 온갖 걸 다 하시려고 하네요.} @ 아이, 그기에 그거를 그런걸 다아.{아이, 그게 그걸 그런 걸 다.}

10803 # 예, 예.{예, 예.} @ 적어나야 데거든요, 아 아.{적어 봐야 되거든요, 아.}

10803 # 아이고, 그래애 일본때 일본 시대는 이 줄뛰기 하는 거도.{아이고, 그래 일본 때, 일본 시대는 이 고무줄뛰기 하는 것도.}

10803 # 조선말도 하고.{조선말도 하고.}

10803 # 일본 찢더 저 제이 이래 이래 이래애 이래 저지미서도 줄뛰기 하잖나요.{일본 ?? 저저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지르면서 고무줄뛰기 하잖아요.} @ 예, 예.{예, 예.}

10803 # 인제 줄 이래 하나 지고.{인제 줄 이렇게 하나 쥐고.}

10803 # 이래 저래 혼지먼더 훌떡훌떡 넘을때는 글때는 언자 그그느.{이래 저래 흔들면서 훌떡훌떡 넘을 때는 그럴 때는 인제 그건.}

10803 # 내가 이찍지 이거 기억하는 것도.{내가 이 때까지 기억하는 것도.} @ 기억하신다는 게 자아체가.{기억하신다는 자체가.}

10803 @ 대단하지요, 그만큼.{대단하지요, 그만큼.} # 아이고.{아이고.}

10803 # 참말르 아아 시절에는 그래애가 노을고 참 재미있게 자알 지닌데 다 잊아빠서요. {참마로 아이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놀고 참 재미있게 잘 지냈는데 다 잊어 버렸어요.}

10803 @ 저어 됩니까, 그게 이자 고무줄을 가지고.{저 됩니까, 그게 인제 고무줄 가지고.} # 예, 고무줄라까 해*, 예.{예, 고무줄을 가지고 해요, 예.} @ 예.{예.}

10803 # 그 아아들 그 에릴 때 벨 띠.{그 아이들 그 어릴 때 벨 띠.}

10803 # 벨 장난 다 하고 사잖나요.{벨 장난 다 하고 살잖아요.} @ 또 공갓고 하는 것도 있지요?{또 공 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일본어로 된 놀이 부분

10803 @ 자아, 베엘벨 저 놀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자, 별 의별 저 놀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 예, 예.{예,

예.}

10803 # 벨렐 노래 다 잊고말고여, 근데 인자 다 잊아뿌고 싱기지도 못하겠고.{별의별 놀이 다 잊고 말고요, 그런데 인제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못 하겠고.}

10804 @ 인제 그그는 안 했쥬?{인제 그건 안 했쥬?} # 머어예?{뭐요?}

10804 @ 숨바꼭질{숨바꼭질.} # 아, 숨바꿈질도 마 이 하지요, 저녁 묵고 어자 어덕어덕할 적에는:{아, 숨바꼭질도 많이 하지요, 저녁 먹고 인제 어둑어둑할 적에는.}

10804 # 오온 울타리 밑으로, 머 방앗간으로 벤소간으로 드가가주거.{온 울타리 밑으로, 뭘 방앗간으로 변소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 예예.{예.}

10804 # 찾아내는 사람도 잊고 그렇심디.{찾아내는 사람도 잊고 그렇습니다.} @ 그걸 머라 그랬다구요?{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 숨바꿈질한다 하지.{숨바꼭질한다 하지.}

10804 @ 숨박?{숨바?} # 숨바꿈질.{숨바꼭질.} @ 숨바꿈질.{숨바꼭질.}

10804 @ 숨바꿈질, 예, 예.{숨바꼭질, 예, 예.}

10804 @ 그으 눈 가리고 머 숫자를 세엿습니까?{그 눈 가리고 뭘 숫자를 셧습니까?}

10804 # 눈 가리고는 어 저저저이.{눈 가리고는 어 저저저.}

10804 # 치인구, 친구들 찾는거 둘러앉아가 친구들 샅는거.{친구, 친구들 찾는 거, 둘러앉아서 친구들 찾는 거.} @ 예, 예.{예, 예.}

10804 # 저 수우군 돌리기 해가주거 또.{저 수건돌리기 해 가지고 또.}

10804 # 요고 놓고 돌아가다가 그 사람이 진체몬장 그 사람 잡히며 또 일어나서 노래해야 데고.{요기 놓고 돌아가다가 그 사람이 ??? 그 사람 잡히면 또 일어서서 노래해야 되고.} @ 이, 예, 예.{이, 예, 예.}

10804 # 예, 그 그렇습디, 크런 것도 하고오.{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10804 @ 제에기 차는 거어 잇었습니까?{제가 차는 거 있었습니까?}# 예, 제에기 차는 것도 해바앗습디.{예, 제가 차는 것도 해봤습디.}

10804 # 오, 우리는 예릴 때 그그 마 이 놀았어, 예.{오, 우리는 어릴 때 그거 많이 (하)고)놀았어, 예.} @ 그렇지요, 예.{그렇쥬, 예.}

10804 # 그저 궁 구숙구식이 제기 몽칙 아이나요.{그저 구 구석구석에 제기 몽치 아닌가요.}

10804 # 우 할매 모리게 해 나앗다가 도오 모올리 가주가가 노올고 노다가 돌오고.{우리 할머니 모르게 해 났다가 또 몰래 가지고 가서 놀고, 놀다가 들어오고.} @ 아이, 놀이라는게 그으 머 그런거밖에 거이 없었으니까.{아이, 놀이라는 게 그 뭘 그런거밖에 거의 없었으니까.} # 예, 예, 맞아예.{예, 예, 맞아요.}

10804 @ 팽이 같은 건요?{팽이 같은 건요?} # 팽이도 다 돌리지요, 여을 패 이도.{팽이도 다 돌리지요, 여기는 팽이도.}

10804 # 얼음판에 가가 돌릴 때도 잊고, 무진 세민판에도 고론데는 자알 돌아가잖나요.{얼음판에 가서 돌릴 때도 잊고, 무슨 시멘트판에도, 그런 데는 잘 돌아가잖아요.}

10804 # 그리 패 이 도올리는 거느 머슴아들이 하고.{그렇게 팽이 돌리는 건 머슴애들이 하고.} @ 그렇지요.{그렇쥬.}

10804 # 딸아들은 딸아들 하는 *이 잊고.{딸애들은 딸애들 하는 *이 잊고.} @ 유것도 해보섯습니까?{요것도 해보셨습니까?}

10804 @ 얼음?{얼음?} # 아, 설매요?{아, 썰매요?} @ 예.{예.} # 설매느으.
{썰매는.}

10804 # 우리 손자들은 마 이 해애편어요, 우린 안 해도, 우리 아아들하고,{우리 손자들은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안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 예예, 여기서?{예, 여기서?}

10804 # 예예, 얼음판에 어 여그느 빙, 빙판 얼음이 잇이니까 전수.{예예, 얼음판에 어 여
기는 빙, 빙판 얼음이 있으니까 전부.} @ 여기서 머 얼음이.{여기서 뭐 얼음
이.}

10804 # 우리 우리 세엿째가 설매르 요래 딱 해가 밑에 스께또처럼 해 달아 놓머.{우리 우
리 셋째가 썰매를 요렇게 딱 해서 밑에 스케이트처럼 해 달아 놓으면.}

10804 # 자알 타고 땡기요, 저 송곳 요고 꼬재 이르다 송곳을 딱 꼽아가지고.{잘 타고 다
녀요, 저 송곳 요기 꼬챙이에다 송곳을 딱 꽂아 가지고.} @ 예예.{예.}

10804 # 요대 하아마 아아들 잘해요, 우리.{요래 하면 아이들 잘 해요, 우리.}

10804 # 동삼에 여 여그느 저어 거랑뚝에 간머느.{동삼에 여 여기는 저 거랑뚝에 가면.}

10804 # 번들번들하잖나요, 그 얇은 데 아아들 잘 놀아요.{번들번들하잖아요, 그 얼은 데
아이들 잘 놀아요.} @ 예예, 그룽겿네예.{예, 그룽겿네요.} # 예예.{예예.}

10804 @ 그으 예릴 때 남자애들하고 같이 안 놀았습니까?{그 어릴 때 남자애들하고 같이
안 놀았습니까?}

10804 # 우리인데느 남자들카 아느 벨로 안 놀았어예.{우리 있는데는 남자들하고는 별로
안 놀았어요.} @ 아 아, 그러믄.{아, 그러면.}

10804 # 전수 딸아들끼리.{전부 딸애들끼리.} @ 저이 이그 이거느 안 안하섯겿네요,
이엇.{저 이거 이거는 안 하섯겿네요, 이것.} # 예예.{예예.}

10804 @ 탁 치고 막대기가지고 이어 치고 요렇게 재고 이런거.{탁 치고 막대기 가지고 이
거 치고 요렇게 재고 이런 거.}

10804 # 잣대 이, 잔, 자, 잣.{잣대기, 잔, 자, 잣.}@ 잣, 잣, 잣, 재치긴가, 잣, 예.{재, 잣,
잣, 재치기인가, 잣, 예.} # 예, 잣, 잣, 재치기, 자채기.{예, 잣, 잣, 재치기, 자채
기.}

10804 @ 예예.{예.} # 아 아, 그그드 해애편어예,{아, 그것도 했어요.} @ 그러게예.
{그러게요.} # 그거를 그런거는 했어예.{그걸 그런 건 했어요.} @ 그으.{그.}

10804 @ 김, 긴 걸 머라 그러고, 짧은거 머라 그러고 이거 이름.{긴, 긴 걸 뭐라 그러고,
짧은 거 뭐라 그러고 이거 이름.}

10804 @ 기억합니이까?{기억합니까?} # 아니요, 그은 생각 안나요.{아니요, 그건 생각
안 나요.}

10804 @ 예예.{예.}

10804 # 저: 이 머 또옹구 머심아들은 또옹그란게 해가지고 그그에 차 그긔도 이름이 머언
지 모르겿다, 그.{저 이 뭐 똥그, 머슴애들은 똥그란 거 해 가지고 그걸 차, 그긔도
이름이 뭔지 모르겿다, 그.}

10804 # 그래가 저어 나무 가 갈비 끌라가다가 중간에서.{그래서 저 나무 가 술가리 굵으
러 가다가 중간에서.}

10804 # 또 그래 노오다가 가고 해샅데요 머슴아들은, 예 남자아이들은.{또 그래 놀다가
가고 해 썰데요 머슴아들은, 예 남자아이들은.} @ 예예, 그룽, 예.{예, 그룽,

예}

10810 @ 금 에릴 때 할매한테서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그럼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10810 # 우리 할매도 집이 잇이니까 머 벨로 이야기가 할 주도 머 만:날 우리 할매도 나알 먼그리.{우리 할머니도 집에 있으니까 뭐 별로 이야기도 할 줄도, 뭐 만날 우리 할머니도 날만 ??}

10810 # 참마바 채마와 채마나 가꾸우고 미역뜯잘애나 가가.{채마밭, 채마밭, 채마나 가꾸고 미역뜯애나 가서.} @ 예예.{예.}

10810 # 미역이나 뜯아다 우리 오오촌 숙모들이 가앗다주머 비이다 내애주머.{미역이나 뜯어다 우리 오촌 숙모들이 갖다주면 베어다 내주면.}

10810 # 도올에 놀아 말류고 그저 그랄래, 우리 할매도 머.{돌에 놀어 말리고 그저 그렇지, 우리 할머니도 뭐.}

10810 # 초온에 다 집 지키거 잇으며.{촌에 다 집 지키고 있으면.}

10810 # 백 어어데 머언데 안 가니까 지이 그 지그 살림살이밖어 모올라요.{별 어디 먼 데 안 가니까 자기 그 자기 살림살이밖에 몰라요.}

10810 @ 그으 저 뭇니까, 양남메어니 그연데 저 옛날버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잇으을거 같은데.{그 저 뭇니까, 양남면에 그런데 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10810 # 에릴 때 모리지오이.{어릴 때 모르지요.}

10810 # 에리니까 모르지예.{어리니까 모르지요.} @ 기억하는 거 없습니까?(기억하는 거 없습니까?) # 예, 기억 안 데요.{예, 기억 안 나요.}

10810 @ 나오.{??} # 보웅사들 안침하는 거.{봉사들 안택하는 거.} @ 예예.{예.} # 일년 열두달에.{일년 열두달에.}

10810 # 예예, 동지서얼달에느.{예, 동지섣달에는.}

10810 # 일년 열두달 안가태평하라고 봉사 모시다가 또 복치고 경 일이고 그런거 하는 거 바앗어요.{일년 열두 달 안가태평하라고 봉사 모셔다가 또 복 치고 경 읽고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 예.{예.}

10810 # 그으느 꼬옥 봉사들 모세다가 한먼숙 가정에 다아 일년 일년으 안가태평을 위해서 가정을 췌안하기 위해서.{거기는 꼭 봉사들 모셔다가 한 번씩 가정에 다 일년 일년의 안가태평을 위해서,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10810 # 보웅사들 안침해요.{봉사들 안택해요.}

10801 # 그그르 안침한다 그래예, 예.{그걸 안침한다 그래요, 예.} @ 예, 예, 안침?(예, 예, 안침?) # 예.{예.}

10810 # 그 봉사들이 경 일으고 하는거 보머.{그 봉사들이 경 읽고 하는 거 보면.}

10810 # 그 눈을 몬 바도 어예 그그르 다 엮아 데는지 잘하데요.{그 눈을 못 봐도 어떻게 그걸 읊어 되는지 잘 하데요.} @ 그러게, 아마 듣고 기억하는 *니다, 예.{그러게, 아마 듣고 기억하는 *니다, 예.} # 예, 예.{예, 예.}

10810 # 한 머 그은 참 매리가지.{한 뭐 그건 참 ???}

10810 # 참 좋은 사람들이라예.{참 좋은 사람들이예요.} @ 그렇지요.{그렇죠.}

10810 @ 야양남벤이 예옛날부터 내려오는 머 저 전설.{양남면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저

전설.}

10810 @ 또 바위나 머 이런데 얹힌 이야기 이런거이 잇엇을 거 같은데.{또 바위나 뭐 이런데 얹힌 이야기 이런 게 잇엇을 것 같은데.}

10810 # 아니요.{아니요.}

10810 # 에리가 하 우리 마을에마 잇아나 이 어디 가는줄.{어려서 우리 마을에만 있어 놓으니 어디 가는 줄.} @ 예예.{예.} # 도웅네 그 저 다양수 나운기라고.{동네 그 저 당산나무라고.}

10810 # 크은, 어느 도웅네를 큰 나무 심기지 않나요?{큰, 어느 동네라도 큰 나무 심기잖아요.} @ 크, 잇지오{그 ,잇쥬.}

10810 # 그그는 이일년에 한문칙, 예.{거기는 일년에 한 번씩, 예.}

10810 # 시월달에 해, 쭈 떤 고 제 제예를 모시데, 도웅네 제예를 지내요.{시월 달에 해, 쭈 되면 그 제 제를 모시데, 동네 제를 지내요.} @ 예, 예, 예.{예, 예, 예.}

10810 # 근데 나 그으도 누가 야양주가 잇는 사람들이고.{그런데 나 거기도 누가 양주가 잇는 사람들이고.}

10810 # 한자 잇는 사람은 안 하고 그저 깨끗하고 자숙도.{혼자 잇는 사람은 안 하고 그저 깨끗하고 자식도.}

10810 # 자숙들이 잇고 가정에 편안한 집에 그런 사.{자식들이 잇고 가정이 편안한 집에 그런 사(람).} @ 복이 잇는.{복이 잇는.} # 그 제예를 갖다가 모시지요.{그 제를 모시지요.} @ 아 아, 예, 예.{아, 예, 예.}

10810 # 그래, 그래가 자아 한 떠는 하리느 자알 먹고 노오테요, 그래***.{그래, 그래 가지고 잘 한 때는 하루는 잘 먹고 놀테요, 그래***.} @ 예, 예.{예, 예.}

10810 @ 아, 도웅제를.{아, 동제를.} # 예, 도웅제를 그래 지내요.{예, 동제를 그렇게 지내요.}

10810 # 장을 착실히 바아다가.{장을 착실히 봐다가.}

10810 # 정, 그래 일주일 전에.{정, 그래 일주일 전에.}

10810 # 저, 빨, 빨건 실, 빨건 형겅을 걸아놓고 웨엔새끼로 파가 짚을 쇼오촉 들어가.{저 빨, 빨건 실, 빨건 형겅을 걸어 놓고 윈새끼를 꼬아서 짚을 ?????} @ 다아.{다.}

10810 # 그 나무에 그 근찬에느 빠익 돌라나요, 판 사람 모은 드가고로.{그 나무에 그 근처에는 빠 둘러봐요, 판 사람 못 들어가게.} @ 아, 예, 예, 예.{아, 예, 예, 예.}

10810 # 고래 깨끗하게 해가 제예사로 모시테요.{고렇게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모시테요.} @ 아.{아.}

10810 @ 그기 들어가면 어쩍니까?{거기에 들어가면 어쩍니까?}

10810 # 그으 모리, 그르 아아는 사람은 안 드가지요, 그속 새끼 아낙에 나무잘에는 모은 드가지요.{거기 모르, 거기 아는 사람은 안 들어가지요, 거식 새끼 안에 나무 곁에는 못 들어가쥬.}

10810 # 고 제예사상 다: 만디려 나앗는데.{거기 제삿상 다 만들어 났는데.}

10810 @ 예예.{예.} # 예.{예.}

10810 # 딱 그 사람들마, 제예사 모시는 그 사람들마.{딱 그 사람들만, 제사 모시는 그 사람들만.}

10810 # 새벽에 일찍이 나아가저고 언자.{새벽에 일찍이 나와 가지고 인제.}

10810 # 초시기 피고 제에사 모시고.{뚝자리 피고 제사 모시고.}

10810 # 와 가지고는 그 제에물 다 갖다가.{와 가지고는 그 제물 다 갖다가.}

10810 # 동네사람들카 아 삭 다시 머 으음석을 또 만들어 가지고.{동네사람들하고 삭 다시 뭐 음식을 또 만들어 가지고.}

10810 # 한 잔 자알 대접해요.{한 잔 잘 대접해요.} @ 예예, 예.{예, 예.} # 예, 예.{예, 예.}

제2편 어 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라기
20102	이삭	나라이사기라
20103	볍씨	나라종자지요
20104	못자리	모'판
20105	모판	한 망 두 망
20106	쟁기	쟁기지요(+중국) 흘짜' 이라(+한국)
20107	보습	쟁기밥'
20108	벗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
20110	씨레	날서아레
20111	번지	팽서아리고
20112	모내기	모내기라
20113	흙덩어리	흙땅'거리
20114	고무래	밀개'라꼬
20114-1	고무래(곡식)	밀개'라예
20114-2	고무래(재)	재'말'개고
20114-3	고무래(흙)	흙'칼'이라꼬
20114-4	고무래(미는 것)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
20115	쇠스랑	소사'랑
20116	곡괭이	꼭개' 이라꼬 목'개' 이라꼬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괭'초'라꼬 삽'이라
20119	호미	호'미'라예 호'매' 이라꼬
20120	농기구	농사'공구'지요
20121	김	자'시'미'라(+구) 가'이'미'라(+신) 가'심(+구)
20122	김매다	가'심'맨'다
20123	애벌 매다	야'시'가'심 야'시'맨'다
20123-1	두벌 매다	두'벌'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불'까'임
20124	논둑	논'뚝'
20124-1	논두렁	무'뚝'
20125	밭둑	*
20126	밭두둑	밭'뚝'둑

20127	밭고랑	밭꼬랑 반니랑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자아라
20128-2	이랑밧기	*
20129	보리	보리이사기쥬
20129-1	가을보리	살'보'리 기보'리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보리사리라
20131	가을갈이	가을가리라 추판다 이라(+중국)
20132	감부기	감배기
20133	두엄	거르'미라 더움땡'미라
20134	거름	거름'준다 똥'거름'준다

2.1.2. 타작

20201	추수한다	나랏까실한다
20202	벼단	벼'따'늘
20202-1	벼단	*
20202-2	벼단	깨'단
20202-3	벼단	물'단'이고 물'단'이라 무'단
20203	가리	벤나까리라
20204	가리다	재'앤다
20205	벳가리	벤나까리라
20206	날가리	벤'땡'미 벤'낙'까리
20207	타작	타야'자근 베'타작(+벼'훑는'것)
20208	벼'훑'이	훑'작'께
20208-1	그네	*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깨	도라'깨'지요
20210-1	도리깨장부	도라'깨'다리
20210-2	도리깨열	도라'깨'나리고
20210-3	도리깨꼭지	도라'깨'꼴'따'라
20211	벳짚	베'짚 베'지'피라 자'피라
20211-0-1	-을	*
20211-0-2	-에	베'찌'페
20212	새'괘'기	나랏'헤'에'기 집'헤'에'기
20213	쭈'정'이	쭈'따'기라 쭈'찌'라꼬
20214	티	타'끼
20215	까'끄'라'기	까'그'레'기라
20216	풍구	풍'고'라요

20217	원두막	막 수우'박막 차모'막 웬두마'기라(+중)
20218	허수아비	허'제비
20219	흉년	승년
20220	머슴	머슴
20221	넙	넙'품 대앤다 넙' 대앤다
20221-01	-을	노'블 사
20222	품앗이	손바'꿈 푸마'시한다
20223	품삔	품'삭
20223-01	-으로	품'샤'기라

2.1.3. 방아 쥘기

20301	방아	*
20302	디딜방아	드'들방애
20303	방앗공이	바야'꼬 췌'고(+쇠)
20304	방아확	호'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또리라 연자'방'아
20307	절구	도'울'절구 나무'절구
20308	절구통	절구'통이제
20309	절굿공이	절'국'고
20310	절구절	절구'바' 아 쥘는다
20311	겨	당'게
20312	보릿겨	보리'땅'게
20313	왕겨	왕'게
20314	쌀겨	단'당'게
20315	검불	복'사'미 검부'레'기라
20316	껍질	깍'찌

2.1.4. 곡물

20401	곡식	곡'시'기라
20402	참쌀	참'살
20403	맷쌀	맷'살
20404	쌀보리	살'보리'
20405	조	지'장'이라예 조'이
20406	차조	차'지'장 차'조'이
20407	메조	메'조'
20408	좁쌀	메'좁'살 차'좁'살
20409	잘다	잘'지'요 잘'고
20410	조이삭	조'이'이'삭'이고
20411	수수	수'까'(+다) 수'수'라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찰수수 | 찰수서 | 찰수끼
 메수수 | 메수끼
 수꾸때
 강내 이라
 찰강내이
 메강내 이
 *
 메물'
 콩이세요
 콩깍찌
 메주
 다라노오마
 띄운다
 곰파구
 당콩이라 | 바압당코 이라
 콩기름
 깨
 창깨
 들깨
 꼬소하다 | 꼬사다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_재료
 20502-2 나물(밭)_반찬
 20502-3 나물(들)_재료
 20502-4 나물(들)_반찬
 20502-5 나물(산)_재료
 20502-6 나물(산)_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채애소로
 나물'
 *
 *
 *
 *
 *
 *
 *
 따듬는다 | 골레낸다
 반찬이
 무우'지요 | 무우'라 | 무사'라꼬(+다)
 채 서린다
 무우입사구
 시래기 | 배차시래기(+배추) | 무우'시래기'라(+무)
 무우오'가리(+다) | 무우말래기
 무우짱다리
 배애'차지요(+다) | 배앵'차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배애피소옥
 오이지요 | 무래(+다)
 오이장아찌
 오이소배기
 가자라
 호오'박기지 | 애다' 이호박 | 늘근호박
 고구마라
 감자요
 우똥'
 파 | 파이라
 꼬차
 시금치라
 미나리
 정구지
 상춘데요
 마늘
 생강
 난새이
 달라
 도라지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눌은밥
 20606 송냥
 20607 뜨물
 20608 김(蒸氣)
 20609 갱죽(羹粥)
 20610 싱겁다
 20611 국수
 20612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3 건더기
 20613-1 국물

메'바비라 | 찰'바비라 | 쌀'밥
 시'근바비라
 더'운바비라 | 따'산'바비라
 갱'조'팍 | 조'팍'마
 누'룽'지
 물'누'룽지
 송'냥
 뜨'물 | 살'뜨물'
 지'아'미라
 시'락'박'죽'
 싱'각'꼬 | 싱'겨'바
 국'시
 칼'국'시
 *
 건'다'가'마
 국'물

20614 고명
 20615 꾸미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20 마음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20621 엿기름
 20622 식혜(食醪)
 20623 식혜
 20624 달다(甘)
 20625 가루
 20625-01 -에
 20625-02 -을
 20625-03 -도
 20626 밀가루
 20627 밀기울
 20628 미숫가루

까미라
 꾸미
 미역
 기암 | 지아물
 뜨더꾸기라
 두우 때
 미암쭈기라
 까린다
 길끔
 삭케라
 밥삭케
 다지요 | 달게
 살까리 | 가리
 살까리이다 | 살갈게
 *
 *
 밀가루(+신) | 밀까리 | 밀갈게다가
 밀까울
 미숫까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2 된장
 20703 고춧가루
 20704 고추장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7 김장
 20708 깍두기
 20709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20710-01 -고
 20710-02 -어라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20715 두부

간장요(+신) | 지랑이라(+구) | 지랑장물
 데앤장 | 디안장(+구)
 꼬춧까루 | 꼬차까리라
 꼬차장
 소끔 | 왕소끔
 잠치
 짐장한다
 깍뚜개
 나박잠치라
 한다
 *
 *
 양념
 버무린다
 버셔시
 버셔시
 콩나물'
 콩나물'
 녹따나물
 조오파라(+구) | 두부라(+신)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1 빻다
 20722 흰떡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두부'바지
 바'지떠기라
 다'탈(+신) | 게'랄(+구)
 떡'꼭'때(+구) | 가'래'떠기라(+신)
 시'라'떡 | 슬'가'떡
 송'편
 바'저'라
 잘'편'이오
 꼬'물 | 콩'꼬'물 | 기'이'파'고'물
 팔'죽
 수'자'비'라'요
 백'설'기
 타'박
 술 | 술'또 | 수'리
 탁'쭈'라 | 막'걸'리'라'꼬
 소'주'요
 부'창'개 | 찌'잠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냄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솔뚜껑

부'뜨'막
 탁'까'때 | 밥'솥 | 가'매'소'치'라 | 가'매'소'테
 소'들
 소'테
 부'석 | 부'석'아'궁'은
 부'샤'키 | 부'샤'기
 그'을'음
 불'쏘'시'개
 연'기
 내'내
 꼬'자'랄'따 | 꼬'사'라
 부'지'깥'이
 불'삽
 따'갑'따
 냄'비'술 | 냄'비'에'다
 밥'추'바'리(+눅쇠) | 사'바'리(+사기) | 국'대'자'비 | 박'꼬'록 | 그'록'또
 그'르'시
 *
 깨'띠'배'이
 뜨'꿍
 소'두'배'이

20817 밥주걱
 20818 순가락
 20819 젓가락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뚝배기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1 찌꺼기
 20832 화로
 20833 화룻불
 20834 부젓가락
 20834-01 -이
 20834-1 부손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깨다리소반

밥주개요 | 나무주개
 숙까락 | 술
 저뭍 | 절까라기라
 장쫑지
 *
 옹차리(+다) | 뚜꾸바리라꼬(+소)
 쟁밤(+큰 것) | 접'시느(+작은 것)
 조오'리
 나무함박
 바가'지
 행'주
 행'군다
 설'거'지한다
 꾸장'물
 찌'꺼'레'기
 화'야'리
 화'야'리'뿔
 짹'개 | 부'제'까'락
 *
 불'소'니라
 불'채'따리
 적'썰
 초'배'기
 바'구'니
 *
 *
 강'파' 이'라 | 강'판
 도'리'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짹
 20907-2 수짹

암'뺑
 베'람'뺑'기'지요
 도'장'에
 자'양'뺑
 감'차'아'라 | 건'샤'해'가 | 감'추'지
 흐'음'짜'비
 도'울'짜'구
 *
 *

20908	미달이	미다지
20909	여달이	*
20910	덧문	덧문' 덧문짝'
20911	열다	여러라
20912	문고리	몽골기
20913	자물쇠	자물통'
20914	간히다	가채일따 가찰따
20915	열쇠	여알썬라요
20916	잠그다	장구미
20917	구멍	장구우지마알고' 문구녕' 궁'기라꼬 구녕'이라
20917-1	취구멍	취구멍'
20918	찢다	쨌'다'
20919	구들	구들'도을'
20920	흡받기	흡'판
20921	흡손	흡'손
20922	흡갈	흡'카리고
20922-1	흡갈(나무로 만든 것)	
20922-2	흡갈(쇠로 만든 것)	
20923	바르다	바란다 발라라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에
20926	도배	테바한다
20927	구석	구석'요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끄'시 깨애끄'다다
20930	문지방	문차'멍(+다) 문트'멍(+소)
20930-0-1	-에	*
20931	틈	트'미'
20932	가장자리	모샤'리
20933	가운데	가운'데 가분'데
20934	시렁	다락'
20935	살강	당반'(+판자) 살'간(+서까래)
20936	선반	*
20937	서랍	빠'다'미
20938	경대	*
20939	거울	거울 미양'경 체'경'이라 체'강'이라
20940	걸다	거라' 내안지요
20941	호룽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	----	-----

21001-01	-에	지병우'에
21002	기와	계와 계와짱'
21003	기와집	계완짹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뽀'지요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까리
21008	추녀	추이
21009	처마	추이
21010	오두막	오더막짹'
21011	초가집	초가'짹
21012	이영	영게'마람'
21012-01	-에서	*
21013	용마름	용마람'
21014	기스락	지방자'실
21015	낙숫물	*
21015-1	기스락물	서근'쉐물
21016	사닥다리	사닥'따리
21017	용마루	*
21018	토방	*
21019	댓돌	축담'
21019-1	섬돌	
21020	마루	마리창'이라 마'라라
21020-01	-에	마리에
21021	툃마루	*
21022	가둥	가'둥'
21023	주춧돌	주'찬'똥
21023-01	-을	*
21024	굴뚝	꾸'울'뚝'

2.3.3. 마당

21101	뜰	*
21102	마당	마당 마'다아
21103	넓다	너'리다
21103-01	-어서	*
21104	넓히다	날'피지느
21105	곶간	창'꼬라 곶'방'
21106	외양간	오'양'간 소'마'야'구'
21107	마구간	말'마'야'다'기'라
21108	광	창'꼬 곶'방'키아
21109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찌끄레기
21111	장독대	자양뚜깇
21112	장독 뚜껑	자양판지 뜨꿍
21113	변소	통시까이라
21113-1	똥장군	똥장구이
21114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돌담
21115-0-1	-에	*
21115-0-2	-도	담도 노푸다
21116	사립문	삼작
21117	뒤꼍	디운두란
21117-0-1	-에서	*
21118	바깥	배깁에
21118-0-1	-에	*
21119	모퉁이	모케이
21120	모서리	모샤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도옹네
21202	윗마을	우깅따 이라
21203	아웃	아부지 아부제
21203-0-1	-이	아부제가 아우시
21203-0-2	-에	*
21204	마을가다	마을도리
21205	우물	세에미
21206	두레박	드르'박
21207	샘(泉)	세에미
21208	가(邊)	가에 가세라
21208-0-1	-을	*
21208-0-2	-에	가에 가세
21209	물지게	물짜게
21210	가게	가야게(+구) 저암'빵(+신)
21211	싸다	헐하다 헐타 눅따(+서북방언)
21212	비싸다	비사다
21213	홍정	홍장
21214	거간꾼(중매인)	*
21215	잔돈	잔전
21216	에누리	*
21217	거스름돈	거시람똥
21218	거스르다	*
21219	꾸다(借)	꾸랴간다

21219-01	-어야	*
21220	구두쇠	구두'쉐라 각'째이
21221	말기다	재'폐노코 매'께노코 매'끼지 마라
21222	나머지	나머'지
21223	덤	*
21224	몫	몫'시다
21224-01	-을	*
21225	빚	바'시
21225-01	-을	비슬
21225-02	-에	
21226	이자(利子)	이아'자
21227	심부름	시임부'름 시임바'람
21228	두름	두'름 (한) 가'태기
21228-1	축	(한) 축
21228-2	쾌	*
21228-3	접	(한) 저'비라
21228-4	쌈	(한) 삼
21228-5	두름	(한) 뭉'타기
21228-6	단/몫	(한) 단
21228-7	단/몫	*
21228-8	툇	(한) 접
21228-9	모숨	(한) 모'숨
21229	칼레	(한) 칼'레
21230	마지기	(한) 마'자기 (한) 도'까리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
21231	꾸러미	*
21232	그루	(한')그루
21233	포기	(한) 포'기
21234	저울	장'울
21235	자루(包袋)	자'라'
21235-01	-을	*
21235-02	-에	자'라에 잘'게다(+구)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 개	한'개
21236-2	한 되	한'되배'기
21236-3	한 말	한'말
21237	둘	두'ל
21237-1	두 개	두'우개
21237-2	두 되	
21237-3	두 말	
21238	셋	서'이

21238-1	세 개	세에개
21238-2	세 되	세되배기
21238-3	세 말	세에말
21239	넷	너이
21239-1	네 개	네에개
21239-2	네 되	네되배기
21239-3	네 말	네에말
21240	다섯	다서
21240-1	다섯 개	다석께
21240-2	다섯 되	다섯되배기
21240-3	다섯 말	
21241	여섯	여서
21241-1	여섯 개	
21241-2	여섯 되	여섯되배기
21241-3	여섯 말	여선말
21242	일곱	알고
21242-1	일곱 개	여석께
21242-2	일곱 되	일곱되배기
21242-3	일곱 말	알곰말
21243	여덟	야덜
21243-1	여덟 개	알곡께
21243-2	여덟 되	여덜되배기
21243-3	여덟 말	여덜말
21244	아홉	야호
21244-1	아홉 개	야덜께 야호께
21244-2	아홉 되	야흔되배기
21244-3	아홉 말	아홉말
21245	열	여알
21245-1	열 개	열께
21245-2	열 되	열되배기
21245-3	열 말	열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 개	수무개
21246-2	스무 되	
21246-3	스무 말	수무말 수무되배기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릉개
21247-2	서른 되	
21247-3	서른 말	서른말 서른되배기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 개	사식께

21248-2	마흔 되	
21248-3	마흔 말	사십말 사십되배기
21249	쑤	쑤인
21249-1	쑤 개	오식께
21249-2	쑤 되	
21249-3	쑤 말	오십말 오십되배기
21250	예순	육십
21250-1	예순 개	육식께
21250-2	예순 되	
21250-3	예순 말	육십말 육십되배기
21251	일흔	칠십
21251-1	일흔 개	칠식께
21251-2	일흔 되	
21251-3	일흔 말	치십말 칠십되배기
21252	여든	팔십
21252-1	여든 개	팔식께
21252-2	여든 되	
21252-3	여든 말	팔십말 팔십되배기
21253	아흔	구십
21253-1	아흔 개	구식께
21253-2	아흔 되	
21253-3	아흔 말	구십말 구십되배기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백께
21254-2	백 되	
21254-3	백 말	백말 백되배기
21255	이백	이이백기시오
21256	한둘	*
21256-1	한두 개	도아개
21256-2	한두 되	*
21256-3	한두 말	*
21257	두셋	*
21257-1	두세 개	두세개
21257-2	두세 되	*
21257-3	두세 말	*
21258	두서넛	*
21258-1	두서너 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 되	*
21258-3	두서너 말	*
21259	서넛	*
21259-1	서너 개	서너개

21259-2	서너 되	*
21259-3	서너 말	*
21260	네댓	*
21260-1	네댓 개	너닥 깨
21260-2	네댓 되	*
21260-3	네댓 말	*
21261	대여섯	*
21261-1	대여섯 개	대에너 석깨
21261-2	대여섯 되	*
21261-3	대여섯 말	*
21262	예닐곱	*
21262-1	예닐곱 개	여알 꼭깨
21262-2	예닐곱 되	*
21262-3	예닐곱 말	*
21263	일여덟	*
21263-1	일여덟 개	이러 달깨
21263-2	일여덟 되	*
21263-3	일여덟 말	*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 개	*
21264-2	여덟아홉 되	*
21264-3	여덟아홉 말	*
21265	여남은	*
21265-1	여남은 개	여나 무개
21265-2	여남은 되	*
21265-3	여남은 말	*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21302	길이	기장구 가리라해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똥 저구'리
21305	두령이	*
21306	무늬	무'늬
21307	고쟁이	소오'꼬'시라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
21310	의복	이'보기라 입생'이라
21311	구겨지다	꾸게'예진다

21312	웃고름	고름 고'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잔 동'전
21315	걸	거치시오
21315-0-1	-에	거테
21315-0-2	-을	*
21316	홀옷	호'도시고
21317	겹옷	겨보'시고
21318	잠방이	잠배이
21319	누더기	누더기
21320	거지	거라지 걸배이라
21321	구걸	동냥
21322	조끼	쫓개
21323	내의	내애보'기라 소옹'내이
21324	껴입다	짜암'는다
21325	소매	소'매'지요
21326	주머니	주마이라 겹주마'이라
21327	호주머니	호주마'니
21328	허리띠	허라띠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오'복'
21331	샷샷	샤까슬
21331-0-1	-에	샤까세
21332	고깔	꼬깔모자
21333	사모	사야'모'
21334	유건	*
21335	대님	다임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사'니라
21338	미투리	미아'틀신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곁다	사암'는다
21339	나막신	나막'신
21340	설피(雪皮)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멍지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모'카'
21402-1	목화다래	다래
21403	무명	미양'배
21403-1	무명실	미양'실

21404	씨아	쉐에기
21405	자새	자샤라
21406	물레	물레
21407	배	배'잔다
21408	갈쌈	잘쌈
21409	골무	골마'라요
21410	반짢고리	바늘당사기
21411	가위	가위 가사'게
21411-0-1	-을	가사'게 가져온너'라
21411-0-2	-에	*
21412	마르다(裁)	말'근다 말'른'다
21412-0-1	-고	말'꼬
21412-0-2	-어라	말'가라
21413	형짚	형'갑'쫓가'리
21413-0-1	-을	*
21413-0-2	-에	*
21414	바늘	바'늘
21415	깨다	까'지오
21415-0-1	-고	까'구 잇어'요
21415-0-2	-어라	까'이라
21416	바느질	바'느'지'리라
21417	재봉틀	자'방'치'미'라
21418	끈	바'오'래'기 꼬'나'깨'이 끈
21419	노끈	노'꼬'니
21420	참바	바'오'래'기
21421	매듭	매'드'미'라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무'까'아'라
21422	보자기	보'재'기'여
21423	이불	이'부'리'라
21424	솜	소'움'
21425	포근하다	포'근'포'근'하'다
21426	흠이불	훈'나'불
21427	겹이불	잠'나'불
21427-1	솜이불	한'나'부'리'지'요
21428	누비이불	니'바'이'부'리'라
21429	베개	비'아'개
21430	베갯잇	호'창'
21430-0-1	-에	*
21431	목침	몽'차'미
21432	퇴침	테'치'미(+곽을 짠 후 나무토막을 넣어 만든 것.)
21433	방석	자'부'둥 방'석'

21434 담요
 21435 빨래하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다암'뇨
 서답'뻔다 | 빨래'식는다 | 빠'라라 | 사'쳐라 | 사'껴라
 물'뽕매'이
 빨래'터
 빨래'줄
 다래'비 | 다라'미라
 대'림'질
 윤'다
 따'듬'뽕매'이
 따'듬'돌
 따'듬'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옷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옷놀이
 21508 옷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옷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설'랄
 설'
 서'알'딸'그'믐'날
 *
 올'개
 *
 자'양'년
 재'자'양'년
 내'년
 후'우'년
 *
 자'근'서'리'라
 윤'노'능'거 | 유'튼
 *
 *
 윤'놀'기 | 윤'노'리'하'자
 유'까'치'라
 또'지'요
 개 | 개'다
 걸 | 개'리'다
 윤 | 유'치'다
 모 | 모'다
 *
 *
 *
 *

21509-4	넉동무니	*
21509-5	막동	*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자'차기
21514-1	작은 막대	*
21514-2	긴 막대	*
21515	수수께끼	수'제제간
21516	호미씻이	*
21517	팽과리	깡'가리 깡'마'라꼬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중'차미지
21520	무당	무'우'당
21520-1	박수	화'래이
21521	고수레	고'사'내
21521-1	고수레!	고'사'내
21522	점쟁이	점'재'이라 하'지요
21523	상여(喪輿)	행'사'
21524	굴건	굴'간
21525	제사	제'에'사' 지'내는 제'에'사' 제'에'사' 모'산'다
21526	제기	*
21527	귀신	구'우'사'니'라 귀'산'
21528	도깨비	또'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소) 이'까'리고
21602	굴레	*
21603	명예	명'에
21604	갈마	질'매
21605	부리망	호'오'리
21606	구유	(소)구'이
21607	작두	작'두
21608	꼴	꼴'반'다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소'주'기'라
21611	쇠죽바가지	소'죽'바'가'치
21612	수레	소'구'루'마'차

21613	끝다	끄은다
21613-0-1	-고	끄을'고
21614	바퀴	바'꾸라여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검승의)	새'끼느
21616	망태기	망태'기
21617	먹등구미	봉태'기
21618	거적	멍'석
21619	가마니	가'마이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틀 틀'이지요
21620	돛자리	도'짜리 초'사기'라꼬
21621	자리틀	초'사기' 찌는 틀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만들다/곁다/매다	자리'만다 가'마이는 짜'고'
21622	왕골	따'라'꼬(+김발 얹는 것) 왕'고'리'라(+돛자리 찌는 것)
21623	삼태기	재'산'태'미'라
21623-1	짚 삼태기	*
21623-2	싸리 삼태기	*
21624	멍석	떡'사'기(+네모난 것) 멧'빵'사'기(+등근 것)
21625	어레미	얼'가'미 양'근'체
21625-1	고운체	보'드'라운 가'리'체
21625-2	굵은체	양'근'체'고
21626	대장장이	*
21627	대장간	대'장'까'니'고
21628	풀무	풍'고'라'예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까'꾸'리
21632	집게	짜'깨
21633	장도리	모'빠'기 자'양'도'리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툽' 거'어'두(+큰 것) 토'받'
21634-0-1	-에	
21635	도끼	도'오'끼'고
21636	자루(柄)	자'리
21636-0-1	-을	*
21636-0-2	-에	자'라'예
21637	갈고리	골'개'이 골'가'라
21638	썰기	보'를'까'아가
21639	송곳	소'옹'곳'
21639-0-1	-에	소'옹'구'세
21640	뽕죽하다	빼'쪽'하'면

21641 솟돌
 21641-01 -에
 21642 맏돌
 21642-1 수쇠
 21642-2 암쇠
 21643 지계
 21644 발채
 21645 지계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순딸
 순뚜레
 맏또리지오
 *
 *
 지계
 바야소구리
 지계짜찌
 *
 몽다이크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얄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향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빠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번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비짜리
 광자리
 소쿠리
 함지
 소오'리라 | 풀뻐
 소오'리라
 도기라꼬
 *
 물'단지 | 물또기라꼬
 *
 단'지라꼬
 물또오
 똥아리 | 따배'이라꼬
 오옹'기
 조롱'박 바까'지
 키짜'기라 | 채'이짜
 떡살'게
 *
 시라'
 *
 시라'에
 시리'바닥
 *
 시리'뽀
 부'채'똥
 *
 부'채
 *
 다'암'배

21724	담뱃대	
21725	담배설대	담바때 *
21726	대통	때꼬마리
21727	물부리	물쭈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삼지라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리
21732	가락지	가락찌라꼬 반지
21733	비녀	비녀
21734	참빗	참비시지오
21734-0-1	-을	*
21734-0-2	-에	*
21735	얼레빗	얼게비시다
21736	세숫대야	세수대애라꼬
21737	비누	바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앙애폐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우우장 도레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때
21802	이마빼기	*
21803	눈자위	눈똥자리(+검은자위 안의 동그란 부분)
21804	검은자위	꺼믈창
21805	흰자위	한창
21806	눈꺼풀	능까푸리라
21807	거적눈	꺼장누니라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서비
21809	속눈썹	안눈썹
21809-0-1	-이	안눈서비라
21810	눈두덩	눈따둑
21811	안경	아양경
21812	안경집	아양경잡
21813	돋보기	도빠기
21814	주름살	쭈굴사리다

21814-0-1	-이	*
21815	엣되다	*
21816	수염	췌에미
21817	구레나룻	구리췌에미라
21817-0-1	-을	*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췌에미라
21820	코딱지	코따까리
21821	콧구멍	코구멍
21821-0-1	-을	*
21821-0-2	-에서	*
21822	콧물	코물
21823	입술	입수구리
21823-0-1	-에	*
21824	다물다	다물고있다 다무라라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단니라
21827	휘파람	휼빠람
21828	침	침 추마
21829	삼키다	생케라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패반는다 패바타라
21832	혀	헤빠닥 헤
21833	헛비늘	헤빠늘 도달따
21834	콧볼	귀뺨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
21836	귀지	귀인채이
21837	귀이개	귀휘개
21838	소리	소리가
21839	엮들다	여뜯는다
21840	귀청	귀창
21841	귀밑	*
21841-0-1	-에	*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자미
21844	주근깨	주궁깨라
21845	턱	태가지
21846	턱수염	췌에미
21847	뺨	빠마리(+냇춤말) 빠물

21847-1	불	볼태기(+뽀과 구별 없음) 뽀리리(+뽀과 구별 없음)
21848	가름하다	겔소옴하다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리
21851	비듬	바름
21852	기계총	소바즘
21853	정수리	짱배기
21854	대머리	번데머리
21855	고수머리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가라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타는거느
21857	가미(旋毛)	가매
21857-1	가미(鼎)의 성조·음장	가매소치라
21857-2	가미(轡)의 성조·음장	가야매
21857-3	가미(鷄)의 성조·음장	*
21857-4	가미(가마니)의 성조·음장	*
21858	뒤통수	디아통시
21859	뒷덜미	*
21860	목	목'
21861	먹살	맥살 맥살 쥐안다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밑치다	만다
21903	겨드랑	게트락 자트락
21904	등	등을
21905	가슴	가슴
21906	절리다	절러가
21907	갈비뼈	갈비
21908	허파	허파
21909	살개	열(+중국) 살개라
21910	콩팥	콩파치라
21910-0-1	-에	콩파떼
21910-0-2	-을	*
21911	팔	파리지요
21912	팔꿈치	팔꿈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꿈찢다
21914	손톱	손톱 손투비
21915	오른손	오란손
21916	왼손	위안소이라(+구) 외엔소이라(+신)
21917	다르다	따도 따지요

21917-0-1	-아서	*
21917-1	틀리다	*
21918	원손잡이	웬재기
21919	엄지손가락	엄자송까락
21920	집게손가락	두분째송까락
21921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송까락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까락 생'손알'른다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소나구
21927	손목	숨목'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역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간'자'럼'탄다
21933	간지럼	간'자'럼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근'육'
21936	배꼽	배'꼽' 배'꾸'멍'
21937	목물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상'시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뺨'다기'라
22004	발톱	발'톱'이'고
22005	냄새	내'앎'새'
22006	고린내	꼬'란'내'
22007	굳은살	구'둑'살'
22008	정강이	초'땀'뼈'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자'양'판'지'
22011	회초리	훤'차'리'라
22012	무릎	무'릎'팍'
22012-0-1	-을	*
22012-0-2	-에	무'릎'파'게'
22013	오금	오'금'치'
22014	엉덩이	어'양'다'이'
22015	궁둥이	궁'다'라 구'양'다'이'

22016	불기	불'가'작 구'옹'다'이크
22017	명	명' 명'장'고'라
22018	명울	몽'야'리'라
22019	가랑이	가'다'리'르
22020	사이	새'애'라
22021	살	사'타'리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사'타'리'라
22023	가래뚝	가'리'머'리 가'래'토'시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신'다'리 허'복'다'리
22025	넓적다리	넙'딱'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패'이'치고 안'자'따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가'양'가 개'뿌'리'들'려
22102	기침	가'침
22103	채채기	채'치
22104	사레	개'까'인'다 새'알'들'라'이'따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들'리'다
22105	딸꾹질	끌'따'개'하'느 깔'딱'쩔
22106	트림	트'람'한'다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소'니'미'라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수'토'병'이'라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학'질'병'이'라 홍'잔' 호'여'기'라
22112	불거리	빨'차'기
22113	땀띠	땀'띠'기
22114	두드러기	꾸'만'한'다(+중'극) 두'디'레'기
22115	버짐	마'린'버'짐
22115-1	마른버짐	마'린'버'짐
22115-2	진버짐	*
22115-3	도장버짐	*
22116	문둥이	무'운'다'이
22116-1	문둥병	무'운'둥'병'이'라

22117	부스럼	허안다
22117-1	중기	*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곰'긴다
22120	난쟁이	나안'쟁이
22121	사팔뜨기	*
22122	언청이	올'차이
22123	소경	보'옹'샤
22123-1	당달봉사	당'달봉사
22124	애꾸	*
22125	눈곱	눈'꼬'비라 초'나'왈따
22126	다래끼	다래'끼
22126-1	다래끼	민다래'끼
22126-2	다래끼	*
22127	절름발이	절'뚝'바리
22128	곱사등이	곱'새
22129	귀머거리	막'꾸'라꼬
22130	말더듬이	커'어'비(+중국) *
22131	병어리	버'바'리라
22132	잠꾸러기	잠'타'이라
22133	줄리다	자'분'다 자'불'구
22134	하품	하'품'하는
22135	줄음	자'부'름
22135-0-1	-을	*
22135-0-2	-에	*
22136	잡꼬대	군'소리 장'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입'셔'리
22201-0-1	-을	*
22202	갓난아이	간'난'애기
22203	어린아이	얼'라'이지오
22204	경기(驚氣)하다	장'끼
22205	눅히다	누'파'이라
22206	계집아이	가'사'나'아 지'지'바'아'라
22207	예쁘다	이'아'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시'마'아
22209	아우 타다	아'사'본'다
22209-1	아우보다	*
22210	야위다	애'빈'다 애'베'따
22211	쌍둥이	상'두'이라 상'다'이라'꼬

22212	오줌	오잠산다
22213	똥	똥산다
22214	기저귀	기자기
22215	뉘다(排便)	뉘'에라
22216	방귀	바양'구
22216-1	뀌다	칸'다
22217	구린내	쿠란'내 꾸릉'내난다 쿤'내난다
22218	구리다	꾸리다
22219	포대기	두다기
22220	기지개	지아'자개서'능거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
22221	거짓말	거야'잔말
22222	남부끄럽다	남'새시럽따
22223	겉쟁이	깍'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상'하다
22225	죄암죄암	재앰'재앰
22226	곤지곤지	지안'잔
22227	따로따로	용타'용타'
22228	도리도리	도라'도라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불매'불매'
22231	걸음마	거름'바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어'파'제따(+앞으로 넘어지는 것) 자'빠'져따(+뒤로 넘어지는 것)
22234	곤두박질	꿇두'박'질
22235	안기다	양'긴다 양'기'인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홀'때'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꿈
22239	소꿉놀이	빠'꿈'샤'리 동'디'깨'비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
22241	연	여'니'라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가'부'리'연
22242	걸리다	걸'라'이'머
22243	고누	*
22244	땅뺨기	*
22245	팽이	패'이
22246	딱지치기	딱'지'치'기
22247	구슬	다'마'치'기
22248	그네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밭싹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57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판다
 밭'판'이지오
 동태'구부'리
 굴'린다
 *
 *
 자'장'거
 목'마' 태아가
 *
 다'말'레 기라꼬 | 쪼'차'바'리해라
 썰'매'
 썰'매'탄다
 송'고'슬 | 형'감'부'란다
 *
 부'애'난다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요
22302	어머니	엄'마'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
22303	할아버지	할'배'
22303-1	할아버지(호칭)	할'배'요
22304	할머니	할'매'라
22304-1	할머니(호칭)	할'매'요
22305	남편	실'랑'
22305-1	남편(호칭)	자'가'아(+젊을 때) 여'보'(+나이 들 때)
22306	아내	집'사'람
22306-1	아내(호칭)	자'가'야 여'보'
22307	형	형'이라 형'님'
22307-1	형(호칭)	형'님'
22308	아우	동'상'
22308-1	아우(호칭)	이'름'+아
22309	누나	누'나'지요 누'부'야
22309-1	누나(호칭)	누'부'아(+결혼 전) 누'님'+(+결혼 후)
22310	누이	여'동'상'
22310-1	누이(호칭)	이'름'+아(+결혼 전) 남'편' 성+서'방'네(+결혼 후)
22311	자식	자'식'
22312	만아들	마'다'드리지
22313	만딸	만'따'리고

22314	막내	망내이지요
22315	오빠	오'빠'라
22315-1	오빠(호칭)	오'라'배요(+결혼 후) 오'빠'요(+결혼 전)
22316	언니	안'나라꼬
22316-1	언니(호칭)	안'니아(결혼 전후)
22317	아비	아'아'애비 안'나?
22317-1	아비(호칭)	크'나'이라꼬 아이이름+아'바'이'애(+아이가 있을 때)
22318	어미	아이이름+어'마'이(+아이가 있을 때) 잘'머'이(+아이가 없을 때)
22318-1	어미(호칭)	야'아'야'애
22319	손자	손'자'라꼬
22320	손녀	손'녀'고 솔'려'라꼬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이'사'라'마'
22322	외손자	웨'애'손'자
22323	외손녀	웨'애'손'녀
22324	꾸짖다	꾸'자'럼'한다
22324-0-1	-고	*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앤다 머'라'한다
22325	총각	초'웅'각'
22326	처녀	처'녀'라
22327	혼인	게'론'한다 호'안'
22327-1	혼인식	*
22328	혼인 잔치	겨'론'잔'치
22329	장가가다	자'양'개'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자'간'다
22330	혼숫감	예'단'
22331	함	하'암'
22332	겹사돈	겹'사'도 이'라
22333	새색시	새'색'시'라
22333-1	새색시(호칭)	새'태'기
22334	시아버지	시'아'부'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부'님
22335	시아머니	시'어'머'이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무'이'요
22336	비위	비'우'를
22337	아주머니	시'아'수'기'다 만'시'숙 둘'째'시'숙
22337-1	아주머니(호칭)	아'지'바'님'요
22338	서방님	아'지'배'앰(+나이가 많이 들 때)
22338-1	서방님(호칭)	아'지'배'앰
22339	도련님	도'른'님
22339-1	도련님(호칭)	도'른'님

22340	형님	만똥세 두울'째 동세
22340-1	형님(호칭)	형님요
22341	시누이	만'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형님(+손위 시누)
22341-2	아가씨	손알시누
22341-3	아가씨(호칭)	액'사'아(+손아래, 결혼 전) 남편의 성+서방네!(결혼 후)
22342	올케	올'깨 동사'아택 월'깨
22342-1	올케(호칭)	올'깨야!
22343	매형	매형이다
22343-1	매형(호칭)	매형요
22344	매제	매부
22344-1	매제(호칭)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솟자+째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라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두울'째 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세애'째 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남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큰크'남마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
22347	큰집	큰자비라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남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요
22351	아저씨	아재 숙부님
22351-1	아저씨(호칭)	오오'촌아'재요 숭'모'야 아'지매요
22352	아주머니	아'지매라 숭'모'라꼬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잘'래'지요
22355	고모	고'모라꼬
22355-1	고모(호칭)	고'모요
22356	고모부	고'무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무부요
22357	고종	고'종간 고'종사'아'촌
22358	이모	이'모라꼬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요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요
22360	이종	이종사야'촌'
22361	외삼촌	웨에'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웨에'삼촌요
22362	외숙모	웨에'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웨에'송모요
22363	외종	웨에'사촌
22364	외할아버지	웨할'배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웨할'배요
22365	외할머니	웨할'매
22365-1	외할머니(호칭)	웨할'매
22366	장인	자안'
22366-1	장인(호칭)	자안'어른
22367	장모	자양'모'
22367-1	장모(호칭)	자양'모'님
22368	처남	차나'미지요
22368-1	처남(호칭)	차남!
22369	처남댁	남차'라꼬 처나'무대기라꼬
22369-1	처남댁(호칭)	남치'외
22370	홀아버	포오'토'리(+중국어) 호부'래'비
22371	홀어미	과야'부' 과야'태'기
22372	계모	서오'모' 님'신에'미
22372-1	계부	*
22373	아저씨	아저'시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시요
22374	아주머니	아쭈'마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쭈'마
22375	사나이	사나'아
22376	영감	영감'님 저거'할'배요 두산'배'기 영감'태'기라
22376-1	할머니를 낳추어 말할 때(저 놈의 할망구)	할망'탕'구 할망'구'라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
22378	환갑	하양'가'비라
22378-1	환갑잔치	하양'갑'잔치
22379	사투리	*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고
22402	민물고기	맹'물'꼬'기고

22403	피라미	피들'치
22404	지느러미	날개'미지오
22405	아가미	아금'치
22406	창자	창'샤 창'자
22407	송사리	*
22408	헤엄	햄'질한다
22409	메기	미'샤구
22410	자라	자래'요 거부'기
22411	거북	*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소) 미꾸래'기(+다)
22413	개구리	깨'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무운다'이'깨'구라 뚜'까'비
22416	거머리	거'아'마리
22417	다슬기	조오'래'고다'이
22418	우렁이	농'꼬'디아라
22419	고둥	*
22420	달팽이	하'야'마'고다'이라
22421	새우	새'우'아'니'라'요 새'비'라
22421-1	새우(대)_민물	새'우'라(+중국) 새'비'라(+한국)
22421-2	새우(소)_민물	*
22421-3	새우(대)_바다	왕'새'우'라
22421-4	새우(소)_바다	새'우'새'끼'라
22422	새우젓	새'우'적'까'리'라
22422-0-1	-이	*
22423	가재	까'야'재
22424	갈치	칼'치'라'예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가'부'리
22427	가자미	가'재'미
22428	멸치	메'레'치 멸'치'라'꼬
22429	명태	맹'태
22429-1	동태	어'은'맹'태
22429-2	황태	마'란'맹'태'라
22429-3	노가리	*
22429-4	복어	*
22429-5	생태	*
22430	조기	조'구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붕'자'아
22433	낙시	낙'수'

22434	미끼	미'까비지
22435	낙'싯대	낙'수'때라
22436	얼레	자'샤
22437	조개	조개'라예
22438	소라	조오'래'고다'이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기 벌'자지
22502	날'벌레	*
22503	파리	파'래'이라'꼬
22503-1	쉬'파리	쉬'파'리'라
22504	쉬'슬다	쉬'산'다
22505	가'시	구우'다'이
22506	진'딧물	뜨'물'벌'레
22506-1	(진'딧물'이) 까'다/얹'다/생'기'다	*
22507	잠'자리	잠'자'리 처'알'배'이
22508	방'이'깨'비	홍'굴'래'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메'뚜'기	메'따'기
22510	여'치	여'안'차
22511	사'마'귀	사'마'구
22512	벌	버'어'리
22512-1	(벌'을) 차'다/기'르'다/키'우'다	키'운'다
22513	땅'벌	땡'버'리'라
22514	나'비	범'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샤'리
22516	풍'뎡'이	*
22517	모'기	모'기 모'개'이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애'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발'기
22521	반'딧'불	*
22522	거'미	거'미 거'무
22523	구'뽕'이	구'웁'바'기
22524	구'더'기	구'우'드'레
22525	노'래'기	노'네'각'씨'라
22526	그'리'마	시'렁'거'무 도'온'발'개
22527	지'네	지'네 자'네'라
22528	개'미	개'애'미
22529	바'구'미	바'야'구'미

22530	진드기	까분지
22531	벼룩	베레기
22532	이(蟲)	아도
22532-1	서캐	새가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차이 황차이
22534	귀뚜라미	끼뚜라미
22535	누에	누에예
22536	고치	꼰치라
22537	번데기	뻘데기
22538	지렁이	지아레이
22539	화충(蠨蠸)	까꾸리
22540	소금쟁이	맹근재이
22541	방개	바양개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야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위아미'위어미
22605	황소	화양소
22606	길들이다	잘따리는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이로'이로'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위위위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	(고삐를 오른쪽으로 넘겨서)알'로'가자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	(고삐를 왼쪽으로 넘겨서)알'로'가자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고삐를 잡아당기면서)물'러'물'러'물'러'
22607	쇠고기	살'꼬'기
22608	고기(肉)	살'꼬'기라
22609	둘치	부'라'기라
22610	꼬리	꼬'리
22611	망아지	망야지
22612	당나귀	땅나'기라
22613	갈기	*
22614	돼지	돼에'지
22614-1	멧돼지	
22615	주둥이	산'땡'지 주'다'이
22616	돼지 머리	테에'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테'자'우리
22617-1	오래오래	까야'까'아
22618	개(犬)	개애'

22618-1	수캐	수깨
22618-2	암캐	양깨
22619	강아지	강아지 강새이
22620	염소	여암소
22621	고양이	암새이 고오내기
22621-1	수고양이	수꼬내기
22621-2	암고양이	암꼬내기
22622	토끼	토끼 토깨이라
22623	거위(鵞)	가우(+한국) 개사이라(+중국)
22624	암탉	암따키 암따리라 닥또 다키라
22625	병아리	뼈아리라
22626	모으다	모안다
22627	수탉	장딸
22627-0-1	-이	다키
22628	벚(鷄冠)	배실
22629	부리	조다이
22630	모이	모이 모시
22630-0-1	-을	*
22630-1	모이다	모아다
22631	닭털	닥탈 달구타리
22632	닭똥	달기똥 달구똥 닥똥
22633	어리	달구통
22634	닭장	달구우리는
22635	둥우리	둥자리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
22637-0-1	-을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버암 호오래이
22702	살쾡이	살개이
22703	여우	예수라
22704	원숭이	위안사이라 쨌내비라
22705	사슴	샤심
22706	노루	노라고 놀개이
22706-0-1	-이	*
22706-0-2	-을	*
22707	고슴도치	고심도시
22708	두더지	디자기라
22709	족제비	쪽짜비
22710	뱀	배에미라 배앰

22711	도마뱀	도마뱀
22712	구렁이	구우라이
22713	살무사	*
22714	생쥐	췌양지
22715	박쥐	뽀올'짜라 뽀'짜라 까'꿀로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새애'가
22719	꿩지	꼬리 꿩'지라
22720	솔개	새매
22721	독수리	독수리 소래'기
22722	제비(燕)	제애'비 연자
22723	두루미	*
22724	소쩍새	*
22725	꿩	꿩 꿩'이라
22726	장끼	수'꿩
22727	까투리	앙'꿩
22727-1	꺼병이	*
22728	종달새	노고'자리
22729	빠꾸기	빠'꼭새
22730	기러기	가'라'기
22731	뜸부기	물'새'라
22732	올빼미	오'빼'미
22733	까치	까'안'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차'끼
22735-0-1	-을	*
22736	올가미	올개'미라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꼬'치 창'꼬'테
22802	철쭉꽃	진달'래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꼬'자'람 가'자'꼬치라 맨드'래'미라
22805	봉선화	불'살'개 보'옹'숭'아
22806	파리	영'계가 영'기 뽀'까'리 꿩'아'리'라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꼰'몽'아'리
22809	시들다	시드'랴'따

22810	질경이	뽕째이라 깔짱구라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뽕째이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뽕째이나물
22811	빨기	*
22812	비름	바름 참바름(+털이 없는 것) 개바름(+털이 있는 것)
22813	쇠비름	쉐바름
22814	썸바귀	산내이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
22816	고사리	고샤리
22817	고비	고바
22818	도깨비바늘	찰밥때 도동'농까시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
22820	억새	딸새
22821	갈대	가알때
22822	이끼	청태
22823	아주까리	피야지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
22826	덩굴	녕꾸리라 녕쥰
22827	덤불	더부'리시오
22827-1	가시덤불	까사'덤불
22828	잔디	떼딤지 떼'를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뽕구
22903	관솔	과양'솔
22904	솔가리	갈'비
22905	그려모으다	끄라모'이라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디
22908	도토리	도토리 굴'밤
22909	떡갈나무	참나무라
22910	상수리	*
22911	옻	온나무 오도란'다 오'슬 오'시라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시알'버들
22913	느티나무	*

22914	그림자	그란자
22914-1	그늘	그느리
22915	숲	수파라 수람장
22915-0-1	-을	*
22915-0-2	-에	*
22916	시원하다	시위안하다
22917	절레	질레
22918	찰	찰가 칠뿌리
22918-0-1	-에	*
22919	가지(枝)	적까지 가자
22920	끝	꼬테
22920-0-1	-이	꼬차
22920-0-2	-을	*
22920-0-3	-에	*
22921	삭정이	마란가지
22921-1	삭정이를 탄다/썬다/하다	깡는다
22922	나무	나무가 냥기
22922-0-1	-을	*
22922-0-2	-에	나무'에 냥게
22923	나무하다	나무하러
22924	그루터기	*
22924-1	그루터기	결따기(+곡식을 베고 남은 부분)
22925	등걸	*
22926	장작	장재기라
22927	꽤다	깡다 깡다
22928	부스러기	뿌시래기
22929	숫	수깡땅거리
22929-0-1	-이	*
22929-0-2	-을	*
22929-0-3	-에	*
22930	불잉걸	*
22931	썩	촉튼다 샤기라
22932	앞	앞샤고지요
22932-0-1	-을	*
22932-1	앞사귀	*
22933	가랑잎	까람니피라
22934	뿌리	뿌리 뿌레이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숭아 복상
23004	곶감	곶까미지
23005	홍시	홍'시감
23006	고욤	꽤'양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라
23010	오얏	웨'에지
23010-0-1	-을	*
23011	석류	상'노
23012	모과	모오'개
23013	과일	과사'리라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바'암송'이
23015-2	팥밤	푸'빠'미고
23015-3	알밤	알'바'미라
23015-4	쌍둥밤	*
23016	보늬	소'옥'깍'찌
23017	호두	*
23018	가래(秋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덜'구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당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머
23025	딸기	잡'딸기
23025-1	딸기(밭)_재배	*
23025-2	딸기(밭)_야생	*
23025-3	딸기(들)_재배	*
23025-4	딸기(들)_야생	*
23025-5	딸기(산)_재배	*
23025-6	딸기(산)_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배'앰'딸기
23027	마름(菱)	말'밥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상'꼭'때기
-------	------	--------

23102	기슭	기슭	게
23102-0-1	-에	상끼	슬
23103	꼴짜기	상꼴	짜기 꼴
23104	메아리	*	짜기라
23105	고함	과	암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찬	다 지
23106	묘	찬	다 지
23107	뿔자리	모	지요 모
23107-1	광중	미	아
23108	구덩이	*	짜리
23109	비탈	구	다
23110	가파르다	바	알 산
23111	언덕	까	막
23112	낭떠러지	자	다
23113	들(野)	언	다
23113-0-1	-에	가	라
23114	별	배	라
23115	갈림길	게	
23116	헤어지다	들	판
23117	바위	*	
23117-0-1	-을	별	파
23117-0-2	-에	니	
23118	돌(石)	갈	랑
23118-0-1	-을	길	
23118-0-2	-에	해	진
23119	자갈	다 갈	라
23120	모래	자	갈
23120-0-1	-를	돌	
23121	진흙	방	우
23121-1	찰흙	*	
		방	우
		우	'에
		도	오
		'라	라
		*	
		도	오
		'레	
		자	가
		리	라 자
		갈	돌
		모	'새
		*	
		진	흙
		찰	흙 찰
		흙	'이라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로
23202	거품	거	품
23203	개운하다	깨	훈
23204	도랑	하	다
23204-1	붓도랑	거	랑
23205	둑	보	또
23206	잠기다	랑	
23207	개울	뚜	글
23208	내(川)	강	개
		가	주
		큰	보
		뚝	거
		랑	

23209 미역 감다
 23210 발기승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21 돛대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닻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필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리얏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해앰 잘하능거 | 목'깜'는다
 빨가버' 섯따 | 빨가다'이
 모'옥'하능거
 수'채'꾸영
 개골창'
 *
 웅'덩이
 시부'꾸세
 *
 *
 배'가'
 *
 도'풍'
 *
 돛'때
 돛'판배라
 돛'줄
 닻'쥬리라 | 닻'슬
 *
 *
 뱀'리'지요 | 감'태'기
 *
 *
 들'물'
 날'물'
 까'란'는다
 구'물' | 그'무'리라
 해'애'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새부'기라
 새벽'밥
 아침 | 아'자'게
 아침'밥 | 아'작'밥
 저'암'슴
 저'녁 | 저'녁'밥
 *
 너'을
 *
 불'구'수리'하다
 해'거'름'

23311	땅거미	*
23312	봄	보'마'지오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우
23315	추위	추바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가살'게
23317	겨울	겨울
23317-0-1	-에	겨우'레
23318	얼음	어르'미라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래	모'래
23322	글피	글 피
23323	그글피	그'글 피
23324	어제	어저'께 아'제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훈'날
23328	하룻날	초하'란'날
23329	이튿날	초이'튼'날
23330	사흘날	초사'흔날
23331	나흘날	초나'흔날
23332	닷새날	초달'새
23333	엿새날	초여'세
23334	이렛날	초아'레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레
23337	열흘날	초여'를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알
23341	나흘	나'알
23342	닷새	다'세
23343	엿새	여'세
23344	이레	아'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반'나'잘
23348-1	반나절	*

23349	그름	그뭍'날
23349-1	그름께	*
23350	지금	자'금
23351	아직	안'주
23352	이제	이'제
23353	이미	*
23354	요즈음	요'즘
23355	금방	방'금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해'뻬'테
23401-0-1	-이	*
23401-0-2	-을	*
23402	따스하다	따'시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랑'이
23404	응달	음'달
23405	양달	양'달 양'지'짜'
23406	비(雨)	바'가'
23407	가랑비	가'랑'비 갈'방'비
23408	이슬비	이'살'부(+이'실'비 오)
23409	안개	아'양'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자'개
23412	소나기	소'내'기 소'낙'뻬'라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홍'수
23415	번개	방'개'뻬'
23416	천둥	우'레 천'동
23417	벼락	뻬'락
23418	무섭다	무'섭'찌'오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사'랑'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눈'비'온'다
23423	우박	우'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해'매'매'왈'따
23426	달무리	달'매'
23427	둥글다	둥'근'달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애'뻬'

23430	가뭇	가뭇
23431	마르다	마라 지오
23431-01	-어서	말라
23432	위	우'에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웬짜'게
23435	오른쪽	오'란'쪼게
23436	결	여'페 자'테
23436-01	-에	자'테 여'페
23437	회오리바람	돌개'빠'람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제3편 음 운

3.1. 음운체계

3.1.1. 단모음

31001	테(輪)	
31001-01	-이/가	태
31001-02	-보다	*
31002	태(胎)	
31002-01	-이/가	태
31002-02	-보다	*
31003	떼(群)	
31003-01	-이/가	*
31003-02	-보다	*
31004	때(時)	
31004-01	-이/가	때
31004-02	-보다	*
31005	틀(機)	
31005-01	-이/가	트'라
31005-02	-보다	*
31006	털(毛)	
31006-01	-이/가	트리
31006-02	-보다	*
31007	글(文)	
31007-01	-이/가	글
31007-02	-보다	*
31008	결(옷)	
31008-01	-이/가	그렁가
31008-02	-보다	*
31009	기(旗)	
31009-01	-이/가	기
31009-02	-보다	*
31010	귀(耳)	
31010-01	-이/가	귀
31010-02	-보다	*
31011	시(生時)	
31011-01	-이/가	샤
31011-02	-보다	*
31012	쉬(蜚卵)	
31012-01	-이/가	쉬아

31012-0-2	-보다	*
31013	쇠(鐵)	
31013-0-1	-이/가	썰
31013-0-2	-보다	*
31014	외:국(外國)	
31014-0-1	-이/가	웨에'국
31014-0-2	-보다	*
31015	왜국(倭國)	
31015-0-1	-이/가	웨'노미지
31015-0-2	-보다	*
31016	쉬:다(休)	
31016-0-1	-이/가	쉬아가
31016-0-2	-보다	*
31017	좌:다(설을)	
31017-0-1	-이/가	샤인다
31017-0-2	-보다	*
31018	베(布)	
31018-0-1	-이/가	배
31018-0-2	-보다	*
31019	배(船)	
31019-0-1	-이/가	배'가
31019-0-2	-보다	*
31020	배(腹)	
31020-0-1	-이/가	배'가
31020-0-2	-보다	*
31021	(떡)매	
31021-0-1	-이/가	매
31021-0-2	-보다	*
31022	매(鞭)	
31022-0-1	-이/가	매
31022-0-2	-보다	*
31023	매:다(擔)	
31023-0-1	-이/가	민다
31023-0-2	-보다	*
31024	매:다(繫)	맨다
31024-0-1	-이/가	
31024-0-2	-보다	*
31025	떼:다(分離)	
31025-0-1	-이/가	뜬다
31025-0-2	-보다	*
31026	떼:다(炊)	

31026-01	-이/가	만다
31026-02	-보다	*
31027	배:다(切斷)	
31027-01	-이/가	반다
31027-02	-보다	*
31028	배:다(孕胎)	
31028-01	-이/가	밴다
31028-02	-보다	*
31029	세:다(算)	
31029-01	-이/가	산다
31029-02	-보다	*
31030	새:다(漏世)	
31030-01	-이/가	샌다
31030-02	-보다	*
31031	뒤(後)	
31031-01	-이/가	디아
31031-02	-보다	*
31032	되(升)	
31032-01	-이/가	데
31032-02	-보다	*
31033	개:(蟹)	
31033-01	-이/가	기이
31033-02	-보다	*
31034	개:(犬)	
31034-01	-이/가	개애가
31034-02	-보다	*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31035-01	-이/가	여러
31035-02	-보다	*
31035-03	-을/를	*
31036	물결(波)	
31036-01	-이/가	물결
31036-02	-보다	*
31036-03	-을/를	*
31037	예:의(禮義)	
31037-01	-이/가	예저리라
31037-02	-보다	*
31037-03	-을/를	*
31038	계:획(計劃)	

31038-01	-이/가	*
31038-02	-보다	*
31038-03	-을/를	계획글
31039	규칙(規則)	
31039-01	-이/가	귀처기
31039-02	-보다	*
31039-03	-을/를	귀처글
31040	휴일(休日)	
31040-01	-이/가	*
31040-02	-보다	*
31040-03	-을/를	*
31041	교통(交通)	
31041-01	-이/가	고'통이
31041-02	-보다	*
31041-03	-을/를	*
31042	효:자(孝子)	
31042-01	-이/가	효오'자'
31042-02	-보다	*
31042-03	-을/를	*
31043	웬일(何事)	
31043-01	-이/가	웨엔'날
31043-02	-보다	*
31043-03	-을/를	*
31044	궤:(좌)(櫃)	
31044-01	-이/가	귀아'짹
31044-02	-보다	*
31044-03	-을/를	*
31045	왜란(倭亂)	
31045-01	-이/가	*
31045-02	-보다	*
31045-03	-을/를	*
31046	햇대(鷄架)	
31046-01	-이/가	*
31046-02	-보다	*
31046-03	-을/를	*
31047	원망(怨望)	
31047-01	-이/가	위안'망
31047-02	-보다	*
31047-03	-을/를	*
31048	관'투(拳鬪)	
31048-01	-이/가	코온'또'라

31048-0-2	-보다	*
31048-0-3	-을/를	*
31049	의논(義論)	
31049-0-1	-이/가	으 ^ㄴ
31049-0-2	-보다	*
31049-0-3	-을/를	*
31050	무늬(紋)	
31050-0-1	-이/가	무 ^ㄴ
31050-0-2	-보다	*
31050-0-3	-을/를	*
31051	왕(王)	
31051-0-1	-이/가	왕 ^ㄹ
31051-0-2	-보다	*
31051-0-3	-을/를	*
31052	과자(菓子)	
31052-0-1	-이/가	과 ^ㄹ 자
31052-0-2	-보다	*
31052-0-3	-을/를	*

3.1.3. 장모음 · 성조

31053	일(一)	
31053-0-1	-이/가	아 ^ㄹ 리라
31053-0-2	-보다	*
31054	일:(事)	
31054-0-1	-이/가	이아 ^ㄹ 리
31054-0-2	-보다	*
31055	매(鞭)	
31055-0-1	-이/가	매 ^ㄹ 가
31055-0-2	-보다	*
31056	매:(鷺)	
31056-0-1	-이/가	매애 ^ㄹ 가
31056-0-2	-보다	*
31057	밤(夜)	
31057-0-1	-이/가	바 ^ㄹ 미다
31057-0-2	-보다	*
31058	밤:(栗)	
31058-0-1	-이/가	바아 ^ㄹ 미다
31058-0-2	-보다	*
31059	눈(眼)	
31059-0-1	-이/가	누 ^ㄹ 나다
31059-0-2	-보다	*

31060	눈:(雪)	
31060-0-1	-이/가	누나
31060-0-2	-보다	*
31061	말(馬)	
31061-0-1	-이/가	마리다
31061-0-2	-보다	*
31062	말(斗)	
31062-0-1	-이/가	마리다
31062-0-2	-보다	*
31063	말:(言)	
31063-0-1	-이/가	마알
31063-0-2	-보다	*
31064	손(客)	
31064-0-1	-이/가	소니
31064-0-2	-보다	*
31065	손(手)	
31065-0-1	-이/가	소나라
31065-0-2	-보다	*
31066	손:(孫)	
31066-0-1	-이/가	소오'나다
31066-0-2	-보다	*
31067	배(梨)	
31067-0-1	-이/가	배다
31067-0-2	-보다	*
31068	배:(倍)	
31068-0-1	-이/가	배애'다
31068-0-2	-보다	*
31069	벌(罰)	
31069-0-1	-이/가	버'를
31069-0-2	-보다	*
31070	벌:(蜂)	
31070-0-1	-이/가	버'알
31070-0-2	-보다	*
31071	솔(松)	
31071-0-1	-이/가	소리'라
31071-0-2	-보다	
31072	솔:(刷)	
31072-0-1	-이/가	소'울
31072-0-2	-보다	* *
31073	줄(鉉)	
31073-0-1	-이/가	주'라'라

31073-0-2	-보다	*
31074	줄:(연장)	
31074-0-1	-이/가	주우'라다
31074-0-2	-보다	*
31075	돌:(石)	
31075-0-1	-이/가	도를'
31075-0-2	-보다	*
31076	담:(牆)	
31076-0-1	-이/가	다'말'
31076-0-2	-보다	*
31077	담:(牆)	
31077-0-1	-이/가	다미
31077-0-2	-보다	*
31078	들:(野)	
31078-0-1	-이/가	드으'레
31078-0-2	-보다	*
31079	달:(縣)	
31079-0-1	-고	달'더라
31079-0-2	-더라	
31080	달:(甘)	
31080-0-1	-고	달'더라
31080-0-2	-더라	
31081	달:(熱)	
31081-0-1	-고	다알'더라
31081-0-2	-더라	
31082	갈:(換)	
31082-0-1	-고	갈'더라
31082-0-2	-더라	
31083	갈:(磨)	
31083-0-1	-고	갈'더라
31083-0-2	-더라	
31084	갈:(耕)	
31084-0-1	-고	가알'더라
31084-0-2	-더라	
31085	갈:(收)	
31085-0-1	-고	거'떠라
31085-0-2	-더라	
31086	갈:(步)	
31086-0-1	-고	거어'떠라
31086-0-2	-더라	
31087	작:(書)	

31087-01	-고	*
31087-02	-더라	
31088	작:-(小)	
31088-01	-고	*
31088-02	-더라	

3.2 음운과정

3.2.1. 활용

32001	막-(防)[ㄱ]	
32001-01	-지	막찌
32001-02	-고	막꼬
32001-03	-더라	막따라
32001-04	-으니까	막그이까네
32001-05	-아/어(-왔/었다)	막가도
32002	흐르-(流)[ㄹ]	
32002-01	-지	흐리지
32002-02	-고	흐리고
32002-03	-더라	흐리더라
32002-04	-으니까	흐리니까
32002-05	-아/어(-왔/었다)	흘라도
32003	오-(來)[ㅇ]	
32003-01	-지	오지
32003-02	-고	오'고
32003-03	-더라	오'더라
32003-04	-으니까	오'니까
32003-05	-아/어(-왔/었다)	와도
32004	듣-(聞)[ㄷ]	
32004-01	-지	드찌
32004-02	-고	드'꼬
32004-03	-더라	드'따라
32004-04	-으니까	드'르니까
32004-05	-아/어(-왔/었다)	드'러도
32005	많:-(多)[ㄴ]	
32005-01	-지	마안치
32005-02	-고	마양코
32005-03	-더라	마안'터라
32005-04	-으니까	마야'느니까
32005-05	-아/어(-왔/었다)	마야'내도
32006	맡-(任)[ㅌ]	
32006-01	-지	마찌

32006-0-2	-고	막꼬
32006-0-3	-더라	마따라
32006-0-4	-으니까	막트니까
32006-0-5	-아/어(-았/었다)	마타도
32007	알:-[知][리]	
32007-0-1	-지	알지
32007-0-2	-고	알고
32007-0-3	-더라	아알더라
32007-0-4	-으니까	아야니까
32007-0-5	-아/어(-았/었다)	아라도
32008	감:-[閉眼][미]	
32008-0-1	-지	깜짜
32008-0-2	-고	깜꼬
32008-0-3	-더라	깜따라
32008-0-4	-으니까	까무니까
32008-0-5	-아/어(-았/었다)	까마도
32009	벗:-[脫][시]	
32009-0-1	-지	빠짜
32009-0-2	-고	빠꼬
32009-0-3	-더라	버따라
32009-0-4	-으니까	버스니까
32009-0-5	-아/어(-았/었다)	빠서도
32010	옴:-[可][리]	
32010-0-1	-지	올차
32010-0-2	-고	올코
32010-0-3	-더라	올타라
32010-0-4	-으니까	오르니까
32010-0-5	-아/어(-았/었다)	오래애도
32011	입:-[着衣][비]	
32011-0-1	-지	압짜
32011-0-2	-고	악꼬
32011-0-3	-더라	입따라
32011-0-4	-으니까	아부니까
32011-0-5	-아/어(-았/었다)	아버도
32012	바꾸:-[換][ㄱ]	
32012-0-1	-지	바꾸차
32012-0-2	-고	바꾸코
32012-0-3	-더라	바꾸타라
32012-0-4	-으니까	바꾸우니까
32012-0-5	-아/어(-았/었다)	바까아도
32013	덮:-[覆][꼬]	

32013-0-1	-지	더'푸니까 답'짜
32013-0-2	-고	닥'꼬
32013-0-3	-더라	답'따라
32013-0-4	-으니까	
32013-0-5	-아/어(-았/었다)	닥'퍼도
32014	묻:- (問) [ㄴ뵐]	
32014-0-1	-지	무'짜
32014-0-2	-고	무'우'꼬
32014-0-3	-더라	무'우'따라
32014-0-4	-으니까	무'르니까
32014-0-5	-아/어(-았/었다)	무'러도
32015	낫:- (臈) [스뵐]	
32015-0-1	-지	나'짜
32015-0-2	-고	나'아'꼬
32015-0-3	-더라	나'아'따라
32015-0-4	-으니까	나'스니까
32015-0-5	-아/어(-았/었다)	나'사도
32016	닫:- (閉) [ㄷ]	
32016-0-1	-지	다'드니까 다'짜
32016-0-2	-고	닥'꼬
32016-0-3	-더라	다'따라
32016-0-4	-으니까	
32016-0-5	-아/어(-았/었다)	다'다도
32017	쫓:- (追) [치]	
32017-0-1	-지	쫓'짜
32017-0-2	-고	쫓'꼬
32017-0-3	-더라	쫓'따라
32017-0-4	-으니까	쫓'츠니까
32017-0-5	-아/어(-았/었다)	쫓'차도
32018	베:- (枕) [베]	
32018-0-1	-지	비'자
32018-0-2	-고	비'아'고
32018-0-3	-더라	비'다'라
32018-0-4	-으니까	비'아'니까
32018-0-5	-아/어(-았/었다)	비'이'도
32019	깨:- (破) [헤]	
32019-0-1	-지	깨'자
32019-0-2	-고	깨'고
32019-0-3	-더라	깨'다'라
32019-0-4	-으니까	깨'니까
32019-0-5	-아/어(-았/었다)	깨'애'도

32020	피-(伸)[키]	
32020-01	-지	피지
32020-02	-고	피고
32020-03	-더라	피더라
32020-04	-으니까	피니까
32020-05	-아/어(-았/었다)	피이도
32021	발-(明)[리]	
32021-01	-지	발찌
32021-02	-고	발꼬
32021-03	-더라	발따라
32021-04	-으니까	발그니까
32021-05	-아/어(-았/었다)	발가도
32022	살-(烹)[리]	
32022-01	-지	사암찌
32022-02	-고	사양꼬
32022-03	-더라	사암따라
32022-04	-으니까	살무니까
32022-05	-아/어(-았/었다)	살마도
32023	울-(吟)[리]	
32023-01	-지	*
32023-02	-고	*
32023-03	-더라	*
32023-04	-으니까	*
32023-05	-아/어(-았/었다)	*
32024	발-(踏)[리]	
32024-01	-지	바알찌
32024-02	-고	바알꼬
32024-03	-더라	바알따라
32024-04	-으니까	발부니까
32024-05	-아/어(-았/었다)	발바도
32025	하-(爲)[ㅏ 변]	
32025-01	-지	하지마라
32025-02	-고	햏고
32025-03	-더라	햏더라
32025-04	-으니까	햏니까
32025-05	-아/어(-았/었다)	햏도
32026	맏-(結)[ㅈ]	
32026-01	-지	맏찌
32026-02	-고	맏꼬
32026-03	-더라	맏따라
32026-04	-으니까	맏지니까

32026-0-5	-아/어(-왔/왔다)	매저도
32027	없-(-無)[ㅁ]	
32027-0-1	-지	업째
32027-0-2	-고	억꼬
32027-0-3	-더라	업따라
32027-0-4	-으니까	업사니까
32027-0-5	-아/어(-왔/왔다)	업서도
32028	앉-(-坐)[ㄴ]	
32028-0-1	-지	안째마라
32028-0-2	-고	양꼬
32028-0-3	-더라	안따라
32028-0-4	-으니까	안자니까
32028-0-5	-아/어(-왔/왔다)	안자도
32029	비바-(-刮)[ㅣ]	
32029-0-1	-지	비배자
32029-0-2	-고	비배고
32029-0-3	-더라	비배더라
32029-0-4	-으니까	비배니까
32029-0-5	-아/어(-왔/왔다)	비배도
32030	끄-(-消)[ㅡ]	
32030-0-1	-지	끄자
32030-0-2	-고	끄고
32030-0-3	-더라	끄더라
32030-0-4	-으니까	끄니까
32030-0-5	-아/어(-왔/왔다)	끄도
32031	꺾-(-折)[ㄱ]	
32031-0-1	-지	꺾째
32031-0-2	-고	꺾꼬
32031-0-3	-더라	꺾따라
32031-0-4	-으니까	꺾끄니까
32031-0-5	-아/어(-왔/왔다)	꺾꺼도
32032	산-(-屢)[ㄴ]	
32032-0-1	-지	산째
32032-0-2	-고	시앙꼬
32032-0-3	-더라	시안따라
32032-0-4	-으니까	사느니까
32032-0-5	-아/어(-왔/왔다)	사너도
32033	보-(-視)[ㅂ]	
32033-0-1	-지	보자
32033-0-2	-고	보고
32033-0-3	-더라	보더라

32033-04	-으니까	보'니까
32033-05	-아/어(-았/었다)	바'야도
32034	추-(舞)[ㄷ]	
32034-01	-지	추'자
32034-02	-고	추'고'
32034-03	-더라	추'더라
32034-04	-으니까	추'니까
32034-05	-아/어(-았/었다)	초'도'
32035	파우-(吸煙)[ㄷ]	
32035-01	-지	파'우지
32035-02	-고	파'우고
32035-03	-더라	파'우더라
32035-04	-으니까	파'우니까
32035-05	-아/어(-았/었다)	파'어도
32036	샤-(立)[ㅅ]	
32036-01	-지	샤'자마라
32036-02	-고	샤'고
32036-03	-더라	샤'더라
32036-04	-으니까	샤'니까
32036-05	-아/어(-았/었다)	샤'어도
32037	가-(罰腹)[ㅈ]	
32037-01	-지	가'아'지
32037-02	-고	가'고'
32037-03	-더라	가'더라
32037-04	-으니까	가'니까
32037-05	-아/어(-았/었다)	가'아'도
32038	아-(戴)[ㅈ]	
32038-01	-지	이'자'마라
32038-02	-고	이'고
32038-03	-더라	이'더라
32038-04	-으니까	이'니까
32038-05	-아/어(-았/었다)	역'도'
32039	아니-(否)[ㅂ]	
32039-01	-지	아'나'지
32039-02	-고	아'나'고
32039-03	-더라	아'나'더라
32039-04	-으니까	아'나'니까
32039-05	-아/어(-았/었다)	아'나'라도
32040	되-(升)[ㅂ]	
32040-01	-지	태'지
32040-02	-고	태'고'

32040-03	-더라	태더라
32040-04	-으니까	태니까
32040-05	-아/어(-았/었다)	태에도
32041	있-(有)[씨]	
32041-01	-지	이쨌
32041-02	-고	악꼬
32041-03	-더라	이때라
32041-04	-으니까	이새니까
32041-05	-아/어(-았/었다)	이서도
32042	놓-(放)[히]	
32042-01	-지	노차마라
32042-02	-고	노코
32042-03	-더라	노타라
32042-04	-으니까	노오니까
32042-05	-아/어(-았/었다)	나아도
32043	훑-(撥)[띠]	
32043-01	-지	홀짜마라
32043-02	-고	홀꼬
32043-03	-더라	홀때라
32043-04	-으니까	홀트니까
32043-05	-아/어(-았/었다)	홀터도
32044	곱-(麗)[브넌]	
32044-01	-지	고옴'쨌
32044-02	-고	고옴'꼬
32044-03	-더라	고옴'때라
32044-04	-으니까	고옴'부니까
32044-05	-아/어(-았/었다)	고옴'바도
32045	쥐-(握)[기]	
32045-01	-지	쥐이지
32045-02	-고	쥐이고
32045-03	-더라	쥐이더라
32045-04	-으니까	쥐이니까
32045-05	-아/어(-았/었다)	쥐이도
32046	가-(去)[나]	
32046-01	-지	가지마라
32046-02	-고	가보
32046-03	-더라	가더라
32046-04	-으니까	가니까
32046-05	-아/어(-았/었다)	가도
32047	먹-(食)	
32047-01	"{-지,-고,-더라}"	먹짜마라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도
32048	뜯- (摘)	
32048-0-1	"{-지,-고,-더랴}"	뜯'짜'마'라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다'도
32049	같- (如)	
32049-0-1	"{-지,-고,-더랴}"	가'짜'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태'애'도
32050	얕- (淺)	
32050-0-1	"{-지,-고,-더랴}"	야'짜'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서
32051	흩- (散)	
32051-0-1	"{-지,-고,-더랴}"	해'치'지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해'쳐'라
32052	날- (飛)	
32052-0-1	"{-지,-고,-더랴}"	날'고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간'다
32053	울- (泣)	
32053-0-1	"{-지,-고,-더랴}"	울'자'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러'도
32054	알- (洶)	
32054-0-1	"{-지,-고,-더랴}"	이'알'고'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도
32055	알- (凍)	
32055-0-1	"{-지,-고,-더랴}"	어'알'고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서
32056	넘- (越)	
32056-0-1	"{-지,-고,-더랴}"	너'양'꼬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머'도
32057	숨- (隱)	
32057-0-1	"{-지,-고,-더랴}"	수'웁'꼬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도
32058	끓- (易)	
32058-0-1	"{-지,-고,-더랴}"	수'웁'꼬'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우'바'도
32059	눅- (臥)	
32059-0-1	"{-지,-고,-더랴}"	눅'꼬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버'도
32060	감- (縫)	
32060-0-1	"{-지,-고,-더랴}"	지'악'꼬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도
32061	몹- (憎)	

32061-0-1	"{-지,-고,-더랴}"	마'꼬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마'버도
32062	높-(高)	
32062-0-1	"{-지,-고,-더랴}"	노'꾸고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노'파서
32063	짓:- (作)	
32063-0-1	"{-지,-고,-더랴}"	지'악'꼬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자'이라
32064	붓:- (腫)	
32064-0-1	"{-지,-고,-더랴}"	북'꼬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부'우서
32065	웃:- (笑)	
32065-0-1	"{-지,-고,-더랴}"	우'우'꼬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우'서서
32066	좃:- (吠)	
32066-0-1	"{-지,-고,-더랴}"	지'이'꼬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자'서도
32067	꽂:- (插)	
32067-0-1	"{-지,-고,-더랴}"	꼭'꼬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꼬'바라
32068	냥:- (産)	
32068-0-1	"{-지,-고,-더랴}"	녹'코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나'아서
32069	땅:- (辯)	
32069-0-1	"{-지,-고,-더랴}"	땅'코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땅' 아라
32070	끊:- (切)	
32070-0-1	"{-지,-고,-더랴}"	깁'코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꼬'너라
32071	괜찮-(無妨)	
32071-0-1	"{-지,-고,-더랴}"	게'엔'찬타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겐'찬'나요
32072	읽:- (讀)	
32072-0-1	"{-지,-고,-더랴}"	이'리고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알'러도
32073	떨:- (瀕)	
32073-0-1	"{-지,-고,-더랴}"	떠'알'떠라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딸'버서
32074	옮:- (遷)	
32074-0-1	"{-지,-고,-더랴}"	오'란'다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올'라서

32075	똥-(貴)	
32075-0-1	"{-지,-고,-더랴}"	똥'울'꼬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똥'버라
32076	꿔-(跪)	
32076-0-1	"{-지,-고,-더랴}"	꿔'리고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꿔'레라
32077	똥-(抗, 연필 심이)	
32077-0-1	"{-지,-고,-더랴}"	똥'꼬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똥'간따
32078	똥-(煎, 술에서 장이)	
32078-0-1	"{-지,-고,-더랴}"	*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
32079	짜-(鹽)	
32079-0-1	"{-지,-고,-더랴}"	짜'짜'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짜'바서
32080	말-(捲)	
32080-0-1	"{-지,-고,-더랴}"	말'고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말'라라
32081	쓰-(書)	
32081-0-1	"{-지,-고,-더랴}"	쓰'고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쓰'도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랴}"	오르'고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올'라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랴}"	바'쁘'고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바'빠서
32084	고푸-(餓)	
32084-0-1	"{-지,-고,-더랴}"	고'푸'고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고'파서
32085	쏘-(射)	
32085-0-1	"{-지,-고,-더랴}"	쏘'고'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썩'도'
32086	꾸-(夢)	
32086-0-1	"{-지,-고,-더랴}"	꾸'고'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꼬'라'
32087	머무르-(留)	
32087-0-1	"{-지,-고,-더랴}"	머'무'리고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머'물'러도
32088	다듬-(整)	
32088-0-1	"{-지,-고,-더랴}"	따'듬'꼬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따드'머라
32089	견다(忍)	
32089-0-1	"{-지,-고,-더랴}"	잔디더라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잔 데라
32090	마르(裁)	
32090-0-1	"{-지,-고,-더랴}"	말 꼬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말 가라
32091	까(烟鎖, 안개가)	
32091-0-1	"{-지,-고,-더랴}"	짜이더라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까이서
32092	마사(飮)	
32092-0-1	"{-지,-고,-더랴}"	마시고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마 세도
32093	세:(強)	
32093-0-1	"{-지,-고,-더랴}"	시아'고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사이서
32094	포개(重疊)	
32094-0-1	"{-지,-고,-더랴}"	동개고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동개애라
32095	두드라(敲)	
32095-0-1	"{-지,-고,-더랴}"	두드리고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뚜다레도
32096	켜(點燈)	
32096-0-1	"{-지,-고,-더랴}"	카'고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카라
32097	쌌:(바람을)	
32097-0-1	"{-지,-고,-더랴}"	사이고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사이도
32098	좌(老)	
32098-0-1	"{-지,-고,-더랴}"	시아'고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사이서
32099	쥬:(饌, 밥이)	
32099-0-1	"{-지,-고,-더랴}"	*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쥬이서
32100	화(白)	
32100-0-1	"{-지,-고,-더랴}"	하'고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하이서
32101	볶(炒)	
32101-0-1	"{-지,-고,-더랴}"	뽱 꼬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뽱 까라
32102	안:(抱)	

32102-01	"{-지,-고,-더랴}"	아양'꼬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아나도
32103	묻-(-埋)	
32103-01	"{-지,-고,-더랴}"	묵'꼬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무'더라
32104	불-(-吹)	
32104-01	"{-지,-고,-더랴}"	불'꼬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부'라도
32105	빨-(-洗滌)	
32105-01	"{-지,-고,-더랴}"	빨'꼬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빠'라도
32106	죽-(-死)	
32106-01	"{-지,-고,-더랴}"	죽'꼬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주'거서
32107	갈-(-步)	
32107-01	"{-지,-고,-더랴}"	거'어'꼬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가'러
32108	가물-(-旱)	
32108-01	"{-지,-고,-더랴}"	가'무'고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가'무'라서
32109	졸-(-睡)	
32109-01	"{-지,-고,-더랴}"	자'불'고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자'부'라도
32110	쓸-(-掃)	
32110-01	"{-지,-고,-더랴}"	살'꼬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사'러'라
32111	감-(-捲)	
32111-01	"{-지,-고,-더랴}"	가'양'꼬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가'마'라
32112	더듬-(-摸)	
32112-01	"{-지,-고,-더랴}"	더'듬'꼬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더'드'마도
32113	굽-(-炙)	
32113-01	"{-지,-고,-더랴}"	꾸'우'꼬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꾸'버'라
32114	무겁-(-重)	
32114-01	"{-지,-고,-더랴}"	무'거'꼬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무'거'버'서
32115	잇-(-連)	
32115-01	"{-지,-고,-더랴}"	이'수'우'고 이'수'코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아'사'라

32116	빗-(梳)	
32116-01	"{-지,-고,-더랴}"	빠'꼬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빠'서라
32117	까랑-(黑)	
32117-01	"{-지,-고,-더랴}"	까양'꼬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까마서
32118	넣-(入)	
32118-01	"{-지,-고,-더랴}"	억'코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억'어라
32119	고-(煮)	
32119-01	"{-지,-고,-더랴}"	꼬'오고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꼬'와라
32120	얏-(載)	
32120-01	"{-지,-고,-더랴}"	양'꼬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안'저라
32121	귀찮-(囁)	
32121-01	"{-지,-고,-더랴}"	귀'찬타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귀'차내서
3212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지,-고,-더랴}"	불'꼬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불'가라
32123	맑-(淸)	
32123-01	"{-지,-고,-더랴}"	말'꼬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말'가서
32124	끓-(騰)	
32124-01	"{-지,-고,-더랴}"	고옴'짜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끓'마
32125	끓-(太)	
32125-01	"{-지,-고,-더랴}"	굴'꼬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굴'가서
32126	얇-(薄)	
32126-01	"{-지,-고,-더랴}"	여'안하다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
32127	썰-(春, 곡식을 절구에다)	
32127-01	"{-지,-고,-더랴}"	실'른다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살'거라
32128	잃-(失)	
32128-01	"{-지,-고,-더랴}"	알'꼬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아'런따
32129	훅-(舐)	
32129-01	"{-지,-고,-더랴}"	할'꼬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타
32130	짧-(短)	
32130-0-1	"{-지,-고,-더랴}"	짧꼬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바서
32131	놀라-(驚)	
32131-0-1	"{-지,-고,-더랴}"	놀래'애더라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래'애서
32132	자-(宿)	
32132-0-1	"{-지,-고,-더랴}"	자고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서
32133	못:하-(不爲)	
32133-0-1	"{-지,-고,-더랴}"	모은'한다 모은'한'다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은'해'서
32134	모르-(不知)	
32134-0-1	"{-지,-고,-더랴}"	모르'고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도
32135	아프-(痛)	
32135-0-1	"{-지,-고,-더랴}"	아프'더라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서
32136	크-(大)	
32136-0-1	"{-지,-고,-더랴}"	크'고'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서
32137	꼬-(素, 새끼를)	
32137-0-1	"{-지,-고,-더랴}"	짜'고'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라
32138	쭈-(造)	
32138-0-1	"{-지,-고,-더랴}"	쭈'구'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라'
32139	맞추-(組合)	
32139-0-1	"{-지,-고,-더랴}"	마추'우고 마추'코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차'아라
32140	태우-(焙)	
32140-0-1	"{-지,-고,-더랴}"	태'우고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태'외'라
32141	아:-(蓋, 자붕을)	
32141-0-1	"{-지,-고,-더랴}"	아'우고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워'라
32142	갈가-(打)	
32142-0-1	"{-지,-고,-더랴}"	가'알'기'고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알'개'라
32143	기다라-(待)	

32143-01	"{-지,-고,-더랴}"	기다리고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레도
32144	세:-(算)	
32144-01	"{-지,-고,-더랴}"	시알리고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알레라
32145	빼-(拔)	
32145-01	"{-지,-고,-더랴}"	빼고'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애라
32146	켜-(引, 톱으로)	
32146-01	"{-지,-고,-더랴}"	살고 케고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셔러라 케에라
32147	되:-(硬)	
32147-01	"{-지,-고,-더랴}"	뒤고'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에서
32148	쉬:-(休)	
32148-01	"{-지,-고,-더랴}"	쉬이고'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이라
32149	할퀴-(擻)	
32149-01	"{-지,-고,-더랴}"	까레비고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레베서
32150	늘:-(焦)	
32150-01	"{-지,-고,-더랴}"	누우떠라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서
32151	깨달-(覺)	
32151-01	"{-지,-고,-더랴}"	깨달른다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래서
32152	마렵-(오줌이)	
32152-01	"{-지,-고,-더랴}"	매락꼬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라와서
32153	부끄럼-(恥)	
32153-01	"{-지,-고,-더랴}"	부끄럽떠라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워서
32154	가깝-(近)	
32154-01	"{-지,-고,-더랴}"	가챗떠라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버서
32155	깊-(深)	
32155-01	"{-지,-고,-더랴}"	기꾸고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퍼서
32156	긋:-(劃)	
32156-01	"{-지,-고,-더랴}"	꼬으고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어라

32157	씻-(洗)	
32157-0-1	"{-지,-고,-더랴}"	샤'꼬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샤'쳐라
32158	쥌-(搗)	
32158-0-1	"{-지,-고,-더랴}"	쥌'꼬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쥌'거라
32159	꺠-(擗)	
32159-0-1	"{-지,-고,-더랴}"	꺠'꼬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꺠'가따
32160	꺠-(削)	
32160-0-1	"{-지,-고,-더랴}"	구옹'꼬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꺠'머라
32161	닮-(似)	
32161-0-1	"{-지,-고,-더랴}"	다암'떠라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달'마라
32162	살-(厭)	
32162-0-1	"{-지,-고,-더랴}"	살'코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샤'라도
32163	꺠-(𢶏 달같이)	
32163-0-1	"{-지,-고,-더랴}"	*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고랴'따
32164	붓-(注)	
32164-0-1	"{-지,-고,-더랴}"	부'꼬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부'우라
32165	타-(乘)	
32165-0-1	"{-지,-고,-더랴}"	타'고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타'랴
32166	마르-(乾)	
32166-0-1	"{-지,-고,-더랴}"	마리'더라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말'랄따
32167	쓰-(苦)	
32167-0-1	"{-지,-고,-더랴}"	삽'떠라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샤'워서 샤'바'서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랴}"	실'푸고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살'퍼서
32169	기쁘-(喜)	
32169-0-1	"{-지,-고,-더랴}"	기'뿌고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기'빠서
32170	쑈-(蠶 벌이)	
32170-0-1	"{-지,-고,-더랴}"	수'고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쑈서
32171	주-(與)	
32171-01	"{-지,-고,-더랴}"	주'고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쑈'도'
32172	키우-(育)	
32172-01	"{-지,-고,-더랴}"	키'우고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워서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랴}"	가'다아라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두우지마라
32174	부수-(碎)	
32174-01	"{-지,-고,-더랴}"	뿌'우고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이라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랴}"	농'구치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농'가
32176	속아-(欺)	
32176-01	"{-지,-고,-더랴}"	소'기고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기도
32177	까-(插)	
32177-01	"{-지,-고,-더랴}"	짚'다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짚'도
32178	튀-(跳)	
32178-01	"{-지,-고,-더랴}"	타'고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이가아
32179	과:-(-淸)	
32179-01	"{-지,-고,-더랴}"	고'이'고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이'까'아
32180	여위-(癩)	
32180-01	"{-지,-고,-더랴}"	예'비고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베서
32181	맵-(辛)	
32181-01	"{-지,-고,-더랴}"	맵'꼬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맵'바
32182	뀌:-(-尻)	
32182-01	"{-지,-고,-더랴}"	까'고'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이서
32183	고차-(改)	
32183-01	"{-지,-고,-더랴}"	곤'치고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체라
32184	삼:-(-載)	

32184-0-1	"{-지,-고,-더랴}"	시알'찌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시'라도
32185	알-(得)	
32185-0-1	"{-지,-고,-더랴}"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어'다라 언'따라
32186	뽕-(粉碎)	
32186-0-1	"{-지,-고,-더랴}"	빠'아고 빠'코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빠'아카아
32187	파랴-(碧)	
32187-0-1	"{-지,-고,-더랴}"	파아'랴코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파아'래애도
32188	다르-(異)	
32188-0-1	"{-지,-고,-더랴}"	따'고' 다르'고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달'라도
32189	푸-(汲)	
32189-0-1	"{-지,-고,-더랴}"	푸'고'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파'도
32190	누-(尿)	
32190-0-1	"{-지,-고,-더랴}"	누'고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노'라
32191	다:럼-(汚)	
32191-0-1	"{-지,-고,-더랴}"	더어'락꼬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더어'래버
32192	거두-(收)	
32192-0-1	"{-지,-고,-더랴}"	거두'우고 거두'코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거다'아도
32193	끓-(沸)	
32193-0-1	"{-지,-고,-더랴}"	끓'꼬'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꼬'러따
32194	이가-(承)	
32194-0-1	"{-지,-고,-더랴}"	아'기코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아'겐따
32195	부사-(照)	
32195-0-1	"{-지,-고,-더랴}"	부사'이고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부사'인다
32196	자빠자-(後)	
32196-0-1	"{-지,-고,-더랴}"	자'빠지고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자'빠저따
32197	일으카-(使起)	
32197-0-1	"{-지,-고,-더랴}"	일박'꼬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일박'다라

32198	당가(弓)	
32198-0-1	"{-지,-고,-더랴}"	땡기고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땡게도
32199	버라(捨)	
32199-0-1	"{-지,-고,-더랴}"	버리고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버리랴
32200	훔차(盜)	
32200-0-1	"{-지,-고,-더랴}"	훔치고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훔체가
32201	자(負)	
32201-0-1	"{-지,-고,-더랴}"	자고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져서
32202	와:- (暗誦)	
32202-0-1	"{-지,-고,-더랴}"	웨'에고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웨'에비아라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랴}"	샤'기고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샤'게가아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랴}"	썩꼬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썩거서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랴}"	잘고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차'라서
32206	까불-(箕)	
32206-0-1	"{-지,-고,-더랴}"	까'불고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까'부'라라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랴}"	드'물고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드'무'라서
32208	줄:- (縮)	
32208-0-1	"{-지,-고,-더랴}"	쫄'고'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쫄'러서
32209	삼:- (植)	
32209-0-1	"{-지,-고,-더랴}"	승'구'코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승'가'아라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고,-더랴}"	사'당'꼬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사'다'마라
32211	사:납-(猛)	
32211-0-1	"{-지,-고,-더랴}"	사'낙'꼬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나'마서
32212	가볍-(輕)	
32212-0-1	"{-지,-고,-더랴}"	개각'꼬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가'마서
32213	잡-(撈)	
32213-0-1	"{-지,-고,-더랴}"	저어'꼬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라
32214	두껍-(厚)	
32214-0-1	"{-지,-고,-더랴}"	뚜꺼'꼬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꺼'버
32215	무르-(軟)	
32215-0-1	"{-지,-고,-더랴}"	무리'고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라서
32216	분지르-(折)	
32216-0-1	"{-지,-고,-더랴}"	뿌자'리고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질'라라
32217	배우-(學)	
32217-0-1	"{-지,-고,-더랴}"	배'우고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와라
32218	다라-(燙)	
32218-0-1	"{-지,-고,-더랴}"	다'리고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레라
32219	후바-(窠, 귀를)	
32219-0-1	"{-지,-고,-더랴}"	후'비고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후'베라
32220	아라-(痛)	
32220-0-1	"{-지,-고,-더랴}"	*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21	그라-(畵)	
32221-0-1	"{-지,-고,-더랴}"	가'라고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레'바이라
32222	저라-(癱)	
32222-0-1	"{-지,-고,-더랴}"	제'럭꼬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러'머서
32223	불라-(增)	
32223-0-1	"{-지,-고,-더랴}"	불'쿠'우고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카'아라
32224	뜨사-(溫)	
32224-0-1	"{-지,-고,-더랴}"	뜨'사'고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사'이서
32225	끓아-(使沸)	

32225-0-1	"{-지,-고,-더랴}"	까리고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까레라
32226	누바-(縫)	
32226-0-1	"{-지,-고,-더랴}"	나비고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나베라
32227	구가-(蹴)	
32227-0-1	"{-지,-고,-더랴}"	꾸게고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꾸게에라
32228	바:-(空)	
32228-0-1	"{-지,-고,-더랴}"	비고'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바'이따
32229	식하-(使令)	
32229-0-1	"{-지,-고,-더랴}"	시쿠'우고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시콰'아라
32230	매-(草)	
32230-0-1	"{-지,-고,-더랴}"	매'고'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매애'라
32231	매:-(結)	
32231-0-1	"{-지,-고,-더랴}"	매고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매애'라
32232	뛰-(走)	
32232-0-1	"{-지,-고,-더랴}"	뛰고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뛰'이라
32233	담:-(盛)	
32233-0-1	"{-지,-고,-더랴}"	다양'꼬'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담'마라
32234	가렴-(糞)	
32234-0-1	"{-지,-고,-더랴}"	개락'꼬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개랴'바서
32235	때라-(打)	
32235-0-1	"{-지,-고,-더랴}"	때'리고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때'레라
32236	어둡-(暗)	
32236-0-1	"{-지,-고,-더랴}"	어둑'꼬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어드'버서
32237	잡-(執)	
32237-0-1	"{-지,-고,-더랴}"	짜'꼬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짜'버라
32238	차-(蹴)	
32238-0-1	"{-지,-고,-더랴}"	차'고'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였대}"	차'라

32239	모자라-(不足)	
32239-0-1	"{-지,-고,-더랴}"	모지래'애고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모오'자'래에서
32240	부르-(呼)	
32240-0-1	"{-지,-고,-더랴}"	부르'고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불'라라
32241	따르-(注)	
32241-0-1	"{-지,-고,-더랴}"	따루'우고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따라'아라
32242	쪼-(啄)	
32242-0-1	"{-지,-고,-더랴}"	쪼'꼬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쪼'자
32243	두-(置)	
32243-0-1	"{-지,-고,-더랴}"	두'고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두'워라
32244	시카-(使)	
32244-0-1	"{-지,-고,-더랴}"	사'기고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사'게라
32245	지라-(漏 오줌을)	
32245-0-1	"{-지,-고,-더랴}"	쨌'기고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쨌'게서
32246	던자-(投)	
32246-0-1	"{-지,-고,-더랴}"	땨'지고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땨'제라
32247	모아-(集)	
32247-0-1	"{-지,-고,-더랴}"	모이'고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모여'어라
32248	만자-(捐)	
32248-0-1	"{-지,-고,-더랴}"	맨'지고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맨'제라
32249	쪼:- (囓)	
32249-0-1	"{-지,-고,-더랴}"	쪼이'고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쪼이'이라
32250	비틀-(捻)	
32250-0-1	"{-지,-고,-더랴}"	비이'트리고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비이'트레라
32251	돕:- (助)	
32251-0-1	"{-지,-고,-더랴}"	도'우고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도'와라
32252	씹-(咀)	
32252-0-1	"{-지,-고,-더랴}"	시악'꼬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퍼라
32253	미끄럼-(滑)	
32253-0-1	"{-지,-고,-더랴}"	미끄'락 꼬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 바
32254	닿-(接)	
32254-0-1	"{-지,-고,-더랴}"	대이'이고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이'이도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랴}"	누울'리고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울'려라
32256	주무르-(揉)	
32256-0-1	"{-지,-고,-더랴}"	주무'리고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라
32257	매우-(填)	
32257-0-1	"{-지,-고,-더랴}"	매'우고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워라
32258	고소하-(香味)	
32258-0-1	"{-지,-고,-더랴}"	꼬사'고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사'이서
32259	내리-(降)	
32259-0-1	"{-지,-고,-더랴}"	내'리고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리라
32260	구르-(轉)	
32260-0-1	"{-지,-고,-더랴}"	*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61	만들-(作)	
32261-0-1	"{-지,-고,-더랴}"	만들'고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러라
32262	늙-(老)	
32262-0-1	"{-지,-고,-더랴}"	늙'꼬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늙'거서
32263	앓-(病)	
32263-0-1	"{-지,-고,-더랴}"	알'코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라도
32264	따르-(隨)	
32264-0-1	"{-지,-고,-더랴}"	따'르고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레서
32265	사-(買)	
32265-0-1	"{-지,-고,-더랴}"	샤'고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샤'도'
32266	치우-(除)	

32266-0-1	"{-지,-고,-더랴}"	차'우고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차'이라
32267	부러자(被折)	
32267-0-1	"{-지,-고,-더랴}"	뿌'러지고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뿌'러저서
32268	다차(傷)	
32268-0-1	"{-지,-고,-더랴}"	다'치고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다'체따
32269	느라(緩)	
32269-0-1	"{-지,-고,-더랴}"	*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
32270	무차(和, 나물을)	
32270-0-1	"{-지,-고,-더랴}"	문'치고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문'처라
32271	좌:(縮)	
32271-0-1	"{-지,-고,-더랴}"	조루'우고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조라'아라
32272	팔(賣)	
32272-0-1	"{-지,-고,-더랴}"	팔'고'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파'랴라
32273	뽑(選)	
32273-0-1	"{-지,-고,-더랴}"	뽑'꼬'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뽑'바'라
32274	뒤자(索)	
32274-0-1	"{-지,-고,-더랴}"	디배'고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디배'에바'아라
32275	마차(終)	
32275-0-1	"{-지,-고,-더랴}"	마'치고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마'체따
32276	절아(鹽)	
32276-0-1	"{-지,-고,-더랴}"	재'리고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재'레라
32277	휘(曲)	
32277-0-1	"{-지,-고,-더랴}"	후'우고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후'워라
32278	줍:(拾)	
32278-0-1	"{-지,-고,-더랴}"	주우'꼬'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주'서라
32279	빼앗(奪)	
32279-0-1	"{-지,-고,-더랴}"	빼야'꼬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빼야'사라

32280	기울-(傾)	
32280-0-1	"{-지,-고,-더랴}"	지불고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지부러진다
32281	아깝-(惜)	
32281-0-1	"{-지,-고,-더랴}"	아까꼬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아까마서
32282	반갑-(歡)	
32282-0-1	"{-지,-고,-더랴}"	방가꼬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방가워서
32283	짜-(蒸)	
32283-0-1	"{-지,-고,-더랴}"	짜고'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짜랴
32284	노랑-(黃)	
32284-0-1	"{-지,-고,-더랴}"	노오'랴코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노오래'에서
32285	푸르-(靑)	
32285-0-1	"{-지,-고,-더랴}"	푸리고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푸리서
32286	서두르-(忙)	
32286-0-1	"{-지,-고,-더랴}"	서들고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서드러서
32287	서투르-(不熟)	
32287-0-1	"{-지,-고,-더랴}"	서어'틀고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서어트'러서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랴}"	게을'코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게을'가서
32289	따뜻하-(溫)	
32289-0-1	"{-지,-고,-더랴}"	따뜻하'고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따뜻해'서
32290	춥-(寒)	
32290-0-1	"{-지,-고,-더랴}"	춥'꼬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추'워서
32291	뜨겁-(極熱)	
32291-0-1	"{-지,-고,-더랴}"	뜨'격꼬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뜨'가'버서
32292	미지근하-(微溫)	
32292-0-1	"{-지,-고,-더랴}"	미저'거리하'고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미저'거리해'서
32293	차갑-(寒)	
32293-0-1	"{-지,-고,-더랴}"	착'꼬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바서
32294	부림-(羨)	
32294-0-1	"{-지,-고,-더랴}"	부락'꼬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바도
32295	알림-(憎)	
32295-0-1	"{-지,-고,-더랴}"	*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6	비슷하-(類似)	
32296-0-1	"{-지,-고,-더랴}"	비스으'하'고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스'해'서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랴}"	*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8	사:림-(悲痛)	
32298-0-1	"{-지,-고,-더랴}"	서알'꼬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서
32299	까다롭-(難)	
32299-0-1	"{-지,-고,-더랴}"	까드'락'꼬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드'라'버서
32300	외롭-(孤)	
32300-0-1	"{-지,-고,-더랴}"	웨'로'꼬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로'바
32301	아쉽-(不滿)	
32301-0-1	"{-지,-고,-더랴}"	야'석'꼬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서'바도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랴}"	단단'하'고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서
32303	늦-(晩)	
32303-0-1	"{-지,-고,-더랴}"	늑'꼬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서
32304	남:-(餘)	
32304-0-1	"{-지,-고,-더랴}"	나'양'꼬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따
32305	남가-(使餘)	
32305-0-1	"{-지,-고,-더랴}"	냉'기'지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기'라
32306	넘어뜨라-(使倒)	
32306-0-1	"{-지,-고,-더랴}"	너머'따'리고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따'리라
32307	쭈그러뜨라-(使匹)	

32307-0-1	"{-지,-고,-더랴}"	쭈구'리고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쭈구'레라
32308	견주-(比)	
32308-0-1	"{-지,-고,-더랴}"	전주우고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전자'아라
32309	외우-(誦)	
32309-0-1	"{-지,-고,-더랴}"	웨'우고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웨'와라
32310	문지르-(摩)	
32310-0-1	"{-지,-고,-더랴}"	문대'애고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문대'애도
32311	가리카-(指)	
32311-0-1	"{-지,-고,-더랴}"	가르'키고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가르'케라
32312	가르차-(敎)	
32312-0-1	"{-지,-고,-더랴}"	가르'키고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가르'케라
32313	겨누-(照準)	
32313-0-1	"{-지,-고,-더랴}"	게누'우고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게누'아라
32314	겨루-(競)	
32314-0-1	"{-지,-고,-더랴}"	*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
32315	달래-(慰撫)	
32315-0-1	"{-지,-고,-더랴}"	달개'애고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달개'애라
32316	본받-(效)	
32316-0-1	"{-지,-고,-더랴}"	*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
32317	어지르-(散)	
32317-0-1	"{-지,-고,-더랴}"	어어'자리고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어어'지레라
32318	달라-(走)	
32318-0-1	"{-지,-고,-더랴}"	달'리고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달'려라
32319	우가-(擲)	
32319-0-1	"{-지,-고,-더랴}"	우'기고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우우'게도
32320	중얼거라(獨言)	
32320-0-1	"{-지,-고,-더랴}"	중얼'가'리고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중얼'가'리라

32321	지결아(騷)	
32321-0-1	"{-지,-고,-더랴}"	지꺼리고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지꺼레라
32322	다나(行)	
32322-0-1	"{-지,-고,-더랴}"	댕기고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댕기라
32323	떨어뜨라(使落)	
32323-0-1	"{-지,-고,-더랴}"	뜨러따리고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뜨러따리라
32324	깨(覺)	
32324-0-1	"{-지,-고,-더랴}"	깨더라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깨랴
32325	사(酸)	
32325-0-1	"{-지,-고,-더랴}"	시그락꼬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시그라버서
32326	솟(湧)	
32326-0-1	"{-지,-고,-더랴}"	소꾸고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소까서
32327	좋-(好)	
32327-0-1	"{-지,-고,-더랴}"	조오'코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조와서
32328	빨강(赤)	
32328-0-1	"{-지,-고,-더랴}"	발가코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발개'에서
32329	끌-(曳, 땅에 질질)	
32329-0-1	"{-지,-고,-더랴}"	끄을'고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끄으서
32330	넓(廣)	
32330-0-1	"{-지,-고,-더랴}"	날꼬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날'버서
32331	하얗(白)	
32331-0-1	"{-지,-고,-더랴}"	하야야'코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대}"	하야'애에서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구기
32332-0-2	-을/를	구글
32332-0-3	-에(서)	구게
32332-0-4	-으로	*

32332-05	-도	국'또
32333	논(畛)	
32333-01	-이/가	노'나
32333-02	-을/를	노'를
32333-03	-에(서)	노'네
32333-04	-으로	*
32333-05	-도	논'도
32334	쌀(米)	
32334-01	-이/가	샤'라
32334-02	-을/를	샤'를
32334-03	-에(서)	샤'레
32334-04	-으로	살'로
32334-05	-도	살'또
32335	봄(春)	
32335-01	-이/가	보'미
32335-02	-을/를	보'를
32335-03	-에(서)	보'메
32335-04	-으로	*
32335-05	-도	봄'도
32336	집(家)	
32336-01	-이/가	자'비
32336-02	-을/를	자'를
32336-03	-에(서)	자'메
32336-04	-으로	*
32336-05	-도	잡'또
32337	옷(衣)	
32337-01	-이/가	오'시
32337-02	-을/를	오'를
32337-03	-에(서)	오'세
32337-04	-으로	*
32337-05	-도	옴'또
32338	방(房)	
32338-01	-이/가	방'이
32338-02	-을/를	방'을
32338-03	-에(서)	방'에
32338-04	-으로	*
32338-05	-도	방'도
32339	낫(晝)	
32339-01	-이/가	나'자
32339-02	-을/를	밤'니즐
32339-03	-에(서)	나'제

32339-04	-으로	*
32339-05	-도	나또
32340	낫(顔)	
32340-01	-이/가	나시
32340-02	-을/를	나슬
32340-03	-에(서)	나세
32340-04	-으로	*
32340-05	-도	나또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부서기
32341-02	-을/를	부서글
32341-03	-에(서)	부서계
32341-04	-으로	*
32341-05	-도	부석또
32342	밭(田)	
32342-01	-이/가	바치
32342-02	-을/를	바틀
32342-03	-에(서)	바테
32342-04	-으로	*
32342-05	-도	바또
32343	앞(前)	
32343-01	-이/가	야피
32343-02	-을/를	야플
32343-03	-에(서)	야페
32343-04	-으로	야푸로
32343-05	-도	압또
32344	넋(魂)	
32344-01	-이/가	*
32344-02	-을/를	*
32344-03	-에(서)	*
32344-04	-으로	*
32344-05	-도	*
32345	흙(土)	
32345-01	-이/가	흐리
32345-02	-을/를	홀로
32345-03	-에(서)	흐레
32345-04	-으로	홀로
32345-05	-도	홀또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야덜
32346-02	-을/를	*

32346-03	-에(서)	*
32346-04	-으로	*
32346-05	-도	*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도리
32347-02	-을/를	*
32347-03	-에(서)	*
32347-04	-으로	*
32347-05	-도	*
32348	값(價)	
32348-01	-이/가	갑사
32348-02	-을/를	갑슬
32348-03	-에(서)	*
32348-04	-으로	*
32348-05	-도	갑또
32349	속(肉)	
32349-01	-이/가	소오'기
32349-02	-을/를	소오'글
32349-03	-에(서)	소오'게
32349-04	-으로	*
32349-05	-도	소옥'또
32350	돈:(錢)	
32350-01	-이/가	도오'나
32350-02	-을/를	도오'늘
32350-03	-에(서)	도오'네
32350-04	-으로	*
32350-05	-도	도온'도
32351	발(足)	
32351-01	-이/가	바리
32351-02	-을/를	바'를 발'로
32351-03	-에(서)	바'레서
32351-04	-으로	발'로
32351-05	-도	발'도
32352	짐(物)	
32352-01	-이/가	자'마
32352-02	-을/를	자'말
32352-03	-에(서)	자'메서
32352-04	-으로	*
32352-05	-도	잠'도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아'바

32353-02	-을/를	아'발
32353-03	-에(서)	아'베
32353-04	-으로	아'브'로
32353-05	-도	압'또
32354	낫(鎌)	
32354-01	-이/가	나'사
32354-02	-을/를	나'슬
32354-03	-에(서)	나'세
32354-04	-으로	나'צל
32354-05	-도	나'또
32355	강(江)	
32355-01	-이/가	강'아
32355-02	-을/를	강'을
32355-03	-에(서)	강'에
32355-04	-으로	*
32355-05	-도	가'양'도
32356	젖(乳)	
32356-01	-이/가	자'자
32356-02	-을/를	자'들
32356-03	-에(서)	자'제
32356-04	-으로	*
32356-05	-도	자'또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꼬'치
32357-02	-을/를	꼬'들
32357-03	-에(서)	꼬'테
32357-04	-으로	*
32357-05	-도	꼬'또
32358	팥(赤豆)	
32358-01	-이/가	파'차
32358-02	-을/를	파'들'
32358-03	-에(서)	파'테
32358-04	-으로	*
32358-05	-도	파'또
32359	옆(側)	
32359-01	-이/가	여'피
32359-02	-을/를	여'플
32359-03	-에(서)	여'페
32359-04	-으로	*
32359-05	-도	압'또
32360	값(賃金)	

32360-01	-이/가	샤기
32360-02	-을/를	샤글
32360-03	-에(서)	*
32360-04	-으로	*
32360-05	-도	삭또
32361	닭(鷄)	
32361-01	-이/가	다리 다키
32361-02	-을/를	다를 다클
32361-03	-에(서)	*
32361-04	-으로	달로
32361-05	-도	달도'
32362	밖(外)	
32362-01	-이/가	배까치
32362-02	-을/를	배까틀
32362-03	-에(서)	배까테
32362-04	-으로	*
32362-05	-도	배까또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내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꺼
40101-03	나를	나야를 내를'
40101-04	나에게	날 달라 내한테
40101-05	나와	내카 내하고
40101-06	나는	나느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자가	저가
40102-02	저의	저꺼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카
40102-06	저/-는	저느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저그가
40105	너	니야
40105-01	너가	니아가
40105-02	너의	니꺼
40105-03	너을/를	나로
40105-04	너에게	너를 니한테
40105-05	너와/과	나카
40105-06	너는	나느
40105-07	너도	나도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신
40108	너희	너그아부지
40109	개	가아들
40109-1	애	*
40109-2	재	*
40110	자기	자
40111	당신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라요?
40112-01	누-가	누가-까 앤노
40112-02	누구-의	누구-꺼
40112-03	누구-를	누구-로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40112-05	누구-와	누구-카
40113	무엇-이나/입니까	머어-고?
40113-01	무엇-이	머어-드런노?
40113-02	무슨	무슨-일
40113-03	무엇-을	머어-머글래?
40113-04	무엇-과	머어-까트노?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가노?
40115	언제	어언-제 오노?
40116	어느	어능-가이
40117	왜	와야-우우-노?
40118	얼마나	얼매-나
40119	어떻게	어어-쨌 지내노?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요가-이
40121	그것	그저
40122	저것	쟈-쟈
40123	여기	여기 여-거
40124	저기	쟈-기 저-거
40125	저기	쟈-기 저-거
40126	이리	아-랴
40127	그리	그-랴
40128	저리	저-랴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갑-사
40202	-이/가(무엇이)	새애-가
40203	-을/를(어디를)	볼테-기로 집을
40204	-을/를(무엇을)	물-을 물로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사람-자-테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구-자-테 하는 소리-고?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구자테 화야'로' 내노?
40208	-에(집에)	집에
40209	-에(나중에)	*
40210	-에서(큰집에서)	손'에서
40211	-에서(서울에서)	서울서
40212	-에서(여기에서)	여기서 서울꺼지
40213	-으로(참쌀로)	칼로 깎는다
40214	-으로(짚으로)	지플'가아
40215	-으로(새끼로)	새'끼로
40216	-으로(어디로)	어디로 가노?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차'모하고 수우'박'하고
40218	-와/과(나와)	내'카
40219	-보다(형보다)	형보'다
40220	-처럼(돼지처럼)	돼'에지거치
40221	-만큼(너만큼)	니미'끔 크시몬 조'켄따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머'글'망'끔
40223	-아/야(복남아)	복'남아!
40224	-아/야(복남이)	*
40225	-아/야(영수야)	영'수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누'님요, 누'님
40227	-아/야(할아버지!)	할'배'요
40227-1	-아/야(할아범요!)	*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술'하고 고기'하고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마'야'너'는'케나 이런'도 업'따

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술'은, 담'배'는
40231	-만(딸만)	술'마 마'신'다
40232	"-도(키도, 얼굴도)"	인'물'또 키'도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다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내일까지)	내'이'리'꺼'지
40236	-조차(물조차)	물'꺼'지
40236-1	-조차(비할라)	*
40237	-이야/야(말이야)	말'이'야
40238	-을랑(소릴랑)	*
40239	-이라도(부자라도)	부'우'자'라'도
40240	-밖에(너밖에)	니'바'께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사'가'아 간'다

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오라곤다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알았어요
40244	-요(높임)(했지요)	했지요?

4.3. 종결어미

40301	-아라(앉아라)	안자라
40302	-게(앉게)	안자라 양게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지소 안저요 안자'이소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자'이소
40305	-세요(앉으세요)	매앵 그으치요
40306	-자(가자)	하자
40307	-세(가세)	하자
40308	-으오(가오)	합시더
40309	-십시다(가십시다)	하압'시더
40310	-세요(가세요)	매앵 갠찌요
40311	-니(오니)	비가 오나?
40312	-나(오나)	오나?
40313	-오(오오)	와요?
40314	-습니까(옴니까)	오'능'기요?
40315	-나요(오나요)	오'능'기요?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니)"	어디가노?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나)"	어디가능고?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어디가요?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십니까)"	어디 가능기요?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세요)"	매앵 갠찌요
40321	-는다(먹는다)	밥 멍는다
40322	-네(먹네)	밥 멍는다 멍네
40323	-오(먹소)	밥 멍나'이더
40324	-습니다(먹습니다)	밥 멍나'이더
40325	-네요(먹네요)	매앵 그치요
40326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오시 작따'
40327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오시 작따'
40328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자야'그네요
40329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십니다)	자양'나'이더
40330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세요)	자양'나'이더
40331	-아(아파)	어데 아파나? 배가 아파?(+반문할 때)
40332	-지(거지)	갈까'제?

40333	-이다(생일이다)	내 채기다
40334	-이니(생일이니)	나 채기가?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내 채기
40336	-인가(생일인가)	자네 채깁가?
40337	-이오(생일이오)	형님 내 채기라요
40338	-이오(생일이오?)	형님 채깁기요?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제 채기라요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
40341	-이시지요(생신이지시지요)	내 채깁니다
40342	-이시지요(생신이지시지요?)	자양'모님 채기지요?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나)	머어꼬?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머어시고?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머어라요?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까)	머어심니까?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요)	무어심니까?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머어고?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요)	머어고?
40350	-습니다(많습니다)	만네요
40351	-습디다(많습디다)	만'테요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
40354	-일세(오랜만일세)	너무' 방감네
40355	-으마(깁으마)	가'프'마
40356	-음세(깁음세)	가'파'주'꾸'마
40357	-올라(다칠라)	절'라'일라 조오'삼'해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밥 먹'꼬 내 바깸테 바람 사'이고 오'꾸'마
40402	-으면서(보면서)	바블 머'그'미서 말한다
40403	-어/-어서	추'워서 배'께 문'나가'케'따
40404	-으니/-으니까	따'신'테 안'자'이'스'이 자'미'온'다
40405	-관테	무'슨 이'리 이'서'서 모'연'노
40406	-다가	오'다'가 도'중'에 비'를 만'나'서
40407	-거든	가'거'들'랑 아'무'께
40408	-더라도	*
40409	-으려고	노'나 머'글'라'꼬
40410	-도록	죽'뚜'룩 해'애'따
40411	-을수록	*
40412	-듯이	물 씨'디 신'다
40413	-지	밤'만 먹'교 반'찬'은 안' 뭉'는다

4.5. 주체존대

40501	-셔(오셔)	*
40502	-셨소(하셨소)	다 해썬 요?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원는다
40602	-는/ㄴ(기어간다)	기이간다
40603	-는/ㄴ(크다)	누니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채 기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오고아따
40606	-왔/였(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 건나?
40607	-왔였(왔었다)	가따와다
40608	-더(먹더라)	먹따라
40609	-더(먹더냐)	먹따냐?
40610	관형형(만나는)	만내는 친구
40611	관형형(만난)	만낸 친구
40612	관형형(만났던)	만낸 친구
40613	관형형(만날)	만날친구
40614	관형형(큰)	키큰야아
40615	관형형(크던)	*
40616	관형형(켰던)	*
40617	-겠-(않겠다)	안 먹게따
40618	-겠-(오겠다)	오게따

4.7. 부정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아직 안머거따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안조야요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양깨끗하다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장가지지 않았다)	장가를 양 가따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다/만나 안 보았다)	몬만내따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먹찌도 양코 잔다
40706-1	부정(먹도 않고)	*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 마신다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레내애라
40802	늘리다	늘까라 늘꾸우고
40803	말리다1	말류운다
40804	말리다2	말리고
40805	얼리다	얼꾸우고
40806	녹이다	노긴다
40807	신기다	싱께조라
40808	보이다	뵈아라
40809	알리다	알긴다
40810	입히다	아핀다
40811	얹히다	안추운다
40812	벗기다	뻬긴다
40813	웃기다	우긴다
40814	씩히다	서꾸운다
40815	숨기다	숨긴다 숨꾸운다
40816	끓기다	궁기인다
40817	깨우다	깨꾸운다
40818	돌우다	도두운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자파인다
40820	깎이다	까깎지오
40821	끼이다	짱께에따
40822	떼이다	따운다
40823	채이다	채이따
40824	닫히다	다께에따
40825	들리다	드끼인다
40826	엮히다	어파인다
40827	바뀌다	바께에따 바뀌인다
40828	썩히다	시파인다
40829	엎히다	언차인다
40830	찍히다	찌키인다
40831	놀리다	놀리인다
40832	실리다	실리인다
40833	끓기다	끓기인다
40834	끓히다	끓기인다

4.9. 보조용언

40901	싶대(싶은)	먹꼬접나?
40902	싶대(싶더니)	먹꼬접떠니
40903	보대(보세요)	이버블래?

40904 버리다(버렸네)
 40905 대다(댄다)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머거빠따
 울어 산는다
 바가 올랑갑따
 자능갑따
 추웅가베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9 곧장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시퀸 머거라
 마이 머그머
 너무 마시먼
 쪼매애틐만 마시도
 자주 매렵따
 빨리 완네 | 일찌기 완네
 얼른 머거라
 기어이 탈 나꾸나
 가끔 마신다 | 어째다가 마신다
 먼저 가라
 냉중에 각꼬
 꼭 채아나알따
 몽땅 다 마센따
 다 비일따
 함자 이따
 만날 비뿌다
 똑또기 바이라
 억짜로 차마따
 늘 자고
 절로 나온다
 자꾸 하꾸미
 설마 나를 소기전나
 까딱해시먼 칭길뻔해따
 가치 떠나따
 꺼떠다면 성을 낸다
 게에나 터집 잠는다
 빙걸로 와따
 아주 시다 | 참 세다
 고추 가따오라
 벌써 다선시 덴나 | 하마 버러 다선시가
 제일 발따
 가마 안자이서라
 미리 준비해라
 두간두간 온다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관용구(여보)	여보
41102	관용구(여보세요)	*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저나 노습니다 드러가이소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수고하이소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아이고 방가워라!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침 잡사아십니까?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 리면서 하는 말)	*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 서 하는 말))	*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예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니랴요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아무차도 안타
41112	관용구(내버려 뒤)	내애'바'도오라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쥐이나개애나
41114	속담(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빠진항아'리다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또'도'기 소'도'독댄다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때'앤 꿀뚜게 영'기나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위원장	이기갑 (목포대학교)
◆ 위 원	강영봉 (제주대학교)
◆ 위 원	곽충구 (서강대학교)
◆ 위 원	김무식 (경성대학교)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위 원	김정대 (경남대학교)
◆ 위 원	박경래 (세명대학교)
◆ 위 원	소강춘 (전주대학교)
◆ 위 원	최명옥 (전 서울대학교)
◆ 위 원	한영목 (충남대학교)
◆ 위 원	홍운표 (전 연세대학교)

